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學位論文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IEE)’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나바에즈(D. Narvaez)의 학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2017年 8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倫理教育科

吳 釉 珍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IEE)’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나바에츠(D. Narvaez)의 학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오유진

본 연구는 ‘통합적 도덕교육모형(IEE)’ 및 IEE의 신경생물학적 토대이론인 ‘삼층 윤리이론(TET)’을 학제적 접근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IEE의 효용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차후 도덕과의 학제적 교육모형 구상 시 벤치마킹의 모델로 참고토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아울러 IEE를 한국 도덕교육에 활용할 필요성 및 적용상 유의점을 파악하는 학문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학제적 교육 모형의 완성도를 평가할 다섯 가지 비판준거를 설정하는 작업을 통해 본 논문의 대전제를 마련한다. 이어 다양한 규범과학적·경험과학적 이론들 간 학제적 소통을 통해 IEE와 TET가 탄생되는 과정을 재구성한다. 최종적으로, 앞서 마련한 학제적 접근의 비판준거들을 바탕으로 IEE와 TET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비판적 고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IEE 및 TET 성립과정에 환원주의적 접근이 지양되는 지 살펴본다. Narvaez는 도덕심리학자로서, 도덕심리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과의 학제적 소통을 통해 지지근거를 확보하는 방식(귀추법적 논증)으로 자신의 이론을 보다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낸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도덕성에 대한 경험과학적 고찰’과 ‘자연화 된 윤리학’의 양방향에서의 학제적 대화를 시도하는 데, 이 과정에서 개별 학문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Narvaez가 환원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둘째, 배경학문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 측면을 검토한다. Narvaez는 IEE를 통해, 전통적 덕윤리를 도덕 스키마(moral schema)로의 만성적 접근을 통한 성숙한 도덕 기능(mature moral functioning) 발휘라는 심리학적 독법으로 풀어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성에 접근하는 학문적 고찰의 범위를 인지과학, 신경생물학, 뇌과학 등 경험과학의 제 분야로 확대시킨다. 이처럼 IEE 구성을 위해 규범과학·경험과학적 배경을 가진 다종다기(多種多岐)한 이론들이 상호 소통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서적 뿌리를 가진 세 가지 도덕적 동기를 제안하는 TET는 인지과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심리학 등의 학제적 교류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또한 ‘마음챙김

도덕’은 TET와 긍정심리학, 마음챙김 자각연구 등을 경험과학적 지지근거로 삼고, 여기에 기독교 윤리, 불교 윤리, 덕윤리 등 기존 도덕원리를 결합하여 새로운 규범적 지향으로서 제안되었다. 요컨대 동서고금의 다양한 규범과학·경험과학적 토대 이론들이 상호 대화하는 가운데 IEE, TET 그리고 ‘마음챙김 도덕’이 탄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승법적(乘法的) 접근 여부를 살펴본다. Narvaez는 학제 간 핵심개념 도출 및 통합이론 구축과정에서 이른바 ‘승법적 접근’을 취한다. 그 근거로 윤리적 전문성 발휘를 위한 전뇌(全腦) 활용 및 추론과 직관의 조화를 추구하는 IEE와 TET의 핵심개념과 구성요소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고, 이에 하나의 요소는 다른 구성 요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됨을 논증한다.

넷째, 논리학적 타당성과 오류여부를 검토한다. 우선 하위이론의 타당성에 있어, TET의 핵심적 근거로 차용된 ‘삼층 두뇌이론’이 현재 과학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선행 논문의 지적을 언급한다. 한편 Narvaez가 직관과 추론, 인격윤리와 규칙윤리 등 도덕교육 관련 대표쟁점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점과 관련, 해당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Narvaez는 도덕 스키마에의 지속적 접근 및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해 한 개인은 윤리적 전문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는 곧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통합이론 형성과정에서 그녀는 타당성 있는 변증법적 추론의 구성요건인 ‘진리능력 있는 작동구조’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어 형식논리학적 오류와 관련, ‘마음챙김 도덕’이 자연주의 오류를 범했는가의 여부를 검토한다. 마음챙김 도덕은 존재에서 당위로의 직접적 도출을 의미하는 ‘연역적 논증’이 아닌, 가설적인 규범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당한 지지근거를 확보하는 ‘귀추법적 논증’을 활용하고 있기에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덕윤리와 IEE 핵심개념 간 호환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자의 첫 번째 결론은 Narvaez가 Plato의 테크네(techne)를 IEE의 ‘윤리적 기술(ethical skills)’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은 유비추리의 오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양자는 단순히 행위 실천을 통해 점점 숙련된 제작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표면적 유사성만을 갖고 있을 뿐, ‘심신 일원론’과 ‘심신 이원론’이라는 핵심적 전제의 차이점으로 인해 그 작동기제와 추구점이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하지만 그녀가 Aristoteles의 테크네(techne) 및 프로네시스(phronesis)를 IEE의 ‘윤리적 기술’ 및 ‘도덕적 지혜(moral wisdom)’에 연동시킨 것은 유비적 개연성이 높다. 물론 Aristoteles가 도덕철학자로서 규범적 차원의 입론을 전개하는 반면 Narvaez는 도덕심리학자로서 사회과학적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상이한 학문적 방법론을 채택한 데서 기인한 것일 뿐, 양자 모두 공동체 내에서의 덕과 인격의 소유라는 목표를 향해 현실주의적이고 일원론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넘어설 수 없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여지는 적다.

마지막으로 IEE의 도덕교육적 효과성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Narvaez가 체화론을 IEE의 기축이론으로 활용한 점은 지행합일을 추구하는 도덕교육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매우 큰 함의를 지닌다. 여기서 핵심은 ‘윤리적 기술’의 ‘체화된 인지’이며, 이로써 전체 ‘두뇌-마음-신체 시스템’을 관여시키는 맥락화 된 이해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덕 교육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IEE를 기존의 다양한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과 비교한다. Lickona의 통합적 인격교육, Berkowitz의 도덕해부학, Damon의 도덕적 자아이론, Blasi의 도덕적 정체성 이론, Rest의 4-구성요소 모형 등 기존의 대표적 통합적 도덕교육과 IEE를 비교 고찰한 결과, IEE는 기존의 통합적 도덕교육이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충분히 살리면서 단점을 상당부분 극복해 내었다.

요컨대, Plato의 테크네를 윤리적 기술과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한 부분(유비추리의 오류)과 TET 토대이론으로서 ‘삼층두뇌이론’의 과학적 타당성 결여 그리고 도덕성에 관한 신경과학연구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 인지과학의 체화론이 비교적 신생이론이라는 점 등을 학제적 이론으로서 IEE와 TET가 가진 대표적 취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이 이론은 보다 엄밀하고 정교화 된 형태로의 체계화 및 수정을 필요로 한다. 결국 IEE는 기존의 통합적 도덕교육이론에 대해 ‘절대 우위(Absolute advantage)’가 아닌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있는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하향식 이론(top-down)으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상향식 이론(bottom-up)의 특징을 갖는 IEE가 실제 한국 학생들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성공적 처방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한국의 연구자와 교육자들이 IEE의 본의를 잘 이해하여 우리 공동체의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본의에 부합되게 적용하려는 교육적 열정과 노력여부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이에 IEE의 도덕 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이를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육 실험 연구가 요청된다.

**주요어:** 도덕 교육, IEE, TET, 학제적 접근, 윤리적 기술, 체화된 마음,  
윤리적 전문성

**학번:** 2013-21397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방법 및 내용 .....	5
II. 학제적 접근의 의미와 비판 준거 설정 .....	9
1. 학제적 접근의 의미 및 필요성 .....	9
2. 도덕교육 연구에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 및 현황 .....	12
1) 도덕교육 연구에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 .....	12
2) 도덕과 교육과정의 학제적 접근 역사 및 현황 .....	15
3. 도덕교육 연구의 학제적 접근 비판준거 설정 .....	23
1) 환원주의적 접근 지양 .....	23
2) 배경학문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 .....	26
3) 승법적 접근을 통한 통합이론 구축 .....	28
4) 논리학적 타당성과 오류여부 검토 .....	29
5) 도덕 교육적 효과 .....	31
III. 학제적 연구 IEE와 TET의 이론적 배경 .....	33
1. 심리학적 배경 .....	33
1) 4-구성요소 모형 .....	33
2) 사회인지 이론 .....	37
3) 전문성 연구 .....	41
4) 긍정심리학 .....	44
5) 심리이론에 대한 Narvaez의 통합적 관점 .....	49
2. 인지과학적 배경 .....	65
1) 체화된 인지와 윤리적 노하우 .....	65
2) 체화론과 맹자 유학 사상 .....	75
3) 체화론과 대승불교 사상 .....	77
4) 체화론에 대한 Narvaez의 통합적 관점 .....	83
3. 신경과학 및 신경생물학적 배경 .....	91

1) 도덕성에 대한 기존 신경과학 연구 .....	91
2) Moll 등의 도덕인지 신경과학 .....	104
3) 신경과학 이론에 대한 Narvaez의 통합적 관점 .....	110
4. 윤리학적 배경 .....	128
1) 덕윤리 Plato의 ‘테크네’ .....	128
2) 덕윤리 Aristoteles의 ‘프로네시스’ .....	132
3) 윤리이론에 대한 Narvaez의 통합적 관점 .....	137

#### IV. 학제적 연구모델: TET 및 IEE ..... 144

1. 신경생물학적 토대이론: 삼층윤리이론(TET) .....	144
1) TET의 특징 .....	145
2) TET와 다양한 이론들의 연관성 .....	154
3) 규범적 지향으로서 ‘마음챙김 도덕’ .....	160
2.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IEE) .....	164
1) 적응형 윤리적 전문성 .....	164
2)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 .....	169
3) IEE 실천적 적용 5단계 .....	179

#### V. 학제적 관점에서 TET 및 IEE 비판적 고찰 ..... 191

1. 환원주의적 접근 지양 .....	191
1) 도덕성에 대한 경험과학적 고찰: IEE .....	192
2) 자연화 된 윤리학: 마음챙김 도덕 .....	194
2. 학문적 배경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 .....	199
1) IEE 토대이론의 다양성 .....	199
2) TET 토대이론의 다양성 .....	203
3. 승법적 접근을 통한 통합이론 구축 .....	205
1) 덕윤리와 IEE .....	206
2) 직관과 추론 및 전뇌의 조화 .....	208
4. 논리학적 타당성과 오류여부 검토 .....	211
1) 하위이론의 타당성 검토 .....	211
2) 변증법적 통합의 논리학적 타당성 검토 .....	214
3) 형식논리학적 오류여부 검토 .....	219
5. 도덕 교육적 효과 .....	235

1) 윤리적 기술의 체화와 지행합일 .....	235
2) 기존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과의 비교 .....	238
 VI. 결론 .....	243
 참고문헌 .....	250
 Abstract .....	256



## 표 목 차

<표-1>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학제적 접근의 역사 및 현황 .....	17
<표-2> 도덕과 학제적 접근을 위한 배경 학문의 분류 .....	17
<표-3> 도덕인지신경과학에 관한 다양한 프레임워크의 특성 및 한계	104
<표-4> 삼층 윤리의 비교 .....	150
<표-5> 마음챙김을 위한 기술과 지식 .....	162
<표-6> 네 가지 과정, 기술, 하위 기술 .....	169
<표-7> “best practice”를 위한 가르침 .....	178
<표-8> 개별학생과의 배려관계 확립, ‘배려는 어떤 모습인가?’	180
<표-9> 학급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주의할 점 .....	183
<표-10> 윤리적 행동에 요구되는 4 구성요소에서의 기술들	184
<표-11> 전문가와 함께하는 훈련 교육의 4 단계 .....	185
<표-12> 자기 조절의 4 국면 (4 phases of self regulation) .....	187
<표-13> 공동체의 자산 구축을 위한 교사의 도움 .....	188
<표-14> ‘자연화 된 윤리학’과 ‘마음챙김 도덕’ .....	196
<표-15> IEE 학문적 배경 및 토대 이론의 다양성 .....	201
<표-16> ‘TET-마음챙김 도덕’ 토대이론의 다양성 .....	202
<표-17> 승법적 통합: 추론과 직관 및 전뇌의 조화 .....	207
<표-18> ‘TET-마음챙김 도덕’에 나타난 ‘윤리의 자연화’ .....	222
<표-19> Aristoteles덕윤리와 IEE 주요개념 간 유비논증 분석	229
<표-20> 기존 통합적 도덕교육 이론의 기여와 한계 .....	239

## 그 립 목 차

<그림-1> 도덕적 판단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Haidt, 2001) ..	96
<그림-2> IEE 실천적 적용의 5단계 .....	180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도덕성의 본질에 대한 동서고금의 철학적 탐구와 종교적 통찰은 존재와 인식, 실천에 대한 관점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통적으로 ‘도덕성’이란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타인, 공동체, 모든 존재들과 조화롭게 공존·공생하는 삶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sup>1)</sup>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도덕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여 도덕적 인격의 힘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해 내도록 하는 데 있다할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하는 도덕과 교육은 이른바, 강력한 ‘난제(難題)’의 성격을 가진다. 게다가 ‘앎’대로 ‘실천’하고 ‘앎’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문제, 이른바 ‘지행일치’의 문제는 도덕교육이 가진 난제로서의 성격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 따라서 지식 전달, 사고력 배양 중심의 여타 교과와 달리, 도덕과는 본질적으로 실천 지향적이며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며 정교하게 설계된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적 풍토는 학생들의 자기중심성을 더욱 심화시키며,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으로 무장한 타산적 합리성을 갖추었지만, 도덕적 행위 실천에는 한없이 무력하기만 한 인간상을 양산해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도덕교육 본연의 난제로서의 성격에 현대 사회의 비인간적 풍토가 더해져 도덕교육의 궁극적 목적 달성은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제 중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 과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 실천 노력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는가? 웬만해서는 도저히 풀기 어려운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결코 단일한 학문에 의존하여 도덕과 교육에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집단지성에 더해 집단지혜까지 온 에너지를 집결하여 그 힘이 총체적으로 발휘될 때만 그나마 난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학제적 접근’은 도덕과 관련 연구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맞추어 도덕과는 지난 6차, 7차 교육과정시기에 도덕과의 학제적 성격을 명시하였다.<sup>2)</sup> 하지만 이시기에는 하위 배경학문들의 이론 및 내용

---

1) 박찬구(2006),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서울: 서광사, p.310, 정창우(2008), 「도덕과 교육에서 시민교육 영역의 교육내용과 지도 방법」, 『도덕윤리과 교육』, 제26호, p.4 참고 재인용

2) “도덕과의 학문적 배경은, 바람직한 삶을 위해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추구하는 규범 과

요소들을 다소 기계적으로 나열하고 교육방법 상 교육심리학과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정도에 그침으로서 본의(本意)에 부합하는 학제적 접근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이후 도덕과는 정체성과 정당성의 위기 상황에서 교과존폐 논쟁과 시수축소 논의에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난국 타개를 위한 급선무로서 교과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고 하여 윤리학을 중심 배경학문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학제적 접근’이라는 용어를 생략하는 등 종래의 학제적 접근의 방향성에서 다소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연 이러한 선회 혹은 우회 전략은 앞서 제시한 도덕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방향설정으로 볼 수 있을까?

2007, 2009 개정교육과정은 윤리학적 탐구 및 성찰 활동과 관련이 깊은 서양윤리학적 접근방법인 서양 윤리(덕윤리, 칸트윤리, 공리주의 등), 정치 철학(사회계약론, 정의론 등) 및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서구의 이성 중시 윤리학과 친화성이 있는 Kohlberg의 도덕성발달을 위한 도덕적 추론 접근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레 서양철학이 강조하는 이성(추론)위주의 인지적 접근(윤리적 탐구와 성찰)을 중심축에 둠으로서 교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그러나 한계 또한 엄존한다.

첫째, 서양윤리와 마찬가지로 윤리학적 접근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동양윤리의 경우 심신일원론의 관점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수행해가는 동양적 수양의 전통은 삶과 삶을 분리불가한 것으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도덕성의 지행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 역할을 해 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동양윤리는 서구적 철학·사상·윤리와 전혀 다른 배경에서 탄생한 것으로, 이에 적합한 교육방법론 역시 서양윤리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sup>3)</sup> 현행 도덕교육과정과 같이 동양윤리적 내용요소가 서구적 학문 방법론에 적합한 추론, 판단 등을 중시하는 윤리학적 탐구 등 인지적 접근 방법론에 일방적으로 접목될 경우 일종의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하여 동양윤리의 본질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로 경험 과학적 성격을 지닌 비교적 최신 학문 분야들(최신 도덕심리학, 인지과학, 뇌과학, 신경생물학, 사회생물학, 신경윤리학 등)이 제 역할을 해내기 어

---

학적 관점 및 사회 질서 유지와 국가·민족의 발전에 공헌하는 국민 의식 형성 문제를 탐구하는 사회 과학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부(1992), 『도덕과 교육과정』, 고시 제 1992-11호.

3) 동양 윤리적 가치와 덕목, 윤리 사상 등의 도덕 교육 내용요소는 심신일원론의 관점에서 수양, 수행을 바탕으로 도덕적 삶과 도덕적 삶이 분리불가의 형태로 체화되도록 하는 교육 방법과 함께 제시되는 것이 합당하다. 본 논문의 연구주제인 Narvaez의 통합적 도덕교육모형(IEE)은 심신일원론의 관점에서 도덕적 추론과 직관의 반성적 균형을 모색하며, 윤리적 기술을 체화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양윤리의 수행론 전통을 현대에 되살릴 수 있는 유용한 도덕교육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학문연구에 있어 타당하게 설계된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된 실증적 연구 결과의 경우, 그러한 이론적 이해를 일종의 ‘기술적 생산품’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도의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 도덕 교육 영역에 있어 경험 과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심리학적 사실에 근거한 윤리학’을 추구할 경우의 장점은 실용적 측면에서 도덕 교육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덕성의 지행합일 문제 해결 가능성 제고)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접목된 학제적 연구는 도덕 교육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다는 고정된 틀에 얽매일 경우 이러한 경험 과학적 최신이론들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도덕과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윤리학적 접근’ 중시의 방향설정은 나름의 유의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도덕적 행위를 실천 하도록 하는 도덕과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힘주어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 정체성 강화와 정당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최선책’은 강구될 수 없을까? 본 연구자는 윤리·도덕과 교육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동서고금의 다양한 배경 학문 간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도덕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여 기계적, 병렬적, 물리적 결합을 넘어선 승법적 통합을 꾀하는, 즉 본의에 부합하는 학제적 접근이 시도되고 교과에 반영될 때 교과 정당성 및 정체성 모두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보다 지속적으로 체계적이고 완결성 있는 학제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한국 도덕교과만의 고유한 특색을 갖춘 학제적 도덕교육모델을 마련하려는 학계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교육의 근본적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을 체계화하기 위해 도덕심리학을 중심으로 연관되는 다양한 학문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학제적 소통과 교류를 함으로써 통합적 도덕교육모형을 체계화하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해온 학자가 바로 본 연구의 중심 탐구 인물인 다르시아 나바에츠(D. Narvaez)이다. 그리고 그녀가 제시하는 도덕교육에의 해법이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Model, 이하 약칭 IEE)’이다. 따라서 도덕성 향상과 관련된 동서고금의 다양한 학문의 성과를 폭넓고 깊이 있게 활용한 완성도 높은 학제적 연구 모델인 IEE가 탄생하기까지 학제적 소통과 변증법적 통합의 과정을 재구성하여 살펴보는 연구는 앞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학제적 도덕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난제 극복에 임하려는 도덕 교육관련 연구자들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학제적 연구의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Narvaez의 도덕교육이론을 ‘학제적 도덕교육 모델’로 규정하고, 그 타당성과 완성도를 평가할 나름의 비판 준거를 설정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원주의적 접근 지양, 배경학문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 승법적(乘法的) 접근을 통한 통합이론 구축, 논리학적 타당

성과 오류여부 검토, 도덕 교육적 효과 검토 등이다.

이어 학제적 연구의 관점에서 IEE 및 TET의 성립과정을 재구성한 후, 상기의 비판 준거를 바탕으로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첫째, 도덕 교육의 학제적 접근을 모색하려는 연구자들에게 벤치마킹의 모델 중 하나로 IEE와 TET의 성립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IEE를 실제 우리 도덕교육에 적용하려는 교육자들에게 IEE의 필요성 및 적용상의 유의점 등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를 통해 Narvaez의 통합적 도덕교육모형(IEE)을 학제적 연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학제적 도덕교육 모형 구상 시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EE를 우리 도덕과 교육과정에 적용할 때의 효용과 가치 및 한계를 균형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학제적 접근의 관점에서 ‘통합적 도덕교육모형(IEE)’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완성도와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로써 차후에 도덕과 학문공동체가 보다 완성도 높은 학제적 도덕교육 모델을 구축할 때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참고토록 하는 데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작업은 또한 IEE를 실제 한국 도덕과 교육에 적용하고자 할 때의 효용과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며,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 한 형태로 수정·적용하기 위한 학문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에 제시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우선 도덕과 교육에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할 다양한 논거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제적 접근의 의미 및 도덕 과에서 이루어져 온 학제적 접근의 역사와 현황을 다룬 연구문헌과 선행 연구논문들을 검토하는 ‘문헌연구’ 방법<sup>4)</sup>을 채택한다. 한편 학제적 연구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과 학제적 연구모형의 완결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비판 준거를 설정한다. 학제적 접근의 타당성을 평가할 비판준거 설정은 앞으로 도덕교과에서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 및 완성도 있는 통합적 도덕교육 모델의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는 본 논문이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IEE와 TET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준거가 되기에 매우 필수적이고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III장에서는 Narvaez가 다양한 배경 학문으로부터 출현한 주요 이론들을 학제적으로 소통해내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본다. 이를 위해 Narvaez의 연구저작물들을 위시하여 그녀가 교류 대상으로 삼은 다양한 이론들에 관한 연구 저작물(문헌 및 논문)과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기초자료로 삼아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Narvaez는 도덕심리학자로서 도덕발달 및 도덕교육에 대한 Kohlberg적 전통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최근 뇌과학과 신경생물학, 진화론, 심리학, 인지과학 등으로부터 산출된 도덕성에 관한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제적인 연구를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sup>5)</sup> 연구자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Narvaez의 학제적 접근의 배경 학문을 크게 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윤리학 등으로 크게 분류한 후, Narvaez가 통합적 도덕교육모형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주된 근거를 제공한 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된 항목을 제시하였다.

4) 본 논문에서 주로 활용하는 연구방법론으로서 ‘문헌 연구’는 인문학적 견지에서의 철학적 해석학, 즉 문헌비판학적 방법론을 의미함을 주지해둔다. 이는 구체적으로 나바에즈의 연구저작물과 그녀가 주요 학문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다양한 연구 문헌들(text)의 내용을 연구자 나름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정창우(2012), 「Narvaez(D.Narvaez) 도덕발달 이론의 특성과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 윤리과교육』, 제37호. p.329

첫 번째로 심리학적 배경에서 레스트(J. Rest)의 ‘도덕성의 4-구성요소 모형(4component model)’, 바그(J. Bargh) 등의 사회 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그리고 전문성(expertise)의 관점에서 사회 인지이론을 심화시킨 드레이퍼스(H.L. Dreyfus, S.E. Dreyfus), 호거스(R. Hogarth), 스텐버그(R. Sternberg) 등의 연구 및 셀리그먼(M. Seligman)의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등에 나타난 다양한 논의들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Narvaez가 IEE 및 TET를 구상함에 있어 다양한 심리학적 배경 이론들을 어떻게 소통하여 통합해내고 활용하는 지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살펴 볼 것이다.

두 번째로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 획득의 골간을 이루는 개념인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 혹은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의 관점을 수혈해준 프란시스코 바렐라(F. Varela)의 인지과학 이론 및 윤리이론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Narvaez의 도덕교육모델 구상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다수 제시되어 있는 Varela의 인지과학 이론 및 그에 바탕 한 윤리이론과 관련하여, 선행 논문들은 그 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 부분에 대해 방점을 찍어, 보다 비중 있게 다룰 것이다. Varela는 ‘체화된 마음’과 ‘윤리적 노하우(ethical know-how)’라는 핵심개념을 바탕으로 심신일원론에 입각한 윤리적 행위의 숙달을 강조한다. 본 연구자는 그가 불교사상, 맹자의 유학사상 등을 근거로 체화된 마음을 통해 진정한 윤리적 삶을 설명하는 부분을 포착해 이 부분에 대해 비중 있게 논의할 것이다.<sup>6)</sup> 마찬가지로 관련 연구문헌과 연구논문들을 검토하고 해석하며 주요 개념을 분석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며, Narvaez가 IEE를 구상해내는 데 있어 Varela의 인지과학, 윤리학적 관점을 어떻게 자신의 도덕심리학적 관점과 소통하여 통합해내고 활용하는 지 재조명해 볼 것이다.

세 번째로 fMRI 등 최신장비의 발달로 최근 획기적 학문성과를 산출해내고 있는 신경과학, 뇌과학, 신경생물학적 배경에서 Narvaez가 학제적 접근을 시도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그녀가 비판적으로 검토한 신경생물학적 이론인 다마시오(A. Damasio)의 ‘신체표지가설’, Greene(J. D. Green)의 ‘이중과정 모형’과 하이트(J.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의 이론적 핵심을 간략히 살펴본 후, 도덕적 직관을 중시하는 Haidt와 달리 Narvaez가 도덕적 직관과 도덕적 추론을 동시에 중시하는 변증법적 통합의 논리를 전개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되짚어볼 것이다. 또한 IEE의 토대이론인 삼층윤리이론(약칭 TET)의 직접적 배경이론이 된 매클린(P.D. MacLean)의 ‘삼층 두뇌이론’ 및 팬크셉(J. Panksepp)의 ‘정서 신경과학이론’ 및 몰 등(G. Moll et al.)의 ‘도덕인지 신경과학이론’의 기본적 입장을 고찰할 것이다. 이

6) Narvaez가 Varela의 인지과학적·윤리적 입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차용하며 참고했다는 점은 그녀의 도덕교육모형에 Varela의 윤리학적 가치 지향과 과학 이론이 기본 전제 조건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철학적, 윤리학적 지향은 도덕교육모형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로 볼 수 있기에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를 토대로 Narvaez가 TET와 IEE를 구상해내는 데 있어 상기에 제시된 일련의 신경과학, 신경생물학적 학문적 성과들을 어떻게 학제적인 관점에서 교류하고 변증법적으로 통합해내거나 과학적 지지근거로 활용하는 지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학적 배경은 Narvaez의 도덕 교육 이론 전반이 변증법적 통합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동서고금의 윤리학적 배경을 모두 상세히 다루는 것은 다소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윤리적 전문성 및 윤리적 기술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윤리학의 세부내용 측면만 한정적으로 다루기로 한다.<sup>7)</sup> 따라서 윤리학적 배경 부분에는 IEE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윤리적 기술’과 ‘윤리적 노하우’와 관련하여 Narvaez가 자신의 이론을 지지할 철학적 논거로 활용한 Plato의 ‘테크네(techne)’와 Aristoteles의 ‘실천적 지혜(phronesis)’개념을 관련 국내 선행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Narvaez가 규칙윤리와 인격윤리의 조화 및 변증법적 통합의 결과로 IEE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IV장을 통해 다종다기한 학문적 배경 학제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한 연구 결과물인 IEE와 TET의 의미 및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Narvaez가 하위 학문적 배경들과 접촉하여 공통의 담론구조를 형성하고 핵심적 공유개념과 교집합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여, 학제적 연구모델의 관점에서 그녀의 이론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우선 Narvaez가 신경생물학적 토대이론으로 구축한 삼층윤리이론(TET) 및 이를 토대로 최고의 규범적 지향으로 제안한 ‘마음챙김 도덕’에 대해 다룬다. 후속하여 Narvaez가 제시하는 도덕교육적 처방에 해당하는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IEE)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과 실천적 적용을 위한 5단계를 다루는 Narvaez의 다양한 논문들의 요지를 소개한다. Narvaez가 설명하는 IEE의 교육적 실재를 상세히 살펴보는 일은 IEE를 실제 도덕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선결과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 과정은 Narvaez 도덕교육 모형의 심도 있는 이해와 해석 및 적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연구자는 V장을 통해 Narvaez의 IEE를 학제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데 지면을 할애한다. 앞서 연구자가 설정한 ‘도덕 교육 연구에서 학제적 접근의 다섯 가지 비판 근거’를 바탕으로 IEE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첫째, Narvaez의 IEE가 환원주의적 접근을 취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둘째, 배경 학문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 측면을 검토한다. 셋째, 배경이론의 물리적·기계적 결

7) 앞서 제시한 도덕심리학적 배경이론에서 언급했던 Rest의 4구성요소 모델이 도덕심리학 영역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의 윤리학적 입장을 포괄하는 통합적 도덕 교육 모델이고, Narvaez가 IEE 모형구성에 4구성요소 모형을 비교적 원형 그대로 차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윤리학적 배경 부분에서 IEE와 연관될 수 있는 모든 윤리학적 이론들을 여기서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도덕적 전문성 모형의 직접적 윤리학적 배경이 될 수 있는 체화적 접근과 관련한 윤리사상들은 앞서 인지과학적 배경에서 유교 및 불교 등을 이미 다루었기에 이 부분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합이 아닌, 승법적 접근을 통한 통합이론을 구축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넷째, IEE 및 ‘TET-마음챙김 도덕’의 논리학적 타당성과 오류여부를 검토한다. 다섯째, IEE가 도덕교육의 근본적 문제이자 난제인 지행합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존의 통합적 도덕교육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도덕교육적 효과성의 측면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 II. 학제적 접근의 의미와 비판 준거 설정

이 장에서는 학제적 연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도덕과 교육에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논거들을 제시한다. 아울러 그간 도덕 과에서 이루어져 온 학제적 접근의 역사와 현황을 다루고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나름대로 학제적 연구를 통한 도덕교육 모형 구상 시 그 완결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일련의 비판준거들을 설정할 것이다.

### 1. 학제적 접근의 의미 및 필요성

연구자는 본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인 Narvaez의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Model, 이하 약칭 IEE)’을 학제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학제적 접근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 나름대로 설정한 준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 전개의 흐름상 우선 ‘학제적 접근’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도덕과 교육에서의 학제적 접근모델의 완성도와 타당도를 점검할 일련의 비판준거를 마련하는 일은 IEE를 학제적 연구로 재구성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어 삼단 논법상의 ‘대전제’를 마련하는 일에 비견될 수 있다.

‘학제적 접근(學際的 接近, interdisciplinary approach)’이란 공통의 연구대상에 대해 다수의 이질적인 접근법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대표하는 기존 방법의 경계선을 없애고 관련된 여러 학문의 협력에 의해 접근하는 연구방법을 의미한다.<sup>8)</sup> 즉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기 다른 학문의 공통점을 관련시켜서 통합하는 연구방법이 바로 학제적 연구방법이다. 각 학문 간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서 통합할 수는 없으나 인간행동을 연구함에 공통점을 도출함으로써 각각의 학문을 연구·통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융합, 복합, 협동을 비롯해 학문들 사이의 대화 및 교류활동 일반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sup>9)</sup>

그렇다면 이러한 학제적 접근을 취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 오늘날 기존의 개별 학문 영역만의 접근으로서의 복잡한 연구대상이 가진 성격과 속성을 충분히 해명할 수 없고 나아가서 정책적 대응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제적 연구는 바로 이러한 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학문분야의 이론과 기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다면적 혹은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sup>10)</sup> 즉

8) 신현기 외(2012), 『경찰학 사전』, 파주: 법문사, p.459

9) 이남인(2015), 『통섭을 넘어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9

10) 이철수 외(2009), 『사회복지학 사전』, 서울: Blue Fish, p.423

학제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상호 상이한 학문의 공통점을 찾아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고, 학문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응용 범위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제적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남인의 통찰에 주목해 볼 만하다. 그는 일차적으로 모든 학문이 호기심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의 소산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Plato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 호기심을 올바르게 충족시켜 주는 모든 학문 활동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 준다고 말한다. Plato에 의하면 동굴을 벗어나 동굴 밖의 세계에서 사태의 진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동굴 밖의 세계에서 전개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학문이 주는 즐거움이 학문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일 수 없으며 따라서 학문은 학문의 세계에 안주하면서 복잡다단한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누군가는 동굴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굴 밖의 세계를 경험한 철인들이 순변을 정해 동굴의 세계로 내려가야 한다고 Plato는 주장한다. 이렇듯 동굴의 비유는 학문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사회에 대한 봉사’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학문 활동은 복잡다단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인간의 실존 행위 중 하나이다.

같은 맥락에서 데카르트 역시 학문 활동을 복잡다단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실존적 행위로 간주한다. 그는 『철학원리』 서문에서 철학의 나무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서 학문 전체를 하나의 나무에 비유하는데, 이러한 그의 구상은 학문의 존재 이유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다는 그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1)</sup> 뒤이어 이남인은 철학을 비롯한 현대의 제반 학문이 인간의 삶을 위해 지녀 왔던 본래적인 가치와 사명을 망각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의 하나로 현대 학문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각자가 자신이 처 놓은 칸막이 속에 머물면서 파편화되고 다른 학문 및 현실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철학의 나무의 예가 보여 주듯이 모든 학문은 다른 학문들과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학문이 다른 학문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철학의 나무 전체는 현실과 소통하면서 인간의 삶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현대 학문이 전문화됨에 따라 각자 자신이 처 놓은 칸막이 속에 머물면서 결국 현실과의 소통에 실패함으로써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학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 중의 하나는 다양한 유형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학문 사이에 놓인 칸막이를 걷어 내고 다양한 학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

11) 이남인, op.cit., pp.241~242

다. 여기에 학제적 접근 및 학제적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인격을 갖추도록 이끄는 도덕과 교육 및 도덕 교육연구에서 학제적 접근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가? 2절에서는 도덕교육 연구에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 및 현황에 대해 다루어 본다.

## 2. 도덕교육 연구에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 및 현황

인간 삶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 중, 학생들의 도덕성 향상과 관련한 도덕과 교육 관련 연구에서 학제적 접근은 왜 필요한가? 본 절에서는 도덕 교육 연구에서 학제적 접근이 당위적으로 요청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연구자의 소견을 제시해 본다. 뒤이어 한국 도덕과 교육의 역사에서 학제적 접근은 어떤 형태와 특징을 갖고 이루어져 왔는지 역사와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1) 도덕교육 연구에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

도덕성의 본질에 대한 동서고금의 철학적 탐구와 종교적 통찰은 존재와 인식, 실천에 대한 관점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통적으로 ‘도덕성’이란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타인, 공동체, 모든 존재들과 조화롭게 공존·공생하는 삶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도덕성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윤리와 교육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함수를 연구자 나름대로 제시해보자면, 학생들이 내면의 안정된 ‘도덕적 인격’의 힘을 바탕으로 실제 삶의 공동체 관계성의 맥락 하에서 어떠한 형태의 비우호적인 상황의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탈 자기중심적인 도덕적 ‘행위’를 ‘실천’해 내도록 하는

---

12) 대표적으로 석가의 ‘자비’, 예수의 사랑의 실천을 위한 ‘황금률(golden rule)’, 공자의 인(仁)의 실천을 위한 충서(忠恕), 칸트의 ‘정언명법’ 등은 그 철학적 바탕의 질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도덕성의 본질이자 핵심으로서 인간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도덕적 행위에 있어 자신과 자신 이외의 존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탈 자기중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석가는 모든 존재가 상의상관적 연기(緣起)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해 가므로 인간이 무아(無我), 무상(無常)을 자각하여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존재에 대해 자비(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함)의 윤리를 몸소 실천할 것을 말한다. 공자는 인간다움의 본질인 인(仁)과 그것의 실천을 위해 충서(忠恕)를 강조하여 ‘기소불욕 물시어인(其所不欲 勿施於人-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추기급인(推己及人), 혈구지도(絜矩之道)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는 산상수훈(山上垂訓)에 제시된 황금률(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신으로부터의 율법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칸트는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율적 입법을 통해 설정한 도덕 법칙에 대해 자신의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스스로 따를 때 진정한 의미의 도덕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도덕적 명령은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 명령(의무)으로서 정언명령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정언명령은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네가 원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보편주의 정칙과 모든 준칙은 이성적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삼아야 한다는 인격주의 정칙 등으로 구체화된다.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존재의 자기중심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다는 것이다. 개체와 자손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생리적 욕구 차원의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만족을 위한 욕구에 탐착(貪着)한다.<sup>13)</sup>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하는 도덕교육은 이른바 강력한 ‘난제(難題)’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듯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야 하는 것에 더해 도덕 교육은 타자지향적인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앎’대로 ‘실천’하고 ‘앎’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문제, 이른바 ‘지행일치’의 문제는 도덕교육이 가진 난제로서의 성격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 여타의 인지적 지식 중심의 교과와 본질적으로 달리, 도덕과는 본질적으로 실천지향적이며 여기에 보다 특수하고 전문적이며 정교하게 설계된 교육적 접근이 요구되는 측면이 농후하다.

게다가 현대사회의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아와 성숙에 더욱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개인의 자리(自利)추구적 속성을 기본적 인간상으로 상정하는 자본주의가 사회의 기본 동력으로 작동하는 시대에, 학생들은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 때때로 인간마저 수단화하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사회 풍토 속에서 자라난다. 소비가 조장되며 소유가 권장된다.<sup>14)</sup> 또한 모든 것을 자본의 논리로 재단하여, 지적 호기심 충족과 진리 추구가 주는 고유한 만족감의 원천이 되어야 할 학습마저 경쟁구도 속에서, 기쁨 보다는 고통에 가깝게 체험한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높은 교육열까지 더해지다 보니 학생들은 자신을 스펙으로 무장시키고 고도의 학습 능력을 갖춘 상품으로 만들어 입시시장에 내어놓아야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자본주의적 교육 시스템의 생산품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무한 경쟁구도가 가져오는 소외와 고립, 단절과 분열은 결국 공동체의 해체를 야기하고 최후의 보루인 1차 집단으로서 가정의 고유 기능이 약해지고 가족 공동체마저 해체되어가는 조짐이 엿보인다. 이렇듯 자본주의적 풍토는 학생들의 자기중심성을 더욱 심화시키며,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으로 무장한 합리성을 갖춘 인간이지만 도덕적 행위 실천에는 한없이 무력하기만 한 인간상을 양산해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도덕교육 본연의 난제로서의 성격에 현대 사회의 비인간적 풍토가 더해져 도덕교육의 목적 달성은 더욱 요원해지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도덕과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연구자와 교육자의 입장에

---

13) 석가는 『轉法輪經』에서 인간의 욕구가 가진 이러한 속성을 갈애(渴愛)라고 이름하며 “인간의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고,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고 경계했다.

14) Narvaez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풍토가 이른바 ‘진화적 발달 적소(EEA)’에 일치하지 않는 환경이라고 하여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 연구자 자신을 포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조화의 공존의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한 도덕적 인격을 갖추 수 있도록 어떤 방향성을 갖고 교육 연구 및 실천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인가? 지행합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삶과 도덕적 삶이 괴리되지 않도록, 도덕 과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 실천 노력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는가?

웬만해서는 도저히 풀기 어려운 난제의 해결을 위해 단일한 학문에 의존하여 도덕과 교육에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집단지성’에 더해 ‘집단지혜’까지 온 에너지를 집결하여 총체적으로 발휘될 때만 그나마 난제의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몸 전체의 기능이 모두 떨어져버린, 원인미상의 중병에 걸린 환자를 어떤 한 분과의 전문의 혼자서 (아무리 그가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만족스럽게 치료해 내기는 무척 어렵다. 동서양방의 다양한 분과로부터의 의료진의 개별적 진단을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과 토론을 통한 협진과 적재적소의 적절한 치료와 처방이 이루어질 때만이 비로소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덕과 교육을 담당하는 연구자는 인류가 이루어 낸 동서고금의 지식, 지혜, 통찰의 총화를 적절히 잘 녹여내어 그야말로 집단지성과 집단지혜를 모두 동원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연구 활동에 임해야 함이 당위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이른바 ‘학제적 접근’은 도덕과 관련 연구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덕교육에 있어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과 관련한 강두호(2012)의 견해도 주목할 만하다. 그에 의하면 학제적이라는 말은 이제 기존의 전공영역에서 볼 수 있는바 단위 학문들이 단순히 모여 있는 기계적인 결합을 넘어서서 어떤 공분모-도덕 교과와 경우 공동선(common good)-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학제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 도덕 교과가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것은 다른 아닌 도덕 교과와 본질 자체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윤리·도덕의 주체인 인간을 찬찬히 훑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즉 인간은 변전(變轉)하는 사물들을 초월하면서 독자적이고 주체성을 갖는 자족적 존재인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사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처럼 인간의 사회성은 그 바탕에 있어서 공리주의 차원에서의 타인에 대한 외면적 의존성에 그치지 않으며,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기인한다. 자연법, 사회윤리학자들은 이를 인격의 공동체로서의 소명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점이 도덕 교과에 윤리학 배경 외에 사회과학적 배경이 요구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도덕 교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미완성의 자라나는 아이들을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만들기’를 다루기에 심리학적이고 교육학적인 배경이 요구되고 있다.<sup>15)</sup>

15) 강두호(2012), 「도덕 교과와 성격과 목표에 대한 논고」, 『윤리연구』, 86권, pp. 275~276 참고

## 2) 도덕과 교육과정의 학제적 접근 역사 및 현황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맞추어 도덕과는 지난 6차, 7차 교육과정시기에 도덕과의 학제적 성격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도덕과 성격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우선 6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 “도덕과의 학문적 배경은, 바람직한 삶을 위해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추구하는 규범 과학적 관점 및 사회 질서 유지와 국가·민족의 발전에 공헌하는 국민 의식 형성 문제를 탐구하는 사회 과학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sup>16)</sup>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7차 도덕과 교육과정 ‘성격’ 부분에는 “도덕은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다루는 규범 과학적 관점과, 사회질서 유지 및 국가·민족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형성문제를 탐구하는 사회 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인 접근을 시도한다.”<sup>17)</sup> 라고 도덕과의 학제적 접근을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하였다.

이 시기 도덕과의 학제적 접근은 도덕교과 내용적 측면에서 윤리학(동양윤리, 서양윤리 등), 정치철학, 한국학, 북한학, 통일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요소를 병치시키고,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교육학과 도덕심리학적 측면에서의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대한 이해와 고려를 바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인성의 핵심가치 내면화와 비판적 사고력 발달을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학문들이 동원되어 학제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경 학문들 간에 긴밀한 대화와 소통 및 협력을 통한 학제적 연구에 입각하여 교육과정이 구성되기보다, 교육내용에 포함될 하위 배경학문들의 이론 및 내용 요소들을 다소 기계적으로 병치시키고 교육방법상 교육심리학과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정도에 그침으로서 본의(本意)에 부합하는 학제적 접근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아래 손동현의 지적에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비판이 잘 나타나 있다.

학제적이란 말은 서로 다른 분야로 간주된 학문 분야들이 서로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각 분야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의 도덕 교과서는 학제적 연구라기보다는 몇 개의 분과 과목들이 자신이 할 이야기들을 병치시킨 성격을 가진다. (중략) 현재의 도덕 교과서의 내용은 정치와 사회, 심리학, 철학 등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섞어 놓은 것이지, 서로의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적 원리들이 상호 침투하여 새로운 분야를 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서로 다른 학문분야가 상호 침투하여 제 3의 결실이 나와야만 학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도덕 교과서는 그런 수준에는 전혀 미달이다.<sup>18)</sup>

16) 교육부(1992), 『제 6차 도덕과 교육과정』, 고시 제1992-11호. p.11

17) 교육부(1997), 『도덕과 교육과정』, 고시 제1997-15호. p.26



이로 인해 결국 도덕 교과에 정체성이 다소 혼란스럽고 이에 학습자 흥미가 저하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sup>19)</sup> 이에 더하여 도덕성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일련의 청소년 문제들(학교폭력, 왕따 문제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도덕 교과가 아이들의 도덕성 향상에 무력하다는 식의 교과 효용성 및 정당성 논쟁에 휩쓸리게 된다. 이리하여 도덕과는 정체성과 정당성의 위기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교과존폐논쟁과 시수축소 논의에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난국 타개를 위한 급선무로서 교과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개정 및 2009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도덕 문제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도덕 과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sup>20)</sup>고 하여 ‘윤리학’을 중심 배경학문으로 지정하고 ‘학제적’이라는 용어를 생략하는 등 종래의 학제적 접근의 방향성에서 다소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다 함은 ‘인간이 마땅히 어떻게 행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도덕의 보편적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의 본질과 도덕 판단의 의미 및 타당성을 추론’하기 위한 ‘윤리적 탐구와 성찰’을 주된 학습 활동의 요소로 삼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도덕과 교육에서 ‘인지적 접근’을 중심축으로 활용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관된 여러 학문을 활용한다는 부분은 비록 그 색채가 다분히 연해지기는 했으나, 도덕교과가 여전히 학제적 접근을 지향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행을 앞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다루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 도덕심리학, 정치철학 등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학제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도덕 교과에 있어서 학제적 접근 활용을 다시 명시하였다. 하지만 2007, 2009 개정교육정과 같이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윤리적 탐구·성찰을 주된 교육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윤리학이 중심이 되는 제한적 학제적 접근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차우규 외(2005), 『새로운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정립, 연구자료 ORM 2005-28』, 서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p.95, 홍은숙(2008),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 논의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찰」, 『윤리교육연구』, 제16집, p.48에서 재인용

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연구보고』, CRC2005-8, pp. 27~29, 홍은숙(2008),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 논의에 대한 도덕철학적 고찰」, 『윤리교육연구』, 제 16집. p. 49에서 재인용

20)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 고시 제2007-79호, [별책 3])에서는 “도덕 문제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도덕과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방법을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09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2011), 『도덕과 교육과정』, 고시 제2011-361호 [별책 6])에서도 “도덕 문제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도덕과에서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을 위해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도덕과 학제적 접근 역사 및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학제적 접근의 역사 및 현황

교육과정 시기	교육과정 상 ‘학제적 접근’ 관련 내용	특색
1. 제 6차 교육과정	도덕과의 학문적 배경은, 바람직한 삶을 위해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추구하는 규범 과학적 관점 및 사회 질서 유지와 국가·민족의 발전에 공헌하는 국민 의식 형성 문제를 탐구하는 사회 과학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 규범과학적 관점과 사회과학적 관점 모두 포함
2. 제 7차 교육과정	도덕은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다루는 규범 과학적 관점과, 사회 질서 유지 및 국가·민족의 발전을 위한 국민 의식 형성 문제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인 접근을 시도한다.	◀ 규범과학적 관점과 사회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함 ◀ ‘학제적 접근’ 용어 명시
3. 2007 개정 교육과정	도덕 문제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도덕 과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 윤리학적 접근(윤리적 탐구·성찰) 중심→ 교과 정체성 강화 ◀ ‘학제적 접근’ 용어 생략 → 우회, 선회
4. 2009 개정 교육과정	도덕 문제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도덕과에서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형성’을 위해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 윤리학적 접근(윤리적 탐구·성찰) 중심 ◀ 학제적 접근 용어 생략
5.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예정)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다루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 도덕심리학, 정치철학 등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방법을 학제적으로 활용한다.	◀ 윤리학적 접근 중심 ◀ 도덕심리학, 정치철학 등 연관학문 접근 방법 학제적 활용→ ‘학제적’ 용어 다시 명시

한편, 여기서 도덕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을 위해 요청되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인류 지식과 지혜 중에서 비교적 도덕교육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학문분야들을 연구자 나름대로 1차적으로 분류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2> 도덕과 학제적 접근을 위한 배경 학문의 분류

	동(東)	서(西)
고(古)	㉠ 동양 윤리 (유·불·도)	㉡ 서양 윤리(덕윤리, 칸트윤리, 공리주의 등)

			㉔ 정치 철학(사회계약론 등)
금(今)	현대 (20C 이후)	㉕ 한국학, 통일학, 북한학	㉕ 현대 정치 철학(정의론 등) ㉘ 도덕심리학(도덕성 발달이론 등), 교육학
	최근 이론	㉙ 불교명상 관련 이론 (마음챙김 명상 등)	㉙ 경험과학에 기초한 일군의 학제적 연구의 산출물 - 최신 (도덕) 심리학 이론 - 인지과학, 뇌 과학, 신경생물학, 사회생물학, 신경윤리학, 진화론, 인지심리학 등

위 <표1>을 바탕으로 윤리학적 탐구·성찰을 강조하는 2007, 2009, 2015 개정교육과정을 분석해볼 때, 교육 내용요소로서 ㉑, ㉒, ㉓, ㉔, ㉕을 포함시키되 규범 과학적 관점에서 윤리학적 탐구 및 성찰 활동과 관련이 깊은 서양윤리학적 접근방법인 ㉓, ㉔, ㉕을 특히 강조하게 된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㉓(서구의 이성 중시 윤리학)과 친화성이 있는 ㉘(Kohlberg의 도덕성발달을 위한 도덕적 추론 중시 접근)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레 서양철학이 강조하는 이성(추론)위주의 인지적 접근(윤리적 탐구와 성찰)을 중심축에 둠으로서 교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그런데 서양윤리와 마찬가지로 윤리학적 접근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㉑의 동양윤리의 경우 그 내용요소 자체가 서구적 철학·사상·윤리와 전혀 다른 배경에서 탄생한 것으로 요구하는 교육 방법론 역시 서양윤리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비교사상사적 시각에서 동양사상은 서구적 사유의 주류를 형성하는 이원론적(dualism) 사고체계와 달리 무실체관(無實體觀)을 바탕으로 하는 일원론적(monism)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현세주의(現世主義)적 지향을 강하게 나타낸다.<sup>21)</sup> 심신일원론의 관점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수행해가는 동양적 수양의 전통은 앎과 삶을 분리불가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도덕성의 지행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 역할을 해 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 지행합일은 도덕과에서 추구할 궁극적 목표와 관련되기에 ‘㉑ 동양윤리(유·불·도)’의 통찰과 지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양 윤리적 가치와 덕목, 윤리 사상 등의 도덕 교육의 내용요소는 심신일원론의 관점에서 수양, 수행을 바탕으로 도덕적 앎과 도덕적 삶이 분리불가의 형태로 체화되도록 하는 교육 방법과 함께 제시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동양 윤리적 내용요소가 서구적 학문 방법론에 적합한 추론, 판단 등을 중시하는 윤리학적 탐구와 접목될 경우 일종의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하여 동양윤리의 본질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

21) 김병환(2017),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서울: 새문사, pp. 13~19 참고

게 된다.

이에 더하여 도덕 교육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에 있어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할 학문영역이 바로 위 <표1>에서 제시된 ㉠부분이다. ㉠은 경험 과학적 성격을 지닌 비교적 최신학문 분야들을 나타낸다. 학문연구에 있어 타당하게 설계된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된 실증적 연구결과의 경우, 그러한 이론적 이해를 일종의 ‘기술적 생산품’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험 과학적 이론들은 고도의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sup>22)</sup> 도덕교육 영역에 있어 경험과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심리학적 사실에 근거한 윤리학’<sup>23)</sup>을 추구할 경우의 장점은 이와 유사한 실용적 측면에서 도덕 교육의 효과성 강화(지행합일의 문제 해결)와 관련하여 모색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학제적 연구는 도덕 교육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학문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도덕과 교육과정은 윤리학적 접근을 가장 중시하다보니 학제적 접근에 있어 ‘㉠ 경험과학에 기초한 일군의 학제적 연구의 산출물’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sup>24)</sup>

결국 도덕과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윤리학적 접근 중시는 나름의 유의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 연구와 교육과정 구성 및 교육실천 등의 제 측면에서 ‘㉠~㉡의 배경 학문간 공통분모의 발견을 위한 소통, 교류를 통한 문제해결의 접근과 해결책 모색’이라는 학제적 접근의 본의에 부합되는 실질적 노력에는 많은 에너지를 쏟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 ㉡은 도덕성의 지행합일 문제를 해결해 줄 핵심적이고 유의미한 지혜와 통찰을 함축하고 있는 주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교과정체성은 확실히 하였을지 모르나,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도록(지행합일)하는 도덕과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힘주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기존 도덕과의 학제적 접근법의 특징 및 한계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규범과학과 사회과학의 협동을 통한 학제적 접근을 명시한 6차, 7차 교육과정에서는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학문들이 동원되어 학제적으로 교육

22) F. J. Varela & E. Thomson & E. Rosch, 석봉래 역(1997), 『인지과학의 철학적 이해』, 서울: 옥토, p. 28

23) ‘최소수준의 심리학적 실재론을 포함한 윤리이론’(Owen Flanagan), 인간본성에 대한 사실들을 윤리이론(덕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는 ‘자연화된 윤리학’(McKinnon)을 추구하는 심리학계의 동향과 Narvaez가 ‘윤리이론의 자연화’, ‘심리화 된 도덕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 흐름과 맥을 함께한다.

24) 게다가 과밀학급의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주당 1~3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입시위주 교육 하에 이루어지는 도덕교과 학습에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은 (학교 급별로 다소간의 차등은 있겠으나) 인지적 측면의 발달에 더욱 치중하도록 만드는 현실이다.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배경학문들 간에 긴밀한 소통과 교류 및 협력에 의하여 교육과정이 구성되기보다 하위 배경학문들의 기계적 병치와 물리적 결합에 그침으로서 본의에 부합하는 학제적 접근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이후 2007개정,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성격에서 제시되었던 ‘윤리학적 접근이 중심이 된다.’는 문장의 실질적 의미를 곱씹어 보면 이는 주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윤리이론과 사상에 나타난 도덕 원리, 가치, 덕목 등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적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 행위를 판단하고 이에 입각하여 행동 실천에 옮기는 서양 윤리학적 접근이 학습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윤리이론과 사상, 가치, 덕목을 판단의 준거로 삼아 바람직한 행위의 이유를 제시하는 ‘도덕적 이유달기’, 즉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이 도덕·윤리 학습의 주된 활동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학적 접근의 방법론적 요체인 탐구·성찰을 도덕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는 인지적 접근이 중심이 된 도덕교육에 다름 아니다. 탐구와 성찰 중심의 도덕과 교육은 결국 실제 삶 속에서의 다양한 공동체의 관계성의 맥락 하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덕적 행위의 표출이라는 도덕 교육의 궁극적 지향을 충분히, 그리고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편향적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적 인지가 도덕적 행위를 담보할 수 없으며, 도덕적 추론에 능한 학생이 실제 삶의 맥락에서 도덕적 행위자로 기능하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다양한 실증적·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한다.<sup>25)</sup> 또한 심오한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는 도덕 판단 원리와 가치, 규범, 덕목들을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배워 성찰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삶에서 자기중심적 욕구를 우선시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경향성을 극복해 내기 어렵다. 이것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역부족에 가깝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경험적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추구적(自利追求的) 인간의 특성을 기본으로 상정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의 삶을 둘러싼 환경은 자본 소유와 상품 소비를 통한 물질적 만족의 추구와 대상의 수단화 등의 도덕적 심성 개발과 유지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25) 도덕적 인지와 도덕적 행동에 관한 문헌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Blasi는 75개 연구 중에서 57개 연구가 도덕적 추론과 행동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확신을 주긴 하지만, 그 관련성의 정도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하트와 페글리, 콜비와 Damon의 연구 Kohlberg식 인터뷰 기법에 의해서 측정된 도덕적 추론 능력에서 도덕적 모범 집단과 보통 수준의 집단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도덕적 추론 능력과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는 Kohlberg의 주장보다 훨씬 약하고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창우(2011b), 「도덕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도덕교육적 함의」, 『초등도덕교육』 제37호, p.123 참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실제 심리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의 주류적 형이상학적·철학적 관점을 최종 심급으로 삼아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하여 정신과 물질, 인간의 영혼과 육체, 이성과 비이성(감정, 욕구 등), 인식주체와 인식 대상 등 세상과 인간을 교류 불가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엄격하게 나누어 접근하는 추론 위주의 도덕교육의 비전이 현실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원론적 형이상학에 기반한 도덕철학에 충실하여 추상적인 도덕원리들을 모색하고 도덕적 갈등해결에 적용하는 기존의 윤리적 탐구 모델이 자본주의의 소비지향성, 감각적 욕구추구 및 나를 앞세워 남을 이겨야 하는 입시경쟁체제에 길들여진, 자기중심성이 뿌리 깊은 한국의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알면 덕을 행하게 되고, 덕을 행하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낙관적 통찰은 어쩌면 소규모의 정치·생활 공동체인 폴리스 속에서의 삶을 통해서나 기대해 볼 수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지덕복합일의 낙관적 비전은 소규모 공동체적 삶에서 벗어나 국가, 세계 등으로 공동체의 외연 자체가 확대되고 대규모화됨으로써 익명성이 극대화되는 한편, 최소한의 기본적 공동체라 할 수 있는 혈연적 가족 공동체의 울타리마저 무너져 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 속에서 결코 유효하지 않다.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할 줄 아는 능력이 여러 가지 현실적 난관을 뚫고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데 까지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도덕적 앎은 도덕적 행위를 결코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도로 보장해 줄 수 없다. 결국 도덕교육에 있어 윤리적 탐구를 중시하는 인지적 접근만으로는 결코 도덕과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자연스런 논리적 귀결로써 도덕과의 정당성 역시 확보될 수 없다.

그렇다면 교과 정체성 강화와 정당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최선책’은 강구될 수 없을까? 연구자가 보기에 학제적 연구의 본의에 부합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앞서 살펴본 <표2>의 ‘도덕과 학제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배경 학문, ㉠~㉡’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바탕으로 도덕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여 기계적·병렬적·물리적 결합을 넘어선 승법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때 교과의 정당성 및 정체성 모두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sup>26)</sup> 논의의 서두에서 언급했듯, 도덕교과에서 본의에 가까운 학제적 접근에 성공할 때, 인간 도덕성의 본질에 대한 다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행합일적 인간을 형성시키는데 조금

26) 이와 관련하여 정창우 교수는 도덕과의 배경학문들을 하나의 체계로 꿰어주는 실은 특정 학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내지 인격적 성장’이라는 교과목적 및 교과목표여야 하고, 이를 위해 윤리학, 정치철학, 도덕심리학 등의 여러 배경학문들이 상호 소통한다는 식으로 배경학문간 관계를 재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창우(2011a), 「도덕과의 정당성 및 정체성 연구」, 『윤리연구』 제82호, p.240 참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보다 지속적으로 완결성 있는 학제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한국 도덕교과만의 고유한 특색을 가진 학제적 도덕교육모델을 마련하고자 하는 학계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또한 교과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에서 윤리학 중심의 학제적 접근의 틀을 고수하기보다, 기존의 학제적 접근이 가졌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진정한 의미의 학제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도덕교육 모델을 고안하고 적용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는 철학의 분과인 윤리학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 눈부신 발전과 진보를 이뤄 낸 경험과학적 연구 성과물들이 도덕 교육이론과 교육 실재에 다각도로 활용되고 지지근거로 제시됨으로서 윤리학적 접근의 편향성이 노정할 수 있는 현실적 무력감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교육의 근본적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통합적 도덕교육 모델을 체계화하기 위해 도덕심리학을 중심으로 연관되는 다양한 학문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학제적 소통과 교류를 함으로써 통합적 도덕교육모델을 체계화하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해온 학자가 바로 본 연구의 중심 탐구인물인 다르시아 나바에즈(D. Narvaez)이다. 그리고 그녀가 제시하는 도덕교육에의 해법이 ‘통합적 도덕교육 모델(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Model, 약칭 IEE)’이다. 따라서 도덕성 향상과 관련된 동서고금의 다양한 학문의 성과를 폭넓고 깊이 있게 활용한 완성도 높은 학제적 연구 모델인 ‘통합적 도덕 교육 모델(IEE)’이 탄생하기까지 학제적 소통의 과정을 재구성하여 살펴보는 연구는 앞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학제적 도덕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난제 극복에 임하려는 도덕 교육관련 연구자들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앞서 살펴본 학제적 연구의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Narvaez의 도덕교육이론을 ‘학제적 도덕교육 모델’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1차적으로 학제적 도덕교육 모델로서의 IEE와 TET의 이론적 타당성과 완성도를 평가하며, 2차적으로 차후 한국의 도덕과 교육을 위한 학제적 연구모형 구축 시 이론적 타당도와 완결성을 평가할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연구자 나름대로 학제적 연구의 비판 준거를 설정해보고자 한다.

### 3. 도덕교육 연구의 학제적 접근 비판준거 설정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학제적 연구의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Narvaez의 도덕교육이론을 ‘학제적 도덕교육 모델’로 규정하고, 연구자 나름대로 그 타당성과 완성도를 평가할 비판준거를 설정하는 작업에 천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환원주의의적 접근 지양, 배경학문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 승법적 접근을 통한 통합이론 구축, 논리학적 타당성과 오류여부 검토, 도덕 교육적 효과 검토 등이다.

#### 1) 환원주의적 접근 지양

동일한 연구 대상 혹은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학문이 동시에 접속하고 연구할 때의 접근 방식 중 환원주의적 접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다윈의 진화론을 확장적으로 계승한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E. Wilson)의 이론적 입장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하등동물인 아메바의 군체에서부터 현대 인간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행동의 사회학적 기초를 면밀히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타성과 도덕성 역시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임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Wilson은 ‘지식의 대통합’ 즉, ‘통섭(consilience)’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Wilson의 통섭 프로그램은 인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학문적 결론들이 결국은 자연과학, 보다 직접적으로 생물학에 일 방향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보편적 통섭론’, 즉 환원주의(reductionism)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Wilson에 의하면 『통섭』이라는 저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한마디로 “지식이 가지고 있는 본유의 통일성” 또는 “과학의 통일성”이다. 이러한 생각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다수의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지식은 단 하나의 지식체계로 통일될 수 있다. 이러한 구상에 의하면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의 제 분과가 통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연과학이 사회과학, 인문학과도 통합되어 하나의 통일적인 지식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sup>27)</sup> 그러나 윤리학의 생물학화를 통해서 윤리를 ‘모든’ 층위에서 설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에 일 방향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다시 말해 모든 학문이 자연과학, 더 구체적으로 말해 생물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Wilson식의 환원주의는 심각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닌다.

사회생물학은 도덕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메타윤리학적 입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메타윤리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생물학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도덕규범의 오류를 제거하고,

---

27) 이남인, op.cit., p.36 참고



합리적인 규범윤리학을 정립하는 데에도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윤리학의 생물학화가 지향할 바람직한 방향이자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윤리학의 생물학화는 윤리학의 한 가지 층위, 즉 도덕규범을 정립하고 정당화하는 층위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윤리학의 자연화로 해결할 수 없는 윤리학의 자율성의 영역이다.<sup>28)</sup> 즉 Wilson의 ‘통섭’ 프로그램은 일종의 자연과학적 제국주의 또는 생물학적 제국주의의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학문 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없다. 현상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현상들 전체의 한 부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커다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Wilson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의 통섭 프로그램은 진정한 의미에서 “균형 잡힌 관점”도 제공할 수 없고, “지식의 다양성과 깊이”도 보장할 수 없다.<sup>29)</sup>

한편 환원주의적 접근과 관련하여, Kohlberg가 심리학적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축적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해 윤리적 상대주의의 불식을 시도한 것<sup>30)</sup>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Kohlberg가 특정 윤리학<sup>31)</sup>의 관점을 우위에 두고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의 계열성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해당이론의 요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Kohlberg가 그 특정 윤리학이론을 바탕으로 도덕심리학과 인간 도덕성 발달의 모든 층위를 설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모든 도덕심리학 이론이 특정 윤리학 이론에 일 방향적으로 종속될 수 있고 환원가능하다고 보았다거나 특정 윤리학 이론을 중심으로 ‘지식의 대통합’을 이루려는 목표를 명백히, 의도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Wilson과 Kohlberg의 접근이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정도의 환원주의적 접근을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Kohlberg가 도덕심리학과 도덕철학을 만나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리학 연구의 ‘본질’이 철학적 문제 해결(윤리적 상대주의의 불식)에 전적으로 종속될 경우 경험적 연구의 전 과정이 철학적 기본 가정과 전제에 의하여 심각하게 왜

28) 류지한(2008), 「사회생물학과 윤리학의 통섭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리연구』, 제85호, p.99

29) 이남인, op. cit., p.247

30) 도덕심리학과 도덕철학의 관계 회복에 있어 Kohlberg의 공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튜리엘(1998)은 Kohlberg가 지닌 연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한 성과는 바로 “도덕성에 관하여 철학적 숙고에 입각한 심리학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위대한 인식”이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Kohlberg는 우리가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지도 못한 놀랄만한 방법으로 윤리학과 심리학 분야를 결합시켰다. (Boyd, 1986; Kohlberg, 1971), D. K. Lapsley & F. C. Power, 정창우 역(2008),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서울: 인간사랑, p. 54

31) 윤리적 상대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Plato으로부터 유래하여 칸트, 롤즈 등에 계승된 이성 우위의 윤리학을 의미한다.

곡될 수밖에 없다. 발달의 어느 단계가 되었든 도덕적 행위자에 대한 인지 발달적 설명은 다른 학문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심리학적 연구와 통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의 핵심적인 가정들과 철학적 충실성이 최근의 심리학적 연구와의 교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sup>32)</sup>이다. Kohlberg는 규범윤리 이론과 심리학적 이론 간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상보성 이론(complementary thesis)”을 들어 철학적 이론은 심리학적 자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험적 이론이 규범윤리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에 기여하므로 상보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심리학적 연구의 본질이 철학자들이 던진 질문을 대답하는 데 종속되다 보면 왜곡되기 쉽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메타윤리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sup>33)</sup> Blasi(1990)는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의 학문분야에서 쓰이는 연구방식을 가지고 철학적 논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 철학적 고찰이 경험적 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될 때 방법론의 문제, 자료수집, 자료해석은 세심한 감시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요컨대, 철학과 심리학 사이의 소통은 불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학문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라며 도덕심리학에 대한 윤리학 우위의 환원주의적 접근이 갖는 위험성과 명백한 한계<sup>34)</sup>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결국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연구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과 관련하여 현상주의 가정과 메타윤리학적 가정에 종속되고 말았다. 연구자가 보기에 이것이 특정 도덕철학의 가치론적 우위<sup>35)</sup>를 전제한 Kohlberg 식 도덕 딜레마 토론 접근법이 도덕성의 지행불일치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Wilson과 Kohlberg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학문적 교류를 통한 연구가운데 특정 학문, 하나의 관점, 혹은 일 방향적 연구방법론을 절대적 우위에 두고 중시한 나머지, 균형 있는 학문간 교류와 소통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놓치거나 참된 진리를 편향되게 왜곡하는 우를 범했다. 즉 각각의 학문이 갖는 연구 영역과 연구 방법론상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침범하는 환원주의적 특성을 노정한 것이다.

다양한 경험과학적 이론들(도덕심리학 포함)과 윤리학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32) Ibid. p.50 참고

33) Ibid. pp.57~58 참고

34) Blasi는 도덕철학이 도덕심리학 분야에 끼친 세 가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첫째, 도덕철학은 도덕심리학 연구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둘째, 혼합된 논쟁을 과학적 담론 속에 주입하였으며, 셋째, 심리학적 연구가 지닌 임무를 잘못 지시하고 왜곡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Ibid. p.58 참고)

35) 여러 면에 있어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가 지닌 철학적 개념들은 인지발달론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Kohlberg는 도덕발달 연구가 도덕적 판단의 특징이 되는 메타윤리학적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Kohlberg, Levine, and Hewer, 1983), Ibid. p.53

통해 보다 타당하고 의미 있는 도덕성과 도덕교육관련 학제적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 학문적 방법론의 배타적 우위의 입장에서 다른 학문을 흡수 혹은 종속시키려는 환원주의적 입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학제적 접근에 있어 Wilson식의 통섭(자연과학적 환원주의)이나 특정 도덕철학 관점에서 심리학 연구 범위와 내용을 제한하는 Kohlberg 식 접근법은 학문 간의 진정한 소통을 통한 개방된 담론구조 형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맹점을 갖고 있고, 따라서 지양되어야 한다. 기존 학문들의 고유한 연구 영역과 연구 방법의 특색과 독립성을 지켜낸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해당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학문적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는가하는 기준은 학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통합적 도덕교육모델을 정립하고자 할 때 가장 필수적인 타당성 검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남인은 Wilson의 통섭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한 형태로 학제적 연구 및 교육 등 학문들 사이의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해명하면서<sup>36)</sup> 학제적 연구와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문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 2) 배경학문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

이것은 도덕교육 관련 학제적 연구에 있어 ‘통합의 폭’과 관련한 기준으로 본 연구자가 설정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윤리학과 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규범과학과 경험 과학적 접근이 상호 대화하고 소통할 경우 학문적 성숙과 발전에 있어 서로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며 이를 토대로 탄생한 도덕교육모형의 경우 도덕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도덕교육을 위한 학제적 연구에 있어 특정 학문적 방법론에 편중되기보다는 인문학, 경험과학 등 상이한 학문적 대상과 연구 방법을 가진 하위 학문들 간 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제 간 교류가 이루어질 때 보다 설명력, 예측력, 효과성이 높은 도덕교육 모델 마련이 가능해 질 것이다. 즉 다양하고 풍부한 배경 학문 및 토대 이론간 접촉과 교류를 교차적으로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학제적 연구의 질적 정교함 역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제적 연구를 제시해 볼 수 있다.<sup>37)</sup> 우선 인문학·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학제적 연구이다. 인문학·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부분적인 통섭만 가능할 뿐 ‘보편적 통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 혹은 고려하면 양자 사이의 학제적 연구는 첫째, Wilson이 제시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학제적 연구와 둘째, 인문학·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학제적 연구 두 가지로

36) 이남인, op. cit., p.6

37) Ibid. pp.250~273 참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적 주제를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하면서 인문학·사회과학을 자연과학에 포섭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최근 진화론과의 대화를 통해 성립된 철학의 다양한 분과들, 예를 들어 진화론적 인식론, 진화론적 윤리학 등이 그 대표적 예에 해당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학제적 연구는 인간의 마음, 문화, 인간 본성, 인간 행동, 예술, 윤리, 종교 등의 발생적 기원을 해명하기 위해 필요하고 따라서 일정부분 유의미한 부분이다.

두 번째 유형의 학제적 연구는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상대방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연구 작업이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위험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학제적 연구가 올바르게 수행되기만 하면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총체적이며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자 사이의 학제적 연구에 참여하는 학문들이 융합되면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사회과학의 경계에서 새로운 학문 분야가 출현하는 방식으로 학제적 연구가 수행될 수도 있고,<sup>38)</sup> 꼭 융합 학문을 출현시키지 않더라도 양자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연구를 통해 양자의 내용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sup>39)</sup> 다음으로 동일한 학문 분야 안에서의 학제적 연구도 가능하다.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많은 분야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연구방법들, 예를 들어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면서 전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동일한 학문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학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 제시한 두 가지 유형이 학제적 연구에 참여하는 학문 조합들의 수만큼 다양한 유형의 학제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도덕교육 영역에 있어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학제적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될 경우 그것은 학문의 발전은 물론 난제 해결(뿌리 깊은 자기중심성 및 지행괴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도덕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및 처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제적 연구의 한계 또한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학제적 연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지금껏 존재했던 개별학문분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sup>40)</sup>

38) 대표적으로 본 논문의 III장 2절에서 다룬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9) 이남인은 이러한 사례로 자연과학의 한 분과인 나노과학과 인문학의 한 분과인 윤리학 사이에 학제적 연구를 통해 나노과학은 윤리학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보다 탄탄한 윤리학적 토대 위에 정초되면서 윤리성이 함양된 보다 바람직한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윤리학은 윤리학 나름대로 나노과학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나노 현상과 관련하여 자신의 내용이 보다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 3) 승법적 접근을 통한 통합이론 구축

도덕교육에 있어 학제적 연구모델의 완성도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 번째 비판기준은 승법적 접근을 통한 통합이론 구축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이다. 첫째, 상이하고 다양한 배경 학문 및 이론 간에 소통·교류 가능한 이론적·실천적 지혜와 통찰 등 교집합들을 적절히 짚어내 해석하고 추출해 내었는가? 둘째, 추출해 낸 교집합들을 핵심 개념어, 원리를 포함한 이론의 정합적 구조들로 포착하여 도덕 교육관련 학제적 연구 모델에 통합적으로 반영해 내고 있는가? 연구에 이를 반영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셋째, 학제 간 핵심개념 도출 및 통합이론 구축과정에서 이른바 ‘승법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가? 반대로 단순히 다양한 학문적·이론적 연구 결과물들의 물리적·병렬적·기계적 결합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선 ‘乘法的(승법적)’ 통합과 ‘加法的(가법적)’ 통합의 사전적 의미를 명료화해 보자. 가법적 통합의 의미는 개념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들이 서로 별개로 독자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실제적으로 ‘더하기’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승법적 통합은 개념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는 다른 구성요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는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이들 구성요소들의 관계가 ‘곱셈’관계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구성 요소는 동일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다른 상이한 차원 또는 관점으로, 이들 구성요소들은 단지 개념적으로만 분리될 뿐 모두 한 가지 현상이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승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학문간 자유로운 소통이다. 이를 통해 상이한 학문 간의 접촉과 교류가 상호 침투하여 시너지를 발생시켜 제 3의 결실을 창출하는 데까지 이를 때 물리적·기계적 결합을 넘어선 독창적 이론이 탄생될 수 있다. 이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도덕성에 대한 다층적(multi-layered)·포괄적(comprehensive)·복합적(complex)·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진리들의 일면을 담지하고 있는 각각의 하위학문 속 개별이론들을 연구자들 고유의 관점을 토대로 한 축으로 잘 꿰어내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를 위해 도덕교육 관련 연구자들이 핵심적 목표의식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아 ‘새로운’ 입장을 지지할 이론적·경험적 근거로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체계적이고 정합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상이한 영역에서의 서로 다른 개념들을 접촉시켜 더 높은 설명력과 타당성을 갖춘 독창적 이론 모형을 창안해 내야 한다.

도덕교육영역에 있어 형식논리에 입각한 사유체계 속에서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대립 항들을 핵심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나의 고리 속에 꿰어 내면서, 각각

---

40) Ibid. p.273 참고

의 대립항이 가진 진리성들을 조화시켜 승법적이고 반성적인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을 이뤄낼 때, 결국 통합적 도덕 교육 모형의 완성도가 확보될 수 있다. 하위이론들이 이질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한 상황에서(Kohlberg의 도덕적 추론 중심 접근법과 인격교육에서의 사회화와 도덕적 습관 형성을 중시하는 측면이 그러하듯이) 그러한 상이한 관점들이 결국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간의 인격 및 도덕성 형성과정의 특정 측면을 반영해 내는 것으로 보고, 승법적 통합을 통해 도덕성을 보다 온전히 설명해 낼 때 그러한 도덕교육 모형은 비로소 교육 현장에서 강력한 처방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승법적 접근을 통한 이론의 고유성과 독창성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통합적인 학제적 도덕교육 모형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주요한 근거가 된다.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도덕과 학제적 접근은 물리적·병렬적·기계적 결합에 그침으로서 완성도 있는 학제적 접근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다. 그 결과 교과 정체성의 위기와 시수 축소 및 교과 존재 위기에 까지 치달았었다는 교과의 뼈아픈 역사를 반드시 곱씹어 보아야만 한다. 과거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도덕과 학제적 연구모델의 비판적 고찰에 있어 이 세 번째 기준에 더욱 가중치를 부여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상당하다.

#### 4) 논리학적 타당성과 오류여부 검토

도덕 교육에 있어 학제적 연구 모델의 완성도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위 네 번째 기준은 통합의 ‘깊이’ 혹은 질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논리학적 타당성 및 오류 여부에 대한 검토이다. 이 기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두기 위해, ‘논리학’, ‘타당성’ 및 ‘오류’의 사전적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논리학’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思惟) 또는 사유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논리학은 어떻게 해야만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사유를 진행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과 형식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사유의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킨다. 논리학이 형식적 학문이 되는 까닭은 논리학이 구체적인 사상을 실지로 전개하지 않고 그들을 전개하는 데 지켜야 할 규범적 법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학문연구 방법을 성찰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추구하는 적극적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논리학적 훈련은 학문 및 이론 정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서양 논리학의 역사에 있어 Aristoteles의 『오르가논(organon)』은 범주론·해석론·분석론·전후서·변증론 및 궤변론을 후세의 학자가 합쳐 편찬한 것으로 지금까지 논리학의 고전으로 남아있다. 중세의 스콜라철학의 방법론이었던 분석적 연역논리학에 이어 르네상스 이후 비약적 자연과학 발달과 더불어 베이컨(F. Bacon)은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귀납논리학을 확립하였다. 밀(J. S. Mill)은 연역 논리학과 귀납 논리학의 두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통일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리학이 인식론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자 논리학은 단순히 사유형식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객관적 실재(實在) 속에 있는 형식과 법칙을 연구하는 인식론적 색채가 농후해지기 시작하여, 소위 변증법적 논리학이 대두하였다. 이후 변증법적 논리학은 칸트, 헤겔, 유물변증법 등에 의해 발전·확립·체계화되기에 이른다. 현대에는 형식논리학의 재건을 위해 수학에 기반을 둔 기호논리학(수리 논리학)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sup>41)</sup>

둘째, ‘타당성(validity)’의 의미는 ‘어떤 판단이 인식가치(認識價值)를 가짐을 일컫는 말’이다. 즉 보편적인 시인(是認)을 하게 하는 가치 또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이 명제는 ‘타당’하다. 심리학적 의미로는 사실적 승인이지만 본래는 논리적·필연적으로 시인을 강제할 수 있는 사태의 성질을 말한다. 철학·논리학상의 용어로 쓰인 타당성은 추론 절차의 올바름을 뜻한다. 가장 넓은 뜻으로 말하면, 타당성은 명제 또는 명제체계의 어떤 의미로서의 가치에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에 제시된 ‘논리학’과 ‘타당성’의 의미를 조합할 때, 어떤 한 이론 혹은 연구모형의 논리학적 타당성을 따진다는 의미는 해당 이론 혹은 연구 모형이 취하고 있는 논리적 추론(연역법, 귀납법, 귀추법, 변증법 등)의 절차가 올바른지 따져 보편적 시인 가치를 갖는 지를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자는 Narvaez가 자신의 학제적 접근 및 이론적 입장 개진에 있어 주로 변증법적 통합의 논리에 기초해 있는 바, 변증법적 논증의 의미 및 타당성 성립 조건을 소략하게 살펴본 후, 변증법적 논리학의 체계 내에서의 통합적 도덕교육모형(IEE) 및 삼층윤리이론(TET)의 통합모델로서의 타당성 및 자기완결성(integration)<sup>42)</sup> 측면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한편 통합모델로서의 IEE와 TET의 학제적 이론 형성과정에서의 형식논리학적 오류여부도 따져 볼 것이다. 오류는 실질적 오류(error)와 논리적 오류(fallacy)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판단이 이에 대응하는 사물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자동률(自同律), 모순율(矛盾律), 배중률(排中律) 등 형식논리학의 기본논리에 반(反)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Narvaez가 최고의 규범적 지향으로 제시하는 마음챙김 도덕이 자연주의 오류를 범했는가의 여부와, 고대 그리스의 덕윤리에서 등장하는 테크네와 IEE의 윤리적 기술의 유비에서 개념 간 호환 및

41) 류명걸(2003), 『일반 논리학』, 『서양철학일반』, 파주: 형설출판사, pp.22~30 참고

42) 부분적 결합에 의해 새로운 성질을 갖는 전체가 출현하는 것.(강영희(2008), 『생명과학 대사전』, 서울: 아카데미 서적, p.277), 통합(統合), 융합(融合), 집성(集成)의 의미로, 동일목표를 향하여 협동적으로 일하는 각종 작용의 집합을 의미함 (이우주(2012), 『이우주의학사전』, 파주: 군자출판사, p.499)

연동이 가능한지 유비추리의 오류 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논리학적 타당성 및 오류여부 검토라는 네 번째 기준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이다. 첫째, 해당 학제적 연구 혹은 도덕교육 모델을 구성해내기 위해 수혈 받은 학제적 교류 대상이 된 각 하위 학문 및 개별 이론들의 타당성은 확보되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과학적 이론의 경우 규범의 정립과 정당화의 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논리적 오류여부 검토) 경험과학적 이론의 경우 과학적 타당성을 갖추고 반증가능성이 열려있는가?(논리적 오류 및 실질적 오류 여부 검토)

둘째, 학제적 접근의 다양한 학문들을 소통하고 집속, 집목해내는 학제 간 담론 형성 과정에서 어떤 논리학적 추론 및 논증법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가? 논리학적 타당성이 적절히 확보되는가?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들(자연주의 오류, 잘못된 유비의 오류, 합성의 오류, 분할의 오류 등)을 범하지 않았는가?

셋째, 토대 이론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구성 혹은 통합된 학제적 연구 모델의 주요 이론과 핵심적 아이디어들이 서로 정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있는가?

## 5) 도덕 교육적 효과

도덕 교육에 있어 학제적 연구 모델의 완성도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마지막 비판의 기준이자 연구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학제적 연구 모델의 도덕교육적 효과성과 관련된 측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제적 연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껏 존재했던 개별학문분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도덕교육은 결국 실용주의(pragmatism)적 견지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타자 지향적인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지행합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제적 연구가 수행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가장 중요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과 관련된 비판 준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한다. 첫째, 새로운 학제적 연구 모델이 기존의 도덕교육모형과 어떤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가? 둘째, 기존 도덕교육 모델의 효과성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차별성으로 인해 기존 이론의 단점 및 도덕교육적 효과상의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극복해 냈는가? 그리고 본 모델의 도덕교육적 효과성이 어떻게 학교 및 교실현장에서 이론적·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으며 실제로 검증된 바 있는가?

그렇다면 도덕 교육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타인, 공동체와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성 유지를 가로막는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극복 가능한 것인가? Plato으로부터 유래하여 칸트에서 극대화된 이성에 입각한 자율성, 추론, 추상성, 관념에 의존하는 Rawls나 Kohlberg 이론 등 서구적 자유주의적 담론에 입각한 도덕교육적 처방은 지행일치를 이뤄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서구의 주류적 담론들은 공통적으로 이성과 비(非)이성, 개인과 공동체를 엄격하고 예리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을 이성, 감정, 욕구 혹은 인지, 정서, 행동 등 인위적 기준에 의해 분할하고 그 중 어느 한 가지 측면에 편향적으로 의존하여 도덕성을 설명하고 도덕적 처방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지행불일치 문제를 야기하기 쉽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성과 감정, 인지와 정서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함께 동반하여 나타나며 몸과 마음 역시 분리되기보다 한데 얽혀져 나타난다는 경험 과학적 근거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적 접근들은 도덕교육 모델로서 태생적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한 도덕교육적 처방을 제시한 기존의 도덕교육모델은 도덕교육적 효과성에 있어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편향적 접근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현한 기존의 다양한 통합적 도덕교육모델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통합적 도덕교육모델들에 대해 규범과학적이고 경험과학적 지지 근거를 한층 더 보완한 학제적 도덕교육모형(IEE)이 갖는 차별성과 도덕교육적 효과성을 비교하고 점검해 보는 것이 학제적 연구모델의 실용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 III. 학제적 연구 IEE와 TET의 이론적 배경

III장에서는 학제적 도덕교육 모형인 IEE와 토대이론인 TET가 성립되기까지 Narvaez가 토대로 삼은 이론적 배경의 기본적 입장과 요지에 대해 살펴본다. Narvaez는 도덕심리학자로서 기본적으로 심리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에 천착해 나간다. 하지만 연구 내용 및 방법론에 있어 도덕심리학 범위에만 한정짓지 않고, 인간의 인지가 이루어지는 과정 및 실제 삶 속에서 도덕성과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등에 관한 다양한 학문으로부터의 통찰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자신의 이론 형성을 위해 수혈 받는 학제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리학 등의 규범과학적 측면과 뇌 과학, 신경생물학, 진화론, 심리학 일반, 인지과학 등 경험과학으로부터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도덕교육모형 및 도덕성 발달에 관한 이론을 구성해 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Narvaez의 학제적 접근의 배경 학문을 크게 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윤리학 등으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후,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Narvaez가 TET 및 IEE를 뒷받침할 지지근거로 활용한 각 학문 영역의 세부 이론의 기본적 입장 및 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녀가 이러한 이론적 성과물을 자신의 이론에 어떻게 융합하고 통합해 냈는지 그녀의 연구 저작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할 것이다.

#### 1. 심리학적 배경

1절에서는 Narvaez가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IEE) 및 토대이론인 삼층윤리이론(TET)을 구축해 내는 데 있어 기반이 된 도덕심리학을 포함한 일반 심리학 이론의 주요 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EE 구상의 프레임워크가 된 Rest의 ‘4 구성요소 모형(Four Component Model)’, 인지 심리학에서 사회 인지적 스키마를 핵심 개념으로 삼는 ‘사회 인지적 접근(social cognitive approach)’ 및 그것의 심화된 형태인 ‘전문성 연구’에 대해 Narvaez가 중점적으로 차용한 부분을 위주로 다루어 볼 것이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덕윤리의 핵심 개념인 덕과 인격 및 행복과 인간 번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역시 Narvaez가 학제적 접근의 주요 토대로 삼은 측면임을 감안하여 그 이론적 의미와 의의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토대이론들을 Narvaez가 어떻게 소화하고 흡수해 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재구성할 것이다.

##### 1) 4-구성요소 모형

Narvaez가 최초로 도덕교육 분야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 Rest의 4 구성요소 모형으로 인한 것이었으며,<sup>43)</sup>이후 그녀의 도덕교육모형 구상의 기본적 프레임워크로 시종일관 4-구성요소 모형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Rest의 4 구성요소 모형의 형성 배경 및 문제의식, 의미 및 의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 (1) 형성 배경 및 문제의식

우선 Rest가 Kohlberg 진영의 대표 학자로 출발하여 이후 Kohlberg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Neo Kohlberg적 입장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4구성요소 모형’은 어떤 문제의식 하에 형성된 것인지 그 형성배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sup>44)</sup>

Rest가 인간의 도덕적 기능(moral functioning)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4 구성요소 모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Rest의 초기 연구는 Kohlberg 전통에 속해 있었다. 그가 면담에 기초하여 도덕 단계를 채점하는 방식을 사용한 하바드 대학 그룹에 동참하면서 Kohlberg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의문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Rest는 첫째, Kohlberg식 면접법(MJI, Moral Judgement Interview) 외에 도덕판단 발달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표준화된 검사법인 DIT(Defining Issues Test)를 고안해 냈다. 둘째, 도덕적 기능은 도덕 판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도덕적 기능의 4-구성요소 모형을 개발해 냈다. 여기서 4구성요소 모형을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Rest가 Kohlberg 이론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은 Kohlberg가 도덕적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나 기능을 오로지 도덕원리나 지식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혹은 ‘도덕 판단’이라고 본 그것이었다. 이에 그는 도덕적 행동 생성에 중심이 되는 네 개의 구성요소 과정들로 도덕적 민감성, 도덕 판단, 도덕 동기화, 도덕적 인격을 제시하는 ‘4-구성요소’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다. 그는 도덕의 복합적 성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 그 행동의 생산을 위해 심리적으로 무엇이 일어나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도덕적 행동이 발생하기 위해서 네 개의 주요한 종류의 심리적 과정들이

43) 박장호(2016), 「D.나르바이스의 초기 도덕교육 모형」, 『윤리교육연구』, p.4, 후에 Narvaez는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에 큰 인상을 받아 도덕교육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44) 이를 다른 대표적인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박장호(2016)의 「D. 나르바이스의 초기 도덕교육모형」 있다. 본 연구자는 이 논문의 내용을 일부 참고하여 Kohlberg, Rest 그리고 Narvaez 3자의 관계 구도 속에서 4 구성요소 모형의 형성 배경 및 의의와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이를 4 구성요소 모형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Rest는 도덕 행동이 단일한 과정의 결과임을 부정하고, 도덕 기본 요소들을 심리학적 실제 과정이나 기능과 무관한 기존의 인지·정의·행동의 견지에서 기술해서는 안 되며, 4 구성요소는 사람의 일반적 특성들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의 생산’에 포함되는 과정(processes)을 기술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4-구성요소들이 실제 시간에서의 직선적 계열을 구성하려는 의도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45)</sup>

Kohlberg는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도덕판단 혹은 추론이 도덕적 행동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 반면에, Rest는 실제 도덕적 행동의 현출(現出)과 생산을 위한 인간의 심리적 과정에 있어 도덕 판단과 추론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요컨대 탁월한 도덕 추론(판단)이 실제 삶의 상황 속에서 도덕 행동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즉 지행불일치의 문제가 Rest의 핵심적 문제의식이다. 또한 Rest는 실제 심리과정에서 인지는 정서와 분리될 수 없고, 서로 동시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순전히 인지적인 관점에서 추론에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도덕행동에 수반되는 실제 심리과정을 실제에 가깝게 접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도덕의 핵심영역을 도덕 판단에서 확장하여 인지와 정서가 동반된 4개의 구성요소로 구체화하게 된다. 결국 4구성요소 모델은 도덕행위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내적 과정(inner processes)들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제 4 구성요소모형을 구성하는 각 하위 요소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2) 4개의 하위 구성요소별 의미

여기서는 Rest와 Narvaez가 ‘4구성요소 모형’을 제안하기 위해 함께 쓴 논문인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4구성요소”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4-구성요소의 각각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IEE가 기본적으로 4구성요소모형을 토대로 형성된 도덕교육 모형이라는 점에서 4개의 하위 구성요소별 의미와 상호작용 양상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IEE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Rest와 Narvaez에 의하면 도덕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내적인 심리 과정들이 일어나야만 한다.<sup>46)</sup> 첫째, 도덕민감성(moral sensitivity)은 어떤 행위들이 가능하고, 각각의 가능한 행동들에 의해서 누가 그리고 무엇이 영향을 받으며, 그 행동에 참여한 일행들이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와

45) Ibid. pp.4~6 참고

46) W. M. Kurtines & J. L. Gewirtz, 문용린 역(2004),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pp. 488~501 참고

관련하여 사회적 상황에 관한 감각적 인식 체계의 수용성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황에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동이 필요할 때 재빠르게 반응해야 하고 적절하게 그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은 상황적인 정보에 민감해야만 하고 다양한 가능한 행동들을 구성적으로 상상해야만 한다. 민감성의 한 측면은 주변 환경 내의 단서들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다. 그 후, 일단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결정한 사람들은 가능한 행동들과 이러한 행동들의 가능한 결과에 의해서 누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에 관해서 생각하게 된다.

둘째, 도덕 판단(moral judgement)은 가능한 행동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도덕적 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은 선택 사항들을 저울질해 보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결정한다. 즉 1요소 과정의 차원에서 가능한 행동을 확인하였다면, 요소 2의 기능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도덕 판단은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현대 심리학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연구되었다. 판단을 형성하는데 관련된 기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전통 연구가 있다. 첫 번째는 사회심리학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사회 규범이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주요 전통적 연구는 Piaget 등의 인지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Kohlberg에 의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도덕성 발달단계 이론이다.

셋째,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는 그 사람이 다른 모든 가치와 의도들보다도 도덕적 가치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가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무엇이 가장 도덕적인 행동인지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고 나면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행동들이 다른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는 지를 깨닫게 된다. 도덕적 가치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치가 아니다. 쾌락, 승진, 예술, 음악, 지위와 같은 다른 가치들이 도덕적 가치와 충돌할 때(가치 갈등)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제 3요소인 도덕적 동기화와 관련된다.

넷째, 도덕적 행동 혹은 실행력(moral action)은 자아 강도와, 선택된 행동을 수행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심리적 기술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위험하고 예기치 않은 곤경에 빠졌을 때 필요하다. 이것은 방심과 다른 유혹들에 저항할 것을 요구한다. 최종 목적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내, 굳건함 그리고 능력의 특성들은 우리가 인격 혹은 자아강도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자기 규제적 행동에서 실패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 의지가 약함, 그리고 겁이 많음 등으로 명명된다. 자아강도는 모든 장기적인 과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과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지각된 효능감은 대처 행동, 노력, 지구력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위의 요소1~4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개의 하위요소들은 도덕행동이 완성될 때까지 조화롭게 상호작용해야만 한다. 연구에 의하면 때때로 어느 한 요소가 너무나 많은 주의를 강요할 경우 다른 한 가지 혹은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은 불가피하게 그 역할이 작아진다. 예를 들어 정서가 과도하게 작용하면 그 결과 행동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한 가지 도덕적 행동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것은 첫 번째 행동을 하는 도중에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가령 굳건함과 결의는 민감성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상황적인 요인들은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변화된다. 예를 들어 요소 3(동기화)는 요소 1(민감성)을 방해하며 요소 2(판단)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방해할 수 있다.<sup>47)</sup>

## 2) 사회 인지 이론

Narvaez는 도덕심리학 내에서 Kohlberg 이론으로부터 더 나아가 최근 심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사회인지적 연구 성과물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2항에서는 심리학의 사회인지적 접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sup>48)</sup>

Kohlberg는 인지가 도덕적 인지로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이고, 명시적이며,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며, 도덕적 기능이 도덕적 행위자의 의식적 활동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른바 ‘현상주의(phenomenalism)’를 철학적 출발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덕적 인지의 연구가 Bandura 류의 사회적 인지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의 진보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고 Lapsely와 Narvaez(2008)는 진단한다. 실제로 인간의 인지 활동과 사회인지적 기능의 상당 부분이 조금도 이와 같지 않고 오히려 암묵적·함축적·자동적인 과정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덕적 행동 역시 많은 부분 암묵적·함축적·자동적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대개 일상의 삶 속에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의식적 판단을 통해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명백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도덕성을 현상주의 가정에 입각하여 바라볼 경우 이러한 자동적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에 대한 도덕적 지위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현상주의 가정은 도덕영역의 쇠퇴와 함께 정당한 도덕심리학적 설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간

47) Ibid. pp.502~503 참고

48) 사회인지적 접근을 취하는 대표적 학자로는 Bargh, Hogarth, Chartrand, Ferguson, Cantor 등이 있다. 본 연구자는 Narvaez와 Bock의 “Developing ethical expertise and moral personalities” 및 Lapsely와 Narvaez의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the Moral Personality”, “일상의 도덕성과 도덕적 전문성의 심리학적 기초” 등 세 편의 논문을 검토하면서 위의 일군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사회인지적 접근법의 이론적 윤곽을 제시할 것이다.

기능의 범위를 현저하게 축소시켰다.<sup>49)</sup> 같은 맥락에서 Narvaez와 Bock은 사회 인지적 접근과 인지발달이론이 집중적으로 천착하는 분석의 범주가 서로 다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사회인지적 접근법으로 분류되는 심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의식적 과정’과 유사한 암묵적 과정이 우선적으로 상정되는 반면, 의식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이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Bargh, 1997). 실제 삶 속의 정보처리의 대부분은 자동적이며(Bargh & Chartrand, 1999), 대부분의 결정은 숙고 없이 일어나며, 대부분의 행동은 전 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에 의해 일어난다(Bargh & Chartrand, 1999; Bargh & Ferguson, 2000). 즉, 인간은 두 가지 유형의 마인드(Kahneman, 2003)를 지니는데, 우선 인지발달전통이 인지의 본질적 차원으로 간주하는 ‘숙고적 마인드(deliberative mind)’는 정보를 순차적이고 의식적으로 처리한다. 반면 사회인지적 접근이 새롭게 주목하는 ‘직관적인 마인드(intuitive mind)’는 자주 주의집중 없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무의식, 환경적 패턴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병렬적 프로세스 시스템과 무의식적인 행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Hogarth, 2001).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직관적 마인드는 몰입된 경험과 전통적 인격 교육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온 습관으로 구성되는데 반면에 의식적 마인드는 합리적 도덕 교육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는 정교화 된 도덕 추론에 의해 길러질 수 있다.<sup>50)</sup> 이처럼 심리학에서 사회인지적 접근은 Kohlberg류 도덕심리학이 핵심적 전제로 삼았던 편협한 현상주의(phenomenalism) 가정에서 벗어나, 인간의 무의식적·자동적·암묵적·함축적 인지과정에 주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psley와 Laskey(2001)의 자발적 특질 추론(spontaneous trait inference, STI)패러다임의 연구결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STI 패러다임은 사회적 경험의 의미를 정형화되고 습관적이며 비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자발적이고 숙고적인 과정의 양면을 포함하는 단서-회상 절차로 입증된다. 실험 참가자들은 목표 문장들을 기억하거나(자발적인 과정), 행위를 위한 동기를 기억하고 추론하도록(숙고적 과정) 지시받는다. 문장은 기질적(dispositional)이거나 혹은 의미론적(semantic) 단서에 의해 회상되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예상과 같이, STI 패러다임에서 비(非)만성(nonchronic)적 과정이 의미론적 단서에 의해 보다 더 많이 회상되는데 비해, 도덕적 만성(moral chronics)은 의미론적 단서(숙고적 과정)보다 많은 기질적 단서(자발적 과정)에 의해 상기됨을 보여주었다.<sup>51)</sup>

49) D. Lapsley & F. C. Power, op. cit., pp.59~61 참고

50) D. Narvaez, & T. Bock.(2014). “Developing ethical expertise and moral personalities”, For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edited by Larry Nucci, Darcia Narvaez & Tobias Krettenauer (New York, Routledge), p.4

51) D. Lapsley & D. Narvaez(2004),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the Moral Personality”, in D. K. Lapsley & D. Narvaez (Eds.), Moral development, self and identity, Mahwah, NJ: Erlbaum, p.203

여기에 더해 이 연구는 상위 정신과정의 암묵적이고 함축적이며 자동적인 특성과 관련한 증거들의 발견에 큰 기여를 했다(Bargh & Ferguson, 2000). 자동적 활성화(automatic activation)는 태도(Bargh, 1989), 자아개념(Bargh, 1982; Higgins, 1987), 고정관념(Pratto & Bargh, 1991), 사회적 행동들(Bargh, Chen, & Burrows, 1996)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자기 규제를 지시하는 무의식적 정신과정의 증거와(Bargh & Chartrand, 1999) 이와 유사하게 평가, 사회적 지각, 판단, 사회적 상호작용, 내부적 목표 조직화 과정이 의식적 의도나 의지적 행동 없이 작동한다는 근거(Bargh & Ferguson, 2000)가 엄존한다. 게다가 Bargh와 Chartrand에 의하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조절을 통해 실행하는 능력은 실제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를 ‘의식적 인지’와 등가물로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실수이다. Bargh가 지적하였듯이, 주어진 상황 내에서 나타나는 의식적(conscious) 과정은 행동과 판단 및 평가에 있어 더 이상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없으며, 의식적 선택의 블랙박스(블랙박스)는 사회 인지적 연구의 진전과 함께 보다 더 축소될 것이다.<sup>52)</sup>

한편 Narvaez와 Lapsely는 성격과 인격에 관한 사회인지적 접근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sup>53)</sup> 우선 사회인지적 접근은 성격 이해에 있어서 ‘특질 모형(trait model)’에 비해 상당한 장점을 지닌다. 둘째, 사회인지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인격에 대한 자원들을 제시한다.<sup>54)</sup> 그들(Narvaez와 Lapsely)에 의하면 도덕적 인격에 대한 ‘덕 접근’은 도덕심리학에 의해 견인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대체로 그것이 앞서 언급한 성격에 관한 ‘특질 이론’과 명백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특질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특질로서의 덕목 역시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반면 최근에 성격(인격)에 대한 사회 인지적 접근은 개인차의 구조적 토대를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특질 접근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Cantor(1990)에 의하면 특질 접근은 성격 이론의 ‘having(소유)’측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반면 사회인지적 접근은 성격 모델로서 ‘doing(구체적 행위)’측면을 나타낸다. 전자(having side)는 성격을 특질들의 합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특질들의 배분으로 인해 성격의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질 접근은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당대의 성격 연구에 기여하지 못했다. 특질 모형은 통상적으로 상황의 가변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성향들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부분이 적다. 인격(성격)은 일관성이 있으나, 일관성이 시간과 상황을 교차한 행동의 안정성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일관성은 성향, 관심, 능력 그리고 행위자의 발전 가능성 등 여러 요소의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작용 및 학습, 사회화 그리고 발달의 변화하는 맥락에 상응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개인(person)과 맥락(context)사이의 불

52) Ibid. p.204 참고

53) Ibid. pp.193~194 참고

54) Lapsely와 Narvaez는 도덕적 성격 기능의 개인차에 대한 통찰과 관련하여 사회 인지 이론의 ‘인지적 전문성’과 ‘스키마 접근성’ 연구들을 참조한다.



가분한 연합은 ‘발달적 맥락주의(developmental contextualism, Leaner, 1991, 1995)’의 교훈이며, 따라서 개인내적 안정성과 성격적 일관성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개인과 맥락 사이의 교호작용이 핵심적 함의를 던져줄 수 있다.<sup>55)</sup>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특질 모델’의 결점은 개인들이 변화하는 맥락적 환경 속에서 반응하며 드러내는 이러한 복합적인 일관성의 유형을 간과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Cervine & Shoda, 1999). 그것은 상황적 가변성의 법칙적인 유형을 간과한다.

Lapsely와 Narvaez는 기존의 심리학이 인격(성격)을 다룸에 있어 핵심적 변수로 사용했던 특질 접근의 단점을 위와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한 후, 그 대안으로 사회인지적 변수들을 도입해야 함을 강조한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특질접근이 성격의 ‘소유 측면(having side)’을 나타낸다면, 사회인지적 변수들의 도입은 성격적 일관성의 논의 속에서 의 ‘행위 함(doing side)’의 측면을 보여준다(Cantor, 1990). 즉, 성격(인격)에 대한 사회인지적 접근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사회 인지적 기제에 입각하여 그것을 어떻게 변형하고 해석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강조점을 둔다. Cantor에 의하면 성격에 관한 사회인지적인 기본 요소는 ‘스키마(schema), 과업(tasks), 전략(strategies)’들로 구성된다. 특히 사회인지이론에서 스키마는 사회적 인식과 기억을 운반하고 걸러주는 구조화된 지식이다. 스키마들은 사회적 상황과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기억,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들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안내한다. 과업은 우리가 개인적인 목표로 변형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삶의 요구에 대한 문화적인 설명을 의미한다. 즉 과업은 우리가 개인적 목표로 변형하고 이해한 문화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삶의 요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은 삶의 과업들을 실행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다.<sup>56)</sup>

덧붙여 Narvaez와 Lapsely는 같은 논문에서 Cervone과 Shoda(1999)의 연구를 토대로 사회인지적 접근에서 성격적 일관성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설명한다.<sup>57)</sup>그들(Cervone & Shoda)은 성격의 일관성 모델은 아래의 세 가지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성격적 기능의 체계성에 대한 사실을 해명해야 한다. 이것은 성격이 연합된 인지-정서적인 시스템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인지와 정서를 분리된 영향을 주는 개별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뜻한다. 두 번째로, 행위와 사회-맥락적인 기대 사이의 일관성의 증거를 해명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상황과 시간 속에서 하는 행동들은 종종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일관성이 있다. 이러한 표현형의 일관성은 성격에 관한 심리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결론에 있어 핵심이 된다. 세

55) 이러한 Lapsely와 Narvaez의 지적을 통해 기존의 심리학에서의 도덕적 성격(인격)에 대한 ‘특질(trait) 접근’은 개인과 맥락 사이의 다양한 변수들과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성격의 일관성을 상세하게 규명해 내기 역부족인, 다소 정교하지 못한 접근법임을 알 수 있다.

56) Ibid. p.195 참고

57) Ibid. pp.195~196 참고

번째로 목표, 선호, 가치들을 정돈하는 자기 일관성의 현상학적 감각들에 대해 해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개인적 분투(striving)와 동기화된 행위에 있어서 의미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성격적 일관성을 이루는 특성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사회적 정보처리에 기반 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이 모델은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의 활성화를 일관성 있는 성격 기능의 중대한 특성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표상들은 사회적 상황,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 다가올 일들, 개인적 목표, 신념과 기대, 행동적 대안과 과업전략에 관한 지식들을 포함하며 이는 스키마, 스크립트, 원형, 에피소드, 역량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되어 왔다(Hasie, 1983, Mischel, 1990). 이러한 사회인지적인 단위들의 독특한 구조와 그들의 상호적인 영향 및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성격에 관한 다양한 배열을 가능하게 하지만, 가능한 배열의 범위는 상호적인 제한의 시스템 속에서 나타나기에 무한하지 않다. 여전히, 성격에 있어 개인차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된 목표 시스템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는 인지-정서적인 체계에 의해 조직화된 구조로서 인식, 선택, 다양한 맥락적 상황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덧붙여 사람들은 독특하고 맥락화 된 반응의 유형들을 촉진하는 상이한 사회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반복 경험은 행동 유도성(affordance)을 제공하여 인지-정서 체계의 안정적인 배열을 가져온다.

위와 같이 사회인지적 접근에서의 성격의 일관성에 대한 설명을 언급한 후, Narvaez와 Lapsely는 새로운 도덕적 인격 모델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회 인지적 접근의 주요 자원들을 6개로 제시하고 있다.<sup>58)</sup> 첫째, 사회인지적 접근은 인지(cognition)의 핵심적 중요성을 여전히 유지하지만, 인지의 개념을 기존의 도덕성 발달 전통에서 상정했던 것에 비해 정신적 표상들, 과정들, 기제들의 더 광범위한 조합으로 간주하고 있다. 스키마<sup>59)</sup>와 스키마 활성화의 상태는 도덕적 환경의 핵심 특성들을 알아차리는 우리의 차별화되는 재능을 강조한다. 이에 Narvaez와 Bock은 스키마들이 딜레마를 도덕적 시야에서 평가하며 인식하는 능력에 있어 기초가 되는 핵심적 개념이기에, 사회인지적 성격 이론의 핵심적 토대 개념으로 ‘사회인지적 스키마’를 상정하고 있다(Narvaez & Bock, 2002).

### 3) 전문성 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인지의 무의식적 과정과 유사한 암묵적 과정을 우선적으로 상정하고 의식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을 부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로 사회

---

58) Ibid. pp.197~198 참고

59) 여기서 스키마는 ‘사회 인지적 스키마’를 의미하며, Narvaez는 도덕 스키마 역시 사회 인지적 스키마의 일종임을 강조한다.

인지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Dreyfus & Dreyfus, Hogarth, Sternberg, Marshall, Musschenga 등과 같은 일군의 학자들은 이러한 사회인지적 접근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인지적 스키마’의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장하여 전문성(expertise)연구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인지적 연구의 확장으로 탄생한 전문성 연구의 특징과 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리는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가는 광범위한 능력을 볼 수 있다. 전문성은 실행과 행동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정교하고 깊은 이해와 관련된다. 전문가와 초보자는 세 가지 기본적인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sup>60)</sup> 첫째, 한 분야의 전문가는 초보자에 비해서 더 많은 양질의 조직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Chi, Glaser, & Farr, 1988; Sternberg, 1998,1999). 전문가적 지식에는 수행 시 상호작용하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 : know what에 해당),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 know how에 해당), 그리고 조건적 지식(conditional knowledge : know when & how much에 해당)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전문가는 세상에 대해 다르게 지각하고 반응하는데, 초보자들이 놓쳐버리는 세부 사항과 기회들을 포착해 낸다(K. E. Jhonson & Mervis, 1997). 세 번째로 전문가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초보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식적이고 노력을 경주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데 비해, 많은 전문가들의 기술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고 힘이 들지 않는다(Feltovich, Prietula & Ericsson, 2006). 전문성은 맥락화되어있는데, “반사적으로 활성화되는, 맥락 특수적인 스키마들(schemata)”(Ritchhart & Perkins, 2005)을 포함하며, 수년 혹은 수천 시간 동안의 의도적인 학습에 의해 찬찬히 길러진다(Ericsson & Charness, 1994). 잘 교육받은 전문가의 직관은 개략적인 직관과는 전혀 다른데, 원칙(이론)으로부터 아주 힘들게 배워 온 훨씬 더 정교하고, 무의식적으로 깊이가 있으며 자동화된 지식을 통합해 낸 것이다(Dreyfus & Dreyfus, 1990).

한편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사회 인지적 스키마를 한 개인 특유의 성격(인격)형성과 관련시키는 Cantor(1990)의 연구는 후에 Narvaez에 의해 도덕적 스키마와 도덕적 전문성 논의를 확장시키는데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Cantor에 의하면 self-schema, 원형(prototype), 스크립트(script), 에피소드(episode) 등은 성격을 형성시키는 기본적 인지적 단위이다. 앞서 언급했듯 Cantor는 전문성의 관념을 스키마가 어떻게 개인차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sup>61)</sup> 우선 그녀는 사회인지적 스키마의 중요한 세 가지 기능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첫

60) D. Narvaez(2010b), “Moral complexity: The fatal attraction of truthiness and the importance of mature functioning”,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5, No.2, pp.170~171

61) D. Lapsley & D. Narvaez(2004), op. cit., p.195

째, 특정 스키마들이 만성적으로 접근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무관하게, 자기 경험의 특정 측면들에 집중하도록 방향이 지시된다. 정보처리에 있어서 스키마적 본성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초보자들이 놓쳐버리는 영역-적합성 있는 활동의 핵심적 특성을 제시해 준다. 둘째, 만약에 특정 스키마들이 기억 속에 만성적으로 중요하다면 양립가능하거나 또는 해당 스키마와 관련하여 적절성 있는 삶의 과업들, 목표, 상황들이 선택 혹은 탐색되기 쉽고, 이는 결국 또한 목표로 환원되거나 성향적인 기질로 출현하게 된다. 세 번째로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스키마들로 경계 지워진 경험의 영역에서, 우리는 고도로 숙련된 행위경로를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삶의 맥락 속에서 준비된, 때때로 자동적으로 활용가능한 행위의 계획을 제공한다(Cantor, 1990). 전문가들은 그래서 고도의 자동성을 가진 절차적 지식을 담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덧붙여 후에 Narvaez가 ‘미네소타 공동체의 목소리와 인격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한 윤리적 전문성 모형(Ethical Expertise Model) 및 이를 발전시킨 IEE를 제안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이론적 틀 구상에 활용한 Marshall의 스키마 이론인 ‘4단계의 지식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한다.<sup>62)</sup> Marshall의 도식발달에 관한 아웃 라인은 스키마가 새로운 지식의 획득과 함께 변화해 간다는 Rummelhart와 Norman(1980)의 견해에 의해 지지된다. Marshall(1995)에 의하면 충분히 발달된 스키마에는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4가지의 지식수준이 존재한다. 우선 1단계로 ‘동일시 지식(identification knowledge)’은 해당 영역의 대략적인 경계선 혹은 ‘큰 그림’에 해당된다. 학생들은 영역 상황의 핵심적 본성에 대해 친밀해 지고, 역동적인 맥락 속에서 핵심적 요소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동시에 다층적인 요소들을 처리하게 된다. 동일시 혹은 패턴 인식은 요소들(element)을 배열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2단계로 ‘정교화 지식(elaboration knowledge)’은 상황 창출이나 정신적 모형을 가능케 하는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에 해당된다. 이것은 감각정보를 포함한 개인적 경험을 포괄하는 일반적 추상(abstraction)이다. 처음에 학생들은 원형적인 귀감 혹은 모범으로부터 장점을 취한다. 정교화 지식은 요소들의 특정 상황 속에서의 세부사항들에 집중한다(언어적이고 시각적인 측면). 3단계로 ‘계획 지식(planning knowledge)’은 스키마가 계획을 만들고 기대를 창출하며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스키마는 그것의 사용과 함께 업데이트된다. 4단계로 ‘실행 지식(execution knowledge)’은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되며 기술과 지식의 적용이 일어나게 된다.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이상의 상황이 주어지면 학생들은 어떤 상황인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획득해야 하며 각각의 상황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맺

62) D. Narvaez(2003), “The Neo-Kohlbergian Tradition and Beyond: Shamas, Expertise and Character”,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51, pp.31~32 참고

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실행 계획을 형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초보자의 순진한 직관과 전문가의 잘 형성된 직관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도덕적 직관주의자 이론<sup>63)</sup>은 자주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즉흥적인 직관을 사용한 자료(Lapsley & Hill, 2008)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언가에 대한 직감을 갖는 것은 한 개인이 박식하거나 많이 안다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경험에 기반 했거나, 후-반성적(post reflective)이며 잘 교육받은 직관은 경험의 말미에 일어나게 된다(의식적 노력이 자동화 된다; Narvaez & Lapsley, 2005). 영역 문제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있어 상당한 양의 암묵적 지식을 평가할 때, 전문가들은 초보자에 비해 더 나은 직관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어떤 행동이 더 효과적인지와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지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들은 ‘부정적인 전문성(negative expertise)’-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고(Minsky, 1997), 불확실성에 신호를 보내는 직관에 주의를 기울인다(Hogarth, 2001). 전문가의 판단은 보통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으며, 시간 압박이 정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Gladwell, 2005). 직관에 대한 보다 차별화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Haidt의 SIM(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에서 연구되어 온 직관이 전형적으로 순진무구한(naive) 직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잘 교육받은 도덕적 직관은 직관 효과(intuition effects)의 다른 그림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직관은 몰입되고 강화된, 집중적 훈련에 의해 발달한다. 친절하거나 유익한 환경 속에서 지도를 받을 때, 좋은(혹은 효과적인) 직관이 형성되는데, 반대로 사악한 환경에서는, 빈약한 직관이 형성된다(Hogarth, 2001). 특수한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은 동시에 실제 삶의 맥락 속에서의 추론과 직관의 형성을 돕는다. 영역 속으로의 몰입과 멘토에 의해 제공되는 설명이 동시에 주어질 때, 직관과 숙고적인 이해가 동시에 배양된다(Abernathy & Hamm, 1995). 전문성 트레이닝의 과정을 통해 해석상의 프레임워크가 학습될 수 있고, 실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적용된 행동 스키마(action schema)는 높은 단계의 자동성으로 연마된다(Hogarth, 2001). 일반적으로, 친절한 환경 속에서 초보자에서 전문가로의 교육을 활용할 때 교육이 최상으로 구조화된다.

#### 4) 긍정심리학

1절 4항에서는 Narvaez가 IEE의 구상 시 고대 그리스의 덕윤리의 주요 개념인 덕, 인격, 행복,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 번영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

63) 대표적 도덕적 직관주의자로 Haidt를 들 수 있으며, Haidt가 제시하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I장 3절 1항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주지해 둔다.

데 있어 이론적 지지근거가 되어 준 긍정심리학 이론의 요지와 의의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IEE의 ‘세 가지 토대 관념’<sup>64)</sup> 중, 인간은 본성적으로 협력적이며 자기-실현적인 존재로 본 측면, IEE 실천적 적용을 위한 다섯 단계의 교수-학습 과정 전반 그리고 IEE의 28개 기술들의 항목 설정 및 각각의 기술들을 덕에 연동시키는 측면 등에 긍정심리학은 주요한 통찰을 상당수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는 긍정심리학의 이론적 내용과 도덕교육적 함의와 관련한 국내 연구자들의 논문 및 단행본이 적지 않게 출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 저작물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 (1)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개념 및 주제

긍정심리학을 창시한 Seligman에 의하면 긍정심리학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번영(flourishing)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인간의 최적 기능 수행에 관한 과학적 연구이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긍정심리학은 행복(eudaimonia), 안녕(well-being), 번영(flourishing)과 같은 인간 삶의 긍정적 측면에 관한 하나의 과학이다(Boniwell, 2006). 긍정심리학은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강점과 미덕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 안녕과 연관된 최적의 기능 수행에 관한 과학적 탐구이다(O’Grady, 2013). 긍정심리학은 개인, 집단, 제도의 번영과 최적 기능 수행에 기여하는 조건과 가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이다(Gable & Haidt, 2005).<sup>65)</sup> 요컨대 긍정심리학은 행복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지향하는 20세기 말에 등장한 새로운 심리학이다.

긍정심리학의 의미는 긍정심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때 보다 적실하게 이해될 수 있다. 긍정심리학은 20세기 중후반의 심리학이 주로 정신장애, 심리적 결함 등과 같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져 온 것에 대한 반성에서 탄생하였다. 긍정심리학은 이러한 부정적인 방향에 경도된 심리학 연구 흐름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간 삶의 긍정적인 측면인 행복, 성장, 자기실현, 좋은 인격 등에 주목하여 심리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은 과학 분야에서 삶을 불행하게 하는 부정적 심리 상태가 아니라 긍정적 정서에 대하여 연구하고, 개인의 강점과 미덕을 추구하여 일찍이 Aristoteles가 말한 ‘행복(eudaimonia)’으로 이끌어 줄 학문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

64)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IV장 2절 1항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주지해 둔다.

65) 추병완(2013), 「도덕 교과에서의 행복교육: 긍정심리학과 긍정교육의 시사점」, 『도덕윤리과 교육』, 제40호, p.55

다고 말하며 심리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는 심리학의 이러한 방향을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고 명명하였다. 결론적으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며,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기능 상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sup>66)</sup>

이제 긍정심리학의 주된 연구 주제에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sup>67)</sup> Narvaez가 IEE 토대 관념으로 제시한 바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긍정 심리학은 개인, 집단, 사회가 성장하고 번창하는 요인을 찾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에게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있으며, 부정적 측면은 약화 내지 제거시켜야 하고 긍정적 측면은 강화시켜야 한다. 긍정심리학은 부정적 측면의 극복보다는 긍정적 측면의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인간은 병리현상을 제거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5의 상태를 0으로 만드는 것과 0의 상태를 +5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기존 심리학이 -5의 상태를 0으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긍정심리학은 0 또는 +2의 상태를 +5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은 크게 세 가지 주제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긍정 상태(Positive states), 긍정 특질(Positive traits), 긍정 기관(Positive institutions)이 그것이다. 첫째, 긍정 상태는 만족감, 안락감, 친밀감, 낙관성, 열정, 활기 등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 정서를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말한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긍정상태의 구성요소, 효과, 증진 방법 등을 연구한다. 둘째, 긍정 특질은 지혜, 끈기, 정직, 겸손, 유머 등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긍정적인 행동 양식이나 성품을 말한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긍정 특질의 개념 정의, 측정법, 심리적 특성, 억제 및 촉진 요인 등을 연구한다. 셋째, 긍정 기관은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인간의 행복과 자기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을 말한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기관이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한 가운데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즉 행복한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연구한다.

## (2) 긍정심리학과 행복

여기서는 긍정심리학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인간 행복(eudaimonia) 개념 구분에 대해 살펴본다.<sup>68)</sup> 우선 행복에 대해 쾌락주의적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말을 선호하고 있으며, 자기실현적 입장에

66) 윤병오(2011),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과 덕목의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 교육』, 제33호, pp.157~158 참조

67) 권석만(2009),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p.24

68) 윤병오, op.cit., p.161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이라는 말을 선호하고 있다. 자기실현적 행복에 해당하는 심리적 안녕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인생의 목적, 개인적 성장, 자율성 등 6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자기실현적 행복을 강조하는 긍정심리학자들은 특별히 사람의 긍정적 성품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 결과가 바로 ‘VIA 분류체계’이다. 이 분류 체계는 앞서 언급한 대로 6개의 핵심 덕목 아래에 24개의 강점들로 구성되어 있다.<sup>69)</sup>

한편 Seligman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의 조건으로 즐거운 삶(pleasant life), 적극적인 삶(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의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Seligman, M. E. P., Rashid, T., & Parks, A. C., 2006). ‘즐거운 삶’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만족, 기쁨,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에 대해서는 수용과 감사를, 현재에 대해서는 즐거움과 유쾌함을,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다. 즐거운 삶은 긍정정서를 최대화하고 부정정서를 최소화하는 삶으로써 주로 쾌락주의적 행복관과 깊은 관계가 있다. 여기서의 즐거운 삶이란 남다른 쾌락을 쫓거나 황홀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수준의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삶’은 자신의 일, 대인관계, 여가활동 등 일상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는 삶이다. 여기서 적극적인 참여는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의 ‘몰입(Flow)’ 개념과 통하는 것인데, 몰입이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심리적 상태로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심취하고 있을 때 나타난다. 이러한 몰입은 자신의 장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가능한 것이다. Seligman은 성격 강점 중 개인의 독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을 대표 강점이라고 하였고, 이 대표 강점을 일, 사랑, 자녀양육, 여가 등 자신의 삶에 잘 활용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였다. ‘적극적인 삶’은 주로 자기실현적 행복관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은 개인의 행위와 삶에 소중한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말한다. 삶의 의미는 자신을 넘어서 자신보다 더 큰 것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은 가족, 직장, 지역, 국가 또는 신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개인적인 행복 추구만으로는 부족하며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이타적인 활동이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연구보고는 매우 많다. 의미 있는 삶은 도덕적 완성이나 인격적 완성을 통해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Aristoteles의 행복 개념인 ‘eudaimonia’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Seligman(2002)은 이상의 세 가지를 종합하여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의 긍정적 성품과 성격 강점을 자각하고 계발하여 자신의 생활에 활

69) (1) 지혜/ 지식(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통찰), (2) 용기(용감함, 인내, 진실성, 활력), (3) 인간애(사랑, 친절, 사회성), (4) 정의( 시민의식, 공정함, 지도력), (5) 절제(용서, 자비, 신중함, 겸손/겸양, 자기 조절), (6) 초월(심미안, 감사, 낙관성, 유머, 영성)



용함으로써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라고 하였다.<sup>70)</sup>

그렇다면 긍정심리학적 행복교육이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어떤 함의점을 가지는가? 긍정심리학적 행복교육의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은 긍정 심리학이 Narvaez의 IEE모형에 어떻게 수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 추병완(2013)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71)</sup> 첫째, 긍정심리학적 행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 학생들이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갖고 있을 때, 안녕(well-being)을 경험하고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더욱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긍정심리학과 긍정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 학습을 통해서도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직접적·명시적으로 친사회적 가치(존중, 협동, 차이점 수용, 동정심, 정직, 친교/포함)와 기능(쾌활 기능-낙관적인 사고 기능, 대처기능, 적응적 거리두기, 유머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유익한 사고 기능, 문제해결과 도움 모색/ 사회적 기능-자원과 과업 분담, 협동, 불일치 존중, 타협, 흥미로운 대화, 갈등 관리, 청중을 향하기/ 정서적 소양 기능- 화·두려움·실망과 같은 강한 감정을 관리하기,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타인을 향한 공감과 지지 보내기 등)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그 가치와 기능을 실천하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발달시킴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알려지고 있다(Noble & McGrath, 2008).

둘째, 긍정심리학적 행복 교육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길러줄 수 있다. 긍정심리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긍정적 정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소속감, 안전감, 만족감, 자긍심, 유쾌감, 흥분감, 학교에서의 성공에 대한 낙관적인 감정 등의 학교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정서는 행동적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인지적·정서적 자원들을 형성시켜 준다. 긍정적 정서는 낙관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 결정을 위한 사람들의 역량을 고양시켜 주고 더욱 유연하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끔 이끌어 준다.

셋째, 긍정심리학적 행복 교육을 통해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다. 긍정심리학은 행복과 자기실현을 지원해주는 긍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긍정심리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녕 수준을 제고하고 잠재력을 실현함에 있어서 긍정 교실과 긍정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긍정적인 학교 문화와 교실 문화는 긍정적인 관계, 즉 긍정적인 또래 관계와 긍정적인 교사-학생의 관계로 구성된다.

넷째, 긍정심리학적 행복 교육은 강점을 통한 적극적 관여를 강조한다. 개별적인

---

70) Ibid. pp.161~162 참고

71) 추병완(2013), op. cit., pp.66~69 참고

성품의 강점들을 발견하여 활용하는 것이 안녕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학생들이 그들의 대표 강점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을 증가시켜 주는데 교육적 노력을 기울인다.

## 5) 심리이론에 대한 Narvaez의 통합적 관점

1절 5항에서는 Neo-Kohlberg주의를 대표하는 Rest의 제자로서 학계에 발을 들여 놓은 Narvaez가 이후 앞서 살펴보았던 사회인지이론, 전문성 연구, 긍정심리학 등의 다양한 심리학의 연구성과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도덕심리학적 관점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녀는 인지 심리학의 스키마(schema), 전문성(expertise) 그리고 인격(character)의 세 요소에 집중적으로 천착함으로써 Neo-Kohlberg적 전통과 그것을 넘어 자신의 고유의 도덕심리학적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녀가 자신만의 고유한 도덕심리학적 관점을 구축하기 위해 토대를 둔 핵심적 개념인 스키마, 전문성, 인격의 세 요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1) Neo-Kohlberg주의 입장의 수용과 확장

스키마, 전문성, 인격을 토대로 한 Narvaez 고유의 도덕심리학적 관점 구축의 본격적 논의에 앞서 그녀가 도덕심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시작점, 즉 Rest의 제자로 Neo-Kohlberg주의에 속해서 그들의 주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도덕심리학에 대한 기본적 출발점을 다지는 부분을 다루어본다. 우선 Narvaez는 Kohlberg 이론 비판에 앞서 그 명백한 기여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한다. 그녀에 의하면 Kohlberg의 인지발달 패러다임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관련 연구를 양산했다. Kohlberg로부터 감사할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그는 행동주의적 주류에 대항하는 선봉에 서서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Piaget의 연구에 주목하도록 도왔다. 또한 덕과 특질을 넘어 도덕성을 보는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였다. 인지혁명은 여전히 발전 도상에 있으며 고전적인 시기와 Piaget 및 Kohlberg의 단계로부터 훨씬 더 발전했다.<sup>72)</sup>

주지하다시피 Narvaez는 Rest의 제자로 Kohlberg 이론의 비판적 계승을 주도하는 Neo-Kohlberg적 입장에 동참하게 된다. 미네소타 대학의 Rest, Bebeau, Thoma, Narvaez 등에 의해 주도된 Neo-Kohlberg적 접근은 그간 Kohlberg 이론에 대해 제기된 비판에 대한 응답을 모색하고 이른바 ‘DIT(Defining Issues Test)’로부터 수집

---

72) D. Narvaez(2003), “The Neo-Kohlbergian Tradition and Beyond: Shamas, Expertise and Character”,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51, pp. 1~2

된 광대한 자료들을 해석한다.<sup>73)</sup> 전 세계의 많은 응답자들로부터 수집된 DIT 데이터의 해석을 바탕으로 Kohlberg 이론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Narvaez는 그동안 다양한 심리학 이론들로부터 제기되었던 Kohlberg 이론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74)</sup> Kohlberg 이론에 대한 아래 제시된 다양한 비판 및 그에 대한 Neo Kohlberg주의 입장에서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Kohlberg의 기본적인 관점을 수용하면서 일정 측면에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Neo Kohlberg적 접근의 이론적 기본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첫째, Kohlberg는 중요한 심리학적 과정과 관련하여 도덕성의 한 작은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에게 도덕 판단은 도덕 발달을 위한 열쇠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도덕 판단 단계를 설명하려면 그들의 동기와 민감성 그리고 행위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처럼 Neo-Kohlberg적 이론은 도덕 판단이 도덕적 행위 산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네 가지 심리학적 과정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행동)중에 단지 한 과정일 뿐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Rest, 1982; Narvaez & Rest, 1995)

둘째, Kohlberg는 ‘정의(justice)’라는 도덕성의 한 부분에만 지나치게 주목한다. Kohlberg는 정의의 완전한 의무와 최소화된 배려의 불완전한 의무에 대해 언급했다.(Nunner-Winkler, 1982) Neo-Kohlberg주의자들 역시 Kohlberg와 같이 정의의 우선성을 강조하여 배려(care)가 정의(justice)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후의 발달 단계에서 더 근본적으로 통합되어가는 측면에 주목한다.(Kohlberg, Levine & Hower, 1983). 일반적으로 ‘배려’ 추론은 종종 Neo-Kohlberg주의자들이 말하는 도덕적 민감성 또는 도덕적 동기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불완전한 의무의 발달은 Narvaez의 IEE의 한 부분으로 차후에 논의된다.

셋째, Kohlberg는 도덕적 사고에 대한 Piaget의 관점을 확대해석했다. Kohlberg의 기획은 Piaget가 논리적 조작(logical operation)을 통해 그의 심리학적 작업을 진행했듯이, 도덕 단계 발달의 논리적 필요성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Kohlberg의 시도는 불완전한 것으로 비판받아왔다(Gibbs, 1979). Neo-Kohlberg적 관점은 형식적 조작을 측정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대신에 인지 과학적 관점에서 도식(schema)의 변화를 모색하고, 전문가적 지식(expert knowledge)에서처럼 구조(structure)가 내용(content)으로부터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fuzzy-trace theory’<sup>75)</sup>적 시각을 차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조직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마

73) ‘DIT’는 몇 개의 딜레마와 함께, 응답자로 하여금 딜레마와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그들에게 특정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급수를 매기는(rate and rank)것과 관련한 고려사항들로 구성된다. Rest에 의해 주도된 DIT검사와 응답 데이터는 25년에 걸쳐 수집되었다. (Ibid. p.2)

74) D. Narvaez(2003), op.cit., pp.3~5 참고

75) Fuzzy-trace theory (FTT)는 인지에 관한 이론으로, 이중-소인(dual trace)개념에 기반

찬가지로 도덕 판단에서 상위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고 조직화된 사회적 협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Narvaez의 작업은 이러한 상위의 도덕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와 같이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넷째, Kohlberg의 경성단계 모형(hard stage model)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어떤 이는 (Piaget가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시각을 견지했던 것에 비해) Kohlberg가 더 강한 ‘단계(stage)’ 개념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Kohlberg가 Piaget보다도 더 Piaget 주의자에 가깝다고 말한다. 비록 개인의 도덕적 기능이 한 단계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경성 단계 모형을 지지하는 자료도 존재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도덕 판단 연구의 데이터들은 이러한 근거를 드물게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심리학의 변화에 발맞추어 Neo-Kohlberg주의 이론은 인지 발달에 있어 ‘연성단계 모형(soft stage theory)’을 차용하여 발달과정에서 추론의 유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의 분포 변화에 집중한다.

다섯째, Kohlberg의 방법은 구술적인(verbal) 표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Neo-Kohlberg주의 이론은 개개인들이 자신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한다(Keil & Wilson, 1999). ‘DIT’는 언어적 표현에 상위의 점수를 부여하는 인터뷰 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재인 기억(recognition)에 의해 측정되는 암묵적인 도덕 판단을 시험한다.

여섯째, Kohlberg의 인터뷰 연구에서는 5~6단계(후인습 단계)에 도달한 증거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응답자가 더 높은 단계의 도덕 판단 점수를 받기 위해 철학적 논쟁에 있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야만 하는 인터뷰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가능한 응답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DIT를 이용하여 암묵적 도덕 판단을 측정했을 경우 후-인습적인 사고의 근거를 발견하기가 용이하다. 후기 Piaget주의자들이 강조한 인지 발달의 특성중 하나는 덜 정교화 된 지식(동일시 지식과 같은 형태의)에서 더 정교화 된 지식으로의 이동과 같은 형태의 발달 구조의 질적인 변화이다.

일곱째, Kohlberg는 어린이들의 도덕적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정교한 측정은 매우 어린 아이들의 도덕적 경향성을 발견했다. 튜리엘과 그의 동료들의 작업에 기반하여(Turiel, 1998) Narvaez는 어린이들이 Kohlberg와 Neo-Kohlberg주의자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증거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여덟째, Turiel은 Kohlberg가 관습과 도덕성의 두 영역을 혼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튜리엘(Turiel, 1993, 1998)은 관습과 도덕성을 구분하면서 각각이 서로 다른 경

---

하여 인지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Charles J. Brainerd and Valerie F. Reyna 등에 의해 제안된 이론이다. 예를 들어 인지심리학, 인간 발달, 사회 심리학 등의 영역에서 오(誤)기억(false memory)과 그것의 발달, 가능성 판단, 의학적 의사 결정, 위험 지각과 추정, 의사결정에서 편견과 오류 등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로를 통해 발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Narvaez는 Blasi의 관점(Blasi, 1990)에서 Neo-Kohlberg주의자의 이론에 동의하며, Turiel이 도덕성이 수반하는 것에 대한 선험적인(a priori) 철학적 결정을 했고 그것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되었다고 비판한다. 도덕영역에 있어서의 발달적 차이를 보여주는 추수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Narvaez는 관습을 도덕성으로부터 분리하는 대신에, Kohlberg적 관점에 동의하여 도덕 판단의 발달이 관습으로부터 그것을 넘어서는(후인습 수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도덕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보는 사춘기시기에 나타나는데, 사춘기 초기에는 관습적 사고가 도덕적인 것으로 관주되던 것이 이후 대학생 시기에 관습을 도덕과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후인습적인 사고’로의 이동이 바로 그것이다.

아홉째, 도덕성에 있어서 문화(culture)가 발달적 차이를 압도한다. Shweder와 그의 동료들은 문화가 개인적인 발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도덕 판단에 관한 데이터들은 도덕적 사고에 있어 전(前)인습적이고 인습적인 사고 유형의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발달적 차이를 보여주는데, 따라서 현재에 측정된 바와 같이 문화는 정의추론을 압도하지 못한다 (Rest, 1986; Snarey, 1985). DIT에 의해 측정된 바와 같이 암묵적인 후인습적 도덕 판단의 발달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지만,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육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Gielen & Markoulis, 1994; McNeel, 1994). Shweder는 도덕 판단에 있어 문화의 우선성을 입증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연구는 Turiel(1983)의 도덕성에 대한 협소한 정의에 근거하고 있어 Kohlberg주의자들과 Neo-Kohlberg주의자들의 연구와 비교가능하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Kohlberg는 그의 연구영역을 도덕성에 관한 Hare의 Neo-Kantian적 정의를 기반으로 철학적 용어로 정의했다. 처방적이고 의무적인 판단이며 보편화 가능할 때 비로소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Kohlberg가 철학의 영역을 침범하였기에, 의무론적 관점을 도덕심리학에서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으로 간주하는 일군의 철학자들로부터의 비판이 있었다. 20세기 후반의 철학이 근본적 원리주의(foundational principlism)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Kohlberg는 Rawls(1971)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원리가 충분한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는 입장과 같이, 원리에 입각하여 이론을 정초하는 측면에 대해 비판받는다.(Clouser & Gert, 1990; DeGrazia, 1992; Strike, 1982; Toulmin, 1981). 그의 이론에서 철학적 측면의 변경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Kohlberg는 더 유용한 “bottom-up”도덕성의 측면을 간과했다. Neo-Kohlberg 이론은 폭넓은 도덕철학적 관점들을 통합해냄으로써 이러한 비판에 대한 응답을 시도하는데, 원리주의를 넘어서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을 위해 중간 단계의 윤리적 구성(constructs)을 강조하고 ‘공동의 도덕성(common morality)’<sup>76)</sup>에 대한 지지를 통해 윤리적 문제해결에 접근한다.

76) 공동체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사례들과,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에

Narvaez를 포함한 Neo-Kohlberg적 이론은 기본적으로 도덕 판단에 대해 합리성(rationality), 도덕 인식론적 발달과 구성, 연습으로부터 후 연습적 사고로의 중대한 발달적 이동과 같은 Kohlberg적 강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Kohlberg 이론을 향한 위와 같은 다양한 의문점들에 대한 응답을 모색하면서 Kohlberg 이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인지심리학의 스키마이론을 도덕심리학에 차용한다. 즉 Neo-Kohlberg주의 이론은 스키마를 통해 인지심리학과 도덕심리학 사이의 차이에 다리 놓기를 시도한다. 이러한 변화의 부분으로 Neo-Kohlberg 이론은 도덕 판단 발달의 재 개념화를 위해 도식(schema)이론을 통합해낸 것이다. Kohlberg는 특수한 내용과 별개로 인지적 구조를 측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특정 영역에 있어 전문성 연구는 구조와 내용을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도식들로 구성된 더 많고 잘 조직화된 영역적 지식들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Narvaez는 Neo-Kohlberg적 접근의 관심이 Kohlberg적 단계(stage)에서 인지 심리학의 스키마(schema)로 이동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지과학과 사회 인지 이론을 도덕심리학 영역 속에 혼입시킴으로써 논의를 보다 더 정교하게 확장시키고 있다. 일차적으로 Neo-Kohlberg 입장에서 Kohlberg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후, 그녀는 다시 한 번 허물벗기를 시도하여 Neo-Kohlberg주의를 넘어서 자신만의 고유한 도덕심리학 이론을 정립하고 있다. 이제 차례로 Narvaez를 포함한 Neo-Kohlberg적 도덕심리학의 색채를 잘 표현해주는 스키마 이론을 살펴보고, 이후 Narvaez가 Neo-Kohlberg주의를 넘어서 스키마를 사회 인지적 관점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 (2) 사회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도덕적 스키마

스키마는 Narvaez의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스키마에 관한 그녀의 도덕심리학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sup>77)</sup> 스키마, 즉 도식은 인지 심리학에서 수십 년 간 사용되어 왔으며 지식 획득과 관련된 이론에서 가장 주목받아 온 개념이다. Piaget는 인지적 구성으로서의 스키마를 개인들의 인지적 조작 활동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묘사했다(Piaget, 1970). 고전적인 도식 이론은 스키마를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일반적 지식의 구조로 보았다. 한편 Marshall(Marshall, 1999)에 의하면 스키마는 세 가지 핵심 특성을 갖고 있다. 형성(form), 창조 혹은 구축(creation), 적용(application)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로 형성(form)에 대해 살펴본다. 스키마는 단

---

있어서 상식과 공동체의 반성적 전통과 관련된 ‘공동의 도덕성(common morality)’은 도덕성에 있어서 “bottom-up”적인 측면을 나타내며, 이는 도덕적 원리들에 입각한 도덕성의 “top-down”적 접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성적 균형을 나타내게 된다. (Ibid. p.8)

77) Ibid. pp.14~20 참고

단히 조직화된 그물망의 구조를 나타내는 기본적 저장장치이다. 스키마는 크기에 있어서 다양하고 내장될 수 있으며, 다른 스키마와 겹쳐질 수(overlap) 있다. 스키마는 접근성과 적응에 있어서 유연함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통 스키마에 접근하기 위한 몇 가지 경로가 있다. 스키마의 인스턴트 생성은 다른 것과 동일시 될 수 없으며, 각각의 인스턴트 생성은 스키마를 변형시킨다. 둘째, 창조(creation)의 측면이다. 스키마는 암기가 아닌, 선행 지식에 입각한 이해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다. 스키마는 특수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된 기회에 대응함으로써 발달된다. 개인의 경험적 삶들은 특수하지만, 경험의 유사성은 유사한 스키마의 발달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적용(application)의 측면이다. 스키마는 절차적 지식(rules)과 선언적 지식(concept and fact)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스키마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또는 의식적이고 통제 가능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Rest를 위시한 Neo-Kohlberg적 접근에서 사용된 ‘DIT’는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도덕 판단 스키마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 볼 수 있다. DIT의 항목들은 존재하는 스키마들의 활성화에 있어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정보로부터의 균형을 모색한다. 사람들은 자극의 나열이나 환경적 투입으로부터 부분적 정보를 통해 대부분의 작업을 진행한다. 여기서 스키마는 빈칸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스키마는 정보처리를 촉진하는데, 자극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빠른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한다(Taylor & Crocker, 1981). 스키마는 주의를 집중하고 처리시간, 정보 흐름의 속도, 문제 해결의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Gernsbacher, 1996). 사실, 빠른 재인과 반응속도는 인지심리학에서 활성화된 정신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Higgins & Kruglanski, 1996). (DIT 검사에서) 후인습적 도식(Post Conventional schema)에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이 해당 스키마를 나타내는 항목에 눈에 띄는 속도를 나타낸 데 비해, ‘규범 유지 도식(Maintaining norm Shema)’을 선호하는 사람은 이 스키마를 나타내는 항목에 대해 상당히 빠른 반응을 보인다(Narvaez, Endicott & Thoma, 2001).

이처럼 스키마를 인지 발달에 관한 이해와 분석의 기본 단위로 상정한 Narvaez는 심리학 이론 중 사회인지이론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덕성과 관련한 스키마 이론을 보다 정교하게 확장시켜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한 Narvaez의 사고 전개 과정을 살펴보자. Narvaez와 Lapsley는 후기 Kohlberg주의 시대에서 유익한 일련의 도덕심리학적 연구는 타 영역의 심리학적 연구와의 통합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Bandura의 연구를 포함한 사회인지적 논문들은 순수하게 도덕심리학적 목적을 갖고 연구된 것은 아닐지라도 도덕적 기능(moral functioning)을 이해하기 위한 통찰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도덕심리학 분야에 사회인지 이론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통합적 가능성을 지닌다. 즉 그것은 도덕적 인격, 정체성, 성격에 대해 강력한 근거를 제시할

잠재력을 지닌 사회적 성격 연구의 이론, 구성요소 개념, 연구방법을 도덕심리학 연구에 있어서 차용하도록 한다.(Lapsley, 1999). 그리고 도덕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의 개념화를 위해 폭넓은 범위에서 이론적 근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인지, 기억력, 사회 인지, 그리고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주류 심리학적 연구 안에서 도덕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이것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동기화, 성격발달, 자아형성, 자기 규제능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더불어 도덕적 기능에 대한 통찰을 위해 다양한 범위 걸친 문헌들을 고찰하도록 촉구한다.<sup>78)</sup>

Narvaez가 보기에 사회인지적 접근과 지성적 발달 연구 문헌에서 우리의 인지적 기능상 자동성의 존재에 대한 생각은 이제 상식이 되었지만, 흥미롭게도 아직 도덕 발달 관련문헌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발상이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sup>79)</sup> 첫째, 자동성의 관념은 “현상주의 가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저지된다. 도덕적 합리성은 조절된 과정이다. 그것은 숙고된 이유에 입각한 명시적인 선택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선언적 지식이며, 이유에 대해 아는 것(knowing-why)이다. 자동성의 개념이 거부되는 이유는 학교에서 형식화된 교육과정이나 중재로서 일어나는 도덕 교육의 모형에서 무척 생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반응은 비반성적이고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으며, 숙고적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이 맞다면, 현재의 모형 역시 도덕적 기능에 있어 선언적 지식 못지않게 ‘절차적 요소’를 제안해야 한다. 암묵적이고 절차적이며, 스크립트화 되어있고 자동적인 도덕적 지식의 일군이 존재한다. ‘노하우(know-how)’에 대한 도덕적 지식 영역이 존재한다. 명시적 원칙이나 고통스럽고 의식적 의사결정 계산에 기반 하지 않은 일관성 있고, 체계화 되어있으며 규칙 지배적인 도덕적 행동의 일군이 엄존한다. 도덕적 합리성이 절차적이고 선언적인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격과 덕의 요소와 인지발달 측면에 간의 현재 논쟁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효과적인 습관, 도식화된 행위순서, 자기조절, 만성적 지식구조에의 접근가능성, 그리고 도덕적 인식은 도덕적 기능의 절차적 측면을 구성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인격의 주제(노하우)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일상화되고, 자동화되고, 자발적이며 비 반성적인 도덕적 기능의 측면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덕적 규칙 체계에 대한 의식과 그것들(도덕적 규칙)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이유를 말할 줄 아는 능력은 도덕적 추론의 선언적인 측면을 나타낸다.<sup>80)</sup>

이에 덧붙여 Narvaez와 Lapsley는 사회인지이론이 도덕성 연구에 갖는 함의점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sup>81)</sup> 첫째, 최근 들어 우리의 일상적 삶의 대부분이 암묵적이고 함축적이며 자동적인 인지적 과정에 의해 지배된다는 증거들이 속출하고

78) D. Lapsley & F. C. Power, op. cit., pp.51~52

79) D. Lapsley & D. Narvaez, op. cit., p.204

80) Ibid. pp.205~206 참고

81) Ibid. pp.198~199 참고



있지만 도덕적 영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다소 새롭게 다가온다. 하지만 ‘일상의 도덕성’과 ‘일상의 자동성’의 교차점은 폭넓고 광범위해야 하며, 사회인지 이론들은 기존의 인지발달 전통이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할 자원들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인지적 접근은 한 개인의 삶에 행위 동기화와 목적 지향성에 의미를 갖는 자기-과정, 개인적 목표 그리고 삶의 과업들의 핵심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 사회인지적 접근은 인격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다. 인격(personality)은 조직화되고 통합적이며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인지-정서적인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감정적 상태는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규제력을 지닌 요소이다. 정서와 인지는 서로 얽여진 과정들로 적절히 개념화될 수 있다. 넷째, 사회 인지적 접근은 발달과학의 최고의 통찰인, 인지-정서적 시스템이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과 함께 상호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양립가능하다. 다섯 번째, 사회인지적 접근은 합법적인 상황적 가변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성격의 일관성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성향적인 특징들은 개인(person)과 맥락(context)의 교차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분석의 단위는 다른 문헌들과의 통합에 열린 상태로 개념화된다. 정말로, 성격의 구조적인 특성들과 요소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적 제한은 사회 인지 정서적 시스템이 다른 심리학 기능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Narvaez와 Lapsely는 도덕적 인격과 성격에 관한 도덕 교육 연구에서 사회 인지적 접근이 갖는 장점과 유용성을 위와 같이 강조하는 한편 그 한계와 제한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82)</sup> Narvaez가 보기에 도덕적 인격에 관한 사회인지적 접근은 모든 사회인지 이론이 공유하는 결점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 이론들은 언제나 성인(adult) 기능의 관점에서 사회적 인지의 기제와 결과들을 다룰 뿐 사회적 인지를 가능하도록 형성시키는 발달체적에 대한 설명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Lapsely & Quintana, 1985). 하지만 발달적 특성에 관한 도표 작성은 우리의 도덕적 인격의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예를 들어 도덕적 인격이 도덕적 도식에 대한 만성적 접근 가능성으로 정의된다면 발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만성적으로 되어가는가? 어떠한 종류의 발달적 경험들이 만성적으로 접근가능한 인지-정서적인 도덕 스키마들을 이끌어 가는가? 어떤 사회화 실행(socialization practices) 경험이 이러한 도덕적 전문성을 촉진하는가? 자동적이고 암묵적이며 함축적인 사회적 정보 처리과정에 어떤 발달적 기제가 기초를 이루고 있는가? 이에 대해 도덕적 만성에 관한 발달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단서가 있다. Thomson(1998)은 초기의 사회적 인격 발달과 관련한 그의 연구에서 어린 아이들의 원형적 지식 구조의 발생과 정교화 과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어린이들의 최초의 자기 표상들은 어른들의 도덕적 평가, 감정적 추론, 어린이를 향한 기

82) Ibid. pp.205~206 참고

질적 귀인(예를 들어 난폭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주의 깊은 혹은 충동적인 등등) 및 회자되는 상황에 대한 어른들의 해석 등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Narvaez와 Lapsely는 이러한 질문들이 또한 도덕적 인격형성에도 기여한다고 보고, 이상적(ideal)이고 당위적인(ought) 자기-자신(self)이 그의 자기 이해의 부분이 되며, 자전적인 이야기의 일면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들은 어린이들 경험의 도덕적으로 적절한 특성들을 동일시하도록 돕고, 사회인지적 스키마들이 쉽게 점화되고 활성화되며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그것의 형성을 격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 (3)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4구성요소 모형의 재해석

여기서는 Narvaez가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스키마 이론을 도덕적 전문성과 인격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고찰하기에 앞서 Narvaez가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을 사회인지적 접근 및 전문성 연구를 토대로 자신의 중점적 연구 방향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변형하여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녀는 Rest의 4구성 요소 모형을 어떻게 자신만의 관점으로 독해해 내고 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은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정보 처리과정에 관한 것인데, 도덕적 지각(moral perception), 도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 그리고 공감(empathy)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도덕적 지각은 고양된 전문성을 가능하게 하는(Narvaez & Gleason, 2007), ‘맥락 속에서’ 도덕적으로 적절한 단서를 찾아내고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Narvaez, 1993; Blum, 1994). 도덕적 상상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있어 특정 행위의 선택이 가져올 가능한 결과(파급력)와 대안적 행위의 경로들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Somerville, 2006).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에 대한 공감적 민감성은 자주 도덕적 행위를 촉발하는 요인이 된다(Hoffman, 2000). 두 번째로,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 -도덕적 행위에 대한 추론-은 Kohlberg의 1958년의 논문이후로 도덕심리학의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다. 세 번째로,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 혹은 moral focus)는 도덕심리학이 분석하고자 애쓰고 있는 몇 가지 요소와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동기화는 행위자가 다른 모든 가치에 대해 도덕적 가치에 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의도하는 것을 의미한다(Narvaez & Rest, 1995). 도덕적 동기화에는 한 개인의 순환적이거나 만성적인 목표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 혹은 상황’에서 갖는 즉각적인 목표도 포함된다. 네 번째로, 도덕적 행위(moral action)는 도덕적 행위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능력과 역량을 포괄한다. 이러한 능력에는 계획, 예견, 행위 선택 그리고 시작과 종결 행위 등과 같은 실행적인 기능이 포함된다. 도덕적 행위는 도덕적 민감성과 동기화의 인식과 해석 기

술과 연결되며, 이는 특정상황에서 도덕적 행위자에 의해 파악되는 행위 강화작용 및 행동 유도성(affordance, 행위 가능성)과 관련된다. 이것은 도덕적 행위가 현재의 동기적 정향(어떤 행동이 현재의 목표 달성에 부합되는 지)내에서, 인식 역량(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행동이 가능한 지에 대한 행위자의 시각)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도덕적 행위는 전문가와 초보자에 대한 비교 혹은 정상적인 사람과 특정한 두뇌 영역에 국소적 손상을 입은 뇌가 손상된 사람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가장 쉽게 연구될 수 있다.<sup>83)</sup>

이처럼 Narvaez는 기본적으로 Rest가 구상한 4구성요소 모형의 이론적 골간을 충실히 따라 각 요소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인지적 관점의 스키마와 전문성이론 및 뇌 과학적 증거까지 활용함으로써 더욱 정교화하고 확장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4 구성요소모형을 독해해 내는 것은 Narvaez의 고유한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그녀는 Rest가 주장한 도덕성의 4구성 요소(moral sensitivity, moral judgement, moral motivation, moral action)가 대략적으로 도덕적 민감성은 사건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도덕적 동기화는 윤리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깊고 도덕적 행위는 행위의 완성과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요약해 낸다. 그리고 Rest가 특정 도덕적 행위의 수행에 필요한 심리적 과정에 집중한 것은 매우 탁월했다고 논평하고 있다.<sup>84)</sup> 도덕적 행위와 관련한 대부분의 분석과 달리 그(Rest)는 덕과 성격 특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Narvaez가 볼 때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 적절하다. 우선 이것은 인격과 성격에 대한 사회인지적인 접근과 잘 맞아떨어진다고(Cantor, 1990; Michel, 1990; 1999).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성격이 특정상황을 넘어서 항상성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특질들의 조합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성격)은 행위의 맥락 특수적인 특성에 상응하는, 변화하는 성향적 방식들(dispositional ways)의 조합에 가깝다. 다음으로 그것은 인간 학습에 관한 Narvaez와 Lapsely의 이해에 부합된다.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응을 학습한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각 영역에서 선언적이고 절차적이며 조건적인 지식을 발달시켜 나가는데, 그 과정은 보다 더 많고 복잡한 스키마를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에 해당한다(Derry, 1996; Schank & Abelson, 1977).

#### (4) 윤리적 전문성과 숙고적 인격교육

83) D. Narvaez & L. J. Vaydich(2008),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ur under the spotlight of the neurobiological scienc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V.37, No.3, pp.296~297 참고

84) D. Narvaez(2003), op.cit., pp.24~41 참고

여기서는 Narvaez가 사회인지적인 관점에서 스키마 이론을 재조명하여 윤리적 기술과 윤리적 전문성 및 인격에 녹여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사회인지적 접근의 핵심 개념인 사회인지적 스키마에 주목한 Narvaez는 ‘도덕 스키마(moral schema)’를 사회인지적 스키마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즉 사회인지적 스키마의 일종인 도덕스키마를 주재료로 삼아, 드레이퍼스, 호거스, 스텐버그, 무스첸가 등의 전문성연구 결과를 여기에 적용하여,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도덕 스키마(chronically accessible moral schema)를 ‘도덕적 전문성’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도덕심리학에서의 통합적 관점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심리학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직관과 추론 두 영역을 통합하고자하는 지향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도덕 스키마’에 집중<sup>85)</sup>한다.

Narvaez는 Neo-Kohlberg주의로부터 독립하기 이전부터 도덕적 대화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도덕적 스키마들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녀는 도덕적 읽기자료를 읽는 중일 때와 이후의 도식 활성화에 대해 연구했다. 각 경우에, 스키마는 경험을 구조화하였고, 읽는 동안에 자주 어떤 정보를 부호화할지와 장기기억 저장고로부터 무엇을 검색해낼지 결정하였다(Narvaez, 1998). 스키마에 관한 다른 발견은 독자들이 정보를 왜곡하여 이미 존재하는 스키마에 따른다는 점이다(Bartlett, 1932). 적절한 스키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그것들을 잘 적용시킬 수 있다. 도덕 판단에 있어 더 전문적인 집단과 덜 전문적인 집단을 비교했을 때 더 전문적인 집단은 마치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처럼 과업을 수행하였다(Narvaez, 1999). 일례로 한 연구에서 Narvaez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추론이 포함된 두 개의 도덕적 이야기를 읽고서 하여금 ‘think aloud(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말로 하기)’를 요청하였다. 도덕 판단에 관한 더 많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던 참가자들은(철학과 정치 과학 전공자들) 다른 영역에서의 전문가처럼 과업을 수행했다. 그들은 깊은 이해와 텍스트에 관한 참여도를 반영하는 더 많은 설명과 종합적인 표현을 구사하였다. 그들은 역시 더 많은 예측과 평가를 제시하였고, 과업 참여에 대한 가중된 증거를 보여주었다. 덧붙여 그들은 더 많은 일관성 위반을 지적했다(예를 들어 사건의 논리 전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피력하기). 그들은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처럼 더 많고 잘 조직화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Chi & Ceci, 1987).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Narvaez는 전문성에 있어서 도덕 판단이 음악 영역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음을 어떻게 맞출 지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으로부터 배운 바에 따라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험은 음악에서 전문성을 낳게 할 수는 없다. 그보다 음악에서의 전문성은 강화되고 정교하

85) 석자춘, 정창우(2017), 「Narvaez 통합적 윤리교육모형을 활용한 도덕교육 개선방향」, 『도덕윤리와 교육』, 제54호, p.26 참고

며 집중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매일의 삶 속에서 도덕 추론에 대한 많은 부분을 공부할 수 있다하더라도 가장 상위 단계에로까지 도달하기 위해 그는 반드시 정교하고 집중된 학습 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sup>86)</sup>

Narvaez는 위와 같이 도덕적 전문성에 있어 도덕적 스키마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문성(expertise)’과 ‘도덕적 인격(moral personality)’논의로까지 자신의 주요 학문적 논의를 확장시켜 나간다. 그녀는 Kohlberg주의자의 전통이 인격(혹은 심리학적 용어로 성격, personality)과 덕(virtue)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왔지만, 대부분의 도덕적 귀감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도덕적 모범의 자격으로서 추대된 것이지 그들이 도덕적 추론에서 보여주는 탁월함으로 인해 지명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도덕적 추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전문적인 행동에 있어서 일상적 삶의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인격이 갖는 덕이나 특질(traits)을 모범적 전형들이 갖는 핵심 요소로 지적한다.<sup>87)</sup>

Higgins(1999)에 의하면 지식 활성화의 일반적 원리 중 하나는 바로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이다. 접근가능성은 이용가능한 지식의 활성화 가능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회적 정보처리를 촉진함에 있어서 더 자주 활성화되고, 더 최근에 점화되며, 더 많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sup>88)</sup> 이와 관련하여 Narvaez와 Lapsely는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도덕적 인격을 개념화하는 데도 접목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은 도덕적 인격의 개념이 사회적 경험의 재구성을 위한 도덕적 스키마들의 만성적 접근가능성의 측면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도덕적인 개인 혹은 도덕적 정체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사회적 정보처리에 있어 도덕적 구성체(constructs)가 만성적으로 접근가능하며 쉽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본다. 덧붙여 그들은 도덕적 만성(chronicity)이 개인차로 나타나게 됨을 주장한다. 일반적인 요구는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도덕적 스키마들이 사회적 정보처리에 있어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Narvaez는 예를 들어, 개인들이 가진 도덕적 선행 지식이 광범위하게 그들의 도덕적 이야기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Narvaez, 1998, 2002, 2002), 오직 도덕적 이야기들(moral stories)을 읽는 것만으로도 덕에 있어서 자기-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William Bennett(1998)의 주장이 가진 권위를 약화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유사하게 Lapsely와 Laskey(1999) 역시 ‘좋은 인격’의 개념이 인지적 원형으로서 구조화 될 수 있으며 좋은 인격의 원형에 관한 스키마의 활성화가 정보처리를 왜곡(bias)시키게 됨을 보여주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인지적 스키마의 일종인 도덕 스키마로부터 도덕적 성격(인

86) D. Narvaez(2003), op.cit., pp.20~23 참고

87) Ibid. pp.22~23 참고

88) D. Lapsley & D. Narvaez(2004), op.cit., p.200 참고

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Narvaez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89)</sup> 인격(성격)은 정태적인 특질보다는 서서히 발달에 나가는 스키마의 조합에 더 가깝다. 사회인지적인 관점에서는 도덕적 성격의 구성을 스키마들의 구성과정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듯이 Cantor(1990)는 성격의 인지적인 기질들이 도식들, 과업들, 전략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과업들은 문화적인 목표와 도식들 및 개인적인 목표의 통합이다. 전략들은 감정, 생각, 노력 그리고 행동들의 복잡한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함께 힘을 합하여 우리 삶의 과업들을 양산해 낸다. Cantor(1990)는 성격의 형성에 있어 전문성(expertise)의 개념이 적용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스키마의 세 가지 특성이 이러한 제안의 근거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들은 정보처리과정, 관심의 방향 설정, 자극에 대한 필터링과 조직화에 영향을 주는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스키마(chronically-accessible schema)’들을 가지고 있다. 각 개인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스키마들을 가지고 핵심적 정보에 맞추고 다른 것들은 간과하는 식으로 마치 전문가들처럼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 만성적으로 현저한 스키마들은 삶의 주요 과업과 목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로 만성적인 스키마들은 고도로 숙련되고 자동화된 행동의 일상적 경로로 변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각자의 성격에 있어 “전문가”가 된다. 우리의 개인적인 스키마들은 우리의 관심을 방향지우고 삶의 과업과 행동의 경로들을 선택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Narvaez는 전문가와 초보자의 근본적 차이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sup>90)</sup> 첫째, 전문가들은 초보자와 질적으로 상이하다.<sup>91)</sup> 둘째, 자기 영역에서 더 많고 조직화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같은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게 된다.<sup>92)</sup> 셋째로 전문가의 기술은 몇 가지 중요한 방식에서 초보자들의 그것과 다르다. 초보자와 달리 전문가는 어떤 지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적용해야 할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할지, 언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sup>93)</sup>

이러한 전문성에 관한 논의에 이어 Narvaez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도덕적 전문가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소위 ‘도덕적’이라

89) D. Narvaez(2003), op.cit., pp.20~23 참고

90)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서 본 논문의 p.41에서 이미 다룬바 있지만, 논의 전개에 흐름상 여기서 다시 한 번 요약하여 제시한다.

91) 전문가는 자신의 영역에서 엄청난 양의 지식을 포함한 폭넓고 풍부하며 조직화된 스키마들의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다(Chi, Glaser & Feltovitch, 1981; Sternberg, 1998).

92) 이에 대해 Narvaez는 ‘무엇을 보느냐는 당신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다(Meilander, 1984).’는 말을 인용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초로 모든 것을 보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93) Vincent와 Wang(1998)은 전문가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선행 지식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지적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목표를 제공하고 그들이 찾고 보는 것을 제한하며, 보고 있는 것의 복잡성을 한정시키기 때문이다.

고 부르는 스키마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이다.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적 행위를 특수한 상황 요소에 대한 반응의 조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논문의 IV장에서 상술하겠지만 도덕적 민감성의 기술에 관한 전문가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덕적 상황을 독해해 내고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결정한다. 도덕적 판단 기술에 있어 전문가는 복잡한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도구들을 갖고 있다. 도덕적 정체성 기술에 관한 전문가는 윤리적 목표를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는 윤리적 정체성을 배양해 낸다. 도덕적 분투(moral striving- moral action을 의미함)기술에 관한 전문가는 어떻게 하면 행위의 완성을 위해 그들의 목표 달성에의 의지를 유지하며, 윤리적 과업 완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의 단계들을 알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덕적 행위는 견고한 성격적 기질로부터 벗어나 학습가능한 행동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처럼 그녀는 윤리적 전문성의 획득을 위한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도덕적 스키마의 발달과 윤리적 기술의 훈련을 그녀의 도덕교육 접근의 가장 특징적인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뒤이어 같은 논문에서 이를 발전시키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한 ‘숙고적 인격 교육(Deliberative Character Education, 약칭 DCE)’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DCE는 연구자가 IV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본 논문의 핵심적 연구대상이자, 도덕교육에 대한 Narvaez 학제적 접근의 총화가 녹아있는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Integrative Ethics Education)’의 전신(前身)이라고 할 수 있기에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한다.<sup>94)</sup>

Narvaez는 “도덕적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숙고적 인격 교육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있다. 우선 위 질문에 제시된 ‘무엇’과 관련하여 4 구성요소 모형은 시작점을 제시해 준다. 도덕적 민감성에서의 전문가는 가능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해결책들을 보다 더 잘 생산해 낼 것이다. 도덕적 판단에 있어 전문가는 문제의 쟁점과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바람직한 행위 결정을 위한 도덕적 추론과 관련된 많은 스키마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들의 정보처리를 위한 스키마들은 더 복잡적이지만 동시에 더 효과적이다. 또한 도덕적 동기화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은 도덕적 정체성에 의해 조직화된 구조에 의해 자신의 방향을 설정한다. 도덕적 행동과 관련한 전문가들은 윤리적 행위를 완수해 내기 위한 상위의 실행전략들을 구사한다.

뒤이어 Narvaez는 이러한 윤리적 전문성을 교실상황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그녀는 1998년에 미네소타 교육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중학교 교사들과 함께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프로젝트의 디자이너로 활동하였고, 인격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로

94) Ibid. pp.24~41 참고

4구성요소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녀는 교사 및 교육 지도자들과 함께 인격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4년 넘게 협력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의 기초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첫째, ‘선하게 되는 것, 좋음(good)’의 의미에 대한 공통의 이해<sup>95)</sup>, 둘째, 친사회적인 존재로 번영(fourishing)할 수 있도록 인간 발달을 도모하는 사회 과학적 결론들, 셋째, 21세기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자질로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공유된 합의 내용들이 무엇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Narvaez는 Marshall(1999)의 “교육(instruction) 안내”를 위한 스키마의 선택을 지침으로 삼아 그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조직화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교육 안내를 위하여 전문가적 스키마들의 기본적 집합들을 규정지음으로서 전문가 지식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부분은 ‘DCE’의 성립과정과 Narvaez 고유의 도덕교육적 접근 방식(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 획득) 및 그 고유성과 강점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Marshall에 의하면, 전문가가 이해하는 식으로 기술의 ‘경험세계(universe)’를 정의해야만 한다. Narvaez와 그녀의 동료 연구자들은 도덕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민감성, 동기화 그리고 문제 해결에 관한 주요 기술들을 철학적, 심리학적, 교육적 문헌들을 통해 조사했다. 둘째, 상황 묘사. 전문가적 스키마를 얻는 과정에서 상황들의 조합을 묘사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예를 들어 ‘감정 표현’을 기술 영역으로 파악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기술들을 교수 가능한(teachable) 하위기술(sub skills)의 단위로 분할하고자 했다. 셋째, 현재 상황평가. 학생들이 이미 갖고 있는 스키마에 대한 고려가 바로 이것이다. 넷째, 자원 평가(source evaluation). 우리는 존재하는 교육적 내용들과 해당 영역의 특성과 부합되는 측면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하위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수합하였다. 다섯째, 이론적 증명. 우리는 스키마 이론의 4가지의 지식의 유형(동일시 지식, 정교화 지식, 계획 지식, 실행지식)과 일치되도록 가설적 스키마의 구조들을 정교화 했다. 우리가 확인한 기술들과 하위기술들이 스키마들로 특징 지워 질 수 있다고 믿고, Marshall이 제시한 네 가지 지식의 유형에 따라 활동들(기술들)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현실적 점검. 개인들이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대체로 경험에 근거한 기술들이라고 긍정적 답변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경험적인 문제에 해당된다.

95) 이는 그녀가 Rest, Bebeau, Thoma와 더불어 NeoKohlberg 주의를 선언하면서 제안한 ‘공동의 도덕성(common morality)’개념과 관련이 깊은데, 공동의 도덕성은 공동체의 맥락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맥락 속에서 집단적인 숙고가 온전히 스며있는 상태를 지향한다. 그래서 공동체는 부단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도덕적 앎을 다듬어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석자춘 & 정창우, op.cit., p.26 참고)



그렇다면 어떻게 ‘Deliberative Character Education’을 구축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올바른 환경, 둘째로 학생들은 영역과 관련한 직관을 구축해 감에 있어서 이론을 학습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학생들은 반드시 실행과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DCE의 기본적 아이디어들은 IEE에 기본적으로 계승되는 주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 2. 인지과학적 배경

2절에서는 Narvaez의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전문성 획득과정의 골간을 이루는 개념인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 혹은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의 관점을 수혈해준 프란시스코 바렐라(F. Varela)의 인지과학 이론 및 윤리학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Narvaez의 도덕교육모델 구상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Varela의 인지과학 이론 및 그에 바탕 한 윤리학과 관련하여, 선행논문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 부분에 대해 방점을 찍어 보다 비중 있게 다룰 것이다. Varela는 체화된 마음과 윤리적 노하우(ethical know-how)라는 핵심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심신일원론에 입각한 윤리적 행위의 숙달을 강조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자는 그가 맹자의 유학사상, 불교사상 등을 근거로 체화된 마음을 통해 진정한 윤리적 삶을 설명하는 부분을 포착해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룰 것이다. 마찬가지로 관련 연구문헌과 연구논문들을 검토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며 Narvaez가 IEE를 구상해내는 데 있어 Varela의 인지과학, 윤리학적 관점을 어떻게 자신의 도덕심리학적 관점과 소통하여 통합해내고 활용하는 지 종합적으로 재조명해 볼 것이다.

### 1) 체화된 인지와 윤리적 노하우

2절의 1항에서는 Varela의 ‘체화된 인지’ 혹은 ‘체화된 마음’ 이론의 핵심적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sup>96)</sup> 구체적으로 첫째, Varela가 말하는 일상의 ‘진정한’ 윤리적 생활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특징이 왜 필연적으로 체화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체화론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둘째, 체화된 인지이론에서 전제하는 자아관으로서 비(非) 단일체적 자아 혹은 가상적 자아와 ‘윤리적 전문성’의 의미와 연계 고리를 파악한다. 셋째, 윤리적 전문성의 획득을 위한 가상적 자아의 인식과 윤리적 노하우의 체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 (1) 일상의 ‘진정한’ 윤리적 생활과 ‘체화된 인지’

Varela는 윤리적 경험의 본질에 대해 서구인들의 사고와 비 서구인의 사고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비 서구인의 저작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경험은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현자(a wise man)’

96) 여기서는 Varela의 ‘체화된 인지’이론이 윤리적 생활 및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함의점을 갖는 지에 대하여 그의 책 『윤리적 노하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의 지각과 행위가 즉각성(immediacy)을 띄고 있다. 윤리적 행위를 연구하는 일반적 방법<sup>97)</sup>에 대해 Varela는 “왜 우리는 윤리적 행위에다가 윤리적 판단을 무분별하게 결부시키려고 하는가?”라는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물음이야말로 매우 결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상적 삶 속에서의 윤리적 문제는 길을 걸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지를 살피는 경우의 사례처럼, 판단과 추론으로부터 싹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면하는 것들에 대한 즉각적 대응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Varela는 바로 이러한 동작이 가장 일반적인 윤리적 행동들이자 진정한 윤리적 행위들이라고 진단한다.<sup>98)</sup> 그리고 이런 혼란 방식의 윤리적 탐구부터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하며, 윤리적 노하우와 노왓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어 그는 ‘합리주의적’이고 ‘데카르트적’이며 ‘추상적’인 지식을 보는 서구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등장한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견해에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한다. 인지과학에서 보는 지식의 기본적 단위는 구체적이고, 체화되고(體化, embodied)<sup>99)</sup>, 통합적이고, 살아있으며, 상황적이고, 독특한 역사성과 맥락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지식들은 추상적인 것을 향해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닌,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존재할 곳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과학과 인지심리학 영역에서는 인지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컴퓨터·뇌·몸’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인지주의, 연결주의, 체화론으로 나뉘<sup>100)</sup>을 체화론의 명확한 의미 파악을 위한 배경지식 차원에서 간략히 언급한다. 첫째로 인지주의(cognitivism)는 인공지능 분야 초창기를 지배한 것으로 소위, ‘계산주의자(computationalist)’의 관점<sup>101)</sup>에 기초한 것이다. 컴퓨터는 그 특정한 내부 물리적 변화가 계산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리적 장치이다. 단순화시켜 이야기 하자면, 인지론은 디지털 컴퓨터가 하는 방식으로 기호를 처리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를 포함한) 인지현상의 참 모습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인지는

97) 행위의 의도를 분석하는 일에서 출발해 특정한 도덕적 판단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서구적 숙고적 추론을 의미한다.

98) F. J. Varela, 유권중, 박충식 역(2009), 『윤리적 노하우』, 서울: 갈무리, pp.25~26 참고

99) Varela의 저작에서 체화(體化, embodiment)의 의미는 관조적 인식에 대비되는 뜻으로 쓰인다. 인식이나 지식의 근원이 관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지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F. J. Varela, E. Thomson & E. Rosch, op. cit., p.19 참고

100) 박찬욱 외(2009),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서울: 운주사, p.27, 정창우(2016), 「인성교육의 체화적 접근과 실천 방안」,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제25권 제1호, p. 201에서 재인용

101) 계산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지식이란 논리와 비슷한 규칙에 의하여 상징들을 조작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대 디지털 컴퓨터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의 완벽한 표현을 찾으려는 생각이다.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이다. 한편 인지주의(계산주의) 전통에 이어 나타난 ‘연결주의’ 혹은 ‘창발론(emergentism)’은 많은 인지작업들은 목표하는 작업에 상응하는 거시적 행위를 산출할 많은 단순한 요소들이 적절한 규칙으로 연결되어 구성된 체계에서 가장 잘 해결되는 듯이 보인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연결론은 계산주의에서의 국부화 된 기호처리 대신에 분산된 조작(구성요소들의 전 체계에 걸쳐 나타나는 조작)과 그러한 조작의 결과 국부적인 마비에도 유연성을 보이는 거시적 속성의 창발을 이끌어 낸다. 연결론자들에게 표상이란 그런 창발적·거시적 속성들과 외부 세계의 속성들 간의 ‘상응’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특정한 기호들의 작용은 아니다.<sup>102)</sup>

이제 우리의 주제인 ‘체화된 인지(체화된 마음)’와 관련하여 그 등장배경을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발달 역사로 되돌아 와서 설명해 보자.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지능에 필적하려는 계산주의(인지론)적 시도는 몇 년에 걸쳐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고, 연구자들은 좀 더 소규모의 도전을 시작했다. 이윽고 일상의 가장 평범한 일조차 계산주의 전략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초기의 낙관주의에서 선회하여 인공지능의 성공을 위하여 ‘단순한 행위들의 상황적 체화(the situated embodiment of simple act)’를 이해하는 쪽으로 연구의 흐름이 전환되었다.<sup>103)</sup>

이러한 대안은 인지주의(cognitivism)에 대한 연결주의의 불만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발생한다. 즉, 체화론에서는 인지가 근본적으로 표상이라는 생각의 핵심적 성격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체화론은 다음과 같은 인지주의에 내재된 가정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1) 길이, 색, 움직임, 소리 등과 같은 ‘속성들이 존재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 (2) 우리는 그런 속성들을 내적으로 표상함으로써 그것들을 지적하고 마음속에서 재현한다는 것, (3) 이러한 일들을 하는 독립된 주관인 ‘나(자아)’가 존재한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Varela는 이러한 가정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일종의 비(非)객관주의적이고 비(非)주관주의적 확신이 인지 연구에서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총괄적 견해에 대해 ‘발제적(發製的, enactive)’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발제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인지가 이미 주어진 세계에 대한 이미 완성된 마음의 표상이 아니라, 세계 내에서 한 존재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 역사에 기반을 두고 마음과 세계가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sup>104)</sup>

인지에 관한 발제적 입장은 결국 체화론(체화된 마음, 체화된 인지)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분리될 수 없고, 마음은 뇌와 동

102) F. J. Varela, E. Thomson & E. Rosch, op. cit., pp.44~45

103) F. J. Varela, op. cit., p.30

104) F. J. Varela, E. Thomson & E. Rosch, op. cit., pp.45~46

일하거나 뇌의 인과적 기능도 아니며, 마음을 몸 또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고려함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몸을 떠난, 몸과 괴리된, 몸에 바탕을 두지 않은 마음이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근거가 없는 것이며, 환경과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마음이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sup>105)</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Varela는 체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다양한 감각운동 능력을 갖춘 신체를 지니고 있는 데서 오는 여러 종류의 경험들에 인지가 의존하고 있다는 점, (2) 개체의 감각운동 능력들 자체가 더 포괄적인 생물학적, 문화적 맥락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살아있는 인지에서 감각과 운동의 과정이, 지각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각이란 근본적으로 현존하는 환경의 정보들을 하나씩 추가해 감으로써 물리 세계의 일부를 있는 그대로 재건하는 것이라고 보는 기존의 ‘지각’에 관한 관점과 달리, 체화론에 바탕 한 발제에 의한 인지는 실재(substance)가 구성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자에 의해 종속된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무엇이 중요한 세계로 간주되는가 하는 점이 지각자의 구조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동은 지각에 의해 인도된다.<sup>106)</sup> 상위의 인지 구조들은 지각에 의해 유도되는 행동의 반복되는 유형으로부터 창발한다. 인지는 표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체화된 행동으로 발제(enaction)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의한 구조적 결합의 역사를 통해 발제된 것이며, 발제의 단위를 구별하는 순간적인 계기들은 각각의 상황마다 나타나는 수많은 미시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양한 미시세계<sup>107)</sup>들은 인지에 있어서 상식과 창조성 모두를 가능케 하는 원천이다.<sup>108)</sup> 핵심은 상황마다 그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반복되는 일련의 미시세계들의 단계별 이행과정을 체화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타인과의 수많은 상호관계의 방법들을 신중히 행하고 새로 배워야 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이미 역사 속에서 구성된 미시세계에서의 미시주체로 행위 하던 된다. 자율의 핵심은 생명체가 자신의 자원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행동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나름의 방식을 찾는 것이다. 미시세계의 연결점에 해당하는 혼란이 바로 살아있는 인지의 자율적이고 창조적 측면의 원천이다.<sup>109)</sup>

인지과학은 인간의 윤리적 경험의 진정한 측면인 ‘즉각적인 대응’이 결코 단순하

105) 박찬욱 외(2009),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p.329, 정창우(2016), op.cit., pp.201~202에서 재인용

106) F. J. Varela, E. Thomson & E. Rosch, op.cit., p.37

107) 우리는 항상 주어진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Varela는 그러한 행동을 할 준비를 모두 미시주체(micro identity)로, 그것과 연관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미시세계(micro world)라고 명명한다.

108) F. J. Varela, op. cit., pp.42~43

109) Ibid. pp.34~35 참고

거나 반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간단한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다. 사실 즉각적 대응이 가장 힘든 작업이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로 진화하기까지 장구한 시간이 걸렸고, 혼란 상황에서 발휘되는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능력은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야 비로소 급속하게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Varela는 이러한 관점이 숙고와 분석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인지 형태의 역할과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임을 강조한다. 그는 숙고와 분석이 필요한 순간이 즉각적 대응이 좌절되는, 즉 우리가 해당 미시세계에서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처럼 되는 때라고 말한다. 계산주의자의 시각은 주로 전문가의 행동이 아닌, 초보자의 행동을 다뤄 온 셈이다.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는 사실상 우리는 Dewey로부터 노하우와 노왓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을 제시한다. 듀이에 의하면 노하우(know-how)는 우리의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수많은 적절한 행동(겉고 큰소리로 읽고 전차를 타고 내리며 옷을 입고 벗는 등)을 하는데, 이는 무언가를 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물에 대한 지식, 사물이 이러저러하다는 지식, 성찰과 의식적 판단이 포함된 지식, 즉 노왓(know-what)과 다른 종류의 것이다. 요컨대, Varela는 정신적 육체적 삶의 대부분이 다양한 즉각적 대응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것은 명확하고 안정되었으며 우리의 개인적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어 묻는다. 그렇다면 즉각적 대응 행동과 추상적 판단, 상황성과 도덕성 사이의 구별은 윤리적 전문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 (2) 非 단일체적 자아와 윤리적 전문성

한 사람이 그 행동 자체일 때, 외부적으로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어떤 자아의식도 남아있지 않다. 비이원적(非二元的)인 행동이 진행되면서 잘 성취될 때, 그것은 평안한 상태의 기질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경험된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잊는 것은 자신의 공(空)을 자각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성격이란 조건에 의한 것이고 동시에 잠정적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모든 전문가(expert)<sup>110)</sup>들이 이러한 공(空, emptiness)의 감각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서구 운동선수, 예술가, 장인들은 항상 자아의식은 최상의 활약, 최상의 작품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대표적인 불교 대승경전인 『반야심경』에서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110) Varela의 『윤리적 노하우』(유권중, 박충식 역)에는, ‘expertise’가 ‘숙련’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본 연구자는 용어 의미 이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expertise를 국내 Narvaez 관련 해석에 주조를 이루는 ‘전문성’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expert에 해당하는 ‘숙련가’역시 ‘전문가’로 바꾸어 기술하였음을 주지해 둔다. 이는 Narvaez가 학제적 연구의 일환으로 Varela의 사상과 견해를 참고했음을 감안하여, Narvaez의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두 사상과 연구 사이의 접점과 유사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空)임을 자각한 사람은 ‘마음에 방해받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 사람은 자기 의식적인(의도적인)행동과 무아(無我) 혹은 비의도적인 행동을 구별할 수 있다. 우리 삶은 비의도적 행동들로 가득하며, 옷을 입고 음식을 먹는 것과 유사하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는 타인을 ‘배려’한다. 우리가 그것에 관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도 없이 행하는 것이다.

Varela는 이러한 비의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요소가 바로 ‘비(非)단일체적인(non-unitary) 인지적 자아’에 있음을 역설한다. 본 장의 3절에서 재론하겠지만, 불교 용어로 말하면 자아가 자성(自性)이 없는 것, 즉 파악 가능한 어떤 실체적 속성이 없다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아의 공(空)에 담긴 거대한 개방성과 함께한다면 더 원대한 자아의 이해에 다가갈 가능성을 확보하며 언제 어디서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이러한 자아 이해가 정신 기능에 대한 외적이고 과학적인 설명과 통합되는 귀중한 단서임을 강조한다. 그는 다시 인지과학으로 돌아가서, 체화론은 물론이거니와 계산주의와 인지주의를 포함한 인지과학의 각 입장들이 ‘자아의식’은 물론이거니와 ‘의식’조차도, 인지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은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자아이해, 즉 사고와 지각과 행동의 바탕이 되는 안정되고 통일된 관점인 자아를 형성해간다는 너무나 자명해 보이는 이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언뜻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 우리에게 그 자아의 실체를 찾아보라고 하면 우리는 대단히 곤궁에 처하게 된다. 데넷(Dennet)은 말한다. “당신은 눈을 통해 뇌로 들어간다. 시신경을 따라 올라가 대뇌피질을 돌고 돌아 모든 뉴런들을 되돌아본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자아)을 찾지도 못한 채 한 운동신경이 점화하자 자아가 어디에 있는 지 통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더욱이 거세계 휘몰아치는 ‘하위 개인적’ 활동들 가운데 하나의 정합적이고 통일된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 계산주의의 가정에서와 같이 인지가 자아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면 왜 그럼에도 우리는 자아의 경험을 갖는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Varela는 분열의 본질을 더욱 가깝게 들여다보기를 권하며, 새로운 분석의 유형으로, 그가 ‘가상적인 자아(virtual-self)’라고 부르는 것을 발생시키는 뇌의 기제로부터 나타나는 창발적(자기조직적, autopoiesis) 속성들의 본질을 제시한다.<sup>111)</sup>

### (3) 가상적 자아와 윤리적 노하우

앞선 논의에 이어 Varela는 인지 주체 개념의 새로운 접근을 위해 ‘즉각적 현재의 연결점들(hinges of the immediate present)’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 인지 작용에 대한 굳어진 가정들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미시세계들과 미시주

111) Ibid. pp.66~73 참고

체들의 감각운동적 정합성 뒤에는 일시적으로 상호관련을 맺는 많은 뉴런들의 앙상블이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뉴런의 앙상블은 감각기관(sensory)과 작용기관(effector) 활동의 원인이며 동시에 결과이다. 지각-운동 작업에서 이뤄지는 작용은 네트워크 구조, 즉 상호작용하는 고도의 양방향 시스템의 작용이 정보가 감각자료로부터 한쪽 방향으로 순차적 단계를 거쳐서 추출되는 선형적(linear) 과정의 작용이 아니다. 두뇌의 부분 네트워크 조직들 사이의 밀집된 상호연결은 모든 활성화된 뉴런들이 대부분의 분산된 뉴런들로 이루어진 앙상블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도록 해준다.

이어 그는 우리가 입력-처리-출력의 전통적인 인과방식(컴퓨터에서의 정보처리와 같은)에 익숙해져 있지만 두뇌는 이러한 전통적 인과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다방향적 다중성(multidirectional multiplicity)’에 의해 작동됨을 시각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시각은 내면의 극미인에 의한 중앙 집중적 영상의 ‘재구축’이 아니라, 형태, 표면성질, 3차원 공간관계, 3차원 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시각적 양상의 공동작용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DeYoe et al., 1988). 시각의 여러 양상들은 동시에 작용하는 ‘하위네트워크의 창발적인 속성(emergent properties of concurrent subnetworks)’임이 명백해졌다. 즉 뉴런의 신호는 미시세계가 구성될 때까지 앞뒤로 움직이면서 점차적으로 정합성을 갖게 된다. 전체 동작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약간의 시간은 모든 동물이 자연스러운 시간적 분석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 두뇌에서 협동을 위한 혼란은 전형적으로 약 2백에서 5백 밀리초 정도 지속되고, 이만큼의 시간이 ‘지각 운동체의 현재’이다. 다시 말해 인지는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끊어짐 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단절된 행위패턴의 연속으로 구성된다. 최근의 뇌과학, 그리고 일반적 인지과학의 이러한 통찰은 근본적인 것이다. Varela는 이러한 통찰이 인지 행위자의 정상적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이전의 중앙집중적이고 극미인을 동원한 저급한 설명방식을 추구하는 전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임을 강조한다.<sup>112)</sup>

이처럼 인지를 단절된 행동패턴의 연속이라 볼 때, 인지행위자 즉 주체의 분열이야기한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된다. 모든 인지 행위에서 경쟁적인 여러 하위 과정의 여러 미시세계 중 하나가 주도권을 잡고 정해진 행위를 이뤄가는 협상과 창발의 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Varela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미시세계의 붕괴로 생긴 공백 안에 병렬적으로 동시에 활동하는 여러 하위 주체와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풍부한 역동성이 있으며, 여러 하위 주체와 행위자들 사이에 신속한 대화가 전개되고 있음이 최근의 뇌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한다. 하나의 지각이 진행되는 순간, 일시적으로 뉴런들의 앙상블들을 묶어주는 빠른 공명(resonance)이 존재한다는

112) Ibid. pp.81~83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포유류뿐만이 아닌, 무척추 동물의 신경절들과 같이 근본적으로 다른 뉴런 구조 속에서도 발견된 이러한 기제의 보편성은 작업가설로서의 공명결합의 가치를 크게 높여준다. 감각 자극이 촉발되어서 전체적 공명이 신속하게 일어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두뇌의 다양한 장소에서 매우 빠르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런 진동들은 현 상황에 의해 활성화된 상이한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양식으로 정합적인 인지적 틀과 해석양식으로 정합적 인지적 틀과 행동태세를 갖추려고 다투면서 벌이는 매우 신속한 상호 협동과 경쟁의 징후로 보이며, 이러한 역동성에 모든 하위 네트워크들이 관여하면서 다음 순간의 전체적 행동태세가 결정된다.<sup>113)</sup>

위에서 논의한 인지적 자아의 정체성의 본질은 분산처리를 통해 창발되는 것의 예이다. Varela는 단순한 속성을 가진 많은 행위자들이 함께, 우연히 중앙 통제 없이도 목적적이고 통일된 전체로써 관찰자에게 나타나는 무엇인가를 발생시킨다는 최근의 결론을 강조한다. 그는 이 같은 결론이 생물학적 사례<sup>114)</sup>로부터 고무된 다양한 복잡계에 관한 현재 연구 성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Langton, 1989; Goowin & Saunder(1989); Farmer et al.(1986); Bourguine & Varela). 곤충 사회에 있어 놀라운 점은, 그 사회의 개별적 구성 요소가 개체라는 점, 그리고 그 사회는 중앙 통제적인 자아 또는 국부적인 자아 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는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으며 마치 전체의 중앙에서 조정하는 행위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Varela가 말하는 소위 ‘무아적(無我的), 가상적(virtual) 자아’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간단한 구성요소들의 활동으로부터 창발하는 정합적 전체 패턴이 마치 중심부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전체 패턴은 전체 행위를 위한 상호작용 수준에서 필수적이다. 그는 이러한 간단한 구성요소들의 협동 활동이 빚어내는 창발적 특징을 복잡계가 어떻게 보여주는가의 모델이 인지적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기존의 주류적 모델인 계산주의(계층적 구조의 전형적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고 말한다. 여기서 인지적 자아는 ‘스스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것의 역사와 행위는 한 덩어리이다.

아울러 자아의 두 번째 측면인 환경과의 관계 방식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일상적 삶은 다양한 지각-운동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병렬적 활동

113) Ibid. pp.85~86

114) 이와 관련하여 집단사회를 형성하는 곤충들의 연구는 흥미롭다. 이 중 네오포네라 아 피칼리스라는 개미 집단에서 가장 유능한 보모 개미만을 모아 새로운 작은 개미집단을 형성시켰는데, 새로운 개미집단에서 보모개미들의 사회적 역할이 급변해서 양육하는 일이 적어지고 먹이를 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원래 개미집단에서는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이 연구는 전체 개미집단이 구성적인 정체성(상대적 배치에 따른 정체성)과 기억을 보존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에 의해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재정의하는 ‘상황적’ 행위자의 삶이다. 이러한 재정의는 잠재적 대안의 목록에서 고르는 계획과 전혀 다르며, 주로 우연과 즉흥성에 의해 결정되며,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유연하다. 이는 인지적 개체가 시스템의 위치, 방향, 태도, 그리고 역사와 독립적이지 않다는, 즉 그의 환경과 객관적으로 무관하지 않다는 관점이다. 환경은 인지적 개체가 행위자 자체의 끊임없는 창발하는 속성에 의해 확립된 관점과 관련된다. 여기서 신체는 환경과 직접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결합은 환경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그 무엇이 되었건 가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며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인지적 자아에게 환경의 속성은 의미의 잉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실 인지 시스템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결합과 창발적 조절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Varela는 즉흥 재주 연주처럼 환경은 인지 시스템의 신경망의 음악에 영감을 준다는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신경망의 대화 생성자로서 이러한 잉여 의미와 놀라운 두뇌 능력을 보여주는 최근의 극적인 사례는 소위 가상현실이라고 부르는 기술에서 볼 수 있다.<sup>115)</sup> 또한 인공지능의 가장 실용적 분야도 내부의 자기 조직 모듈을 가진 행위자의 상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sup>116)</sup> 이처럼 지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점진적인 방법, 즉 행위자의 감각운동 생존능력에 충실하게 의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세상은 표상되어야 할 정보의 원천이다.’라는 개념은 설 자리가 없어지며, 대신에 인지 자아의 자율성 자체가 연구의 초점이 된다.<sup>117)</sup>

한편 그는 인공지능에 관한 Brooks의 연구에서 상황에 따른 지각과 운동 기술을 분리할 목적으로 인공지능의 ‘추상화’ 경향을 ‘인공지능의 기만’으로 부르는 부분에 주목한다. Varela는 이러한 추상화가 인지적 지능이 ‘오직 자신의 체화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인지적 지능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기에 기만적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 이는 인지 문제를 두 종류로 나누는 것과 같은데, 추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이다. 후자에는 불특정한 환경에서 발휘되는 행위자의 지각능력과 운동능력이 전형적으로 포함된다. 인지적 지능을 자기 상황적 관점

115) 가상현실 속에서 시각과 운동은 새로운 방식의 감각-운동 결합에 적절한 조절을 발생시켜, 벽을 뚫고 날아가거나 무한한 우주로 뛰어드는 듯한 경험은 완전히 ‘진짜’처럼 느껴진다.(Ibid. p.93)

116) 새로운 로봇공학을 위한 Brooks의 연구에서 간단한 기능을 가진 작은 창조물들은 그 사이의 공생규칙을 통한 다양한 활동으로 서로 협조하는데, 이러한 공학적 전략은 두뇌 안에서 어떤 모듈 부분 네트워크가 다른 모듈 부분 네트워크와 얽히는 방식과 동일한 진화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만들어진 장치는 주어진 환경에의 최적(optimal)계획에 의존하는 취약한 정보처리장치보다 더욱 지능적이고 자율적이며 적절하게 동작한다고 Varela는 말한다.(Ibid. p.94)

117) 이러한 주장을 통해 우리는 Varela가 구성주의 중에서도 ‘급진적 구성주의’의 계열에 속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에서 접근하게 되면 전통적 의미에서 세계의 표상(representation)을 전달하는 지각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자명해 진다. 세계는 지각-운동 조절의 발제(enactment)를 통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Brooks(1991)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양 집중적인 표상이 없는 것처럼 중양 통제시스템도 없다. 중양 집중적 표상이나 제어로 원인을 돌리는 존재는 관찰자뿐이다. 그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경쟁하는 행위의 집합이다. 관찰자의 눈에는 정합적 행동패턴으로 보이는 것이 상호작용하는 지역적 혼돈으로부터 창발한다.”<sup>118)</sup>

같은 맥락에서 ‘자아 없는 자아(가상적 자아)’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지만 뉴런 앙상블들의 협동적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통일성 있는 전체이다. 역설적인 것은 수준들 사이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구성요소들로부터 속성들이 창발하는 ‘상향운동’이자 전체적 응집성이 국부적 상호작용에 제약을 가하는 ‘하향운동’이기도 하다. 그 결과는 ‘가상 인터페이스’처럼 마치 실재하듯 행동하는 비실체적 자아(non-substantial self)이다. 우리는 유기체 여러 영역에서 자아의 무아적 성질을 알게 될수록 참된 중심으로서의 ‘나’란 느낌을 더욱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우리가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자아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즉 하향적이며, 중양 집중적이며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아’에 대한 관념이다. Varela는 이러한 인격적 ‘나’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일상적 삶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활동의 어떤 측면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해석적 대화(narrative)로 설명하며, 미시주체들의 전형적 관심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며, 또한 대화에 의해 이루어진 구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덧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적 ‘나’가 필연적으로 언어를 통해 구성된 것이라면 그 언어가 사회적 현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 자아는 일상생활과 연결된다.

더 나아가 ‘자아 없는 자아’는 신경시스템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공통적인 육체적 신체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활동 사이의 다리가 된다. 나의 ‘나’는 개인적이나 사회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아 없는 나가 기본 요소인 사회생활에 창발적 성질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창발적 성질이 마치 우리가 실질적 주체성을 갖고 있는 것 인양 착각하고 자기 구성의 과정에 몰입하여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뿌리 깊고도 끊임없는 활동적 충동에 내몰리게 된다. Varela는 이러한 자아 구성에의 충동이 결국 공(空)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가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학습과 꾸준한 변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sup>119)</sup>

결론에 즈음하여 그는 이제 ‘자아의 비어있음’의 속성과 ‘윤리적 노하우’에 대한

118) Brooks(1991), “Achieving Artificial Intelligence”, Ibid., p.95에서 재인용

119) Ibid. pp.94~99 참고

속성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현대 서구 과학은 자아가 가상적이고 비어있다는 것, 그리고 자아는 우리의 미시세계 안의 혼란과 대면하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친다. 유·불·도의 동양 윤리적 전통 역시 윤리적 전문성은 속성상 진행적이고 일상적인 삶과 활동 속에서 비어있는 자아의 계속되는 실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가르친다. 이 두 개의 전통은 서로를 지지하며, 이는 ‘윤리적 노하우(ethical know-how)는 점진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아의 가상성과 익숙해지는 것이다.’라는 Varela의 핵심 가설의 지지기반을 제공해 준다. 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성의 단편적이고 가상적인 측면을 회피하지만, 그럼에도 수행은 윤리적 학습의 모든 것임을 힘주어 말한다. 우리가 변화되도록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전문성(ethical expertise)을 얻을 수 없다. 비어있는 자아를 체화하는 배움은 분명히 어렵지만 이러한 모든 지혜의 전통은 이 전문성을 얻는 것이 점진적이고 끝이 없는 과정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치한다.<sup>120)</sup>

## 2) 체화적 접근과 맹자 유학 사상

체화론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 여기서는 유학 사상에 나타난 체화론적 모티브를 맹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설한 Varela의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윤리와 도덕적 인격의 성취에 관한 맹자의 견해는 인간 본성이 양성(flourishing)할 수 있다는 점과 사람들이 본성을 양성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성취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맹자의 견해는 사람의 본성과 적절한 발달조건이 결부되어 개인의 정서적 반응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그는 ‘기본적인 능력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방해받지 않고 잘 양성될 때 바람직한 자질이 생긴다.’는 비교적 간단한 발달모형을 이끌어 낸다. 여기서 필수적인 것은 인간은 어떻게 능동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계발하여 가는가 하는 점에 관한 맹자의 이해이다.

이처럼, 윤리에 관한 맹자의 생각을 정교화하기 위해 덕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 상호 관련된 세 가지 개념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확장(推, extention)’, ‘주의(思, attention)’, ‘지적 주의력(知, intelligent awareness)’이 그것이다. 우선 ‘확장’은 덕의 실현이 어떤 하나의 행동이 옳바르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그것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서의 옳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변했을 때 그 변화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지식과 정감을 확장하는 방법을 배울 때이다. 유자입정(孺子入井)의 사례에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정감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다른 상황에도 확장하여 적용해 가는 것이 바로, ‘확장’이다. 여기서 맹자는 윤리적 훈련(ethical training)을

---

120) Ibid. p.100 참고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는 사례와 그것을 확장하는 방법의 핵심이 우리가 모든 기술들에 적용하는 학습 원리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기술을 익히기 시작해서 적용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그 기술을 보다 복잡한 상황으로 확장해 간다. 여기서 ‘지적 주의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지적 주의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 주의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감의 확장은 한 상황이 다른 상황과 유사함을 알고 새로운 상황 속으로 전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독특한 능력은 곧, ‘주의’이다. 맹자는 “주의하면 얻을 것이고, 주의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주의를 잘못하게 될 경우 수신(修身)을 그르치게 됨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sup>121)</sup>

이처럼 맹자에게 윤리적 훈련이란, 상황을 분명하게 지각하고, 상황들 사이의 일치나 유사성을 깨달은 후, 이전의 정감을 기반으로 그것을 새로운 상황에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맹자가 볼 때, 규칙들은 오직 주의 깊게 성찰한 뒤에나 또는 시비를 가려야만 하는 곤란한 상황들 속에서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상황을 특정 규칙에 입각해 판단하려 한다면 그 상황을 일종의 인지적 범주들로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들 사이의 일치나 유사성을 보려한다면, 해당 상황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지각될 것이며 범주적 분석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측면들까지 포함해 모든 중요한 측면들이 고려될 것이다. 여기서 맹자와 Varela의 생각이 깊은 유사성을 지니게 되는데, 성찰과 분석이 가장 두드러지는 때는 즉각적 미시세계에 혼란이 왔을 때라는 Varela의 주장과 맹자의 통찰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맹자에게 있어 진실로 덕이 있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본성에 유의함으로써 체험에 의해 하나의 사건을 대단히 잘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확장해 가는 일을 순탄하게 이어간다. 그리고 진실로 덕이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도덕적 행위로 이어지는 도덕적 판단이란 상황에 대한 참된 기술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은 맹자로 하여금 덕이 있는 듯이 보이는 행동들로부터 진실로 덕이 있는 행동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어떤 행위가 온전하게 덕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활성화된 본성에서 발출될 때만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덕을 사이비 덕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맹자는 「(1) 이득을 얻으려는 욕구로부터 일어나는 행위들, (2) 습관화된 반응의 유형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들, (3) 규칙들을 추종하는 데서 일어나는 행위들, (4) 확장(推)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다. 이중 오직 (4)만이 진실한 윤리적 행위일 뿐이고 나머지는 유사 혹은 완전한 사이비이다. 지적 주의력(知)에 의존하기보다 습관화된 반응 유형으로부터 행동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데 실패한다.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은 운전을 처음배우는 초보자들과 같다. 맹자는 그러한 규칙이 항상 행위자 외부에 있

121) Ibid. pp.53~56 참고

기에 적어도 몇 가지 방식에서 그 사람의 내면적 성향과 항상 불일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맹자는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란 오랜 시간 수신(修身)을 통해 형성된 품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행동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인(仁)과 의(義)를 행동으로 옮겼다기보다 줄곧 인과 의를 통해서(through)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윤리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문가가 그의 노하우를 체화하는 것처럼 인(仁)과 의(義)를 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자의 행위는 그의 품성이 구체적인 상황에 반응하여 일으키는 성향(inclination)에 따라 이루어진다.

진실된 윤리적 전문가가 확장된 경향들을 따라서 행위 하는 유연성은 자신을 숙달시키기 위해 수행을 해온 사람이 지닌 핵심 요소들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그의 숙련됨은 맹자가 지(知)라고 부르는 지적 주의력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의 탁월함은 여기에 대비되는 두 가지 극단과 비교해 봄으로써 선명해지게 되는데, 한 가지 극단은 순전히 습관적 대응의 방식들 속에 담긴 한계를 초월하는 ‘비범한 지혜’가 덕스럽지만, 이성애 의해 구속되지 않는 무의식적 표출이라고 주장하는 쪽이다. 반대편에서는 비범한 지혜를 경멸하면서 사람은 목적과 방법에 관해 이성적 계산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맹자가 말하는 ‘지적 주의력’이란(가끔 비범한 지혜로 나타나지만)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중용의 길을 취하는 것이다. 즉 우리 행위는 지성의 인도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추상적 규칙이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마주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어울리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윤리적 행위는 무의식적 자발성과 이성적 계산 사이에 있는 ‘중도’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윤리적인 사람은 다른 전문가들처럼 자발적으로 행동한 뒤에 그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지적 주의력을 재구성할 수 있다. 진실로 윤리적인 사람은 지속된 학습을 위한 디딤돌로서 그러한 사후 정당화를 사용할 수 있다. 초보자라 해도 심사숙고를 거치지 않고 충분한 지적 주의력을 획득하도록 해주는 맹자의 이런 신중한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가(숙련자)가 되는 것이다.<sup>122)</sup>

### 3) 체화적 접근과 대승불교 사상

2항의 유학 사상에 나타난 체화된 마음에 대한 논의에 덧붙여 3항에서는 불교 사상에 나타난 체화론적 모티브를 해설한 Varela의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V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Narvaez가 삼층윤리이론(TET)을 바탕으로 도덕성의 최고의 규범적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마음챙김 도덕(mindfulness morality)’이 불교사상의 체화론 및 마음챙김 명상, 무아(無我)와 무상(無常)의 가르침, 중도적 자비행 등 불교의 핵심적 가르침과 깊이 있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122) Ibid. pp.57~61 참고

Narvaez 이론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3항의 논의는 특별한 집중을 요한다. 이제 체계적 접근과 불교 사상의 관련성을 ‘온(蘊)’에 대한 Varela의 논의를 통해 시작해보자.

아비달마(Abhidharma)의 불교 경전과 주석서에 따라 경험의 본성에 관한 분석적 탐구법의 전통이 나타났는데, 이 전통은 대부분 불교 학파에서 연구되고 명상에 이용된다. 아비달마는 자아의 감각을 검토하는 데 이용되는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범주들은 한편으로는 경험의 단순한 기술을, 다른 한편으로는 탐구를 인도하는 지시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 범주들 중에 모든 불교 학파에 공통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온(五蘊)<sup>123)</sup>이라고 알려진 것이다. 오온은 「(1) 색(色, 형체), (2) 수(受, 느낌/감각), (3) 상(想, 지각/분별), (4) 행(行, 성향), (5) 식(識, 의식)」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색(色)은 물리적(물질적)인 것에 바탕하며 나머지 네 가지는 정신적인 것이다. 다섯 가지 모두는 각각의 인격과 각 순간의 경험을 만들어 내는 심물(心物) 복합체를 구성한다. Varela는 이들 오온 각각이 우리 자신과 동일시되는 방식들을 검토하고,<sup>124)</sup> 자아의 실재에 대한 확신에 답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온(蘊)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 그런 후, 우리는 각각의 온(蘊) 어디에서도 자아를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Tsultrim Gyamtso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교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거나,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통 받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인생에 반응하는 방식을 관찰할 때, 우리는 마치 지속하며 단일하고 독립적인 자아를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런 자아는 발견되지 않는다.”<sup>125)</sup>

다시 말해 온(蘊)은 자아를 결여하고 있다고 Gyamtso의 언설을 빌어 Varela는 자아의 공성(空性)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불교도의 전통에서 모든 순간에 자아의 비어있음(空)을 깨닫는 수행은 바로 윤리적 훈련을 포함한 모든 훈련의 핵심적인 바탕이다. 이러한 수행은 주의와 자각 또는 선정(禪定)-관(觀) 수행(samatha-vipasya)수행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은 극단적이지 않은 수행이며, 주의/자각을 수행하는 수행자는 정교하게 마련된 방법으로 순간순간 마음

123) 온(蘊)은 산스크리트어 ‘skandha’의 번역어인데,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더미”이다. 부처님이 최초로 경험을 검토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르쳤을 때, 곡식알의 더미를 각각의 蘊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Ibid, p.122)

12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Ibid, pp.123~134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5) T. Gyamtso(Shenpen Hookham 역), 『Progressive Stage of Meditation on Emptiness』, Zhyisil Chokyi Ghatsal Publications, 2001, p.32, Ibid. p.135에서 재인용

이 행하는 것, 마음의 산란함, 그리고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시작한다. 이러한 시작은 수행자로 하여금 생각의 습관적 패턴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여 좀 더 나은 집중에 이르게 한다. 결국 수행자는 자신의 실제 경험 속에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러한 발견은 물론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흔들림은 수행자가 용기를 잃고 허무주의 같은 다른 극단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다. 허무주의로의 도주는 실체적 자아에 집착하는 반사작용이 너무도 강하고 뿌리 깊은 것이기에 자아의 부재를 절망으로 받아들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행자가 수행을 계속함에 따라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집착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감에 따라 온정과 끌어안는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기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한 채 이전투구를 벌이는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타인에 대한 관심이 들어선다. 이미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따뜻함을 느낀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맹자가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할 때 생기는 자발적 관심의 분석을 통해 윤리적 훈련을 꾀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연대감의 의식적 자각과 편견 없는 온정의 계발은 맹자나 도교 전통에서도 언급된 수련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며, 그러한 계발은 다양한 수행을 통해 주의와 자각의 전통 속에서 키워진다.<sup>126)</sup>

마음의 온정이 없다면 무근거성(groundlessness)의 완전한 깨달음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성(空性, sunyata)으로서의 무근거성을 주로 제시해 온 대승불교 전통에서도 같은 비중으로 보완적인 자비로서의 무근거성이 존재한다. 사실 전통적인 대승불교의 대부분은 무근거성으로 시작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카루나(자비, karuna)로부터 시작된다. 가령 불교에서 맹자와 같은 존재인 Nagarjuna(용수)는 대승의 가르침이 ‘비어있음과 자비’라는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언급은 때때로 비어있음은 자비로 충만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禪) 전통의 현대 저자인 Nishitani(1982)는 “의무의 본질은 존재의 타자지향성”이라고 간결하게 말했는데 여기에도 같은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자신이든 아니든 타인이든 그들 사이의 관계이든 고정된 참조점이나 기반의 상실을 의미하는 공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자비와 불가분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비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가는 구름에 가린 태양처럼 자아에 집착하는 습관에 의해 가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행로의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자아, 비이기심, 무세계, 비상대성, 비어있음, 무근거성’과 같은 공성의 부정적인 용어를 넘어서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용어들은 집착하는 습관과 같은 패턴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 따라서 중요하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가져야 할 상태의 실현을 향하는 예비적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단계는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마음도 아니고 개념적 과정도 아니다. 시각

126) F. J. Varela, op. cit., pp.102~103 참고



장애인이 바라보는 풍경, 공중에 피어난 꽃 등 이를 묘사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다. 개념적 마음이 이를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마음은 비어있음을 경험한다. 이것은 오직 직접적으로만 알 수 있다. 그것은 불성(佛性), 무심(無心), 최상의 마음, 절대적 보리심(bodhicitta), 지혜의 마음, 최고의 선, 위대한 완전, 마음으로 지어낼 수 없는 것, 자연스러움 등으로 불린다. 보통 세상과 머리카락 한 올 차이도 나지 않지만, 일상적이고 감정적이고 일시적이며 고통스럽고 뿌리 없는, 바로 그 평범한 세상이 무조건적이고 최상의 상태로 경험된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자연스러운 드러남, 또는 체화가 곧 ‘자비’이다. 자비는 무조건적이고 두려움이 없으며, “가차 없는, 무자비한(ruthless)” 자발적 연민이다. 현대의 티벳 성자들은 핵심적인 것으로 자비를 이야기한다. “이성적 마음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고난 지혜를 깨달으며, 거짓 없는 자비의 에너지가 일어난다.”

무조건적 자비를 이해하기 위해 Varela는 다시 수행자의 세속적 관점에서 윤리적 덕성적 행위의 계발을 논의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타자에 관한 관심은 보통 자아의 느낌과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평가받으려는 열망을 충족하려는 욕구와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Varela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 패턴에 얽매이지 않는 것, 습득한 습관적 패턴을 바탕으로 일부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몸짓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체와 객체의 비이원적 드러남<sup>127)</sup> 속에서 자아의 비어있음의 실현을 체화하고 표현하는 행동이다. 행위가 이익을 추구하는 심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때 편안함이 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최상의 관대함 즉, ‘반야(prajnaparamita)’ 라고 부른다.

이러한 최고의 윤리적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지혜를 논할 때 종종 사용되는 산스크리트 용어가 보리심(bodhicitta)이다. 이것은 각성된 마음 또는 간단히 깨어있는 마음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보리심은 절대적인 면과 상대적인 면, 두 가지를 지니고 있다. 전자는 대부분 불교도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공(空)의 텅없음에 대한 경험, 또는 맹자가 참된 군자에게 요구했던 지적 각성에 대한 요구를 상기시키는 각성된 상태에서의 (긍정적 의미의) 순간적 깨달음이다. 한편 상대적 보리심은 수행자가 절대적 경험으로부터 생긴다고 말하는, 단순한 자비를 넘어서 다른이의 행복과 관심과 그에 대한 적절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자비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세상을 향한 무조건적인 온정심이 점차 확장되고 발전하여 절대적 보리심의 번득이는 경험에 이르는 것이다. 수행자는 한 번에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배움의 과정처럼 배움의 길을 따라 많은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시간과 지속적 훈련이 필요하다.

127) 이는 불가의 우주론에 해당하는 연기설(緣起說) 즉, “모든 존재는 이것이 생(生)하면 저것이 생(生)하고, 이것이 멸(滅)하면 저것이 멸(滅)한다.” 는 『잡아함경』의 문구에 나타난 만물의 인과관계와 상호의존성을 강조한 측면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배움을 지속하기 위해 용기를 주는 순간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자아자기에 대한 자신의 집착을 향한 자비심, 즉 마이트리(maitri)를 계발하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집착과 직면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친근한 행동인데 이러한 친근감이 발전됨에 따라 우리 주변에 대한 자각과 관심도 신장된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더욱 개방적이고 비이기적으로 자비를 베풀 준비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습관적 패턴에 기반한 의도적 행위가 아닌, 자발적 자비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어떠한 규칙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비는 공리적 윤리체계나 실천적 강령에서 유도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높은 이상은 특정 상황적인 필요성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sup>128)</sup> 것이다. Varela는 이러한 반응의 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나가르쥬나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문법학자가 사람에게 문법을 공부하게 하듯이

부처님은 수련자의 도량에 따라 가르치시네.

어떤 이에게는 업보를 피하라하고, 어떤 이에게는 선을 행하라고,

어떤 이에게는 이원론에 의지하라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비이원론에 의지하라 하시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심오한 것을, 끔찍한 것을

각성의 훈련을 가르치시네.

그의 핵심은 비어 있음이며, 그것은 자비라네.<sup>129)</sup>

물론 깨닫지 못한 수행자가 규범과 도덕적 강령 없이 지낼 수는 없다. 초심자 수준에서는 불교에서도 많은 윤리적 규범이 있고 그 목적인 몸과 마음을 언제든지 참된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규범을 따르는 것으로도 초심불교도는 특정한 행동이 옳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옳은 행동이 불분명한 유사한 상황으로 지식과 느낌을 확장함으로써 덕의 실현을 장려하는 맹자의 후계자들과

128) Narvaez의 언술을 빌리자면, 윤리적 노하우와 노왓을 체화한 경지인 ‘윤리적 전문성’의 획득을 통해, 일상생활 속의 특정 맥락과 상황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유자재로 도덕적 지혜를 발휘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상태와 유사하다. 이처럼 불교 최상의 가르침인 자발적 자비의 증득을 통한 자비행의 실천은 Narvaez의 윤리적 전문성에서 배출되는 도덕적 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129) R. Thurman의 번역임, Ibid. p.108 재인용

같은 방식으로 자비의 실현을 배운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자비행이 또한 방편(upaya)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방편은 지혜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Varela는 방편이 자동차 운전이나 바이올린 연주와 같은 일상적 기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어떤 점에서 불교의 방편은 감각운동의 숙련과 더욱 유사하다. 수련자는 수련한다(좋은 나무는 좋은 씨앗을 만든다). 즉 나쁜 행동을 피하고 이로운 것을 행하고 명상하며 더욱 더 넓게 그의 행동을 확장해간다. 그러나 일상적인 기술의 통달과 달리 윤리적 숙련(전문성, expertise)의 방편에 통달하면 모든 습관이 제거되고 수행자는 지혜로부터 직접적이고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는 마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이미 알고 태어난 자가 그 재능의 발현을 방해하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 진력하여 연습하는 것과 같다. 불교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성취된 보살의 모습이다.

Varela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자아의 비실재성 밑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공(空)에 무엇이 있는가?’ 티벳 불교 전통은 지혜를 향한 계속되는 보살행에 의해 변화되는 가상적 마음의 구성요소에 대해 말한다. 변화의 이 느낌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신적 기능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신적 요소를 지혜로 변화시키는 수단은 현명한 자각(awareness), 즉 가상 자아를 있는 그대로, 어떤 종류의 이기적인 근거도 없으며 오로지 지혜로 충만한 모습 그대로 매순간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 참된 돌봄(care)이 존재(being)의 근거 자체에서 비롯되며, 꾸준하고 성공적인 윤리적 훈련을 통해 이것이 만개될 수 있다고 가정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편협하지 않으며, 공감적이고 자비로운 관심의 태도가 육성되고 체화될 수 있는가? Varela는 이러한 태도가 단지 규정이나 이성적 강령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명백히 아님을 전제하고, 이는 오직 자아 중심적 습관을 버리고 자비가 즉각적이고 스스로 유지되도록 하는 ‘훈련’을 통해서 계발되고 ‘체화’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는 상대적 세계의 규범적 규칙이 전혀 필요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규범이 실제 상황의 특수성과 즉시성에 직면했을 때 규범을 풀어낼 지혜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이는 실제 발현을 위한 통로가 되기보다 자비로운 행위에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장애가 되어버린다.

단순히 자기계발 방법으로 행해지는 수행은 수행자가 몰아내고자 하는 이기주의를 강화할 뿐이므로 주의/자각 수행 전통에 의해 강하게 금지되고 있다. 자기중심적 습관적 조건이 강하기 때문에 집착, 소유하려하며 약간의 통찰과 깨달음의 순간이나 이해에 자부심을 가지려는 경향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한 경향이 자비로 이르게 되는 행로의 일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통찰력은 이익보다 해가 될 수 있다. 즉 각적 비이기적 관심과 윤리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만드는 데에 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과 개념은 통찰 경험보다 쉽게 파악될 수 있고 기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어서 자아의 덮개 속에 엮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명상 전통의 스승들은 고정 관점이나 개념을 실재로 간주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지속되고 훈련된 수련, 푸코의 용어를 사용하면 ‘주체의 변화(transformation)를 위한 수련(practice)’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무것도 그냥 일어나지는 않으며, 개인 스스로 발견하고 가상자아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키워야 한다고 Varela는 조언한다. 윤리적 노하우의 의미와 그것을 증득하는 방법에서 그의 논의 핵심은 비의도적 행동으로 이해되는 ‘지혜’로의 복귀에 대한 기원이다. 삶에 대한 윤리적 전문성과 숙련된 접근은 순간순간 우리 자아의 가상적 본성을 자각하는 변화의 실천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접근이 완전히 펼쳐질 때 개방성은 참된 돌봄으로 만개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시대를 위한 또한 앞으로 겪게 될 더욱 더 어려운 시대를 위한 급진적 사상이자 강력한 처방이 될 것임을 Varela는 역설하고 있다.<sup>130)</sup>

#### 4) 체화론에 대한 Narvaez의 통합적 관점

위에서 살펴본 Varela의 체화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절 4항에서는 Narvaez가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혹은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관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여 자신의 도덕심리학 이론 혹은 도덕교육 모형에 녹여내는 지의 측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그녀가 IEE에서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의 획득을 통해 도덕적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도덕교육의 기본적 청사진을 구안해 냄에 있어, 그 교육학적 방법론에 ‘체화된 인지’의 아이디어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측면을 다룰 것이다. 이어 IV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게 될 삼층 윤리 이론(TET)에서 Narvaez가 최고의 규범적 정향(定向)으로서 ‘마음챙김 도덕’을 상정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역시 체화된 마음에 바탕을 둔 ‘마음챙김 명상’의 방법론을 통한 윤리적 지향점이 반영되고 있는 측면에도 주목하여 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인지과학자인 Varela가 보는 진정한 윤리적 삶에 대한 통찰이 유교에서 맹자 윤리, 대승불교 윤리에 일관되게 관통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Narvaez는 이러한 체화론의 핵심적 통찰들을 도덕심리학자로서 IEE와 ‘TET-마음챙김 도덕’에 고스란히 녹여내었다. Varela가 말한 심신일원론에 기반한 윤리적 기술의 체화, 또 그것을 통한 윤리적 전문성의 획득은 곧 맹자가 말하는 선천적 도덕심인 사단(四端)이 자연스럽게 확장(推)되도록 자신을 수행하는 과정(求放心, 寡欲)이며, 불교의 수행자가 연기(緣起)와 자아의 공성을 ‘매 순간 깨달아(마음챙김)’, 모든 존재를 향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자비행으로 실천해 나가는 보살행이며, 이는 곧 IEE에서 공동체적 삶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 배움과 실행을

130) Ibid, pp.109~112 참고

통해 윤리적 기술을 체화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윤리적 전문성의 획득 혹은 유덕한 인격의 형성과정에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통찰은 TET에서 관여 평온의 우뇌 기능과 공동체적 상상의 좌뇌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 ‘피질-변연계 네트워크’가 궁극의 조화를 발휘하는 ‘마음챙김 도덕’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도 온전히 반영되어 있다.

### (1) 윤리적 기술 ‘체화’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 획득

Narvaez는 기존의 주류적 서양철학과 그에 기반 한 도덕교육이 몸과 마음을 엄격하게 분리하며, 이성의 기능을 최고조로 발휘하기 위해 감정과 욕망은 억제 혹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었음을 확인하는 데서 도덕교육의 체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논의의 포문을 열고 있다. 이에 대한 그녀의 설명을 살펴보자.

도덕 인격 교육은 보통 학령기의 아동들에 대해 다룬다. 그런데 이 때 이성이 신체 혹은 정서와 대립된다는 데카르트적 혹은 이원론적 패러다임을 가정하는 것이 상식적 가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세기 동안의 도덕 교육은 이러한 이원론의 경로를 따라왔다. 하지만 실증적인 연구들은 삶의 시작으로부터 정서가 인지와 함께 서로 뒤얹혀 함께 발달해 간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원론(dualism)이 일종의 인공적인 구성체임을 알게 되었다. 도덕적 추론의 중요성은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도덕적 추론능력과 도덕적 행동 간에는 오직 약한 연계성만이 존재한다(Blasi, 1980; Thoma, 1994). 사실, 삶과 행동 간의 차이는 심리학 연구의 장을 통틀어 점점 더 명확해 지고 있고, 이는 심리학 연구의 주류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Lakoff & Johnson, 1999).<sup>131)</sup> 이해와 추론은 ‘체화된 것(embodied)’이다. 체화된 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정서적이고 발달적인 신경과학 연구와 함께 진척되고 있다. 인격과 사회적 발달은 두뇌와 신체 시스템을 형성하는 태어나기 전부터의 어머니와 아이 및 환경사이의 대화로부터 시작된다.<sup>132)</sup> 이처럼 Narvaez는 서구적 심신 이원론 패러다임의 한계로 인하여 기존의 도덕교육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양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단호히 주장하고 있다. 그 대안은 몸과 마음, 인지와 정서, 이성과 감정, 신체와 인지 등을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일원론적 복합체로 파악하는 데서 모색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Narvaez는 Varela 등의 체화된 인지 이론을 그녀의 도덕교육 모형의 구상을 위한 기본적 메커니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녀는 결국 진정한 윤리적 삶과 윤리적 행위

131) D. Narvaez & T. Bock (2014), op. cit., p.3

132) D. Narvaez (2012), “Moral Neuroeducation from Early Life Through the Lifespan”, Neuroethics, V.5, No.2, p.145

의 실천이 심신일원론적인 체화적 접근을 통해서만 온전히 발출될 수 있음을 깨닫고, 도덕교육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Narvaez 도덕교육이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체화된 인지 혹은 체화된 마음 이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그녀는 학제적 소통과 교류를 통해 IEE를 구상함에 있어, 논의 전개에 핵심적 뼈대 역할을 한 ‘IEE 세 가지 토대관념<sup>133)</sup>’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토대 관념인 ‘도덕 발달은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것’과 두 번째 토대 관념인 ‘교육은 변형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것’에 Varela의 체화된 인지이론이 기축(基軸)이론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IEE의 첫 번째 토대관념은 도덕발달을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전문성의 발달로 본 것이다. III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Narvaez는 경험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기존 심리학 연구에서의 ‘특질(trait)’ 개념을 가지고 인격교육에 접근하는 것은 이론적·실천적인 양 측면 모두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Narvaez가 집중적으로 천착한 개념이 바로 ‘기술(skill)’이다. 그녀는 특질과 달리 기술은 행동이 ‘개인-환경 특성(person-environment features-사회-맥락적인 기대를 포함한)’이 일치하는 세트에 부합되는 환경 속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Cervone & Shoda, 1999)는 사회 인지 이론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인격 발달을 기술과 전문성으로 설명할 때의 장점을 확인한다. 그런 후 이를 체화된 인지이론으로 보다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쉽게 말해, 개인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격 혹은 인격 소유를 설명할 때 우리는 실증적 연구 결과에 부합되는 검증력 강한 도덕교육 모형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윤리적 기술’의 ‘체화된 인지’인 것이다. ‘기술’은 전체의 두뇌-마음-신체 시스템을 관여시키는 전체론적이고 맥락화 된 이해로서 체화된 인지(Varela, Thomson & Roach, 1991)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첫 번째 토대 관념과 관련하여 Narvaez는 교사들이 도덕적 덕목과 추론 양자를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적 함의점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체화된 인지론이 중요한 근거로 작동되고 있다. 그녀는 숙고적 도덕 추론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성숙한 도덕 판단을 위해 물론 필수적이지만, 의식적 추론이 무의식적 사고에 우선된다는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획기적 전환을 겪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그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다양한 무의식에 의해 부차적인 절차로서 의식적인 마인드가 작용한다고 본 Varela의 체화된 인지이론, Bargh와 Hogarth의 사회인지이론, Damasio의 신체표지 가설 등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후 대부분의 인간 행동이 자동적인 것이라면 도덕적 의사결정 역시 그러할 것이며, Varela(1999)가 의식적 숙고와 함께 의식적 주의 바깥에 놓여 있는 시스템이

133)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IV장 2절 2항에서 제시될 것이다.

상호 연결되어 전문가적 도덕 행위자의 행위를 설명한 부분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현자(혹은 유덕자)는 무엇이 선인지를 알고 동시에 그것을 행한다. 그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이러한 지각과 행위의 직접성이다. 이러한 접근은 행위의 의도적 내용을 분석하고 특수한 도덕 판단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끝맺는 윤리적 행위 연구의 일반적 방식과 극명하게 반대 입장에 서 있다.”<sup>134)</sup>

이처럼 Narvaez는 현자(혹은 유덕자)가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은, 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여 자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각과 감성과 행동의 ‘자연스러운’ 조화에서 비로소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격발달을 Varela와 그의 스승인 마투라나가 정식화했던 ‘자기-생성적(autopoietic)’이고 ‘자기-조직화(self - organizing)’의 과정(Maturana & Varela, 1980)으로 간주하고 이를 IEE의 핵심적 토대관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IEE의 두 번째 토대관념인 ‘교육은 변형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것’에는 Varela의 체화적 인지이론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녀는 이를 지지할 근거를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째, 아동들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변형(transformation)시킨다는 Varela(1991)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Varela는 인지적 구성주의의 입장 중에서도 급진적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인식 주체로서 무아(無我) 즉, ‘자아 없는 자아 혹은 가상적 자아’가 인식 대상인 무상(無常)한 세상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지식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 기반 하여 체화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아와 무상의 자각을 통한 몰입이 곧 윤리적 정서가 자발적 행위로 확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진정한 윤리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원적 통찰이 될 것임을 Varela는 강조하고 있다. Narvaez는 이러한 구성주의의 관념이 맥락화 된 인지(Derry & Lesgold, 1996)와 행위자와 환경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해 형성되는 인지(Thelen & Smith, 1994), 다양한 생화학적 시스템 속에서 체화되는 인지(Damasio, 1999), 마지막으로 몸과 환경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인지(Laykoff & Johnson, 1999)등 Varela의 ‘체화된 인지 이론’과 동일 혹은 유사한 합의점을 지닌 다양한 연구 결과와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정교화 되고 있음을 강조

---

134) F. Varela(1999), “Ethical know-how: Action, wisdom, and cognition.”. Stanford, CA: Standford University Press, p. 4, D. Narvaez (2005),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hapter 26. p.718에서 재인용

한다. Varela가 지능이 행동 속에서 체화되며, 여기에는 도덕적 지능 또한 포함된다고 본 바(Varela, 1999)와 같이 도덕적 지능을 교실 공동체 및 지역 공동체 속에서 체화의 과정을 통해 길러내야 함을 Narvaez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Narvaez가 IV장의 1절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TET의 세 가지 윤리적 정향이 발현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도 체화된 인지가 윤리적 동기화를 유발함에 있어 필수적인 기제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특정 윤리적 정향을 촉발시키는 직·간접적 요인인 개인의 기질적인 경향성(dispositional tendency)과 상황적인 점화(situational priming)의 두 가지 요소를 언급하는데,<sup>135)</sup>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윤리를 지향하는 기질적인 경향성은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 동안에 광범위한 환경적 지지로부터 발달하게 된다. 어린 시절 동안에 건강한 두뇌 발달이 가능했다면, 개인은 보통 타인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공감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관여 윤리에 ‘만성적으로 접근가능한 개인’은 생애 초기에 상호성과 정서적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위한 ‘체화된 경험’과 ‘감각-운동적 기억(sensorimotor memory)’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강한 애착과 공감적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여기서 안전 윤리, 관여 윤리, 상상 윤리 각각에 해당하는 스키마에 만성적으로 접근했던 개인을 곧 각각의 윤리와 관계 깊은 ‘체화된 경험’과 ‘감각-운동적 기억’을 가진 개인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주목해 보자. 여기서 우리는 인지(마음)가 몸(신체)과 환경이 서로 분리불가인 형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구성된다고 보는 ‘체화론’을 기본적 시각으로 하여 윤리적 행위의 발출을 설명하는 Narvaez의 확고한 관점을 재확인 할 수 있다.

## (2) 체화된 마음과 ‘마음챙김 도덕(mindful morality)’

본 논문의 IV장 1절에서 상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Narvaez는 IEE를 뒷받침 할 신경생물학적 토대이론으로서 안전윤리, 관여윤리, 상상윤리라는 상이한 도덕적 정향을 설명하는 TET이론을 발표한 후 도덕의 최고단계로서 하위 도덕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규범적 지향으로서 ‘마음챙김 도덕’을 제시하고 있다. IV장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그 핵심적 요지만을 제시하자면, ‘공동체적 상상’과 ‘관여 평온’이 결합된 상태가 바로 ‘마음챙김 도덕(mindful morality)’이다. 이것은 상호주관성과 타자에 대한 관계 지움(관여평온)을 경험에 근거한 추상 능력들(공동체적 상상)과 묶으며 두뇌의 우뇌와 좌뇌, 직관과 의식적 이성, 정서와 추상을 조화시키는 일종의 ‘도덕적 지혜’이다. 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일차적으로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이자 명상법으로 손꼽히는 위빠사나 명상의 싸띠(sati)에서 유래한 용어로 “매 순간

135) D. Narvaez(2007), “Triune ethics: The Neurobiological roots of our multiple moralities”, New ideas in psychology, V.26, pp.107~109 참고



순간의 알아차림”을 말한다. 이는 매 순간 정서적으로 그리고 주의집중해서 깨어있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고 명상과 기도 등을 통해 실천될 수 있다(Narvaez, in press). 한편 Narvaez는 다음과 같이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위대한 종교 사상들을 마음챙김 도덕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방인과 미래세대에 대한 동정, 사랑과 관심을 강조하는 위대한 종교들(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등등)이 마음챙김 도덕의 사례이며, 그것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가져오며, 그것은 우리의 ‘신체화 된 도덕감’을 발달시킨다. 우리의 도덕감은 우리가 타인들 그리고 자연세계와 깊은 동료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마음챙김 도덕은 자아, 자기정체성, 소유하기와 취하기에 대한 초점으로부터 멀리 돌아서는 것(회개, metanoia)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I/me/they/you 이분법과 삶의 좌절로부터 분리되어 영성을 가진 존재가 되게끔 한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안전 윤리 관심사(누가 위이고 누가 밑인가?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열악한가)와 분리된 상상적 관심사(규칙을 지키고 절차를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을 꾸짖는다. 이것들 모두 마음을 경직되게 만드는 것들이다. 예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강조했다.<sup>136)</sup>**

위에서 알 수 있듯, Narvaez는 지금 이 순간에 오로지 순수하게 깨어서 의식 경험을 바라보는 마음챙김 명상과 유사한 기제를 통해 자기와 세계에 대한 근본적 통찰, 좀 더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무아(無我)와 무상(無常)의 자각을 갖게 됨으로써 인간이 최상의 도덕적 지혜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無我的 자각), 이 세상에 항상불변(恒常不變)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無常의 자각) 깨달음을 통해 ‘나-너-그들-그것들’<sup>137)</sup>의 이분법적 경계가 무너지고 온전한 ‘관계성’이 회복되며, 이는 결국 자발적인 동정, 사랑, 자비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행동·실천에 옮기는 ‘신체화 된 도덕감’의 근본적 체득을 가능하게 한다. Narvaez는 명시적으로 무아와 무상 등의 진리를 설파하는 석가의 삼법인(三法印)설을 통해 마음챙김 도덕성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불교라는 종교적 신념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면서 마음챙김 도덕성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체화된 마음, 체화된 인지이론을 학제적 접근에 있어 핵심적 토대이론으로 삼고 있는 점은 분명하기에, Varela를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이러한 ‘자아’의 내려놓음을 관계성 회복과

136) 박장호(2012), 「Neo-Kohlberg 학파의 새로운 지평: D. 나르바이즈의 신경생물학Ⅱ」, 『인문학 논총』, 제29집, pp.219~220

137) 마음챙김 도덕성에서 근본적인 관계성의 자각 대상에서는 면대면 공동체에서의 2인칭 관계 속에서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나 이방인 등 비면대면 공동체에서의 3인칭적 타자들 혹은 생명들도 포함된다.

자발적 도덕심의 발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제로 보고 있다고 독해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종교적 교의를 떠나 불교적 용어로서의 ‘깨달음’, 기독교적 용어로서의 ‘회개’는 결국 자신의 것, 소유에 집착하는 자기중심성과 자아의 편협성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서 타자와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며, 이것이 곧 Narvaez가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의 접점으로써 최고의 규범적 지향으로 본, 마음챙김 도덕성의 핵심적 메시지인 것이다. 여기서 마음의 경직을 막고 모든 존재의 관계성을 자각하는 마음챙김 명상과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체화된 도덕감의 발달과 확장 등은 Varela의 체화론이 추구하는 인간의 진정한 윤리적 삶의 모습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 Narvaez는 마음챙김 도덕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에 유의했다며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하나는 사회적 직관주의자들의 견해가 바람직한 도덕적 기능을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편견에 대한 비판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며, 오류가능성을 가진 직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극복의 대상이다. 다른 하나는 세계와의 합일을 중시하는 동양의 불교적 명상 훈련과 현실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강조하는 최근의 긍정심리학이 바람직한 도덕적 이상으로 보이는 바, 이것은 적극적 수용의 대상이다.<sup>138)</sup>

한편 그녀에 의하면 마음챙김 도덕은 인간의 최대 도덕적 능력들을 활용해야 하기에 온화한 도덕 본성을 기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는 인류의 현재 상태는 진화된 본성에 부합하는 사람과 기쁨의 길에서 이탈된 것으로 보기에 우선적으로 평온한 도덕적 본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하는, 서로 간에 상호의존적으로 관계 맺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계와 깊게 관련된 존재에 대해서 직관을 개발하는 데 태만했기 때문에 덕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녀는 인간 번성,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모두 인간 번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추천한다. 여기서 ‘윤리적 노하우’나 ‘덕’은 마음챙김 도덕 기능을 가장 잘 기술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음챙김의 도덕적 인격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에 이르도록 개발될 수 있는 일단의 기술이나 능력 혹은 윤리적 노하우라고 말한다.<sup>139)</sup> 요컨대 Varela의 체화론은 Narvaez가 지향하는 최고의 규범적 지향인 마음챙김 도덕에 기축이론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38) Ibid. p.220

139) Ibid. p.221

### 3. 신경과학 및 신경생물학적 배경

fMRI(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기술 등의 도움으로 신경과학<sup>140)</sup>은 인간 행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Narvaez는 심리학의 대부분의 영역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차용한 연구 방법론 및 유의미한 발견적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포섭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덕 발달 및 도덕교육의 영역에서 이러한 신경과학적 수단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질문한다. 본 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Narvaez가 자신의 도덕 발달이론 및 도덕 교육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신경과학 및 신경생물학적 이론의 주요 연구 결과 및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Narvaez가 어떻게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지에 대해 알아본다.

#### 1) 도덕성에 대한 기존 신경과학 연구

여기서는 fMRI등을 활용하여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 해명하고자 했던 대표적 연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다루었던 Varela의 체화된 인지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뇌과학 연구라고 볼 수 있는 Damasio의 신체표지가설, 인간의 도덕적 의사결정이 직관과 추론이라는 두 유형의 정보처리메커니즘을 통해 도출된다고 본 Greene의 이중과정모형, 도덕판단에서 직관과 정서가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본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모형, TET의 직접적 토대이론이 되었으며 인간두뇌의 진화론적 발달 과정을 설명한 MacLean의 삼층 두뇌이론 및 Panksepp의 정서 신경과학이론에 대해 각각의 이론의 요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자.

#### (1) Damasio의 신체표지가설(Somatic Marker Hypothesis)

다마시오(A. Damasio)는 신경생물학자이자 의사로서 인간의 뇌의 기능과 관련된 정서, 인지, 행동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는 앞서 다루었던 인지과학자인 Varela의 핵심 이론인 ‘체화된 마음’을 뇌 과학자이자 의사의 입장에서 다루면서, 신체화 없이 인간의 마음을 다룰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뇌는 우리 몸의 일부이고 그 몸은 인간의 정서 및 인식과 분리될 수 없음<sup>141)</sup>을 강조한다.

---

140) 신경계의 구조, 기능, 진화, 발생, 유전학, 생화학, 생리학, 약리학, 정보학, 병리학 등을 연구하는 광범위한 학문 분야. 전통적으로 생물학의 한 분야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 인지 심리학, 신경 심리학, 컴퓨터 과학, 통계학, 물리학, 의학 등 많은 분야가 관련된 학제적 학문이 되었다.

141) 이정렬(2013), 「체화된 마음의 가능성과 도덕교육적 의의-A.Damasio의 ‘체화된 마음’ 개념을 중심으로-」, 『윤리 연구』, 제88호, p.154

이러한 그의 기본적 철학적 지향은 Descartes적 심신이원론, 즉 탈 육체화한 마음에 대한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Descartes에 대한 Damasio의 문제의식은 철학적으로는 Spinoza에서 비롯되었고 또 경험적 근거로서는 그의 신경생물학 연구에 근거한다.<sup>142)</sup> 그는 정서와 느낌은 이성이 기능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는 기존의 관점을 뒤엎고, 정서와 느낌이 손상되면 신(神)적인 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결정과 같은 이성의 활동이 손상을 입고 사회적 지식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것을 다양한 뇌 과학 연구 결과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sup>143)</sup>

이러한 주된 연구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신경생물학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그의 핵심 이론이 이른바 ‘신체 표지 가설(Somatic Marker Hypothesis)’이다. 이 이론은 심리철학의 난제인 심신문제(mind-body problem)를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전전두엽피질 손상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이성과, 정서, 느낌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온 이들이 뇌 손상 이후 지능, 이해능력과 사고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은 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다. 거시적으로 보고 과감하게 결정해야 할 순간에 세부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데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거나 모든 변수와 가능한 대안을 비교하느라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모든 검사에서 정상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인생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던 Damasio는 이들과 대화하던 중 이들이 한결같이 “결정내림의 결함”과 함께 “무감동의 정서와 느낌”을 갖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문제는 “알기는 하지만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정서와 느낌이 억제되면 초인적인 이성을 갖게 되기는커녕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Damasio는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 이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이성 우위 관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대체할 ‘신체표지가설’을 내놓는다.<sup>144)</sup>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우리는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선택지들을 하나하나 저울질한다. 그러나 만약 모든 변수와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평생의 시간도 부족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과정을 아주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는 어느 것은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배척하고, 어느 것은 훨씬 비중을 두고 다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이 과정에 정서와 느낌이 개입한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놓고 심사숙고하기 전에 정서가 신체표지가 되어 자동적으로 선택지들을 추려내어 최소한의 대안을 내놓는다. 그리고 정서와 느낌은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142) Ibid. p.157

143) 안수현(2008), 「이성, 정서, 느낌의 관계-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신체화된 마음”이론을 중심으로」, 『동서사상』, 제5집, p.55

144) Ibid. pp.72~73

데 어느 것을 즉각적으로 배척하고 어느 것을 더 눈여겨보아야 하는지도 느낌을 통해 표시해 준다. Damasio는 이와 관련하여 좋지 못한 결과가 주어진 반응선택과 연관되어 생각이 날 때, 당신은 불쾌한 내장 느낌을 경험하는데, 그 느낌이 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기술적 용어인 ‘신체적(somatic)’상태라 부르고, 그것이 어떤 이미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지(marker)’라 부른다고 말하고 있다.<sup>145)</sup>

감정과 신체의 관계는 Damasio의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피험자들에게 삶에서 아주 슬펐거나 기뻐거나 두려웠을 때 감정적으로 동요를 일으킨 사건을 생각하라고 지시하고, 피험자들이 자신의 감정에 깊이 빠져 든 순간 손을 들어 알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양전자 단층 촬영을 통해 무엇이 그들의 뇌 어디에서 활동하는 지 측정했다. 그 결과, 각각의 감정에 따라 상이한 부위가 활동적이긴 했지만 감지신경 부위는 늘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감정이입이 되었음을 손을 들어 알리기도 전에 이미 피부 전도율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그들이 감정을 의식적으로 지각하기도 전에 신체가 ‘감정적으로’ 되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Damasio는 주장한다. 연구팀은 이로부터 감정은 먼저 신체에서 발생하고 그 후 의식적으로 체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Damasio는 이와 같은 몇몇 실험을 통해 감정의 신체적인 토대를 강조하는 자신의 고유한 이론을 발전시켰다.<sup>146)</sup>

또한 그는 ‘아이오와 갬블링 테스트(Iowa Gambling Task)’실험<sup>147)</sup>을 대표적인 신체표지가설의 입증 사례로 제시한다. 이에 대한 Damasio의 해석에 의하면 이 실험에서 정상인들은 A, B카드 더미를 넘기면서 입은 손실 경험들이 특정한 종류의 신체 상태(신체 표지자: Somatic Marker)와 연결된다. A와 B카드를 넘기려 할 때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신체는 불안한 정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반면, vmPFC손상 환자들의 경우 A, B카드더미를 넘기는 경험들 속에서 어떠한 암묵적인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상인들이 C,D카드를 선호하는 것과 달리 vmPFC손상 환자들은 오히려 A,B를 더 선호하였다. 정상인들의 뇌는 반복되는 경험들 속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예측은 인지적 무의식 하에서 신체적 상태, 곧 신체표지자로 표현된다. 반면, vmPFC 손상 환자들은 카드를 넘기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거의 학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A, B카드더미를 넘기려 할 때 정상인들은 피부전도반응을 보인 반면, vmPFC손상 환자들에게는 피부전도반응이

145) Ibid. p.74 참고

146) 이정렬, op. cit., p.162 참고

147) 이 실험은 네 개의 카드 더미 중 한 장의 카드를 뒤집어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 경기자는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의도적으로 조작된 두 벌(A, B)을 돈을 잃을 위험이 높은 반면, 다른 두 벌(C, D)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 참가자들은 벌칙카드가 언제 나와 돈을 잃게 될지 알 수 없다. 또한 몇 장의 카드를 뒤집어야 실험이 끝나는 지도 모른다.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sup>148)</sup> 또한 그는 불의의 사고로 전전두엽의 OFC(안와전두피질)와 vmPFC에 손상을 입은 게이지(P.Gage)의 사례<sup>149)</sup>를 통해 도덕적 행위나 의사결정이 감정의 영역과 반드시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순수한 이성에만 의한 동기화는 불가능하며 정서와 연계된 이성이 우리의 도덕적 행위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게이지와 유사한 경우인 엘리엇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장면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고, 실제로 당사자가 행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지식들을 응용하거나 실천하지 못했다.<sup>150)</sup>

이러한 신체 표지 가설에 따르면 내측 전전두엽(vmPFC)의 손상은 문제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정보처리에 장애를 유발한다. 특히 OFC, vmPFC 손상 환자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정의 결핍을 보인다. 이는 점심 메뉴를 고르거나 불편을 사는 등의 소소한 의사결정에서조차도 심각한 결정 장애를 유발한다. 신체 표지 가설은 일상의 수많은 의사결정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성적 숙고, 추론적 사유 뿐만 아니라 직면한 상황에서 각성되는 신체표지자,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감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신체적 표지는 일종의 편견적 장치로 작동하여 우리의 주의가 배분되는 것을 조정한다. 물론 신체 표지들의 작용이 합리성을 보장하거나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추론과 최종선택의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선택지들을 추려내어 후속과정의 정확도와 효율을 높여준다. 신체 표지인 “정서적 신호”는 선택 가능성이나 결과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신호로 표지함으로써 의사 결정 범위를 좁히고 행동이 과거의 경험과 부합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신체표지는 “내부 신호 체계의 조절아래(유전), 그리고 생물체가 상호 작용해야 하는 실체와 사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나 윤리적 규범들을 포함하는 상황의 외부적 틀의 영향아래 경험에 의하여(양육) 획득된다. 이는 적응적인 신체 표지의 조성은 뇌와 문화 양쪽 모두가 정상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51)</sup>

결론적으로 그의 신체표지가설의 중심적 의도는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할 때, 인간관계를 결정해야 할 때, ‘느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영역을 적절한 장소로 인도한다. 따라서 느낌은 수동적 절차도 아니며 순수한 이성 자체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Damasio에 의하면 이성으로 유도하는 감정 즉, 느낌이 동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성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느낌은 이성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느낌에 의해 요구된 뇌 체계는 이성이 필요

148) Ibid. pp.79~80 참고

149) 게이지는 사고 이후 지적 능력이나 언어 능력에는 손상이 없었으나 난폭해지고 사회성이 결여되고 사회적 관습이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등 이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150) 이정렬, op. cit., pp.160~161 참고

151) 안수현, op. cit., p.75 참고

로 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수한 뇌의 체계는 신체와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Damasio에 대한 논의는 이성 또는 정서 중 어느 것이 도덕성에서 우위를 점령해야 하는지에 있다기보다는, 체화된 마음의 개념을 강조하고 그 구성에서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sup>152)</sup> 따라서 Damasio 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이라 할 수 있다. 신체는 단순히 정신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차적 내용이자 참고자료이다. 느낌은 신비적인 것, 혹은 의식에 덧붙은 장식물이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개개인이 행위 하는 데 인과적인 효력을 행사한다. 통합된 심신론을 세우기 위해서 느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그의 연구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sup>153)</sup>

## (2) Greene의 이중과정 모형

인지신경과학자이자 철학자인 Greene(J. Greene)은 fMRI를 통해 도덕적 딜레마에 반응하는 뇌영상을 실시간 촬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신경계 수준에서 도덕 판단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fMRI자료를 바탕으로 도덕적 딜레마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도덕적 사고와 판단 배후에서 작동하는 신경계의 구조에 대한 진화론적, 인지심리학적 연구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도덕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며 도덕성에 관한 신경과학적인 이해와 정합적인 윤리학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sup>154)</sup>

Greene은 인지과학의 이중처리이론(dual process theory)을 도덕적 인지를 탐구하는 기본 관점으로 채택한다. 이중처리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의사결정은 직관(type 1)과 추론(type 2)이라는 두 유형의 정보처리메커니즘을 통해 도출된다. 그리고 도덕 판단 또한 이러한 두 유형의 인지메커니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도덕 판단에 관여하는 신경계를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중처리 도덕심리학(dual process moral psychology)’을 제안한다. 도덕 신경과학 차원에서 우리의 뇌는 두 유형의 정보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직관적 혹은 추론적 판단을 산출한다. Kohlberg가 도덕성에 관한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도덕심리학을 전개했다면 Greene과 같은 도덕 신경과학자들은 도덕 판단과 행동의 전형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연구들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덕성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한다.

152) 이정렬, op. cit., p.165 참고

153) 안수현, op. cit., p.55 참고

154) J. Greene(2003), “From neural ‘is’ to moral ‘ought’: what are the moral implication of neuroscientific moral psychology?”, NEUROSCIENCE, 4, pp. 847~850, 김동창, 이정렬, op. cit., pp.81 재인용

그는 특정한 규범윤리학적 접근에서 출발하지 않고, ‘스위치 딜레마’와 ‘인도교 딜레마’를 활용하여 일반 대중들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보이는 도덕 판단의 두 양식(직관과 추론)과 그것의 신경학적 근거를 탐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경험적 데이터를 토대로 기존의 도덕심리학과 도덕 철학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중처리이론의 관점에서 도덕적 인지에 관한 대안적 이해를 제안한다. 실험결과 ‘스위치 딜레마’의 경우 승인할 수 있다는 응답이 87%, 인도교 딜레마의 경우에는 31%가 승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딜레마 모두 형식적으로는 5명의 작업자를 구하기 위해 1명을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가능한가를 묻는 구조이다. Greene은 두 딜레마에 대한 피험자들의 상반된 도덕 판단은 두 딜레마 상황이 갖는 다른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피험자들이 서로 다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여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Greene에 따르면 이러한 용인이 포함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피험자들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Greene은 행위주체가 직접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는 인도교 딜레마의 유형을 ‘인신적(personal) 딜레마’, 위해를 당하는 자와 행위주체가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혹은 대면을 하지 않는 비인신적(impersonal)딜레마로 구분한다. 그리고 Greene의 실험들은 비인신적 딜레마의 경우 공리주의적, 결과론적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인신적 딜레마의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도덕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무론적, 비 결과론적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주었다.<sup>155)</sup> 즉 두 가지 상이한 유형의 딜레마에 대한 뇌영상 촬영 결과, 도덕 판단의 차이를 신경계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신적 딜레마의 경우 뇌의 감정과 연관된 부위가 크게 활성화되었고, 비인신적 딜레마의 경우 의식적인 인지적 제어능력과 관련된 뇌 부위가 두드러지게 활성화되었다. Greene은 이를 바탕으로 인신적 딜레마는 인지적 무의식 하에서 자동적인 정보처리를 통해 직관적인 도덕 판단을 도출하는 반면, 비인신적 딜레마의 경우 의식적 통제 하에 계산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도덕 판단을 산출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칸트 의무윤리와 Kohlberg의 도덕성발달이론의 주장(의식적 숙고와 추론을 강조하는 의무론적 윤리)과 달리 실제 인신적 딜레마와 관련된 의무론적 판단 시 인간의 의식적 추론과 관련된 뇌 부위가 아닌, 감정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무론적 윤리 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 (3)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

Haidt는 Greene과 마찬가지로 도덕 신경과학자로서 도덕 판단과 행동의 전형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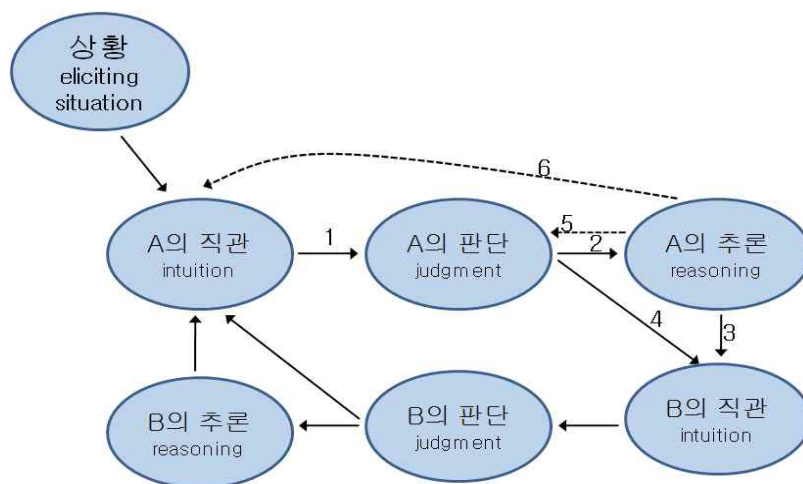
---

155) Ibid. p.82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연구들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덕성에 대한 논의를 재검토 한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심리학, 사회심리학의 관점에 토대를 두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부도덕한 행동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을 활용하여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정초하였다.<sup>156)</sup>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이 직관적 판단, 사후 추론, 추론된 설득, 사회적 설득, 추론된 판단, 그리고 사적인 숙고라는 6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림-1> 도덕적 판단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Haidt, 2001)<sup>157)</sup>



도덕 판단에 있어 도덕적 숙고, 추론 등 반성적 사고의 과정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이성의 우위를 주장하는 기존의 이성주의 접근에 반대하는 증거와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이다. 위 그림에서 (1) ‘직관적 판단’은 아무런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고, (2) ‘사후 추론’은 자신의 직관적 판단을 지지하기 위해 관련주장을 탐색하는 것이다(‘이성은 정념의 노예’의 논리). (3) ‘추론된 설득’은 자신의 직관적 판단에 따른 추론이 다른 사람의 직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고, (4) ‘사회적 설득’은 추론에 대한 명시적인 시도 없이 자신의 판단이 다른 사람의 직관을 수정함으로써 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한다. ‘(3)추론된 설득’과 ‘(4)사회적 설득’ 모두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의 ‘사회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동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에 따라 설득하는 과정이다. ‘(5) 추론된 판단’은 초기 직관을 뛰어넘어 논리의 힘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6) 사적인 반성적 사고’는 역할 채택 및 추론을 통해 자신의 초기 직관을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156) Ibid. p.81

157) 정창우(2011b), op. cit., p.102

(5)와 (6)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그들 스스로의 개인적인 추론을 통해 그들의 초기 직관적인 판단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론은 자신의 태도와 신념에 관한 의문에 대해서는 드물게 사용되기 때문이다.<sup>158)</sup>

위 (1)~(6)까지의 도덕 판단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것은 직관적 판단과 사후 추론의 두 과정이다. Haidt는 직관적인 과정을 “신속하고 용이하며 전체론적인 방식으로 일상의 도덕 판단을 다루는, 초기 설정과정”으로 보고 주로 “직관들이 갈등하거나 사회적 상황이 어떤 각본의 모든 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때”추론과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도덕추론은 진리를 찾는데 자유롭게 남겨지지 않으며 단지 이미 정해진 결론의 확증을 찾기 위해 이용되면서 추론과정은 진리를 추구하는 재판관이나 과학자보다는 오히려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에 가깝다고 말한다. 추론이 도덕판단에 갖는 인과적 효과는 대부분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직관과 추론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통해 Haidt는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도덕 판단은 감정적으로 활성화된 직관에 의한 것이며 도덕추론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직관적 판단을 사후에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의 도덕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덕 추론의 연구로부터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과정의 연구를 향해 관심을 이동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sup>159)</sup>

Haidt는 자신의 모형이 신경과학적 증거들, 특히 Damasio와 Greene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Damasio와 Greene의 연구는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모형과 함께 도덕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을 규명하는 대표적인 신경과학적 연구 성과에 해당한다. 먼저 그는 Damasio가 주장한 우리가 직감(gut feeling)으로 경험하는 신체적 상태의 표지가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신체 표지가설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위한 추론을 하기 전에 일어나는 어떤 신체적 상태의 표지에 연관된 감정적 반응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서가 좋은 의사결정이나 행위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입증 근거로 삼는다. 또한 Greene의 이중과정모형에서 의무론이 일종의 도덕적 작화(作話)이며,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도덕 판단(의무론적 도덕 판단과 결과론적 도덕 판단) 모두에 정서가 관여한다는 주장을 자신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의 지지근거로 활용한다.<sup>160)</sup>

한편 Haidt는 도덕적 신념과 동기화가 인간의 마음이 발달되도록 진화가 준비해 온 ‘직관’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러한 직관이 덕과 가치의 사회적 구성을 가능하

158) Ibid. p.103

159) 노영란(2015), 「도덕적 정서의 근원과 발달에 대한 신경과학적 이해와 덕윤리」, 『철학논총』, 제79집, 제1권, pp.79~80

160) Ibid. pp.81~82 참고

게 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고 답변한다.<sup>161)</sup> Haidt는 또한 맹자가 사덕(四德)의 단서인 사단(四端)을 모든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한 점을 인용하면서, 저명한 문화심리학자인 스웨더의 연구를 포함한 5편의 주요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덕적 직관의 공통분모를 5가지로 제시한다. 5가지 기본적인 도덕적 직관에는 위해(harm)/ 배려(care), 공정성(fairness)/ 호혜성(reciprocity), 권위(authority)/ 존경(respect), 순결(purity)/ 신성(sanctity), 내집단에 대한 충성(in group loyalty)이 포함된다. 이러한 5개의 도덕적 직관은 각각 분명한 진화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진화가 이러한 5개의 도덕적 직관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쉽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도덕적 모듈(moral module)의 형태로 준비해 놓았다고 말한다. 이같은 선천적 도덕적 모듈과 더불어 Haidt는 직관주의 이론에서 도덕발달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을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덕’을 통해 제시한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의 설명 방식을 결합하면서 Haidt는 도덕 발달은 선천적인 도덕적 모듈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덕의 구체적 목록들과 만나서 발현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162)</sup>

#### (4) MacLean의 삼층 두뇌이론 및 Panksepp의 정서 신경과학이론

인간두뇌의 진화론적 발달 과정을 설명한 매클린(P. D. MacLean)의 삼층 두뇌이론 및 팬크셉(J. Panksepp)의 정서 신경과학이론은 IV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게 될 TET의 이론 구성의 토대이론이 된, 진화론에 기반 한 신경생물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Narvaez는 TET에 포함된 각각의 윤리적 정향이 인간 두뇌의 구조와 회로에 명백한 신경생물학적 근원을 가지고 있음을 과학적 지지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sup>163)</sup> 이 근거가 된 것이 바로 MacLean과 Panksepp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신경과학 이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Narvaez의 학제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sup>164)</sup>

미국의 내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인 MacLean은 저 층위(lower-order) 종(species)으로부터 전래된 관계를 반영하는 인간 두뇌의 세 가지 기초적인 층(formation)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이른바 삼층 두뇌이론(Triune brain theory)이다. Narvaez는 정서적인 신경과학의 축적된 연구물들이 MacLean의 삼층 두뇌이론의 일반적인 요지를 확증해주고 있다고 말한다.<sup>165)</sup>

161) 정창우(2011b), op. cit., p.103

162) Ibid. pp.107~108

163) D. Narvaez(2012), op. cit., p.146

164)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Narvaez의 논문(2012) “Triune ethics: The Neurobiological roots of our multiple moralities”를 주로 참고하여 삼층 두뇌이론과 정서신경과학이론의 요지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이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두뇌는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세 층의 구별되는 두뇌 지층을 갖게 되었는데, 뇌간(brain stem: 파충류의 뇌), 변연계(limbic system: 포유류의 뇌), 대뇌 피질(cerebral cortex: 인간의 뇌)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파충류의 두뇌로 불리는 뇌간은 뇌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뇌 부위 중 가장 먼저 발달한다. 태어날 때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주요 임무로는 호흡, 혈압 조절, 체온 조절, 심장 박동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 변연계는 뇌의 가운데 있으며 시상, 시상하부, 편도, 뇌하수체, 해마 등으로 구성된다. 포유류는 대부분 변연계를 가지고 있어 포유류의 뇌라 불린다. 감정을 다스리고 기억을 주관하며, 호르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춘기에 거의 완성된다. 셋째, 대뇌피질은 우리가 사고, 계획 또는 기억과 같이 뇌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활동을 담당한다. 인간만이 갖고 있기에 인간의 뇌로 불리며 감각계에서 들어온 정보를 종합해 사고, 판단, 의사결정, 계획 및 반성 등의 고차원적 기능들을 담당하며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영아기부터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양적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사춘기 동안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 성인(남자 평균 30세, 여자 평균 24~25세)이 되어야 성숙한다.

보다 심화된 논의로 들어가 파충류의 두뇌를 설명하는 R-complex에 대해 우선 살펴보자. R-complex(Reptilian complex)는 발달동안 전뇌의 아랫부분으로부터 구조화된 기저핵(basal ganglia)에 대해 MacLean이 이름붙인 것이다. 이 용어는 한 때 비교 신경해부학자들이 파충류와 조류의 전뇌가 이러한 구조들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던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MacLean은 R-complex이 공격, 지배, 영역성 및 의식적 행위와 같은 종-특수적인 본능적 행동의 이유가 된다고 제안했다. R-complex의 생리적 기능의 사례는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sup>165)</sup> 첫 번째로 신체적 생존(physical survival)은 몇 개의 정서 시스템에 주목하는데 이는 탐색, 분노와 공포를 포함한다(Panksepp, 1998). 개인적 생존 기제는 행동주의자들로부터 오랜 시간 연구되어온 이러한 보상 강화 시스템으로부터 작동된다. 유기체는 두려움만 없다면 자동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게 된다. 그들은 어떤 행동이 효과적이며 어떤 것은 안전하지 못한지 고전적 조건화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 유기체는 탐색으로부터 저지될 때 고통을 표출하는데, 자주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Azrin, Hutchinson & Drake, 1969). 신체적인 생존은 안전을 최대화하려는 반응을 포함한다. 안전이 위협되면, 부교감성의 시스템은 ‘공격 혹은 도피 반응(fight or flight, rage system)’을 촉발시킬 수 있다. 공포 시스템은 고통을 완화시키며 신체적으로 파괴될 공산을 줄인다. 생존 본능에 의해 야기된 안전에 대한 필요는 과거에 작업했던 것(확장적인 실행 또는 도구적 행동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촉발된 습관적 행위 경로)에 완고하게 의존하

165) D. Narvaez(2007), op. cit., pp.96~97 참고

166) Ibid. p.98 참고

도록 한다. 자기 보호적인 행동과 가치는 개인과 내집단의 삶을 보호한다. 영역성을 고수하는 동물들은 냄새 표시와 같은 경계를 유지하는 습관적 행동을 가지고 있다. 외부자들로 부터 내집단을 보호하는 것은 본능적이며, 모든 동물들에게 공통적인 이방인에 대한 자연적인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들의 경우 R-complex에 위협을 느끼면 이것은 경쟁과 군중 행동을 수반하는 부족주의(tribalism)를 촉발시킬 수 있다(MacLean, 1990). 군중으로서든 또는 개인으로서든, 인간에게 분노 시스템은 뇌 피질 하부(subcortical) 영역에 화학적 반응을 생성시키는 본능을 자극함으로써 복수를 하도록 만든다. 다음으로 R-complex가 두 번째로 주목하는 ‘상황 속에서 번영하는 것(thriving in context)’에 대해 살펴본다. 이 요소는 내집단 내에서의 지위와 지배의 측면과 관계된다. 지배 시스템을 따르는 종(species)에서 유기체는 챔피언의 행동과 같이, 더 많은 특권을 소유하기 위한 지위 획득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함은 우두머리 수컷에 있어 테스토스테론과 세로토닌 증가를 포함한 개인적 활력을 강화시키고(Barash, 1978), 모든 종류의 기회를 향상시키게 된다(Wilson, 1980). R-complex는 매우 자기중심적이다. “나는 안전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이런 질문은 안전한 환경에서와 행위의 일상적 경로를 따를 때 평온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일상이 무너지거나 안전이 위협되면, 공포나 분노 시스템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다. 공포와 분노 시스템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것이 두뇌의 나머지 영역을 모두 차지하게 될 수 있다(MacLean, 1990).

두 번째로, 포유류의 두뇌를 설명하는 Paleomammalian complex에 대해 살펴보자. 두 번째 두뇌 진화의 흐름은 유기체를 포유류 기능, 즉 변연계 시스템과 연관된 구조들 중심으로 옮겨가게 한다(MacLean, 1990). 원시 포유류의 두뇌는 격막(septum), 편도체(amygdalae), 시상하부(hypothalamus), 해마 복합체(hippocampal complex), 대상피질(cingulate cortex)로 구성된다. MacLean은 처음에 1952년에 발간한 논문에서 이러한 상호 연결된 두뇌 조합을 언급하면서 ‘변연계 시스템(limbic system)’이라는 용어로 소개했다. 두뇌에 대한 주요 기능적 시스템으로서 변연계 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수용되었고 이 분야에서 그의 가장 큰 공헌으로 인정되고 있다. MacLean은 변연계 시스템의 조직은 초기 포유류 진화단계에서 일어났으며 양육, 재생산 행위, 부모 행동 등을 포함한 동기와 정서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조의 조합은 또한, 시상하부-변연계 축(hypothalamic limbic axis)에서의 본능적인-정서적 신경 시스템(visceral emotional nervous system)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Panksepp, 1998). 이 두뇌 형성은 파충류 두뇌의 기능에 느낌(feeling)의 색조를 부여하게 되며, 내부적(학습) 및 외부적(사회성)인 양 측면에서 정서적 신호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MacLean은 이러한 고대(古代) 포유류(paleo-mammalian) 구조가 인간 정서, 개인적 정체성, 현재의 경험에 대한 기억, 현실과 진실에 대한 개인적 감각 등의 기초가 될 것이라 제안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세 가지 행동의 신호 집합인 간호와 모성의 돌봄, 엄마와 자녀 사이의 듣고 말하는 대화 그리고 놀이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의 두뇌 진화의 지층을 반영하는 ‘인간의 두뇌’ 혹은 대뇌피질과 관련된 ‘Neomammalian complex’은 고등 포유류, 특히 인류에 독특하게 발견되는 구조인 대뇌 신피질(cerebral neocortex)로 구성된다. MacLean은 이러한 부가가 포유류 두뇌의 진화과정에서 가장 최신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언어능력, 추상화, 계획, 인지와 관련이 된다고 보았다.

한편 Panksepp은 MacLean이 제시한 세 가지 진화적인 층위들(strata)이 척추동물의 두뇌 진화에 있어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의 안정성을 반영한다고 말한다(Panksepp, 1998). 자동적으로 그리고 생화학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층위는 각각 파충류, 초기 포유류, 후기 포유류의 진화를 반영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동물과 인간 연구는 이 이론의 기본적 사실들을 지지한다(Panksepp, 1998). 인류에 있어, 층위들은 서로 얹혀져 있다(따라서 “triune-3층의”이라고 표현하며, “tripartite-3부로 된”이라고 하지 않음). 각각의 새로운 회로는 오래된 경향 위에서 개발되고 구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은 인간 행동에 있어 식별 가능한 고유한 자취를 가지고 있다. IV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Narvaez의 TET(삼층 윤리 이론)는 이러한 인간 두뇌의 진화론적 자취가 도덕적 행동 경향에서도 역시 나타나게 됨을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들은 “두뇌 발달에서 유전적으로 뿌리 깊은 심리행동적인 가능성”을 “진화의 작동자(evolutionary operant)”로 삼아 두뇌 기능을 진화시켜왔다(Panksepp, 1998). 이러한 작동자들은 삶의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여 동물들이 적응적으로 행동하도록 돕는 정서적인 명령 체계(emotional command systems)를 물려받았다. 두뇌 전체를 통해, 정서 시스템은 더 진화된 인지적 구조 및 낮은 단계의 생리적이고 운동적인 결과와 함께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중심으로 위치해 있다. 결과적으로 정서가 결여된 사고는 없으며 대부분의 사고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행동이나 생리학적 결과가 없는 감정도 없다. “정서 회로(emotive circuit)는 감각의, 지각의, 인지의 처리를 변화시키고 정서적 경험으로 유발된 행동적 경향 특성과 함께 자연적으로 동시 통합된(synchronized) 다수의 생리학적인 변화를 야기한다.”(Panksepp, 1998).

Panksepp의 정서적 기능의 하이브리드 모델에 따르면, 두뇌에 존재하는 많은 수의 정서적 요소 체계는 학습 기능으로써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그는, “정서는 어떤 행동 패턴이 동반되는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경험들의 더 기본적인 단위로부터의 초기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구성된 학습된 상태이다(Panksepp, 1998).” 기본적인 신경-정서적 시스템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적 차원에 관한 동물들의 자기 중심적인 번영(well-being)의 감각을 발생시킨다.(Panksepp, 1998)”. 이러한 시스템

은 동물들에게 생존의 기본적 이슈에 관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어떻게 하면 내가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유지할 수 있을까? 등). 포유류의 두뇌에는 최소한 네 개의 원시적인 정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는 잘 설명되고 연구되어 온 부분(먹이구하기, 분노, 두려움, 공포에 관한 내용)과 조금 덜 검증된 (성욕, 양육, 유희 그리고 아마도 다른 개체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지배 등에 관한) 부가적인 시스템이 추가된다.

진화의 제약 속에서, 두뇌 정서 회로의 패턴은 특히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의 결과 초기 삶 속에서 자리 잡히게 된다. 사실, 최근의 연구는 정서 회로(Champagne & Meaney, 2006), 인격(성격) 형성(Shore, 2003), 인지(Greenspan & Shanker, 2004)에 있어 유전자 발현에 있어 초기 경험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아를 향한 양육자의 행동에 기반 하여, 유전자는 발현되거나 혹은 발현되지 않을 수 있고, 정서적 통제 역시 건강한 경로를 따르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인지적 발달도 최대한의 성장 방향으로 가거나 가지 않을 수 있다. Narvaez는 이렇듯 진화론적 신경과학 이론에 기반 하여 이후 TET를 제안하면서, TET가 초기 삶에서 형성된 정서적 회로가 도덕성을 위한 두뇌의 구성물 및 이후의 윤리적 표현형(ethical expression)발현에도 연결된다고 상정한다.<sup>167)</sup>

## 2) Moll 등의 도덕인지 신경과학

Moll과 그의 동료들(Moll et al., 2005)은 이른바 ‘도덕인지 신경과학’이론을 통해 인간의 독특한 사회적 인지 및 행동 형성을 위한 신경학적 기초에 천착하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최근의 기능적인 영상과 의학적인 증거들은 두뇌 영역의 매우 일관된 네트워크가 도덕적 인지에 관여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물들은 두뇌 기능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사회적 행동 장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며, 아울러 개인과 사회 간의 복잡한 연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접근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염두에 두고 Moll등은 어떻게 ‘문화와 맥락 의존적인 지식’ 및 ‘의미론적 사회적 지식’과 ‘동기적 상태’가 인간의 도덕인지(moral cognition)의 복잡한 측면들을 설명하는데 통합될 수 있는지 인지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Narvaez에 관한 국내 선행논문들 중에 그녀가 토대로 삼은 이론으로 도덕인지 신경과학의 측면을 상세히 다룬 논문이 드물기에,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소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도덕인지(moral cognition)의 신경학적 기초

167) D. Narvaez(2012), op. cit., p.147~150 참고

도덕인지 신경과학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생산적 논의를 위해 Moll등이 도덕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본다.<sup>168)</sup> 수백 년 동안 철학적 이론들은 인간 행동의 방향설정을 목표로 보편적 원리의 발견을 위해 도덕성에 대한 연역적이며 논리적 진술에 의존하는 접근을 우선시 해왔다<sup>169)</sup>. 반대로 도덕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들은 뇌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의 도덕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도덕적 인지의 주요 차원에 관한 추론을 제공해 준다. 도덕인지 신경과학은 따라서 도덕적 행동의 기저를 이루는 인지적이고 신경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도덕성은 ‘사회적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문화적 집단에 의해 수용된 관습과 가치의 집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주류적 서구 도덕철학에서의 연역-논리적인 도덕성에 관한 관점과 달리)절대적인 도덕적 가치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는 견해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Moll 등은 도덕인지에 대한 신경적 기초에 대해 논한다. 지속적인 반사회적인 행동들에 대한 설명이 오래도록 이루어져왔지만, 의학 분야에서 그들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 ‘도덕적 감각(moral sense)’에 대한 기능장애 혹은 ‘도덕적 정신이상(moral insanity)’은 처음에는 ‘자연적 느낌, 감정, 성향, 충동, 습관, 도덕적 기질, 자연적 충동의 도착(왜곡)’으로 형식적으로 묘사되었다. 특수한 두뇌 부위가 도덕적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체계적인 증거가 전두엽 손상에 관한 초기 연구 및 전쟁 부상으로 인한 신경외과적인 보고 등을 통해 제공되어 왔다. 보다 최근의 연구자들은 신경과학, 발달 신경심리학, 도덕심리학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이러한 관찰 결과들을 도덕인지의 영역 내에서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Elisner와 Damasio는 성인 시기에 획득된 복내측 PFC의 결함을 가진 환자의 경우, 특수한 도덕적 추론 기능이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도덕 행동의 결손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후속된 연구에서 어린 시절에 획득된 복내측 PFC 병변은 도덕적 추론 및 도덕적 행동 모두에 손상을 야기한다고 밝혀졌는데, 이는 도덕적 발달이 초기의 PFC 결함에 의해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덕적 행동에서의 기능 장애는 발달적인 사이코패스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하다. 덜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의 병변은 역시 도덕적 행동의 변화를 초래한다.

PFC에 더하여 다른 두뇌영역도 도덕적 인지에 중요하다. 전방 측두엽(anterior temporal lobe)의 조직적 변화는 역시 도덕적 행동의 위반을 불러온다. 사회적 지각을 위한 핵심 영역인 STS(상측 두구)부위를 포함한 신경 순환 기능장애는 자폐증(자극심과 수치심 경험의 감소를 야기하는 의도성 부여로서)을 가진 개인이 경험하

168) G. Moll et al.(2005), “The neural basis of human moral cognition, Nature reviews-Neuroscience”, V.6, pp.799~800

169) Narvaez는 이를 도덕성과 도덕발달에 관한 “하향식(top-down)-이론”이라고 명명한다.



는 어려움과 결부된다. 변연계(limbic)와 부-변연계(paralimbic)의 병변은 성적 조절, 사회적 애착과 공격성과 같은 기본적인 동기 메커니즘의 손상을 일으켜 극단적인 도덕적 위반을 불러오게 된다. 사이코패스적인 개인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기능적인 영상 연구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이상(abnormality)을 지적했다.

뒤이어 Moll 등은 도덕 정서와 판단에 관한 뇌 과학적 연구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sup>170)</sup> 최근의 연구들은 도덕 정서와 판단의 신경적 연관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복내측 PFC의 병변적 손상은 자존감과 수치심 및 죄책감과 관련된 결함을 나타냈다. 한편 다른 과업과 자극을 보여주는 스키마를 활용하여 간단한 도덕 판단, 도덕적 딜레마, 도덕적 정서를 포함한 건강한 개인들에 관한 기능적 영상 연구가 실행되었다. 무엇보다도, 도덕적 인지를 포함한 두뇌 영역에 대하여 기능적 영상과 임상해부학적 증거 사이에 괄목할만한 합의가 있다. 전측 PFC(anterior prefrontal cortex), 안와전두피질(OFC, orbitofrontal cortex), 후측 STS(superior temporal sulcus), 전방 측두엽(anterior temporal lobe), 뇌섬엽(insula), 설전부(precuneus), 전대상피질(ACC, anterior cingulate cortex), 변연계 부분을 포함한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었다.

## (2) 도덕인지 신경과학 이론: 사건-특성-정서 복합체 모델(EFECs)

Moll 등은 <표-3>과 같이 도덕인지 신경과학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특성과 한계점을 다룬다.

<표-3> 도덕인지 신경과학에 관한 다양한 프레임워크의 특성 및 한계<sup>171)</sup>

【이론적 설명】	상황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의 효과	인지와 정서의 관계성	뇌 병변 예측	도덕인지 현상에 관한 합의점
도덕 판단에 있어 갈등 조절	No prediction	위계적인; 정서는 인지적 과정에 의해 억제됨	No	도덕 판단에서 과제 난이도와 인지적 조절
신체 표지 가설(Damasio)	부분적으로 논의됨	통합된; 자동적 신호가 인지를 안내함	Yes	의사결정 결과의 암시적 평가
사회적 반응 전도	부분적으로 논의됨	위계적인; 감정적 신호가 공격성 억제를 도움	Yes	공격적 행위의 억제
소시오패스에	No prediction	No prediction	Yes	소시오패스 기능장애의 정신

170) Ibid. p.800

171) Ibid, p.802

있어ToM 기제의 장애				상태 귀속
구조화된 사건-복합 프레임워크 (SECs 모델)	예견됨	위계적인; PFC 표 상이 감정 반응을 조절함	Yes	맥락적 영향과 사회적 지식
도덕적 민감성 이론	부분적으로 논의됨	통합된; 사회적 인 지와 도덕적 정서는 함께 묶여있음	Yes	도덕적 정서와 암묵적 도덕 평 가
사건-특성-감정 복합 프레임워크	예견됨	통합된; 사회적 특 성, 동기화, 감정과 맥락적 지식이 함께 결합됨	Yes	맥락 의존적인 사회적 지식, 특 성과 정서의 결 합

Moll 등은 위와 같은 이론적 견해들이 공통적으로 도덕인지의 신경 메커니즘이 PFC, 변연계 부위 혹은 다른 두뇌 영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표상 신경 구성(representational neural architecture)’을 제안하며, 이전의 프레임워크들의 제한점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들의 견해에서 도덕적 인지 현상은 피질-변연계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내용(content)과 맥락(context) 의존적 표상의 통합으로부터 일어나게 된다.<sup>172)</sup>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구조, 이것의 특성과 예측은 세 개의 핵심요소에 의존한다. 첫 번째로 ‘구조 사건 지식(structure event knowledge)’은 PFC에서 사건의 맥락 의존적인 표상과 사건 배열에 상응한다. 두 번째는 전측 및 후측 측두엽에서 일어나는 ‘사회 지각적·기능적 특성(social perceptual & functional features)’이다. 세 번째로 ‘중심적 동기와 정서 상태(central motive & emotion state)’는 변연계와 부 변연계 조직에서의 맥락 독립적인 활성화에 상응한다. Moll 등은 이러한 요소들이 의학적이고 영상적 증거들에서 나타났음을 강조하며, 도덕인지에의 타당성에 대해 뒤이어 설명하고 있다. 요소의 표상들은 상호작용하며, 세 가지로 추정되는 결속된 메커니즘을 통해 이른바 「사건(event)-특성(feature)-정서(emotion)의 복합체(complexes)」(EFECs)를 낳게 된다.

우선 ‘구조 사건 지식(structure event knowledge)’에 대한 Moll 등의 논의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본다.<sup>173)</sup> 도덕성은 실제 세계의 일이다. 인간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타인의 행위를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광범위한 맥락적 요소들을 통합한다. 맥락 의존적인 사회적 및 사회적 관련이 없는 지식의 구조화에 있어 PFC(prefrontal cortex, 전전두엽)의 중요성은 기존의 SEC모델에서 설명

172) Ibid. p.804

173) Ibid. pp.804~805

된 바 있다. 별개의 PFC 영역은 사건 순서지식을 표상하는 데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SEC모델에 따르면, 일상적인 일처럼 반복 학습된 사건 순서(event sequence)는 PFC의 내측(medial) 및 보다 후측(posterior) 영역에 저장되는 반면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사건 순서는 DLPFC(배외측 전전두피질)에서 표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FC의 전측(anterior)부위는 장기적 목표 및 다층적 사건 복합체(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등의)를 저장하며 분리된 인지적 과정들을 통합하여 상위의 행동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되었다. 마지막으로 PFC의 복내측 영역은 우선적으로 태도와 사회적 편견의 형성에 핵심적인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사건 지식’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Moll 등이 ‘사회 지각적 · 기능적 특성(social perceptual and functional features)’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자.<sup>174)</sup> 당신이 좋아하는 신문을 훑어볼 때, 모임을 소집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할 때, 당신의 두뇌는 사회적 중요성이 큰 거대한 지각적 신호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부담스러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특징적이며 의미론적인 지식의 복합적 패턴에 의존한다. 맥락 독립적인 특징적 표상(featural representation)의 존재는 수많은 신경심리학적 · 기능적 영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사회에 참여하면서 암묵적인 혹은 명시적인 도덕적 평가를 할 때, 환경으로부터 사회적 지각과 기능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지각 특성은 얼굴 표정, 응시, 운율체계, 신체 자세, 제스처 등으로부터 추출된다. 후측 STS는 이러한 표상을 저장하는 핵심적 부위이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STS부위의 형태학적인 이상은 자폐증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관독 장애의 원인이 됨이 드러났다. 사회 기능적인 특성은 상이한 사회적 상황에서 추출된 맥락 독립적인 의미론적 특성을 부호화한다. 의미론적 특성 지식에 관한 전방 측두엽(anterior temporal cortex)의 중요성은 의미론적 치매에서 실어증적 장애에 의해 강조되어왔다. 전방 측두엽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는 인간행동에 대한 명명(naming)에 장애를 나타냈는데, 이는 해당 뇌 부위가 사람에게 적절한 기능적 지식을 나타내는 것에 포함됨을 암시한다. 의미 치매(semantic dementia)에서 고립된 전측 측두엽 위축과 관련된 심각한 행동의 변화, 그리고 사이코패스적인 개인들의 해당 뇌 부위에 이상으로 인한 의미 장애와 비정상적인 행동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세 번째로 Moll 등이 ‘중심적 동기와 정서 상태(central motive & emotion state)’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자.<sup>175)</sup> 도덕적 인지는 표상하고 검색하는 사건 지식(event knowledge), 의미적 정보와 지각적 특성을 위한 정교화 된 대뇌피질상의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그러나 도덕성은 행위의 동기적이고 정서적 측면을 거세해 버

174) Ibid. pp.805~806

175) Ibid.. p.806

렸을 때 무의미한 개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변연계와 부 변연계 영역은 신체의 항상성을 조절하고 기초적인 감정 또는 정서적 상태의 기저를 이룬다. 다른 변연계/ 부 변연계 부위 및 뇌간(brain stem)과 연합하여, 시상하부의 활동은 성적인 흥분과 사회적 애착, 배고픔, 공격성 그리고 기쁨의 극대화 등을 포함한 ‘지시가 없는(undirected)’ 정서성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는 신경전달물질 혹은 신경조절물질의 부조화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부위에 대한 선택적인 병변, 마약 그리고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강력하게 유발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 중심적 동기 상태는 공포, 혐오와 같은 기본적 감정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기본 감정은 일시적인 맥락 표상의 연합(공포스러운 대상이나 상황을 인식하면서)에 의해서 혹은 중심적 동기 상태(의도되지 않은 불안) 그 자체에 의해 나타난다. 몇몇 변연계 핵들은 PFC 및 다른 대뇌 피질 부위와 함께 상호적인 연결 속에서 광범위한 행동들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Moll 등은 그들의 프레임워크에서 ‘피질-변연계 네트워크’의 통합을 통하여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중심적 동기 상태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대뇌 피질’의 표상은 당신으로 하여금 누군가 다쳤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중심적 동기 상태’는 불안과 애착을 유도하여 고통 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고무시킨다.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은 ‘합리적인’ 인지적 메커니즘이 감정을 조절하거나 경쟁한다는 공통적으로 지지되어 온 관점과 대비된다.

뒤이어 Moll 등은 상기에 논의된 인지 신경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복잡한 도덕 현상(moral phenomena)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sup>176)</sup> 그들은 ‘EFEC 프레임워크’를 통해 몇 가지 가능한 새로운 속성들을 예측할 수 있지만, 도덕인지에 관한 가장 적절한 세 가지, 즉 도덕 감정, 도덕적 가치 그리고 장기적 목표한 논의까지 확장하여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 정서는 개인적 관련성과 함께 천부적으로 주어진 지각, 상상 또는 기억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데 반해, 도덕적 감정(정서)는 다른 사람 혹은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관심 및 복지와 관련이 된다. 죄책감, 동정심, 수치심, 부끄러움, 자괴심, 경멸 그리고 감사는 전형적인 도덕적 감정의 사례이다. 맥락과 다른 감정들에 따라서 다른 감정들-예를 들어 혐오, 놀라움 그리고 분개 혹은 분노는 또한 도덕적 감정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규칙에서, 도덕적 감정은 가치들, 규범들 그리고 사회적 상황의 맥락적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나며, 사회적 선호와 기대에 대한 위반 혹은 강화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유도된다. 비록 도덕적 감정을 사회적 규범으로 연결시키는 맥락적 단서가 다양하며 문화에 의해 조형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다른 영장류에서도 발견되는 원형적 감정으로부터 진화해 온 것이고 간 문화적(across cultures)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도덕적 정서는 EFECs 모델의 세 가지 요소와 함께 통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

176) Ibid. p.806

어, 동정심은 맥락의존적인 ‘사회-지각적 특성’(예를 들어, 어린 아이의 슬픈 표정), ‘사회-기능적인 특성’(부모를 잃은 어린이의 무력함, 난감함, 의지할 곳 없는 특성)과 관련한 추상적이고 개념적 지식 그리고 구체적·맥락적 사건 표상들(그녀의 부모는 사고로 죽고 그녀의 나이에서 입양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과 함께 제시되는 ‘중심적 동기 상태’(슬픔, 불안과 애착)와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도덕적 가치(예를 들어, 정직한 시민이 되거나 배려있는 부모가 되는 것 등)와 규범(세금을 납부하고 절도하지 않는 등)은 사회 안에서 몇 가지 행위의 표준으로 구성된다. 그것들은 사회적 적응을 강화하고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자세와 기대를 조형해 낸다. 도덕적 가치, 규범과 도덕적 인지를 동반한 태도의 긴밀한 연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독립적인 표상은 여전히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fMRI 연구들은 이러한 측면에 대해 밝혀내기 시작했다. 전쟁, 살인, 낙태와 같은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태도 혹은 사고방식(attitude)은 상이한 PFC 영역, 변연계 및 부 변연계 부위 그리고 전측두피질 (anterior temporal cortex)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Moll 등은 구체적 상황과 관련된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 정서가 암묵적이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

한편 도덕적 인지에 관한 다른 핵심적 측면은 목표의 표상과 결과의 효용성에 대한 예측의 부분이다. 사회세계 내, 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목표의 추구 또는 가능한 결과에 대한 예측은 결과와 그들 소망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전측 PFC(장기적 결과를 대표하는) 및 변연계 조직(행동선택의 보상적 가치를 부호화하는)에서의 정보의 기능적 통합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상이한 행동선택항 사이의 동기적 적절성을 가늠하기 위한 핵심적 능력이 된다. 이러한 견해는 보상 기대(reward expectation)와 효용 평가(utility estimation)의 인지적·신경생물학적 모형들과 부분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PFC가 추상적인 도덕 추론에서 감정과 정서적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인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해석과는 대조된다. 이들의 견해는 가능한 사건 결과들에 대한 광범위한 결함을 표상하고 평가하는 인간 능력의 중심적 역할을 뒷받침하며, 피질-변연계 통합을 통한 동기적 특성과 연계된다.

### 3) 신경과학 이론에 대한 Narvaez의 통합적 관점 구축

최근에 신경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도덕성에 관한 학문적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직관주의자의 이론(대표적으로 Haidt)에 대해 Narvaez는 어떤 기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Narvaez가 신경과학에서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직관주의 입장 및 기존의 이성주의에 대해 어떠한 방식을 통해 변증

법적 통합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1) 도덕적 직관과 도덕적 추론의 조화

Narvaez는 도덕성에 관한 직관주의자의 입장과 합리주의자의 입장은 모두 ‘옳다고 느끼는(feel right)’것 때문에 스스로의 견해에 집착하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른바 ‘truthiness(직감으로 무언가 사실일 거라고 믿는 믿음)’에 굴복할 가능성이 있기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행위 혹은 무대책(inaction)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녀는 도덕성에 관한 직관 혹은 추론이라는 양자택일식의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려는 견해에 대해 강력한 경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Narvaez는 직관과 추론은 모두 ‘윤리적 숙고와 전문성’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며 양자를 ‘윤리적 전문성’의 영역 안에서 통합하고자 한다. 그녀는 직관과 추론의 양자 모두 환경과 교육적 영향, 규범성에 관한 질문(어떤 직관과 추론 기술을 장려할 것인가)을 통해서 변화가능하다고 보며, 좋은 직관과 추론은 지속가능한 인간의 번영을 증진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성숙한 도덕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제 이러한 그녀의 논의에 대해 다소 상세히 살펴보자.

우선 도덕성을 직관(intuition)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sup>177)</sup> 과거에는 직감과 어림짐작(heuristics)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아 종종 비웃음의 대상이 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중심추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여 추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직관주의자의 접근은 판단이 본질적으로 신속하고 수월하게(effortless)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게다가 이러한 시각에서는 추론과 숙고가 사후 합리화에 지나지 않으며, 절망적으로 왜곡되어 있거나 혹은 판단에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분할뇌(split brain)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위해 얼마나 쉽게 무분별한(indiscernable) 이유를 만들어 내는 지를 증명한 Gazzaniga(1985)의 획기적인 논문 이후, 추론과 합리성은 권위를 잃게 되었다. 동기화된 인지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은 역시 추론이 암묵적 과정(implicit processes)에 의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입증해냈다. 심리학은 이제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의식적인 추론이 아닌, 암묵적 과정을 향해 중대한 믿음을 부여하고 있다.(Bargh & Chartrand, 1999). 예전에는, 감정(emotion)이 추론을 오염시키고 방해하는 요소로 의심되어 왔지만, 지금은 이것이 인지(Lewis, 2009)나 사회적이고 도덕적 판단(Damasio, 1994, Lazarus & Lazarus, 1994)에 있어 우선적이거나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재조명되고 있다. 직관은 상식에 부합하며(fashionable) 자연스럽게 여겨지는데(Gladwell, 2005), 도덕적 영역에서도 역시 그러

177) D. Narvaez(2010b), op. cit., pp.164~165

하다(Haidt, 2001, Krebs, 2008).

도덕적 직관주의자 이론에는 앞서 다루었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social intuitionist model, SIM: Haidt), 휴리스틱스(heuristics)<sup>178)</sup>, Cosmides & Tooby, 2004, Gigerenzer, 2008),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적 문법(moral grammar, Hauser, 2006, Young & Cushman, 2008, Mikhail, 2007)등이 포함된다. Narvaez는 이러한 논의를 지면상 Haidt의 SIM(사회적 직관주의 모델)를 중심으로 한정지어 논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이론가들이 그(Haidt)의 자료와 이론에 기초하여 도덕적 직관주의의 다른 유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79)</sup>

Haidt와 일군의 학자들은 도덕적 기능에 있어 SIM을 제안하고 있다. SIM에 따르면, 사회적 직관은 중심적이며 그들의 자원에 대한 고려 없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이유나 추론의 도움 없이 옳음과 그름에 대한 감각을 실어 나르게 된다. Haidt와 Bjorklund(2008b)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빠르고 자동적인 직관의 산물이며 차후에 느리고 의식적인 도덕적 숙고가 일어나게 된다.”. 직관적인 의사결정은 추론을 수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두 가지 모두에 있어 이것은 마치 변호사처럼 행동하여 자신의 판단을 지지할 논거를 찾는 것을 포함한다). 사실, 도덕적 판단은 분산 인지(distributed cognition)<sup>180)</sup>의 형태를 통한 사회적 과정으로 가장 잘 설명된다. 드문 경우에만, 특히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있어, 추론이 사적인 반성에 사용되거나 판단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다. SIM 패러다임은 처음에 특이한 장면의 모음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기초하였고 그것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혐오를 유발하도록 제작되었다. 예를 들어, 한 시나리오는 성인 형제자매간의 합의된 성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뺑소니 사고로 죽은 반려견을 먹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구역질을 유발하는 행위의 사례로 이뤄진 질문지를 접한 실험참가자들은 해당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참가자들은 전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유를 설명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혐오스러워 보이는 해당 행동으로부터 아무런 위해가 결과 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의해 무효화되었고, 참가자들

---

178) 휴리스틱스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렵짐작의 기술을 의미한다.

179) Ibid. pp.164~165

180) 환경 내의 정보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적 능력의 개인적 한계를 확장시키는 것을 말하며, Mark Perry(1999)는 개인이 컴퓨터와 같은 인지적 도구들을 활용하는 개인적 분산 인지(individual distributed cognition : IDC)와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상호 작용 동안 인지적 자원을 공유하고 협동 작업을 하는 사회적 분산 인지(social distributed cognition : SDC)로 구분하고 있다., 박호완 외(2008), 『실험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시그마프레스, p.324

은 많은 사례에서 그들에 판단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도덕적 말막힘 현상(moral dumbfounding)’으로 불린다. Haidt의 사회적 직관에 대한 관점과 추론과의 관계 및 도덕적 말막힘 현상은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직관주의에 대한 여타의 접근들은 도덕 판단에 있어서 숙고적인 반성의 기각 및 직관의 우선성을 지지하기 위해 Haidt의 자료에 의존해왔다(예를 들어, Gigerenzer, 2008; Hauser, 2006; Hauser et al, 2008; Mikhail, 2007).

도덕적 직관주의의 주요 견해를 위와 같이 제시한 Narvaez는 후속된 논의를 통해 도덕적 직관주의의 기여와 비판을 차례대로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다. 우선 그녀가 도덕적 직관주의의 공로에 대해 언급한 부분부터 살펴본다.<sup>181)</sup>도덕적 직관주의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큰 공헌을 한 점이 인정된다. 첫째로, 도덕적 직관주의는 일정한 도덕 판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직관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도덕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도덕적 직관주의가 ‘직관- 정서적인 체계’를 아우르는 것은, 도덕심리학을 오랫동안 지배해 온 과도한 이성주의 접근에 대한 유용한 교정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도덕적 직관주의는 인간 기능에 있어 암묵적 과정의 우선성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담지 해 내고 있다(Bargh, 1989, Reber, 1993, Uleman & Bargh, 1989). 수렴되고 있는 심리학적 근거들은 도덕적 행위를 일으키는 과정을 포함하여 인간 정보 처리의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일어남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 번째로 도덕적 직관주의는 이성주의 접근이 설명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실험실 상황의 대학생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덕적 직관주의 연구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해낸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명시적인 추론이 없이 정서적 접근/회피 반응에 기초하고 있다. 추론 우선의 관점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내기 위해 매우 곤란을 겪고 있다. 네 번째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덕적 직관주의 입장은 이유와 숙고가 타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중심이 된다는 견해에 도전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여로, 도덕적 직관주의의 데이터들은 직관(intuition)이 어떻게 도덕 영역을(in the moral domain) 호도(mislead)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 Narvaez는 도덕적 직관주의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논점을 중심으로 비판하고 있다. 첫째, 직관에 대한 광범위하고 모호한 논의 즉 ‘직관’ 개념 정의의 엄밀성 차원과 관련된 문제, 둘째, SIM이 일반적인 도덕 기능에 대해 지나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측면, 셋째, 추론과 숙고와 관련한 연구결과들에 대한 간과, 넷째, SIM이 도덕적 덕성을 문화화와 동일시하고 있는 부분 등이다. 각 논점에 대한 Narvaez의 견해를 살펴본다.<sup>182)</sup>

우선 도덕적 직관주의는 직관에 대해 지나치게 넓고 부정확하게 논의하고 있다.

181) D. Narvaez(2010b), op. cit., p.165

182) Ibid. pp.165~166 참고



Haidt와 Bjorklund(2008b)에게 도덕적 직관은 “의식 속으로 갑자기 나타나거나, 또는 의식의 가장자리에 있는, 평가적인 감정(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좋거나 나쁜 등의)으로 검색 단계, 증거의 고려, 결과의 추론 등의 의식적 주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개념적 지식을 포함한 모든 암묵적 과정이 직관임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언어에 귀속될 수 없는 상당한 양의 개념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Keil & Wilson, 2000). 우리가 학습하고 알고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이 다차원적인 암묵적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Hogarth, 2001),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의 대부분을 함축적(tacit)인 것으로 만든다. 암묵적 시스템 속에 있는 지식은 언어 중추에서 활성화되거나 혹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언어적 설명에 접근 가능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전문적 장인의 기술과도 같이 행동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개념적 지식을 오로지 설명을 제공하는 능력의 관점에서만 특징짓는 것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을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특징짓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둘째, SIM은 일반적인 도덕 기능에 대해 지나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Haidt는 처음에 도덕 판단을 “문화나 하위문화에 의해 의무적인 것으로 상정된 일련의 덕목들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된 개인의 행동이나 인격에 대한 좋고 나쁨의 평가”(Haidt, 2001)라고 정의했다. 친숙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그 혹은 그녀에 대한 행동에 따라 낯선 사람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도덕 이론을 구축하기에는 제한된 문제이자 태스크 세트(task set)이다(Narvaez, 2008a). 최근에 Haidt는 SIM을 개인으로 하여금 직관과 의식적 추론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여 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 선택 모형으로 확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불명확하며, 보다 더 확장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덕성의 다른 영역들, 예컨대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정체성, 공감과 도덕적 행동 등은 SIM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추론과 숙고와 관련한 연구결과들에 대한 간과 측면이다. 정신적 몰두(mental preoccupation)에 대한 연구는 개인들이 관계적 문제를 포함한 도덕적 이슈들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숙고하고 있다고 제안했다(Klinger, 1978). 칸트 이후의 도덕 철학적 논의는 자주 도덕적 의사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도덕적 의사 결정은 그의 책임이 무엇이며(Frankfurt, 1993) 대안들 중에서 어떤 행동 선택이 최선인지(Rawls, 1971), 어떤 개인적 목표와 계획을 세울 것인지 알아내는 것(Williams, 1973), 다층적인 고려사항들을 조화시키는 것(Wallace, 1988), 도덕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질을 평가하는 것(Blum, 1994), 구체적 도덕적 목표를 향한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주의를 조절하는 것과 같은 메타인지적인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Kekes, 1988)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들이 초기 혹은 수정된 SIM 모델의 어디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것들을 직관 또는 추론에 묶어 넣는 것은

불완전하다.

마지막으로 SIM이 도덕적 덕성을 문화화와 동일시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 도덕발달의 역사에서 가장 비판적인 논의 중 하나는 사회적 적응과 도덕 발달간의 구별에 관한 것이다(Kohlberg, 1969). 20세기의 행동주의자나 심리분석적인 전통과 유사하게, SIM은 사회적 적응에 초점을 기울이는데 (예를 들어 Haidt와 Bjorklund(2008a)는 “충분히 문화화된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 도덕 발달 전통과 달리 히틀러를 규탄하거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지지할 방법이 없다. 후 인습적인 사고가 평가 절하되고 있다. 사람들이 자주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지식을 통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이러한 지식이 내부의 두뇌 모듈에 기초한 완전히 충동적인 감정적 반응이거나 비이성적인 지식으로 구성된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암묵적 지식의 유형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자가 보기에 암묵적 지식의 유형 구분 혹은 암묵적 지식의 복잡성(the complexities of implicit knowledge)에 관한 Narvaez의 지적은 Haidt가 직관에 대한 엄밀하고 정교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론적 한계점을 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직관주의 모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Narvaez의 논의를 조금 더 살펴본다.<sup>183)</sup> Narvaez가 보기에 직관에 관한 논의는 자주 정교함이 부족하다. 컬럼비아 백과사전(Columbia Encyclopedia)에 나타난 직관에 대한 개념 정의는 「(a) 감각적 지각과 구분되는 보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 (b) 공간과 시간의 직관과 구분되는 감각 지각(칸트), (c) 의식이 진화된 본능(conscious evolved instinct), 자기 자신 혹은 외부 세계에 대한 중재되지 않은 이해(Bergson)」와 같다. “도덕적 진실에 대한 노력 없는 파악(Haidt, 2001)”이라는 도덕적 직관주의에서의 직관에 대한 정의는 위 개념 정의들 중 어느 것보다도 명확하게 부합되지 않는다.

한편 Hogarth(2001)는 영역을 초월하여 직관적 과정의 기저를 이루는 자동적 정보 처리의 세 가지 수준 혹은 체계(기본적, 원초적, 정교한 자동적 사고)를 발견했다. 기본적 시스템(the basic system)은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본능적 행동들로 구성되는데, 이를테면 혈당의 감소로 인해 배고픔이 촉발되는 느낌이 음식을 찾게 하는 의식적인 욕구로 이어지는 것과 같다. 외부적 사건에 의해 촉발된 생존 메커니즘 역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두 번째 시스템인, 원초적 정보 처리 시스템 (the primitive system)은 자극의 다양한 종류의 하위 상징적(subsymbolic) 과정을 포함하는데, 공변동(covariation)과 사건의 빈도의 기계론적 처리로부터 경험된 체계의 암묵적 규칙에 관한 추론(예를 들어 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시스템은 이것이 동기화, 교육 또는 지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다른 많은 동물들도 이것을 지니고 있기에 계통 발생적으로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

183) Ibid. pp.166~167 참고

세 번째 시스템, 정교화된 무의식(sophisticated unconscious)은 경험 및 의미·감정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구조화된다. 자기 성찰적인(introspective) 연구는 자극 배열에 있어 의미(meaning)가 세부사항(details)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제안하는데(Neisser, 1976), 이를테면 아무런 노력 없이 행동유도성(affordance)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해당된다. 행동유도성은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접점으로 인식된다. 쉽게 발견되는 행동 유도성은 강당에서 출구의 위치를 알아차리는 것, 대화의 취지 파악, 논평에서 함의점 도출 등을 포함한다. 우리가 흔히 ‘이해(understanding)’라고 부르는 것은 정교화된 무의식에 속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암묵적 학습의 결과, 과업에 있어 이전의 학습이 수행자에게 의식적으로 분명하지 않더라도 선행 경험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암묵적 지식의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비언어적인 수준에서 활성화되며, 이는 인간이 자신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해는 초기의 반사로부터 더 차별화되는 개념적 구조로 발달해 가는데, 암묵적인 것에서부터 언어화된 이해로 옮겨가게 된다. 여기서 논의된 깊은(deep) 무의식적 지식의 유형은 충동적인 감정 반응이나 비이성적인 지식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 암묵적 지식은 빠른 지각과 현상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의 내용은 인과성의 이해를 기반으로 설명과 예측을 촉진시킨다(Hogarth 2001). 이 같은 광대한 지식의 기초로부터 직관(언어적 설명 없이도 아는 느낌)이 출현한다.

Narvaez는 도덕적 직관주의의 기여와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도덕적 추론을 중시하는 입장의 공과(功過)에 대해서도 아울러 언급한 후, 전문적인 도덕적 기능에 추론과 직관이 모두 필요하다는 자신의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다만 이성주의 접근의 공과에 관해서는 앞서 Neo-Kohlberg 입장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었기에 본 장에서는 신경과학적 도덕성 연구의 공과(功過)에 대한 Narvaez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sup>184)</sup>

Narvaez가 보기에 이성주의 접근의 가장 큰 공헌은 추론이 나이와 경험에 의해 변해 가며(Piaget, 1932 & 1965), 이러한 변화가 특별한 실행 연습과 활동에 의해 증진될 수 있으며(DeVries & Zan, 1994, Power, Higgins & Kohlberg, 1989), 추론이 행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Thoma, 1994)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이성주의자는 개인이 사회화(socialization)의 틀 안에서만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성주의적 접근의 한계점 역시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이성주의 접근 중 대표적으로 Kohlberg 접근법의 첫 번째 한계로서 방법론적 비판(예를 들어 언어적 기술에 의존하고, 협소한 범위의 가설적 딜레마를 활용한 점)과 이론적 비판(예를 들어 경성 단계 이론에 대한 비판, 편협한 철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점)등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도덕적 이성주의 이론은 체화된 경험

184) Ibid. pp.167~169 참고

(embodied experience)의 핵심에 있는 인간 기능의 ‘bottom up’적인 기초를 무시하고 있다. 상징적 사고의 발달 과정에서 인간은 기본적인 감정을 점점 더 복잡한 감정적 신호로 변환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결국 즉각적 행위로부터 이미지나 욕구를 분리해 낼 수 있게 된다. 사고-정서적 구조(ideo-affective structure)는 초기 삶에서 유래하며 도덕적 기능의 기초를 이룬다(Narvaez, 2008c). 그리고 도덕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추론의 경우, 도덕적 행동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비도덕적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Bandura, 1999).

따라서 Narvaez가 보기에 추론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직관 홀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기능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녀는 성숙한 도덕적 기능 형성을 위해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직관 양자 간의 파트너 관계를 설정해야 함을 결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sup>185)</sup> 그리고 추론과 직관의 양자를 조화시킨 도덕적 기능 중 하나로 바로 ‘도덕적 숙고(moral deliberation)’를 제시하고 있다. 숙고(deliberation)는 직관의 신호와 이성의 구성을 평가하며 그들의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직관적 태도에 대해 이유는 합리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반면에 직관은 추론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적인 신호를 제공한다(Sen, 2009). 숙고는 자주 당사자가 선택항을 평가하고 목표와 반응을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직관과 추론, 원리와 목표, 가치와 능력 사이에서의 전환의 문제가 된다. 숙고의 과정에서 지각은 바뀌고, 당사자의 직관이나 추론이 변환될 수 있다.

한편 직관과 추론이 조화된 도덕적 숙고로서 도덕적 상상(moral imagination)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Narvaez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살펴보자.<sup>186)</sup> 그녀에 의하면 도덕적 상상은 숙고의 정교화 된 형태이다. 그것은 대안적 행위 경로에 대한 극적인(dramatic) 리허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결과를 예측하는 사고실험, 내면화된 사회적 행동 등), 직관과 추론 양자를 모두 활용하게 된다. 더 숙련되고 정제된 도덕적 숙고는 더 풍부한 가능성과 더 믿을만한 평가의 보고(寶庫)가 된다. 도덕적 직관은 올바른 환경과 적절한 지도와 동반될 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정보는 직관을 단단히 뒷받침할 추론의 원인-결과 고리를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상이한 직관을 이끌어 낸다. 추론 역시 직관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감정은 타인에 대한 특정 디테일(세부 사항)에 강조점을 두는데, 이는 선택항을 좁히고 특수한 행위 경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특정 도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내기는 어렵다. 분위기과 에너지(Hornstein et al, 1975, Isen & Levin, 1972), 사회적 영향력(Hornstein 1976), 현재의 목표와 선호(Darley & Batson, 1973), 환경적 어포던스(Gibson, 1979), 맥락적 단서의 질(Staub, 1978),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Sen, 2009), 자아상과

185) Ibid. p.169 참고

186) Ibid. pp.169~170 참고

의 논리적 정합성(Colby & Damon, 1991), 이전의 역사(Grusec, 2002) 등의 요소가 주의를 바꾸거나 직관 및 추론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Narvaez는 결론짓는다.

## (2) 도덕적 기능의 4 구성요소별 뇌 과학적 설명

Narvaez는 도덕 발달과 도덕 교육 영역에 있어서 신경 생물학적이고 신경과학적인 연구결과의 잠재적 가능성과 적용에 대해 입증하려고 한다.<sup>187)</sup> 심리적 과정과 기제들에 대한 검토가 자주 환원주의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곤 하지만 Narvaez는 자신이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두뇌 활성화의 유형으로 환원시킬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신 그녀와 Vaydich는 인간을 정교화 된 사회적 관계망, 발현되는 기질, 동기와 과정들, 살아가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파악하는데 이것은 상황 속에서 인지된 과업, 기술, 물질, 태도 그리고 사회적 압력 등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고립된 형태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그녀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론적(holistic) 접근을 취하는 것이 보다 많은 함의 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전체론적 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기초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녀는 인간 행위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신경 과학적인 현재의 지식을 검토해 보는 것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토양에 대해 아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신경 생물학적 시스템에 대한 학습은 도덕 교육자들과 심리학자들로 하여금 개개인에 대해 이해하고 난점과 함께 작업하며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그들에 의하면 도덕 발달 이론과 연구에서 신경과학적 연구결과의 역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요구가 요청된다. 첫째, 건강한 도덕적 기능은 적절한 뇌 기능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뇌 손상은 정상적인 심리 기능의 맥락에서 도덕적 장애를 유발한다. 두 번째로 두뇌 연구가 전통적인 도덕적 기능의 개념과 상반되는 결과를 확증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두뇌 기능에의 개입(수술적, 전기적, 화학적 또는 유전적)은 도덕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교정할 수 있다.

Narvaez는 신경과학이 도덕심리학에서의 몇몇 지속적인 논쟁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sup>188)</sup>Kohlberg가 당연시했던 가정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Narvaez에 의하면 도덕 발달에 대한 Kohlberg적 시각은 퇴색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sup>189)</sup>사회 과학 전반에 있어 ‘앎(知)과 함(行)’의 간극은 패러다임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예를 들어 앞서 다루었던 인지과학자 중에 Lakoff & Johnson, 1999). 인간의 의사결정 모델은 더 이상 의식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을 통한 의도적인 결정을

187) D. Narvaez & L. J. Vaydich(2008), op. cit., p.290

188) Ibid. pp.290~291

189) Ibid. pp.292~293 참고

하는 합리적 개인의 모습이 아니다. 상위의 정신과정, 전통적으로 선택과 자유의지의 전형적 예로 제시되는 목표 추구, 판단과 대인관계와 관련한 행동들은 최근의 의식적인 선택 혹은 유도 없이도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Bargh & Ferguson, 2000). Narvaez는 ‘직관적인’ 마음과 ‘숙고적인’ 과정의 차원을 구분하는 것 혹은 ‘암묵적 체계 1’과 ‘형식적 체계 2’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하면 암묵적 과정은 도덕적 행위를 포함한 대부분의 행위를 지배하고 있다.

신경 과학도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많은 연구들이 암묵적 체계가 의식적 조절 없이 작동한다는 점을 들어 개인적 ‘의사결정자(의식적인 마음에만 접근할 수 있는)’의 비전이 과오임을 증명해내고 있다(Gazzaniga, 1985; Bargh & Chartrand, 1999; Bargh & Ferguson, 2000). 예를 들어 Liber(1985)는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의사결정 순간에 버튼을 누름으로써 자신들이 의사결정을 했음을 나타내도록 요청했다. 그들의 뇌는 뇌전도(electroencephalogram, EEG)를 이용하여 뉴런의 자극을 측정하였다. 그는 의식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전에 운동 뉴런이 이미 활성화됨을 발견하였고, 사람이 행동 선택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기 전에 무의식적 시스템이 행위를 지시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또 다른 사례는 정치심리학자는 정치-도덕적 추론을 정보처리의 왜곡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힘을 확인하는 ‘동기화된 인지(Jost et al., 2003)의 관점에서 논의해 왔다. Westen과 그의 동료들은(2006) 특정 사상의 열렬한 당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당과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당의) 정치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후 그들의 뇌를 스캔하였다. 문장에 대해 고민을 할 때, 의식적 추론을 반영하는 뇌의 부위는 관여되지 않았지만 감정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었다. 동기화된 추론은 두 경우에 모두 확인했는데, 복내측 시상하핵 전전두엽 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sup>190)</sup>, 전측 대상회(anterior cingulate),<sup>191)</sup>후측 대상 피질(posterior cingulate cortex),<sup>192)</sup>섬 피질(insular cortex)<sup>193)</sup>, 측면 궤도 피질(lateral orbital cortex)의 활성

190)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vmPFC, 복내측 시상하핵 전전두엽 피질): 포유류 두뇌에 있는 전전두엽의 한 부위이다. 대뇌 반구의 기저에 있는 이마엽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험과 공포의 처리에 관련된다. 또한 감정적 반응의 억제 및 의사 결정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한다.

191) anterior cingulate(전측 대상회): 주의, 반응 억제, 정서 반응(특히 통증에 관한)에 관여하는 전두엽 한가운데에 있는 뇌 구조. 대상회의 전측 부분.

192) posterior cingulate cortex(PCC, 후측 대상 피질): 대상피질의 가장 뒤 쪽에 위치해 있으며, 전측 대상 피질의 뒤에 놓여있다. 두레엽, 혹은 변연엽(limbic lobe)의 상층부에 해당된다. 후측 대상 피질은 뇌의 디폴드 모드 네트워크의 중앙 결절을 형성한다. 다양한 두뇌 네트워크와 동시에 대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기능과 관계되어 있다.

193) insular cortex(섬 피질): 의식에 포함되며 감정과 신체의 항상성 조절에 주로 관계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가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추론과 가장 많이 관련되는 뇌 부위인 배외측 전전두 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는 잠잠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신경 연구들이 내성(introspection)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관한 가정들을 확증하거나 응답할 수 있다. 그들은 추론이 행위자의 동기에 의해 암묵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견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선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소망 뿐 만이 아니라 무엇이 선인가에 대한 행위자의 암묵적(무의식적)인 편견에 의존한다(Orizio, 2003).

뒤이어 Narvaez는 도덕적 기능발휘를 위한 감정과 정서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sup>194)</sup> 수백 년간 학자들은 도덕성이 감정을 극복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감정이 ‘합리적 인간’의 형성에 방해가 되는 골칫거리라고 가정해왔다. 신경과학은 이와 관련한 논쟁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동기화된 인지는 이미 다음의 딱 들어맞는 사례에 제시되고 있다. 앞서 다루었던 Damasio와 그의 동료들은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감정이 없는 추론’이 일반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결함이 있으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뇌 손상으로 인하여 환자들은 예컨대 도박과 같은 과업 수행에 있어서 감정적 단서를 생산하거나 이러한 단서들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감정적 단서 생성 혹은 감정을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것의 부족은 사회적 관계에 커다란 손상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Anderson(1999)은 16개월 이전에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 PFC)이 손상된 어린이들을 조사했다. 해당 손상은 일생동안 사회적 관습과 도덕적 규칙을 획득하는 것을 어렵게 했으며 그러한 증후군은 반사회적 인격장애(psychopathy)와 흡사했다. 비록 언어와 지능은 정상이었지만 이러한 환자들은 절도, 성적 공격성, 처벌에 대한 무책임성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복내측 시상하핵 전전두엽 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vmPFC)이 어린 시절에 손상된 경우 도덕 발달이 억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lisner et al, 1992). 도덕 민감성에 중요한 뇌 영역은 성인 시기에도 손상될 수 있는데 이는 성격과 충동 통제 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Phineas Gage의 사례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정상적인 지능과 언어적 기술을 나타내지만 충동 조절과 사회적 적응에 결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성인 환자들에게 역시 나타났다(Anderson, et al 1999). 이러한 개인들은 그들 사고의 내용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말들을 자주 했다. 따라서 vmPFC는 사회적 지각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의 손상은 사회적 곤란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과정과 관련된 능력의 부족(Karafin et al, 2004) 및 억압된 타인에 대한 공포(Morgan, et al, 1993)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결정적인 STS(superior temporal sulcus, 상측 두구)의 결함은 귀인(歸因)에 의

194) Ibid. p.292~296 참고

의도성(attributing intentionality) 저하를 가져와서 자긍심 또는 수치심의 경험 감소를 야기한다. 이성과 감정은 일반적으로 함께 작동한다(Larzarus & Larzarus, 1994). Moll과 그 동료들은(2002a)은 ‘cortical-limbic network(피질-변연계 네트워크)’가 인간에게 정서적 경험과 도덕적 평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고 제안했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덕적 판단에 관한 초기의 fMRI 연구 중 하나인 Gree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Green et al., 2001)는 인신적 딜레마와 비인신적 딜레마에 대한 평가를 비교했다. 정서적 영역의 두뇌 활성화를 동반했던 인신적 딜레마에 대한 반응 결과와 비교하자면, 비인신적 딜레마에 대한 뇌 활성화 부위는 도덕과 무관한 실용적 판단에 대한 두뇌 활성화(예를 들어 워킹메모리인 DPFC와 두정엽)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sup>195)</sup>Greene과 동료의 후속된 연구(Green et al., 2004)는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인지적 두뇌 시스템과 정서적 두뇌 시스템이 서로 경쟁한다는 가설을 제안했는데, 결과는 감정이 기각될 때(추론의 승리), 그들이 말하는 소위 실용적인 혹은 공리주의적 반응이 나타나고, 감정이 지배할 때(감정의 승리) 의무론적 반응이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덕 판단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을 옹호하여, Koenigs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Koenigs et al., 2007)는 전전두엽 피질의 손상이 소위 말하는 ‘공리주의적’ 도덕 판단의 증가를 가져왔음을 발견했다. 사라진 것은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여럿을 살리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 즉 정상적인 경우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보이는 공감적인 반응이었다.

이처럼 Narvaez는 인지와 정서를 경쟁적인 구도로 배치한 Greene의 이중과정 모형에 대해 정서와 인지가 서로 교호적이며 얽혀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arvaez의 연구 전반에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바, 그녀가 보기에 도덕판단이 도덕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임에는 틀림없지만, 결코 전부(the whole picture)는 아니다. 따라서 신경과학적 연구결과물들을 토대로 인간의 도덕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에서도 역시 Narvaez는 도덕적 행위 산출에 필요한 인간 심리의 복합적 과정을 제시한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제 상기에 제시된 다양한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덕적 기능(moral functioning)에 대한 Narvaez의 종합적 견해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Narvaez가 도덕연구 및 도덕교육을 위해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과 관련한 인간 두뇌 기능에 대해 뇌 과학적 연구 결과물을 종합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sup>196)</sup> 영장류와 인간의 행위를 관찰해 볼 때, 도덕적 민감성은 뉴런의 단위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사실, 영장류의 뇌는 마치 관찰자 자

---

195) Ibid. pp.295~296 참고

196) Ibid. pp.296~297 참고



신이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사회적 자극에 매우 민감하다. 모방적 행위에 관계되는 뇌의 영역에는 타인의 행위를 관찰할 때 활성화되는 ‘거울 뉴런’이 포함되어 있다(Iacoboni et al., 2005). 행위 실행동안에 활성화되는 전운동 뉴런(premotor neurons)은 행위자가 행위를 관찰할 때 촉발되는데, 이는 그가 관찰하는 것이 그에게 사실상 연습적 실행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Critchley 등(2004)은 우측 전두섬엽(right frontal insula)의 활성화가 공감의 표현 및 자기 심장 박동의 감지 능력과 관련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또한 높은 공감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우측 전두섬엽에 더 많은 회백질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더 잘 감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덧붙여 Narvaez는 신경과학적인 증거가 언젠가는 도덕적 민감성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와 개인차에 대한 설명에 있어 중요한 측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그녀의 연구 지향점이 도덕성 발달에 있어 개인과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의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형태로 밝혀내고 입증하는 데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사회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그에 부합하는 신경과학적 연구 성과물들을 지지 근거로 확보해 내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동정(compassion)에 대한 보상이 두뇌에 배선되어 있다. Harbaugh 등(2007)은 기부금 혹은 세금의 형식으로 돈을 받거나 기부하게 될 때의 실험 참가자들의 두뇌를 스캔했다. 참가자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미상(caudates), 중격의지핵(nucleus accumbens), 그리고 뇌도(insula)가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때나 돈을 받을 때 유발되는 보상 시스템과 비슷하다. 참가자의 돈이 그의 통제와 무관하게 강제로 자선단체에 기부될 때 유사한 보상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약했다. ‘기부’는 세금을 통해서건 개인적 자선을 통해서건 일종의 ‘보상’이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 두뇌가 개인이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며, 도움에 개입할 때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킴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Narvaez는 앞서 살펴보았던 Moll과 그의 동료들(2002b)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적 민감성의 작동 기제를 해석 및 설명하고 있다. Moll은 사진으로 제시된 도덕적 위반에 대한 지각적(perceptual) 민감성을 테스트했는데, 도덕적 위반으로 인해 혐오감과 공포를 일으키는 장면의 두뇌 활성화와 대조적인 자료를 사용한 실험 연구였다.<sup>197)</sup> 이 때 오직 도덕적 자극만이 PFC(전전두엽 피질), OFC(

197) Haidt의 도덕성 관련 뇌 과학 실험에서 사례의 보편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다시 말해 혐오감과 공포를 유발하는 도덕적 위반의 사례는 삶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상의 도덕성과 관련이 적기에 연구 결과를 인간의 도덕적 기능 일반으로 확대시키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Moll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혐오감과 공포심을 지나치게

내측 궤도 전두 피질) 그리고 STS(상측 두구)<sup>198)</sup>를 활성화시켰다. 연구자들은 도덕적 민감성이 APFC, OFC, STS와 대뇌 변연계 시스템(limbic system)을 포함하는 연합의 활성화를 포함한다고 제안하였다.

Narvaez는 도덕적 민감성을 위한 두뇌 배선뿐만 아니라, 초기의 경험이 도덕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반응적인 뇌로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sup>199)</sup> 발달적 연구는 경험이 계통적으로 두뇌를 재배선하며, ‘보았던 것(what it **has** seen)’은 ‘볼 수 있는 것(what it **can** see)’을 좌우한다고 지적한다(Lewis et al., 2000). 기억, 감정, 행동 그리고 관계를 포함한 살아있는 두뇌의 순환은 초기 삶의 경험을 통해 구성된다. 이러한 순환은 감정의 생산과 조절, 반응 유연성을 위한 능력 또는 마음챙김, 반성적 행위(Siegel, 1999),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전적인 감각과 ‘self-narrative’의 구성,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 및 개인 간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능력 등에 도움을 주는 과정(Siegel, 2001)을 조절한다. 한편 Narvaez는 이러한 도덕적 민감성의 개발에 있어 생애 초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20여년에 걸친 종단적인 데이터는 책임감 있는 양육이 이러한 두뇌의 공감 순환 발달에 영향을 주며, 명백하게 영구적인 성격적 강점을 부여한다(Karen, 1994).

다음으로 Narvaez가 도덕연구 및 도덕교육을 위해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과 관련한 인간 두뇌 기능에 대해 뇌 과학적 연구 결과물을 종합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sup>200)</sup> 도덕적 판단과 관련한 뇌 과학적 연구의 사례로 정의와 배려적 의사결정(Roberson et al., 2007), 인신적(personal)이거나 비인신적(impersonal) 딜레마(Greene et al., 2001) 그리고 공정한 판단(Knoch et al., 2006)의 뇌 기능상의 차이점을 탐구한 것이 있다. 문헌 검토에서 Moll 등은(Moll et al., 2005) 도덕적 인지에 포함된 두뇌 영역과 관련하여 임상-해부학적이고 기능적 영상 연구들 간의 주목할 만한 일치를 지적했다. 자극, 양상과 도덕 판단 과업의 광범위한 다양성은 활성화 부위의 동일한 조합을 유지했는데, 그것은 APFC(전측 전두엽 피질), OFC(내측 궤도 전두 피질), DPF(배측면 전두엽 피질), 뇌도(insula), 설전부(precuneus),<sup>201)</sup>STS(상측 두구) 그리고 ACC(전대상피질)의 연합이었다.

한편 정의와 배려 이슈에 사이의 대립에 대한 실험에서, Robertson과 그의 동료

---

유발하지 않는 일상적인 도덕적 위반의 사례를 가지고 인간의 도덕성을 규명하는 뇌 과학적 실험 연구에 임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98) superior temporal sulcus(STS)는 측두엽의 두 가지 큰 고랑 중 윗 고랑을 의미한다.

199) D. Narvaez & L. J. Vaydich, op.cit., p.297

200) Ibid. pp. 297~298 참조

201) 췌기앞소엽, 췌기앞부분, 설전부, 대뇌 두정엽 내면에 있는 작은 정방형의 경회로서 후방은 두정후두구의 내측면에, 전방은 중심 방소엽에 접해 있다.

들은(2007) 비즈니스 연구자들(실험대상)이 이야기 속에서 도덕 및 도덕과 무관한 요소에 대하여 읽고 판단을 내리는 동안의 두뇌를 스캔했다. 도덕적 이슈들(정의나 배려 관련 내용으로 분류되거나 그것과 관계된)의 경우, 후측 대상 피질(dorsal posterior cingulate cortex)과 STS(상측 두구) 그리고 내측 전전두피질(polar medial prefrontal cortex)가 활성화되었다. 정의 이슈에 관하여서는 왼쪽 벽내구(left intraparietal sulcus)가 활성화된 반면, 배려 이슈의 경우 시상(thalamus), 복부 후측 대상 피질(ventral posterior cingulate cortex), 복부 내측(ventromedial) 및 배측면(dorsolateral)의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었다. 정의와 배려 추론이 두뇌작용에 있어서 다르게 보였다.

세 번째로 Narvaez가 도덕연구 및 도덕교육을 위해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 또는 moral focus)’와 관련한 인간 두뇌 기능에 대해 뇌 과학적 연구 결과물을 종합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sup>202)</sup>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동기화는 예컨대 환경적 행동 유도성(Gibson, 1979)이나 상황적 압박(Zimbardo, 2007), 맥락적 단서의 질(Staub, 1978), 사회적 영향(Hornstein et al., 1975)등과 같은 다층적인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구하기에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동기화는 많은 동물들의 행위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장류들은 상호성을 침범한 자들에 대한 복수와 공격뿐만이 아니라 교환에 있어서도 상호성의 감각을 갖고 있다(de Waal, 1996). Rutte와 Taborsky(2007)는 이전에 다른 쥐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암컷 쥐들이 낯선 쥐들에게 음식을 주는 등의 도움을 더 잘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일반화된 상호성을 입증하였다. De Quervain 등(2004)은 사회적 규칙을 위반한 자들이 처벌을 받는 동안의 두뇌 활성화를 스캔하였다. 배후 선조체(dorsal striatum- 목표 지향적인 행동의 완성을 반영하는)의 활성화는 정당화된 복수의 보상 감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Greene(2007)에 의하면 심리학적으로 말해, 우리는 주로 우리가 처벌을 통한 만족감을 위해 처벌하며, 처벌되지 않은 범죄는 명백히 불만족을 준다(Carlsmith et al., 2002; Carlsmith et al., 2002; Kahnemam et al., 1998; Sanfey et al., 2003).

일련의 연구들은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game)<sup>203)</sup>을 활용하여 보상의 상호성

202) Ibid. pp. 298~299 참고

203)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game)은 경제학 실험을 게임의 형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첫 번째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두 번째 사람과 이를 나누도록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제안을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제안을 받아들이면 제안된 금액대로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지만 만일 첫 번째 사람이 제안한 액수를 두 번째 사람이 거절하면 두 사람 모두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조건이 부여된 게임이다. 또한 게임은 단 한 번만 시행된다.(이동귀(2016), 『너 이런 심리법칙 알아?』, 서울: 21세기 북스, pp.254~255 참고)

과 처벌의 효과에 대해 실험하였다. Sanfey 외(2003)는 게임 참가자들이 최종 통첩 게임을 하는 동안 중립적 행동의 변화를 연구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더 부당한 제안이 주어지면, 부정적 정서와 관계된 앞뇌섬(anterior insula)이 보다 더 활성화되었다. 전전두엽 피질의 강력한 활성화는 제안의 거절뿐만 아니라 추론과 계획에 관계되는 배측면 전두엽 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의 활성화와도 상호 연관되었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두 번째 사람의 혼합된 감정이 두뇌 활동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부를 증가시키고자하는 목적과 불공정에 저항하고자 하는 목적의 상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사하게, Knoch와 동료들은(2006) 불공정에 대한 저항을 위해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al 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의 중요성을 검증했다. DLPFC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참가자들은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Narvaez가 ‘도덕적 행동(moral action)’과 관련한 인간 두뇌 기능에 대해 뇌 과학적 연구 결과물을 종합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sup>204)</sup> 우선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위의 대립 항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자. 판단과 행동 간의 구별은 Damasio와 그의 동료들(Anderson et al., 1999)에 의해 다루어지고 이후 Knoch와 동료들(2006)에 의해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형적으로 오른쪽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에 병변이 있는 환자들은 적절한 행동에 대한 판단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못했다(Anderson et al., 1999). 오른쪽 DLPFC은 자기 관심(self interest)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공정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Knoch와 동료들(2006)에 의하면 정상적인 참가자들로 하여금 DLPFC의 활동을 방해하였을 때 상호적인 공정성 행동들이 감소되고 이기적인 행동이 지배하였다.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기능에 관계되는 다른 모든 과정과 마찬가지로 전두엽(PFC)에 의존한다. 전두엽은 목표의 형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설정을 돕는다. 전두엽은 올바른 순서에 따르는 기술들을 적용시키면서 계획들을 조화시킨다. 결국 그것은 행위자로 하여금 목적에 따른 성공을 평가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전두엽(PFC)은 알려진 범주의 분류를 포함하여(Goldberg에 의하면 PFC는 ‘행동의 뇌엽(action lobe)’으로 칭해지는 이마엽의 연합된 단위이다)연합의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한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Goldberg는 질문한다: “전두엽이 모든 허락된 도덕적 행동들의 분류를 포함할 수 있는가? 피질의 후측(posterior)연합의 손상이나 발육불량은 물체 실인증(object agnosia)과 같은 병변을 유발하는데, 그렇다면 전두엽의 손상이나 발육불량은 어떤 뜻에서 ‘도덕적 실인증(도덕적 인지불능증)’을 유발하게 되는가?” 전두엽이 손상되면, 충동과 분노, 성욕과 식탐 등이 절제되지 못하고

204) Ibid. pp. 299~300 참고

맹렬히 계속될 수 있다. 초기 양육의 부주의 혹은 이후의 학대나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전두엽 손상은 비체계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의 증가와 주의력 결핍 및 행동 조절의 손상 증가를 야기한다. OFC(안외전두피질)의 손상을 가진 환자에게 자주 지식과 행동 간의 단절이 나타났다. 그름(wrong)에 대비되는 옳음(right)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동을 조절하지 못했다. 전두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의 손상은 ‘전두엽 범죄(Goldberg, 2002)’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은 행동의 규칙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예측과 신중함 없이 서투르게 행동하게 된다. ‘전두엽 신드롬(frontal lobe syndrome)’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에 대한 내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만다. 유사하게 Blair(1995)는 사이코 패스가 ‘폭력성 억제 기제’ 즉, 정상적인 두뇌에서 타인의 고통에 관한 단서가 있을 때 그러한 행동의 억제를 가능하게 하는 두뇌 메커니즘이 부재한다고 보았다.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에 의거하여 인간의 도덕 기능에 대한 뇌 과학적 설명을 마무리 지으면서 Narvaez는 신경과학적인 연구결과물들이 아직은 비록 예비적(preliminary)이지만, 두뇌 손상이 부 적응적(maladaptive) 행위의 이면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각 요소별로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도덕적 기능은 건강한 뇌 기능에 기반 함을 확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그녀는 도덕적 기능 향상과 도덕 발달에 관한 신경과학적 합의 연구전반에 생애 초기 환경과 부모 양육(parental nurturing), 특히 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매우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다만 본 논문은 학교 도덕교육을 통한 도덕성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도덕교육에 있어서 신경과학적 연구결과의 함의점 중 실행(practice)과 연습의 중요성에 관한 그녀의 언급을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sup>205)</sup>

두뇌 구조와 기능은 가소성이 있다. 아무리 두뇌기능 발달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해도, 손상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변화의 가능성이 엄존한다. 이러한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연구물이 증가 추세에 있다(예를 들어, Schwartz & Begley, 2003). 도덕적 기능에 관한 이러한 변화의 측면은 전 생애에 걸쳐, 4가지 영역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다(비록 그것이 이후로 갈수록 상당히 가중된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상존한다. Mahncke et al., 2007). 예를 들어 평생에 걸친 연습은 인식과 민감성에 영향을 준다. 전문가의 뇌 영상 스캔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가 자극에 대한 반응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과업 실행에 있어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olso, 2001). 초기의 시각 공정(visual processing)의 영역에서도 선행 경험이 영향을 주었다. 반복된 경험에 기초하여 시각 피질상의 뉴런들은 보상의 예측에 있어 그들의 반응을 조절(modulate)하였고(Shuler & Bear, 2006), 이는 공정의 초기 단계에서도 지각은 해석임을 시사한다. 비록 교차 문화적인(cross culturally)

205) Ibid. pp.303~304 참고

스캐닝(scanning)연구가 적긴 하지만, 이러한 시사점은 아마도 문화적 차이에서 가장 잘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젊은 층과 노년층의 시민들과 동 아시아의 젊은 층 및 노년층을 비교했을 때, 아시아의 노년층이 어떤 장면에서 관계성과 배경에 더 주목했다. 반면에 미국의 노인들과 두 지역의 젊은이들은 주어진 장면에서 개인과 물건(object)에 주목했다(Goh et al. 2007). 두뇌 활성화는 차별화되는 반응 유형에 상응하여 일어난다. 이러한 발견들은 지각이 문화적으로 중재된 경험임을 암시한다. 자극에 대한 민감성은 환경적인 트레이닝에 의존하는데, 이는 정교한 학습의 형태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해석되고 제시된 매일 매일의 검사되지 않은(unexamined) 경험으로부터의 연습도 포함한다. 이 연구는 따라서 도덕 발달이 문화를 교차하여, 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화된 두뇌 조형에 기초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Narvaez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도덕적 판단에 집중되어 있는 Kohlberg의 기획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의도적이고 숙고적인 의사 결정만으로 모든 도덕적 기능을 설명하기에는 결코 충분치 않음을 뇌 과학 관련 연구에서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sup>206)</sup> 이어 인지, 정서 그리고 뇌 발달에 관한 새로운 발견들은 보다 더 통합적인 이론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며 적극적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도덕심리학의 영역은 심리학의 모든 영역을 끌어들이 시야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신경과학은 보다 확장된 이론적 지지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도덕심리학에 신경과학적 통찰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확장된 통합으로의 움직임’을 지향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다음의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앞서 배경이론에서 상세히 다루었듯이, Moll과 동료들(2005)의 ‘도덕인지 신경과학’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대안적인 관점들(예를 들어 Greene, Blair, Damasio)에 대한 약점을 지적한 후에, 그들은 의학적이고 영상적(imaging) 근거들을 토대로 새로운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재론하거니와 ‘도덕인지 현상은 피질-변연계 네트워크(cortical-limbic network)에서 일어나는 내용(content)과 맥락(context) 의존적인 표상의 통합으로부터 출현하게 된다.’(Moll et al., 2005). 이러한 프레임워크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첫 번째는 맥락 의존적이며 전두엽에서 나타나는(예를 들어 특정 상황을 나타내는 스크립트) 구조 사건 지식(structure event knowledge), 두 번째는 전측과 후측 측두엽(anterior and posterior temporal cortex-정보의 배열로부터의 추상화)에서 맥락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지각적· 기능적 특성(social perceptual and functional features), 세 번째는 변연계와 관련된 조직(경험으로부터에서 연성 배선된 기본 정서)에서의 맥락 독립적 활동인 ‘중심적 동기와 정서 상태(central motive & emotion state)’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도덕적 행위를 지시할 ‘사건-특성-정서 복합체

---

206) Ibid. p.304

(EFECs)’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한다. Narvaez는 이러한 Moll과 동료들의 ‘도덕 인지 신경과학’의 이론적 프레임 워크에서 제시된 위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특히 세 번째 요소인 ‘중심적 동기와 정서 상태’의 측면을 보다 더 정교화 하여 자신의 도덕 심리학 이론의 한 축인 ‘삼층 윤리 이론(triune ethics theory)’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다.<sup>207)</sup>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삼층 윤리이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본 논문의 IV장의 제 1절에서 상술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

207) Ibid. pp.304~306

## 4. 윤리학적 배경

Narvaez는 IEE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인 윤리적 기술의 철학적 연원을 고대 그리스의 덕윤리에서 사용된 Plato의 테크네(techne)에서 찾고 있다. 또한 윤리적 기술이 유덕자가 갖춘 탁월한 품성으로서의 덕과 연동된다고 보며, 적절한 대상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할 줄 아는 ‘실천적 지혜(phronesis)’ 혹은 도덕적 지혜를 발휘하는 상태가 그녀가 IEE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도덕적 인간상인 ‘도덕적 전문가’의 모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IEE모형의 철학적 배경으로 언급된 고대 그리스 덕윤리에서 사용된 테크네 및 프로네시스 개념에 대해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고, Narvaez가 그 철학적 개념어들을 자신의 도덕교육모형에 어떻게 차용하고 융합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덕윤리 Plato의 ‘테크네’

1항에서는 우선 고대 그리스 덕윤리에서 Plato의 테크네 개념 및 테크네의 담지자로서 장인(테미우르고스)의 궁극적 지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sup>208)</sup>

#### (1) 테크네(Teche)의 개념

오늘날 기술(technology)의 어원이기도 한 테크네(techne)는 Plato의 저작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어이다. 사전에 따르면 테크네는 스킬, 사물을 만드는 규정된 방식, 공작(craft), 대상을 만드는 수단(means), 교역, 예술작품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sup>209)</sup> 즉 고대 그리스에서 테크네 개념은 매우 폭 넓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Plato 역시 ‘인간의 모든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며 특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지는 행위’를 통틀어 테크네로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sup>210)</sup>

---

208)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강선보(2009)의 「Plato 후기 철학에 대한 성인 교육적 고찰-테크네와 장인 개념을 중심으로」가 있다.

209) H. G. Liddle(1909), “Abridged Liddell and Scott’s Greek-English Lexicon. NY: Simon Wallerberg Press, p. 702, 강선보, 장지원(2009), 「Plato 후기철학에 대한 성인 교육적 고찰-테크네와 장인 개념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제35집, p.3에서 재인용

210) 김성진(1995), 「Plato의 기술철학과 국가론」, 『철학과 현실』, 제24호, 163p, Ibid. p.3에서 재인용



“생기는 것과 생긴 것들 그리고 생기게 될 것들은 모두가 자연(physis)에 의한 것들이거나, 기술(인위:techne)에 의한 것들 또는 우연(tyhke)에 의한 것들이다. 그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것들은 자연과 우연이 만들어 내거나 한결 작은 것들은 기술이 만들어내는데, 기술은 크고 일차적인 산물들의 생성을 자연 쪽에서 받아서는, 한결 작은 것들 모두를 형성하고 구성해내는데, 바로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기술의 산물들이라 일컫는다.<sup>211)</sup>

위 인용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자연과 우연에 의한 만물 형성과 별개로, 인간이 자연(nature)을 활용하여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테크네의 개념이다.<sup>212)</sup> Plato은 새로운 것을 생성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의술, 농사기술, 통치술과 같은 기술들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Plato은 ‘자체의 힘을 자연과 협력한다’라는 표현(Nomoi, 889d)을 사용하며 이러한 기술들을 칭송하고 있는데, Plato이 보기에 진정한 기술들은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physis)을 이용하여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테크네는 어원학적으로 목수의 기술을 의미했고, ‘쥘다, 짜서 맞추다, 자르다, 목공일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국가(polis)의 형태가 정립되면서 인간이 정착지에서 목공을 이용하여 삶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게 되었다.<sup>213)</sup>

한편 Plato 시대에서 테크네는 일상적 의미에서 직업 뿐 아니라 학문이나 예술과 같이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아무나 소지하지 못하는 특별한 솜씨, 지식, 경험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Plato의 테크네는 단순히 기술, 또는 생산품의 발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률』에서 미술, 시가, 의술, 농경, 체육, 정치술 등 오늘날 우리가 ‘術’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항목에 테크네를 사용했다. 『프로타고라스』에서도 의사, 조각가, 목수, 화가, 시인, 피리부는 사람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테크네 개념을 들었다.

그러나 Plato은 단순히 기술을 규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에 윤리학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테크네에 대한 그의 태도는 『국가』 1권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대화자 소크라테스는 의술이 ‘몸에 대해 약과 음식을 주는 기술’이라는 정의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그 ‘누려야 할 것’은 윤리적 개념<sup>214)</sup>을 포함하고 있다. 홀

211) Plato, “Nomoi”, 박종현 역주(2009), 『법률』, 과주: 서광사, 888e~889a,

212) 여기서 테크네는 자연과 우연에 의한 제작과 대비되는, 인간에 의한 ‘인위’의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

213) 강선보 & 장지원, op. cit., p.4

214)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 의지’가 Aristoteles의 배분적 정의에 대한 개념규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당시의 관념을 바탕으로 고대 로마의 Ulpianus가 내린 정의(justice)에 대한 정의(definition)임을 고려해 볼 때, 테크네 개념에는 본질적으로 응분의 몫을 해당하는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정의의 관념이 배태되어 있었다고

를 통치자는 실수 없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며 통치자는 항상 시민들 및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이다(342c-d). Plato에게서 테크네는 전문가다운 생산 능력과 윤리적인 정의로움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sup>215)</sup>

한편 『국가』 후반부에서 Plato의 형이상학은 변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인 ‘이데아계’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 이데아세계와 현실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교류하지 않는다면 본보기로서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테크네의 담지자인 Demiourgos(장인)의 역할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이데아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데미우르고스는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자연을 이용하여 이데아 세계와 가장 ‘유사한’, ‘있음직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데미우르고스는 물건을 잘 만들거나 가치를 구현하는 자를 뜻하며, 이데아를 질료와 잘 버무려서 가능한 한 최선의 사물과 세계를 창조하는 자를 의미한다.<sup>216)</sup>

데미우르고스는 Plato이 지향하는 장인의 이상형이며 데미우르고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지성(nous)을 토대로 하는 올바름, 즉 훌륭함의 구현에 있다. 생성의 존재인 데미우르고스는 구체적인 사물의 생산을 지향하는 테크네를 하는 인간(Homo Faber)의 모형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Plato의 데미우르고스(장인, 테크네의 담지자로서의 기술적 전문가)는 그 자체가 인간의 완전성을 지향하는 가장 선한 존재라는 차원에서 윤리적인 전범이 된다. 동시에 그는 생산을 담당하는 장인의 본보기, 즉 좋음의 이데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다.

## (2) 테크네와 장인(Demiourgos)의 궁극적 지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테크네와 데미우르고스는 결국 궁극적인 좋음과 훌륭함이라는 ‘이데아’개념으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이 두 개념은 어떻게 결합되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강선보 외(2009)는 테크네가 ‘목공’을 뜻하던 단어에서 도시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의미가 변화된 개념임에 주목하고, 테크네의 궁극적 지향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Plato의 개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가』에서 등장하는 공동체는 바로 한 개인의 자족을 위해 등장한다. 나라의 설립 기원은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자급자족하지 못하므로,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교환을 통해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의 생산 및 더 확대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테크네가 순전히 기술적인 탁월성을 추구하는 가치중립적 개념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윤리적 지향을 포함한 가치 지향적 개념어임을 알 수 있다.  
215) Ibid. pp.4~5 참고

216) 김진(2003), 『푸지스와 존재사유-자연철학과 존재론의 문제들』, 서울: 문예출판사, p.105, Ibid. p.5 재인용

인간은 자신의 자질에 따라 각자 잘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교환하며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환경에서 공동체의 성립은 궁극적으로 교환행위와 분업, 즉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필요성에서 출발하게 된다. Plato는 개개인이 서로 타고난 자질이 매우 달라서 저마다 다른 일에 매달리게 되며, 어떤 이가 일을 더 잘해내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가지 테크네에 종사하게 될 때 (Politeia, 370a-b)라고 말한다. 여기서 Plato의 자질 개념은 테크네와 연결되며, 장인의 테크네는 장인의 자질과 관련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테크네를 사용하는 장인에게는 기술적 훌륭함뿐만 아니라 윤리적 덕목도 필요하다. 훌륭한 장인은 자신의 테크네를 정확히 전수하며 환자를 병들게 한다거나 신발이 금방 닳게 하거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인의 테크네가 가장 이상적으로 발현된 상태는 장인의 자질과 장인이 사용하는 테크네가 완벽하게 부합하고, 그 장인의 테크네를 통해 그 개인과 공동체가 자족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sup>217)</sup> 이처럼 교환경제를 배경으로 성립된 고대 그리스 police내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을 목표로 하는 장인(데미우르고스)과 그의 테크네에는 필요불가결하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윤리적 덕목이 지향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강선보는 테크네와 데미우르고스의 궁극적 지향과 관련하여 Plato 철학개념의 지식(episteme)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지식의 동사형인 ‘epistamai’는 ‘내가 무엇을 할 줄 안다, 지적으로 할 줄 안다.’를 뜻한다. 따라서 이는 테크네와 연결되는 단어이며 『국가』 1권에서도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했다. 이러한 지식은 원래 사물의 기능(ergon)과 연결되는데, 그 기능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확한 앎, 즉 테크네를 포함하는 셈이다. 또한 지식은 지식을 사용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인간이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능(ergon)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인간의 훌륭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바로 지식을 갖춘 인간이 된다. 그러나 인간의 훌륭함을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좋은 그 자체는 개인적인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 내에서 훌륭함의 구현 및 공유로 이어져야 한다. 마치 테크네를 ‘아는’ 장인이 그 테크네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결론적으로 Plato에게 테크네의 목적은 도시국가에서 장인들의 테크네를 생산물을 통해 교환함으로써 개인과 국가가 자족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테크네는 경제적·정치적·윤리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국가에서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시민이자 장인이 될 수 있다. 한 인간이 인간에 대한 지식과 테크네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는 것이 결국 장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이 되는 셈이다.<sup>218)</sup>

217) Ibid. p.8

218) Ibid. pp.8~9

## 2) 덕윤리 Aristoteles의 ‘프로네시스’

테크네에 대한 논의에 이어 2항에서는 고대 그리스 덕윤리에서 Aristoteles 의 ‘프로네시스’ 개념과 테크네와 프로네시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Plato 철학과 차별화되는 Aristoteles 철학 안에서 테크네와 프로네시스가 어떻게 조응하게 되는지 ‘융합모형’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Narvaez는 IEE에서 윤리적 전문성의 형성을 위해 윤리적 기술을 체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것이 숙달될 때 나타나는 일종의 도덕적 직관으로서 ‘실천적 지혜’ 혹은 Narvaez의 용어로 ‘도덕적 지혜(moral wisdom)’가 나타나게 됨을 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적절한 대상 향해 적절한 때, 적절한 정도의 도덕적 행동을 할 줄 아는 ‘도덕적 지혜’의 상태는 또한 TET에서 안전윤리의 안정과 관여평온, 공동체적 상상이 결합 된 ‘마음챙김 도덕’의 정신구조(mindset)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Narvaez의 제안이 Aristoteles의 윤리학을 해석함에 있어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를 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이른바 ‘융합 모형’을 통해 무리 없이 해명되고 뒷받침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고찰 과정을 통해 IEE모형이 학제적 접속의 대상으로 삼은 덕윤리의 철학적 지향과 접속의 결과가 IEE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관해 심도 깊은 이해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1) 프로네시스(Phronesis)의 개념<sup>219)</sup>

Aristoteles의 프로네시스에 대한 일차적(통상적) 정의는 다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과 유익한 것들에 관해서 잘 숙고할 수 있는 것이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phronimos)의 특성으로 여겨지는데, 예를 들어 건강이나 힘과 관련해서 좋은 것과 유익한 것들을 잘 숙고하는 것과 같이 어떤 부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사는 것(좋은 삶을 사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잘 숙고하는 사람이다. 이것의 징표는 누군가가 기예(테크네)의 영역에 있지 않은 어떤 신실한 목적을 위해서 잘 생각해서 해야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제한된 영역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어떤 특수한 것과 관련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잘 사는 것에 관해) 잘 숙고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EN 6권, 1140a25-31)

---

219) Aristotle, 강상진 외 역(2004), 『Aristotle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pp.210~212 참고

여기서 알 수 있는 프로네시스의 의미는 「(1) 기예의 영역에 있지 않은 어떤 신실한 목적에 관련해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잘 숙고하는 것이라는 점이며, (2) 어떤 특수한 목적과 관련해서 자기 보다 일반적인 잘 삶, 좋은 삶을 삶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기예(테크네)의 영역에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한 숙고이면서 일반적인 잘 삶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숙고하는 사유의 덕, 이것이 통상적 의견으로부터 시도된 정의에 따른 실천적 지혜이다.

우리는 여기서 프로네시스의 숙고의 대상이 학문적 인식의 대상이나 기예의 대상과 구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동반하면서 행위를 산출하는 참된 품성 상태라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제작을 보고 기예가 발휘되었다고 말하지 않듯이 되는 대로 하는 행동을 보고 실천적 지혜가 발휘된 행동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예가 참된 이성을 따라 만들 수 있는 품성 상태로 정의되듯이 ‘이성의 수반’이라는 계기 없이는 사유의 덕을 정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의에서 어려운 점은 ‘참’의 계기를 어디에 붙여서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참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어렵듯이 참된 품성 상태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이 정의에서 분명해 보이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참이 어떤 행위를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할 때의 그 좋음의 계기와 필연적인 연결을 가질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인가를 잘 만들 수 있는 품성 상태를 기예(테크네)라고 정의하고 그 안에 작용하는 사유의 기능, 참을 잡아내는 사유의 기능을 필요조건으로 지적하듯이, 전 인생에 걸쳐 잘 행위 하는 품성 상태를 실천적 지혜라고 정의한다면 그 안에 작용하는 사유의 기능 또한 참과 관련을 가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프로네시스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가?

“덕도 영혼의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구별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덕들 가운데 어떤 것을 사유의 덕들이라 부르고, 다른 어떤 것들을 품성의 덕들이라고 부른다. 철학적 지혜(sophia), 이해(synesis), 실천적 지혜(phronesis)는 사유의 덕들이라 부르고, 관후함과 절제는 품성의 덕들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품성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는 지혜롭다거나 혹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는 온화하다거나 혹은 절제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현자(sophos)를 그의 영혼의 품성 상태(hexis)에 따라서 칭찬한다. 품성 상태들 중 칭찬받을 만한 것을 우리는 덕들이라고 부른다.”(EN 1권 1103a2-10)

위에서 알 수 있듯, Aristoteles는 덕(탁월성, arete)을 ‘지적인 탁월성’과 ‘품성적인 탁월성’으로 나누는데, 전자는 교수에 의해 후자는 습관에 의해 가르쳐질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개념인 ‘프로네시스’는 지적 탁월성에 속하므로 행위습

관이 아닌 교수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프로네시스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는 적용 영역의 광범위성과 추상성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로 남게 된다. 반면 Aristoteles에게 절제와 관후와 같은 도덕적 탁월성은 행위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 건축가는 집을 지어봄으로써 건축가가 되듯이, 정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Aristotle, 2006: 52).

## (2) Aristoteles 철학에서 프로네시스와 테크네의 관계

Aristoteles는 인간의 실천을 생성, 즉 ‘포이에시스(poiesis)’와 훌륭한 행위로서의 ‘프락시스(praxis)’로 구분하고, 이어 실천적 지식을 ‘테크네(techne)’와 ‘프로네시스(prhonesis)’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다. 포이에시스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목적을 가진 활동이며, 이것은 이 활동에 목적을 제공하는 하나의 산출물에서 종료된다. 예컨대 배를 제작하는 활동은 ‘배’라는 산출물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것이 산출되면 일련의 제작활동은 종료된다. 요컨대 포이에시스는 특정한 산출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제작활동으로의 실천이다. 이와 구분되는 다른 종류의 실천은 ‘프락시스’인데, 이는 삶의 행위, 시민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활동의 목적은 활동 자체를 하는 바로 그것에서 실현된다. 제작은 제작 이외의 목적을 갖는 활동인데 반해, 프락시스는 그 자체 이외의 목적을 갖지 않는다. 산출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말은 그 행위가 훌륭하고 선한 것임을 시사한다.<sup>220)</sup>

Aristoteles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실천, 즉 포이에시스와 프락시스를 그에 상응하는 지식에 연결 짓는데, 전자에 상응하는 지식이 바로 테크네(제작술, 기예)이며 후자에 상응하는 지식이 바로 프로네시스(실천적 지혜)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테크네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추론적 역량을 갖춘 상태이다(Dunne, 1993:249). Aristoteles에게 테크네는 유용한 사물을 생성하는 원천, 만드는 사람의 습관에 해당하는 능력이며 이 능력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유용한 사물들을 생산하고 재생하는 일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 모종의 산출물을 얻기 위해서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것은 합리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테크네를 가리켜 실천에 필요한 추론적 역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이러한 의미의 합리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포이에시스에 필요한 지식이 테크네 라면, 프락시스를 위한 지식은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가 된다.

한편 홍윤경(2012)은 실천적 지식의 상이한 두 종류인 테크네와 프로네시스의 관계를 병렬모형으로 파악할 때와, 융합모형으로 파악할 때 어떤 것이 Aristoteles가

220) 홍윤경(2012), 「실천적 지식의 두 가지 유형에 관한 고찰: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47집, pp.196~197 참고

본질적으로 의도한 진의(眞意)에 부합되는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병렬모형은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를 분리하여 두 가지 지식의 교수와 학습이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병렬관계 하에서 진행된다고 보는 입장을 의미한다. 두 가지 지식은 상이한 분야에 관여하는 상이한 유형의 실천가에게서 표현되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학습한 상태도 전혀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어 병렬모형의 치명적 난점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만약 병렬모형에 맞게 될 경우 테크네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실천적 지식을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프로네시스와 전적으로 분리된 테크네 개념만으로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된다는 보장이 없고 따라서 적합한 방식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어려우며, 그는 이른바 편협한 직무 역량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병렬모형에서는 프로네시스의 교수와 학습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된다. 프로네시스가 발휘되는 분야는 삶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병렬모형에서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를 전적으로 분리시켜 바라보게 될 경우, 적용범위가 삶 전체인 지식인 프로네시스를 별도의 교육내용으로 분리시켜 가르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불분명해진다.<sup>221)</sup>

이러한 심각한 난점을 보이는 병렬모형과 달리 테크네와 프로네시스의 개념적 연계를 융합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홍윤경(2012)은 ‘융합모형’이라고 지칭한다. 이는 프로네시스가 테크네 그 자체의 활용의 내적 요소가 될 경우에 가능하다. 이를테면 테크네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할 경우, 즉 웅변가가 수사학이라는 테크네를 활용함에 있어서 오로지 진리와 선에 대한 관심 하에 성공적인 설득을 지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프로네시스는 테크네를 발휘하는 사람과 분리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테크네를 규제한다고 보아야 한다.<sup>222)</sup>진리와 선에 대한 관심은 특정 개인이나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선을 위한 것이고, 당사자의 사람됨으로 불박혀 있으므로, 그가 소유한 테크네를 선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홍윤경(2012)은 프로네시스와 테크네가 분리불가능한 형태로 융합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가리켜 ‘융합모형’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될 때만이 비로소 완성된 의미의 실천적 지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융합모형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다.

Aristoteles는 행위에 관심을 갖는 사고, 즉 프로네시스가 제작적 사고의 근원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말은 프로네시스가 테크네의 상위의 지식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테크네를 가진 사람은 일단 조건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이상의 목적 즉 훌륭한 행위라는 무조건적 목표를 추구한다. 즉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는 한 사람 안에서 융합될 수 있다. 『정치학』에도 테크네에 대한 프로네시스의 규제가 강조되어 있다. 그는 테크네에 해당하는 ‘재산 획득 기술’과

221) Ibid. pp.199~200 참고

222) Ibid. p.201

프로네시스에 해당하는 ‘가사 관리’를 구분하고, 전자와 후자를 각각, ‘재료를 제공하는 것’과 ‘재료를 이용하는 것’에 비유한다. 전자는 화폐라는 산출물을 획득하기 위한 제작술이며, 후자는 가족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프로네시스이다. Aristoteles에 의하면 가사 관리는 재산획득 기술의 산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후자를 규제해야 마땅하다. 이 논점은 테크네와 프로네시스가 별도의 지식으로 분리되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의술의 테크네가 병을 고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배려할 줄 아는 프로네시스와 융합된다면, 이러한 융합된 지식은 온전한 의미의 실천적 지식이 될 수 있다. 의술뿐만 아니라 각종 테크네의 가치는 그 산출물이 공동체 전체의 삶에 비추어 알맞게 적재적소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완성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sup>223)</sup>

한편 융합모형은 교육내용으로서의 프로네시스의 성격을 ‘공동체의 선’에 관한 지식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획득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로네시스는 특수자들에 관한 지식과 보편화를 추구하는 지식을 모두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보편적 지식과 특수한 기법은 “적절한 사람, 적절한 정도, 적절한 시기, 적절한 목표, 적절한 방식”과의 관련 하에서 전개된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기법들이 사용되는지는 일반적 형식으로서의 합리성이 아니라 프로네시스의 조율에 의하여 바로 그 현장에서 결정될 수 있다.<sup>224)</sup>

이러한 조율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배워야 할 교육 내용으로 Aristoteles는 ‘공동체의 선에 관한 지식’을 제시한다. 삶의 매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와 목표, 방식,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유익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선에 대한 관심이다. Aristoteles에 의하면 좋은 삶은 개인을 넘어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좋은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Aristotle, 2009:60). ‘공동체의 선에 관한 지식’은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인데 최선의 삶의 목적에 대한 앎과 이를 위해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행위의 내용(know-what)과 방법(know-how)에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프로네시스의 획득을 위해 배워야 할 교육내용은 개인의 사사로운 판단 또는 특정한 영역에만 적용될 수 있는 편협한 판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는 공동체 내에서의 교육 전체를 지칭한다. 프로네시스를 염두에 두고 학습한 학문적 지식은 학문적 추상적 명제의 형태로 두기보다 내가 처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적이고 이기적이며 편협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즉 프로네시스의 획득을 위해 지식을 배우다는 것은 곧 자신이 속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기적이고 편협한 판단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상적 명제들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수많은

223) Ibid. p.203

224) Ibid. p.204~205 참고



학문적 명제들을 이기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데 활용 할 때 비로소 프로네시스를 학습했다고 말할 수 있다.<sup>225)</sup>

한편 Aristoteles는 소크라테스가 Plato주의자들과 달리 보편적 정의의 대상과 감각적 특수자들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분리시키지 않은 것이 옳았다고 말한다(Aristotle, 1990:618). 절제, 정의 등 보편자에 관한 지식을 자신의 특수한 삶에 적용하여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적절한 시기, 적절한 정도, 적절한 상황’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프로네시스의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프로네시스는 훌륭한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 삶의 매 순간, 삶의 전 영역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경험, 관찰, 모방, 행위습관 등을 통해서 획득할 수 없다. 그것은 공동체의 선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발견되는 편협성을 제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할 때에만 획득가능한 것이다.<sup>226)</sup>

### 3) 윤리이론에 대한 Narvaez의 통합적 관점

여기서는 상기에 제시된 고대 그리스 덕윤리의 테크네와 프로네시스 개념을 바탕으로 Narvaez가 이를 IEE속에 어떻게 현대적 관점으로 변형하여 재해석해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주류적 윤리학 이론을 ‘규칙윤리’와 ‘인격윤리’로 나누고 양자의 장·단점을 해명하며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자하는 Narvaez의 견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1) 테크네와 프로네시스의 심리학적 재해석

Narvaez는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 획득이라는 자신의 도덕교육적 구상이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고대 덕윤리의 전통에서 Plato이 정의로운 사람을 정치적 테크네의 숙련자로 나타내고 있는 장면에 주목하고 있다. 『The Republic』에서 Plato은 정의로운 사람을 전문가와 천직(전문성을 숙달시켜가는 일련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 Narvaez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 행위에 대해 우리가 보는 가변성은 맥락에 따른 스키마의 발달과 기술 적용의 다양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를 반드시 덕의 부족이나 나쁜 기질의 문제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도덕적 귀감을 묘사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접근은 그들의 인격을 ‘특질의 보따리(bag of traits)’가 아닌 고도로 개발된 기술들 혹은 ‘테크네(techne, 위에서 Plato에 의해 제안된 개념)’로

---

225) Ibid. pp.206~208 참고

226) Ibid. p.209 참고

보는 것이라고 Narvaez는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인격교육 프로그램들은 인격을 이해함에 있어 특질(trait)개념을 차용하고 있는데, Narvaez가 보기에 그러한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은 학생들의 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덕교육자)에게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정직’의 경우, 이는 일종의 특질로 이해될 수 있는데 어린이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그러한 특질(정직)을 수용하라고 말하는 것이다<sup>227)</sup>. 반면에 수학과 독해 등의 학습에서는 이 영역과 관련한 학생들의 기술들이 학습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어른들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러한 자세(수학과 독해 영역에서 학생들의 skill들을 학습시키는 접근법)를 수용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여겼던 기존의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 Narvaez는 이제 대부분의 도덕적 행동을 일종의 기술(skills)로 간주할 때가 되었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sup>228)</sup>

본 논문의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Narvaez는 ‘Neo-Kohlberg학파를 넘어서(2005)’에서 Kohlberg가 언급하기를 회피했던 인성과 덕에 관해서 자신은 ‘새로운 관점’에서 수용하고자 함을 밝힌바 있다. 그녀는 도덕적 모범자 그리고 전문 직업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이 평가받는 근거는 그들의 도덕적 추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인성과 덕 혹은 인격 특성으로 인한 것임에 주목한다. 그러나 그녀가 이들 용어들에 접근하는 관점은, ‘사회 인지적’인 것으로 전통적인 것과 다름을 강조한다.<sup>229)</sup> 더 나아가 Narvaez는 스키마와 전문성을 고대 덕윤리학자들의 덕 혹은 인격의 현대적 관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는 고대인들이 「(1) ‘덕’을 일종의 ‘전문기술(테크네)’로 간주했다고 보고, (2) 유덕한 사람은 고도로 개발된 기술들, 지각적 감수성, 도덕적 해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한 스키마, 그리고 훈련된 도덕적 행동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현대적 용어로 「(3) 전문가들은 ‘올바른 시점에서, 올바르게 적용하는 일단의 절차적, 명제적 그리고 조건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4)전문성은 도덕적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의 지식을 규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sup>230)</sup>

위와 같은 Narvaez의 언술을 바탕으로 그녀가 고대 덕윤리의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차용한다고 했을 때, 그녀가 의도하는 재해석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분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231)</sup> 우선 (1)을 통해 그녀가 ‘덕

227) 하지만 교육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228) D. Narvaez(2003), op. cit., pp.24~41 참고

229) Narvaez는 ‘사회 인지적 스키마’를 ‘전문성’ 개념과 연관지우면서 특정 영역에 몰입할수록 그 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되며 이는 곧 스키마의 정교화와 조직화가 강화됨을 의미한다고 본다.

230) 박장호(2016), op. cit., pp.16~17 참고

231) 다만 Narvaez가 이처럼 고대 덕윤리의 테크네와 프로네시스, 덕, 유덕자 등 핵심 개념들을 자신의 IEE 핵심 개념인 윤리적 기술과 전문성 등에 대응시키는 유비추리(analogy)

= 테크네'로 연동시킬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교육방법상 경로가 다르긴 하지만) 윤리적 기술의 체화는 곧 덕목의 획득이라는 결과를 낳게 한다.<sup>232)</sup> (1)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로, (2)를 통해 유덕자를 윤리적 기술(테크네)의 담지자, 즉 윤리적 전문가와 등가적 의미를 갖는 인간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을 통해서 윤리적 전문가가 보유한 윤리적 전문성이 일종의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본 장의 2편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로네시스는 보편자에 관한 지식을 자신의 특수한 삶에 적용해보며 반성하는 삶의 경험을 통해 '적절한 시기, 적절한 정도, 적절한 상황'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위 (3)에서 Narvaez가 기술의 체화를 통해 도달한 전문성이 바로 이러한 속성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4)를 통해 Narvaez는 다른 전문분야(의술, 건축술 등)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삶에 필요한 지식 역시 기술적 지식(노하우와 노왓을 모두 포함한)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덕 발달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 형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점점 더 철학적인 성찰을 드러내게 된다. 예를 들면 Narvaez는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IEE)은 계획적으로 동시대 행동과학들을 아레테(arete, 덕), 테크네, 유다이모니아(eudaimonia, 행복)와 같은 고대 그리스 개념들과 연계한다고 서술한다. 또한 그녀는 도덕발달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대 문화, 특히 미디어에 의해 조장되는 소비지상주의와 폭력에 대해 걱정하면서 그리스 도시국가의 중요성을 암시적으로 주장한다(Narvaez, 2006).<sup>233)</sup>

## (2) 규칙윤리와 인격윤리의 변증법적 통합

Narvaez는 Plato의 이성 중심 윤리에서 비롯되어 칸트, 롤즈에게 이어지고 도덕 심리학 및 도덕 교육 영역에서 Kohlberg의 인지 발달적 접근으로 이어진 서구적 전통을 '규칙 윤리(rule ethics)'로, Aristoteles를 위시한 고대 그리스의 전통적 덕윤리

---

가 과연 개연성 있고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따로 비판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는 본 논문의 V 장 4절 3항에서 따로 상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232) '윤리적 기술'의 획득이 사회인지적 스키마의 일종인 '도덕 스키마(moral schema)'의 정교화와 조직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구체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E: environment) 한 개인(P: person) 및 행동(B: behavior)의 삼원적 상호작용을 통한 동태적(dynamic)인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덕(virtue)은 상대적으로 상황과 맥락 및 구체적 환경 변인의 영향에 대해 비교적 독립적이고 항상적인 개인적 성격 특질(trait) 혹은 성향(disposition)에 가까운 정태적(stable)한 측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33) Ibid. p.20

적 접근에서 비롯된 현대의 인격 교육에서의 덕교육 및 인격교육적 접근을 ‘인격 윤리(character ethics)’로 구분한 후, 양자가 조화된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Kohlberg의 인지발달적 전통에 관하여서는 앞서 도덕심리학적 배경에서 상술했기에 여기서는 Narvaez가 규칙 윤리와 인격 윤리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부분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sup>234)</sup>

Narvaez는 ‘규칙 윤리(rule ethics)’와 관련하여, 이성적 도덕 교육 접근에 관해 특별히 중요한 측면은 지식이 자극적인 인지적 경험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인 부분(인지 발달에 있어 어른들의 지도와 어린이들의 발달이 밀접히 연관되어 일어나게 되며, 숙고적인 추론 기술이 시민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고 본 점)이라고 말한다.<sup>235)</sup> Kohlberg적 접근은 올바른 행동과 정의에 우선성을 둠으로써 상대 주의를 불식하는 것에 강조를 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인격 윤리(character ethics)’의 측면에 관하여 Narvaez는 Wynne, Ryan, Benninga, Solomon등에 의해 주창된 전통적 인격교육적 접근(traditional character education approach)이 가진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첫째,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이다. 진보적인 전통(예를 들어 존 듀이의 실용주의적 교육 등)은 학습의 내용 측면을 경시하고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만 강조해 왔는데, 예를 들어 사실의 기억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데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지 과학자들은 보다 최근에 전문가적 지식이 내용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전략적인 혹은 절차적 지식을 포함한 더 많고 좋은 조직화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절차적 지식과 조건적 지식을 갖고 있음을 밝혀내었다(Hogarth, 2001). 전문가들은 더 잘 생각할 뿐만 아니라(절차적 지식의 측면), 생각할 거리(명제적 지식의 측면, 내용적 측면)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전통적 인격 교육자들은 행동의 형성에 있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행동주의자의 패러다임이 비록 그 명예를 잃은 지 오래되었지만, 발달 심리학자들은 생태적 시스템과 인격과 성취를 획득함에 있어 개인 및 맥락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가진 막강한 힘을 실감하게 되었다. 인간 발달은 아동의 필요와 부합되는 환경이 주어질 때 최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Narvaez는 이성적 도덕 교육과 전통적 인격 교육적 접근이 모두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236)</sup> 그녀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이성적 도덕교육이 구성주의와 어른들에 의한 교육적 지도를 활용하고 있고, 시민적 참여를 위한 추론을 장려하며, 상대주의를 불식하고 있지만, (딜레마 토론이든 정의 공동체를 통해서건)

234) D. Narvaez(2005),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hapter 26. pp. 706~715 참고

235) Ibid. p.709

236) Ibid. p.712

도덕적 행동을 위해 불충분한 도덕적 추론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강조하고 있고,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중심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Narvaez는 전통적 인격 교육이 내용의 중요성 및 심리학에서 입증된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통찰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 의의에 대해 언급한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주의의 부담에 열려있는 핵심적 덕목들(core virtues)의 조합의 변화, 자율성의 중요성에 대한 경시, 그리고 문제가 많은 교육 방법론 등에 있어서 결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진 논의에서 그녀는 연합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던 Berkowitz와 Lickona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237)</sup> 우선 Berkowitz(1997)는 도덕적 인격의 다차원적인 통합적 모델과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로부터 뒷받침된 도덕 교육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도덕적 정체성과 성격을 인격교육 모델과 결합시켰다. 그는 도덕 해부학(moral anatomy)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도덕적 인격을 위한 7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적 행동(moral behavior), 도덕적 인격(moral character), 도덕적 가치(moral value),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권위(moral reasoning & moral authority), 도덕적 정서(moral emotion), 도덕적 정체성(moral identity), 도덕적 개인(moral person)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Lickona(1991a, 1991b)는 Plato적인 사고에 기반 한 ‘올바른 사고’와 Aristoteles적 생각에 기반 한 ‘올바른 행동’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인격 교육의 목표가 이른바 ‘덕’으로 불리우는 양질의 좋은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음에 동의한다. 인격교육은 지식, 공감, 그리고 실행 또는 머리, 가슴 그리고 손에 관한 것임을 역설한다. Lickona는 전통적 인격 교육적 실행과 인지 발달적 전통을 혼합해 내고 있다. 또한 그는 ‘학교에서의 총체적 도덕적 삶’을 통해 덕목을 함양하는 인격교육에 있어서의 포괄적 접근을 주장했다.<sup>238)</sup>

237) Ibid. pp.712~715

238) 이에 따르면 우선 교사는 배려 제공자, 도덕적 모델, 학생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멘토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높은 기대와 긍정적 덕목에 대한 토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관한 지도 등을 통해 긍정적인 동료 공동체(peer community)를 형성함으로써 학급을 배려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사는 도덕적 훈육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훈육이 인격 발달을 위한 수단이 됨을 의미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존경과 추론 및 자기 조절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교사는 학생들이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민주적 공동체를 창조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들은 “도덕적 잠재성 실현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발굴”을 통해 가치의 자양분을 공급해야 하며 제공된 인격 교육자원들을 활용해야 한다. 여섯 번째, 교사들은 학생들이 사로 잘 지내고 공동체적 감각을 심화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협력적인 학습을 활용해야 한다. 일곱 번째, 교사는 높은 기대와 높은 지지를 결합한 “직무에 대한 양심(conscience of craft)”을 발달시켜주어야 한다. 여덟 번째, 교사들은 윤리적 반성을 격려해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의 관점에서 반성하도록 하고, 사려 깊은 의사결정과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함

Narvaez는 Lickona와 Berkowitz의 통합적 접근이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고 중요한 연구들의 최고의 통찰들과 잘 조화되며, 흥미로운 방법을 통해 전통적 인격 교육과 이성적 도덕 교육 사이의 틈을 메울 가교가 되어준다고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한편 그녀의 새로운 접근, 통합적 도덕 교육 모형(Integrative Ethics Education model)은 이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법에 비해 인격과 교육 양 측면 모두에 있어 보다 체계적 시각을 제공한다고 Narvaez는 자평하고 있다.<sup>239)</sup>이에 덧붙여 그녀는 IEE가 고대의 그리스적 관념인 ‘테크네(techne)’와 ‘전문성(expertise)’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의 번영을 의미하는 ‘행복(eudaimonia)’ 및 최근의 긍정 심리학 운동의 강조점들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논문<sup>240)</sup>에서 Narvaez는 역시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성적 도덕교육이 강조하는 숙고적 마인드와 전통적 인격 교육적 접근이 강조하는 직관적 마인드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도덕 인격 교육에 있어 숙고적 마인드와 직관적 마인드를 중시하는 각각의 접근법 사이에 지각된 갈등이 있지만, 양자를 서로 보완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음을 강조한다. Aristoteles주의자들은 전통적 인격 교육에서 강조하는 직관 발달이 매일의 인간 행동과 경험적으로 더 잘 조화된다고 본다. 그러나 복합적인 정의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은 숙고적인 추론이다. 따라서 Narvaez는 인격교육은 합리적 도덕 교육과 인격 교육 혹은 숙고적인 추론과 직관발달 사이의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행위자에게 두 가지 시스템이 모두 필요하다. 직관적 마인드는 대부분의 경우 의식적 주의 없이 의사 결정과 행동 이행을 만들어낸다. 반면에 숙고적인 마인드는 직관발달의 방향설정과 빈곤한 직관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 중 하나 이상을 결여한 개인은 도덕적 인격 형성에 있어 핵심적 도구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인간 마인드의 두 가지 본성과 추론과 직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도덕 인격 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패러다임을 혼합하는 관점이 도덕 전문성의 발달이다.

Narvaez는 Aristoteles가 그러했듯이, 적응형 전문성(adaptive expertise)의 형태로 도덕적 덕과 탁월성을 다루자고 제안한다.<sup>241)</sup> 덕스러운 사람은 마치 고도로 개발된 기술(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하게 적용된 절차적 지식, 선언적 지식 조건적 지식의 조합)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 비슷하다. 다시 말해, 도덕적 귀감들은 도덕적인 선에 대한 앎과 실천적인 지혜(특정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의 노하우

---

으로써 가능하다. 아홉째, 교사는 갈등 해결 기술을 통해 학생들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239) Ibid. p.715

240) D. Narvaez & T. Bock. (2014), op. cit., p.4

241) Ibid. p.5

를 아는 것)에 대한 충분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도덕적 전문가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양만큼의 적절한 덕을 적용한다. 전문성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역량의 조합이다. 도덕적 전문성은 도덕적 행동에 결정적인 최소한의 4가지 과정(도덕적 민감성, 판단, 동기화, 행동)의 하나 혹은 그 이상에 있어서 전체론적인 지향(절차적, 선언적 그리고 조건적 지식의 조합)을 나타낸다.

## IV. 학제적 연구모델: TET 및 IEE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 본 경험과학적이고 규범과학적인 다차원적인 학문적 배경으로부터의 유의미한 함의점들을 추출하여 학제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한 결과물인 TET 및 IEE에 대하여 상세히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TET 및 IEE가 ‘학제적 연구모델’이라는 점에 강조를 두어 V장에서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임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그녀의 선행 논문들을 바탕으로, 하위 이론들을 어떻게 학제적으로 소통시켜 공통의 담론구조를 형성하고 핵심적 공유개념과 학문적 교집합을 형성해 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Narvaez가 IEE의 신경생물학적 토대이론으로 구축한 삼층윤리이론(TET)의 특징과 의미를 설명하고, 이어 TET를 토대로 최고의 규범적 지향으로 제안한 ‘마음챙김 도덕’의 특징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신경생물학적 토대이론을 지지기반으로 한 도덕교육모형인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IEE)’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특히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과 실천적 적용을 위한 5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Narvaez의 다양한 논문들의 요지를 소개한다.

이처럼 도덕성 발달과 도덕교육 방법에 관한 Narvaez의 최종결론에 해당하는 TET와 IEE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는 일은 궁극적으로 본 연구자가 설정한 다섯 가지 비판준거를 토대로 IEE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내용근거 마련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IEE를 한국의 교육자들이 실제 도덕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요컨대 이 과정은 Narvaez 도덕교육 모형의 심도 있는 이해와 해석, 비판적 고찰과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 1. 신경생물학적 토대이론: 삼층윤리이론(TET)

TET는 세 가지 유형의 인간 진화로부터 유래한 정서적인 뿌리를 가진 도덕적 경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윤리적 동기와 행동은 생물학적 경향에서 나타나게 된다. 한 개인이 특수한 경향을 다른 가치에 우선하는 정상적인 명법(imperative)으로 다룰 때, 그것은 윤리적으로 중요성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각각의 ‘윤리’는 인간 두뇌의 구조와 회로 상에 명백한 신경생물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한 특수한 경향을 다른 가치를 압도하는 규범적 명령으로 치부할 때, 그것이 윤리적 의미를 갖게 된다.<sup>242)</sup>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각 윤리는 규범적인 요구를 하게 되며 성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맥락에 의해 점화된다. ‘동기화된 인지’의 한 유형으

242) D. Narvaez & L. J. Vaydich(2008), op. cit., pp.304~306



로서 각 윤리는 행위를 위해 어떤 행동유도성(affordances)이 가장 현저한 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현재의 경험에 특수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Moll, et al, 2002).

## 1) TET의 특징

이제 TET가 학제적 이론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으로 TET의 이론적 목적, TET가 제안하는 세 가지 윤리적 정향에 대해서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인격 형성과정을 세 가지 윤리적 정향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 볼 것이다.

### (1) TET의 이론적 목적

삼층윤리이론(Triune Ethics Theory, 이하 약칭 TET)은 세 가지 목적에 부합되는 심리학 이론이다.<sup>243)</sup> 첫째, TET는 신경생물학, 정서적인 신경과학 그리고 인지과학의 중요한 발견들을 거둬들여 도덕심리학에 통합해 냄으로써 개개인의 도덕적 삶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하향식(top-down)방법론에 중심을 두는 지배적인 이론들(Kohlberg의 이론과 같이 숙고적인 추론을 중시하는 입장)과 달리 TET는 진화된 무의식적 정서 체계에 뿌리를 두고, 특별한 방식으로 사건들에 대해 반응하도록 만드는 경험에 의해 형성된 동기적 정향에 주력하는 상향식(bottom-up) 이론이다. 둘째, TET는 맥락적 상호작용에 의한 개인의 도덕 기능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들은 성격 형성과 맥락 속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 초기의 정서적 경험이 다른데, 동시에 상황 역시 특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세 번째, TET는 최적의 인간의 도덕 발달을 위한 초기 상태를 제안한다.

### (2) 세 가지 윤리적 정향

여기서는 TET가 제안하는 세 가지 윤리적 정향(ethical orientation)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그녀의 논문, “Triune ethics: The Neurobiological roots of our multiple moralities”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본다.<sup>244)</sup> 안전윤리, 관여윤리, 상상윤리가 바로 TET의 하위 윤리 유형이다. 세 개의 구별되는 도덕 시스템은 기본적 정서체계에 뿌리를 두며, 개인적이고 집단적 차원에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제 세 가지 윤리적 정향 각각의 진화론적이고 뇌 과학적 형성 기제 및

243) D. Narvaez(2007), op. cit., p.96

244) Ibid. p.98~107 참고

매일의 윤리적 삶 속에서 각각의 동기적 정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지, 상향적(bottom-up)차원에 입각한 설명을 통해 Narvaez의 도덕발달이론을 살펴본다. Narvaez는 MacLean의 삼층두뇌이론, Panksepp의 정서 신경과학이론을 위시하여, Damasio, Greene의 신경과학적 연구 성과와 Moll 등의 도덕인지 신경과학 및 인지과학의 체화된 인지이론 등을 학제적으로 통합하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해내어 인간의 두뇌 발달 과정에서 나타내는 세 가지 윤리적 정향을 설명하고, 이상적인 도덕적 두뇌 발달을 위한 방안을 제안해내는, ‘서 말의 구슬 꿰기’작업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윤리적 정향은 ‘안전 윤리(The ethic of Security)’이다. “파충류의 두뇌”로 불리는 첫 번째 뇌 형성은 ‘R-complex (MacLean, 1990)’ 또는 추체 외로(extrapyramidal)의 행동 신경 시스템(Panksepp, 1998)을 포함한다. 파충류에서 지배적인, 포유류의 R-complex는 영역성, 모방, 속임수, 권력 투쟁, 관례의 고수, 선례에 따르는 것과 관계된다. 안전의 윤리는 주로 다른 모든 동물들과 공유하며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본능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는 맥락 속에서 신체적 생존과 번영을 축으로 회전한다. 원초적인 시스템은 여기에 놓인 공포, 분노, 기본적인 성욕과 관계된다. 뇌 속에 우선적으로 경성 배선(hardwired)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다른 두 개의 시스템(관여윤리, 상상윤리)와 달리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다른 시스템이 잘못되면 디폴트 시스템(default system)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두뇌 시스템의 안전에의 집중은 인간이 본능을 여타의 도덕적 가치에 비해 안전 행위를 우선시 하게 될 때 ‘안전윤리(Security Ethics)’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안전윤리가 활성화되면 위계서열과 표준(standard)에 기반 한 내집단 유지를 통해 신체적 생존을 구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활성화된 안전윤리는 지나간 것과 전통을 따르는 것을 추구하며, 자주 망신주기(shaming)와 위협 그리고 기만의 사용을 통해 유지된다. 집단 구성원의 충성은 충성 맹세 등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다. 다른 윤리에 의해 완화되지 않았을 때, 안전윤리는 무자비하게 되기 쉽고,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안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윤리들에 비해 더 타인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외곬수적인(single mindedness)대응은 방해가 되는 사람을 향한 감소된 민감성뿐만 아니라 경로 전환의 불능까지 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악(evil)의 권능 아래 있을 때, 그것은 악으로 느껴지지 않고 필요한 것 심지어 의무로까지 여기게 된다.”는 Simmon Weil의 견해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윤리는 자신을 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에 두려움을 느낄 때 타인을 돕는 것에는 관심을 덜 쏟게 된다.<sup>245)</sup>

한편 안전윤리에는 주어진 순간에 행동을 추동하는 다양한 하위 유형이 있는데, 이는 구별되는 정서적 요소(두려움으로 인한 복종, 위협에 대한 공격 등)에 기반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안전 윤리 하에서 높이 칭송받는 덕과 원리에는 내집단 충

245) Ibid. p.98~100 참고

성(사랑의 충성심이 아닌), 복종, 자기 통제 등이 있다. 권위 있는 인물에의 복종과 임무를 완성하는 것, 전통에 의해 어떤 목표가 가치 있는 것이든 그것을 성취하는 것 등이 고귀함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 안전 윤리의 두 하위 유형을 살펴보자면<sup>246)</sup>, 안전 윤리에는 벙커 안전(bunker security)와 월플라워 안전(wallflower security)가 포함되는데, 전자는 물리적 혹은 심리적 자아(예컨대 ego)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어적 공격성으로서 안전 윤리의 외향적 형태에 해당한다. 반면에 후자는 권위에 대해 수동적이고 정서적으로 위축된 반응을 취하는 경향으로서 안전 윤리의 내향적 형태에 해당한다.

안전의 윤리에 이어 살펴볼 두 번째 도덕적 정향은 이른바 ‘관여의 윤리(The Ethic of Engagement)’이다.<sup>247)</sup> Loe(2002)에 따르면, Darwin의 진화론의 주춧돌은 그가 인간 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추동력으로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를 강조한 것이다. Darwin은 포유류 일반에서 진화되어 왔으나 특별히 인간에게 특화된 “도덕 감각(moral sense)”을 제안하는 데 이것은 처음에 생식의, 부모의, 사회적 본능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두뇌 진화의 흐름은 유기체를 포유류 기능, 즉 변연계 시스템과 연관된 구조들 중심으로 옮겨가게 한다(MacLean, 1990). 이러한 구조의 조합은 또한, 시상하부-변연계 축(hypothalamic limbic axis)에서의 본능적인-정서적 신경 시스템(visceral emotional nervous system)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Panksepp, 1998). 주목할 만한 것은 세 가지 행동의 신호 집합인 간호와 모성의 돌봄, 엄마와 자녀 사이의 듣고 말하는 대화 그리고 놀이이다.

관여의 윤리는 놀이(play), 공황 상태(panic, 사회적 고립에 의한 슬픔과 외로움 등을 포함한) 및 (욕구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돌봄(care)과 같은 친밀감으로 우리를 추동하는 포유류 정서 체계에 기초해 있다. 예를 들어 놀이는 오직 포유류에서만 발견되는 데, 조화와 사회성을 증진시킨다. 패닉 시스템은 포유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포유류의 어린 개체는 부모의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 포유류는 자연스럽게 서로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고립 상황에서 행동 불안과 소리로 고통을 표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에게 적응에의 압력과 권위에의 복종은 고립에의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정서 시스템의 기능은, 안전윤리와 달리,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구축되며, 이후에 계속되는 어린 시절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Schore, 1994). 포유류의 정서 시스템은 삶의 첫 해 동안 틀 잡히게 되는데, 이는 Bowlby의 애착의 인성이론(ethological theory of attachment)에 드러난 바와 같다. 다른 유인원들과 같이 인간은 양육 경험의 결과 중요 양육자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애착의 과정과 여기에 대응하는 뇌 형성은 특정한 아동 양육 환경 속에서 서로 의존적

246) 정창우(2012), op. cit., p.341 참고

247) D. Narvaez(2007), op. cit., pp.100~103 참고

이다. 포유류 두뇌의 정서 회로를 발달시키기 위한 유아와 어린 시절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왔다. 유아의 신경 시스템은 특히 애착관계를 통한 경험에 의존하게 되며, 양육자로 하여금 “외부의 신경생물학적 조절자”로 행동하도록 해 두뇌가 사회적으로 형성될 수 있게 된다. Lewis와 동료들(Lewis et al., 2000)은 포유류 두뇌가 어떻게 “변연계 공명(limbic resonance)-두 포유류가 서로의 내면 상태에 맞추어 가게 되는 상호적인 교환과 내부적 적응의 조화”능력을 발달시켜 가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게다가 포유류의 신경 시스템은 상호적인 조화 시스템의 신경생리학적 안정성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애착은 근처의 애착 인물과의 조화에서 나타나게 된다. 포유류 신경 시스템은 ‘자가 조립(self assembly)’이 불가능하므로, 중심적으로 조화를 이룬 변연계 제어(limbic regulation)와 다양한 부분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유류는 매일의 사건들 속에서 쉽게 정상 상태를 벗어나 버리는 오류투성이의 시스템을 갖고 성장하게 된다.

이제 관여 윤리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sup>248)</sup> 관여윤리에는 관여 평온(engagement calm)과 관여 불안(engagement distress)이 포함되는데, 전자는 이기적인 자기 이익 추구가 최소화되면서 사랑/배려/애착,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매 순간을 사는 존재’에 초점을 맞춘다. 후자는 공감의 강하지만 자기 규제적 시스템이 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넘치는 애착 혹은 배려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상태를 의미한다.

상기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애착은 관여 윤리의 기능에 있어 토대가 된다. 비록 진화가 사회성과 도덕적 행동을 위해 준비되어 왔다고 해도, 발달시기 동안의 적절한 양육은 성공적인 사회적 관계, 문화적 관계성과 도덕적 기능을 위한 두뇌 회로의 정상적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 두뇌는 보상-추구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사회적 관계로부터 주로 보상을 획득하도록 진화되어 왔다(Nelson & Panksepp, 1998). 적절한 양육과 함께 관여의 윤리는 충분히 발달되며 이는 동정심과 개방성, 관용의 가치로 이어지게 된다. 배려적 양육 경험이 결여된 유아는 일탈적인 두뇌 구조와 타인에 대한 적대심과 공격의 증가를 야기하는 두뇌-행동 장애(brain-behavior disorder)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관여(engagement)가 도덕적 행동이면의 주된 동력이 된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인원들에게 있어서도 공감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de Waal, 1996, 2006). 게다가 2차 세계대전 동안의 대부분의 유대인 구조자들은 “배려가 (구조)행동을 이끌어낸 것”이다(Oliner, 2002). 이들 대부분은 “가여움, 자비심, 관심과 애정”에 의해 동기화되었다. 그러나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공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음에 다루게 될 상상의 윤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피질(neo cortex)에만 집중해 왔다.

248) 정창우(2012), op. cit., p.341 참고

마지막으로 살펴 볼 TET의 윤리적 정향은 바로, 상상의 윤리(The Ethics of imagination)이다.<sup>249)</sup> 진화에 있어 세 번째 주요한 두뇌 형성은 신 포유류의 신피질 및 연관된 시상 구조(thalamic structure)와 관련이 있다(MacLean, 1990). 시상-신피질 축(Panksepp, 1998)에서의 이 의미론적-인지적 신경 체계는 외부 세계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문제해결과 숙고적인 학습을 위한 능력을 제공하게 된다. 전두엽은 인간 진화의 정점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숙고적인 추론의 자원이 된다. 한편 감정이 없는 사고(thinking without feeling)는 누군가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 그 판단의 의미를 반드시 느껴야하기(must feel the meaning of judgement) 때문에, 몇몇의 두뇌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그리하듯이 판단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Damasio, 1999). “사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고 느끼기 때문에 생각하게 된다(Konner, 2000). 비록 스스로 감정을 생산해 낼 수는 없지만, 전두엽은 감정을 위한 최고의 중심으로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두뇌의 더 오래된 영역에서의 원시적인 정서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 작동하게 된다.

도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PFC, prefrontal cortex)이다. 전두엽은 자유 선택의 상황이나 모호한 상황에서 중요하다. 생애 초기의 전두엽 손상은 반사회적 행동을 야기하며 비도덕적 행동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한다(Damasio, 1999). 모든 구분된 두뇌 단위에 연결되어, PFC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와 유기체 자체 내부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연합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두뇌의 부위이다(Goldberg, 2002). 인간에게 있어 PFC는 최대의 복잡성과 크기(인간 두뇌 피질의 29%, 침팬지 피질의 17%)를 나타내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상의 윤리는 두뇌의 가장 최근에 진화된 부위, 특히 위에서 강조된 PFC와 주로 연관된다. 상상윤리는 개인들로 하여금 두뇌의 오래된 층으로부터 유래한 충동적인 감정적 반응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논리와 이성에 근거한 대안적 행동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러한 능력은 다른 윤리에서 부족한 경향(반성적인 추상화와 도덕성에 대한 숙고)을 보완해 준다. 최대한 작동할 때, 상상 윤리는 관점 채택과 이성적인 논쟁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상상 윤리의 한 유형으로 도덕심리학에서 강도 높게 연구되어 온 숙고적인 추론은 명시적(explicit) 기억에 속해 있으며, 경험과 훈련을 통해 천천히 발달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Piaget와 Kohlberg의 인지발달전통에서 강조되어 온 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인지심리학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인간 결정과 행위가 의식적 조절 없이 자동적으로 이행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Bargh & Chartrand, 1999). 암묵적으로 학습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암묵적 기억 속에 저장되는데, 따라서 명시적인 설명을 위해 활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숙고적이고 의식적인 마음과 “적응적인 무의식(adaptive unconscious,

249) D. Narvaez(2007), op. cit., p.103~107 참고

Bargh et al., 2005)” 혹은 직관적인 마음사이의 구분이 만들어졌다. TET는 도덕 판단 및 의사결정의 실제 작업이 이 “두 가지 마음”의 조화와 관계된다고 본다.

TET에서 상상의 윤리는 관여윤리와 안전 윤리의 직관과 본능을 조화시키는 데 반응하며, 이는 조절되고 암묵적으로 추출된 도덕 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 상상 윤리는 특정 상황의 도덕적 의사 결정에 있어 다층적인 요소(상황적 압박, 맥락적 단서, 사회적 영향력, 현재의 목표와 선호, 분위기와 활력, 환경적 행동 유도성, 자기 이미지와 행동 가능성간의 논리적 정합성, 이전의 역사 등의 요소)를 처리한다.

이러한 상상의 윤리의 하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sup>250)</sup> 여기에는 유리된 상상(detached imagination), 악덕한 상상(vicious imagemation), 공동체적 상상(communal imagination) 등이 포함된다. 우선 ‘유리된 상상’은 마음이 ‘지금-여기’의 존재와 정서로부터 분리될 때 생기는 것으로서 뇌의 기능이 좌뇌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악덕한 상상’은 좌뇌가 지배적이지만 부가적으로 분노 혹은 공격성의 개입이 이루어질 때 나타난다. 악덕한 상상은 무엇이 옳다고 생각될 경우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가질 때, 현재보다는 미래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출 때,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인 도덕적 관계 능력이 부족할 때 흔히 일어난다. 끝으로 ‘공동체적 상상’은 지금 함께 있지 않은 타인들과의 연결감을 위한 능력이며,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깊은 친사회성에 따른 행동의 현실적 결과를 내다보는 능력을 서로 결합해 준다.

한편 이러한 상상의 윤리는 최소한의 두 가지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본능과 직관의 요구에 대해 “하지 않을 자유”를 통해 철회하는 능력(Cotterill, 1998)인데, 이 능력은 인간이 학습과 의지를 통해, 어떤 자극이 정서적 각성이나 행동 순서를 유발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Panksepp, 1998). 지성적인 지식을 갖고 도덕성에 관해 숙고하는 능력을 가질 때 개인은 무엇이 덕스럽고 사악한 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되고, 덕과 악덕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에 비하여 더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숙고적인 마음은 직관적인 마음을 형성할 좋은 환경에 대해 고려하고 숙고할 수 있게 하는데(Hogarth, 2001), 이러한 능력은 최적의 도덕적 전문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상상윤리의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행동의 틀을 잡는 능력이다. 이것은 특정 삶의 내러티브에 의해 준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거의 행동이나 결집된 에너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전형적으로, 해석자는 문화적인, 가족의 또는 다른 친밀한 집단의 내러티브들을 차용하게 된다. 사회적 내러티브는 개인적 내러티브에 비해 훨씬 더 정제되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행동을 추동한다. 예를 들어, Eidelson과 Eidelson(2003)은 광범위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집단을 갈등으로 몰고 가는 다섯 가지 신념을 추출해 내었다. 놀랍지 않

250) 정창우(2012), op. cit., p.341 참고

제도, 안전 윤리를 야기하는 ‘취약성, 불신, 난감함, 불공정 그리고 거만함’의 다섯 가지 self-narrative들은 개인차원 혹은 그룹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것이었다. 반면에 개인적인 혹은 문화적 내러티브를 통한 의식적 심사숙고는 뇌의 오랜 지층을 반영하는 정서적 반응을 증진 혹은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숙고적 마인드는 훈육과 학교 교육으로부터 특수한 원리들을 학습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숙고적 학습은 삶의 경험으로부터 체득한 더 깊은 무의식적 이해를 능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상윤리는 다른 윤리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작동하게 된다.

관여윤리와 관계된 두뇌 영역과 마찬가지로, 상상 윤리에 관계된 두뇌 영역의 발달은 역시 양육적인 환경을 필요로 한다. PFC와 그것의 특수한 단위는 충분한 성숙에 수십 년이 걸리며 초기와 후기의 발달상의 환경적 인자로부터의 손상 대상이 된다. PFC는 알콜 폭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같은 행동 선택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데 이는 일상적인 문제 해결 동안에도 PFC의 활성화를 억제시켜 정상적인 두뇌를 공격적인 범죄자의 뇌처럼 보이도록 만든다(Mathews et al., 2005). 성숙한 두뇌의 발달은 도덕 표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상상윤리에 필수적인 집행 기능에 있어서나 관여 윤리에 필수적인 정서 조절 시스템이 그러하다. 안전 윤리는 관여윤리와 상상윤리가 양육자와 공동체에 의해 빈곤하게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디폴트 시스템이다. 상상윤리는 다른 어떤 윤리보다 더 많은 도덕적 감각을 제공한다. 비록 인류는 먼대면 관계를 더 선호하고 현존하지 않는 존재(예를 들어 미래세대)를 상상하는 데 어려움을 갖도록 진화되어 왔지만, 상상윤리의 작업은 즉각적인 관계를 넘어 확장되는 공동체적 감각의 수단을 제공해 준다. 다윈의 도덕 진화에 이어, 관여의 윤리가 상상의 윤리와 연계될 때 인류는 가장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 다음 <표-4>는 이제까지 논의했던 안전윤리, 관여윤리, 상상윤리의 관계를 비교한 것이다.

<표-4> 삼층 윤리의 비교<sup>251)</sup>

	안전 윤리	관여 윤리	상상 윤리
	■ 타고난, 그러나 형성된 본능	■ 후성 유전적, 가소성 있는 직관	■ 추상화 능력, 계발된 심의와 내러티브
지배적인 두뇌 부위	두뇌 줄기, 하부 변연계	상부 변연계와 우반구 기능, 조절 체계	전두엽
특징	-관례·전통에 초점맞	-지속적 경험을	-논리적이고 상상적인

251) D. Narvaez(2014), “Neurobiology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morality: evolution, culture, and wisdom”, New York: W.W.Norton & Company. p.192, 추병완(2016), op. cit., p.419에서 재인용

	춤, -전례에 의존함, -지배·지위를 향한 투쟁	위한 사회 정서적 기억의 자리, -현재 순간에서의 정서적 자아	문제 해결, -예언, 계획, 과거의 자 아, 미래의 자아
<b>가소성</b>	폐쇄 체계, 조건화에 달려 있음, 모방	최초의 두뇌 배선, 조형 가능한 경험 기 반 직관, 미발달 할 수 있음	학습되고 구성된 이해, 경험에 의해 미발달 또 는 손상을 입을 수 있음
<b>기본 정서</b>	공포, 분노, 탐색, 패 닉, 분리불안, 슬픔, 개 인적 고통	돌봄, 놀이, 경탄	잘 발달했을 경우: 피질 하부 정서 부위의 조절자
<b>스트레스에 대한 반응</b>	싸움, 도망, 얼어 붙음 또는 연약함	돌봄과 친구가 되어줌	분리(정서와 기억으로부 터의 이탈)또는 더 높은 의식
<b>매력적 신조</b>	권위주의, 파시즘, 생 존주의	공동체주의	좌반구 지향적-제국건 설, 우반구 지향적-세계 시민성

### (3) 완전한 도덕적 인격의 형성

위에서 살펴보았던 TET의 세 가지 윤리의 효용성은 가끔 동시에,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도덕적 가치의 다원성으로 인하여 ‘도덕적 양면가치(moral ambivalence)’를 발생시키게 된다(Wong, 2006). TET는 상황(situation)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윤리적 정향을 점화시킨다고 보는데 반해, 도덕적 인격에 대한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는, ‘맥락에 따른 개인(person by context)’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질적인 표식(dispositional markers)을 찾고자 한다. 즉, 특정 환경이 개인들로 하여금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윤리를 활성화시키도록 압박한다. 동시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윤리를 향한 어린 시절과 삶의 경험들로부터 유인(誘因)된 기질적인 경향성은 개인의 행동에서 상황의 힘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Narvaez는 세 가지 윤리적 정향을 촉발시키는 직·간접적 요인으로 개인의 기질적인 경향성(dispositional tendency)과 상황적인 점화(situational priming)의 두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sup>252)</sup>

우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윤리를 지향하는 기질적인 경향성은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 동안에 광범위한 환경적 지지로부터 발달하게 된다. 어린 시절 동안에 건강한 두뇌 발달이 가능했다면, 개인은 보통 타인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공감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관여 윤리에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은 생애 초기에 상호성과 정서적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위한 체화된 경험과 감각 운동적 기억

252) D. Narvaez(2007), op. cit., pp.107~109 참고



(sensorimotor memory)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강한 애착과 공감적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개방된, 수용적인 이성-정서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의 경우 공감적 느낌이 분노나 적대성에 비해 더 접근가능성이 높고, 더 적절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폭자는 광범위한 고통의 어린 시절 경험에 기초하여 불안전의 기본적 감각을 갖게 될 수 있다. 성격이 안전윤리에 의해 지배받게 된 개인의 경우 트라우마나 양육의 부주의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두뇌’를 갖게 되었거나 부적절한 감정적 양육으로 인해 좌뇌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폐쇄된 것일 수 있다. 안전 윤리는 부적절한 양육뿐만 아니라 가혹한 양육에 의해서도 강화될 수 있다. 후자의 양육스타일은 권위주의로 이어지게 되며, 안전윤리와 관계된 공포와 분노 회로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극단적인 안전 윤리 지향은 인간 본성의 공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위계적인 측면과 맞아 떨어지게 된다. 사회 집단은 위협과 관여 윤리를 억압하는 태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경우 안전 윤리를 강화하게 된다. 안전윤리가 사회적 규범일 때, 비 배제성은 달갑지 않은 메시지가 된다. 생태학적인 환경(개인과 맥락이 상호작용할 때)의 상황적으로 지각된 위협이 증가할 때 부족 혹은 내집단 안전을 지향하게 되며 초기 경험이 기질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두뇌”를 만들어 낼 때 자기 보존의 방식이 만연하게 된다. 삼층 윤리는 인간 본성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한다.

한편 상상의 윤리에 의해 지배되는 개인은 즉각적인 자기 이익을 넘어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 대안적인 사회적 체계를 개념화하고 도덕적 문제에 대해 공정하게 사고할 수 있게 되며, 위해적인 본능과 직관에 맞서서 행동하거나 안전 윤리를 야기하는 환경에서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앞서서 지적했듯이, 위협이 지나치고 관여 윤리가 저조할 때, 상상윤리에 의해 지배되는 인격은 안전과 지배를 최대화하기 위한 창의적인 수단을 상상하는 것에 가깝게 되어, 부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기 쉽고, 강한 존재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그/그녀의 최악의 본능과 직관에 반응하고, 아마도 도덕적으로 분리되고 말 것이다.

다음으로 세 가지 윤리적 정향을 촉발하는 상황적 점화(situational priming)대에 살펴본다. 몇몇이 지적했듯이, 상황의 힘은 자주 과소평가되어왔다(Doris, 2005; Zimbardo, 2007). TET는 상황 혹은 맥락이 하나 혹은 이상의 윤리를 점화시킨다고 상정한다. 예를 들어 관여 윤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배려적이며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정말로, 배려적인 학습의 어린이는 더 친사회적이다. 상상 윤리는 역시 소망과 초월을 증진하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특정 윤리가 점화되면, 그것은 행위자의 지각적 민감성, 정서적인 기대, 수사학적 민감성, 행동적 결과 기대, 선호하는 목표 그리고 지각된 행동 유도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안전윤리가 한 개인의 지각적이고 반응적인 체계를 지배하게 될 경우, 행동을 위한 어포던스(affordance)는 자기 이익

과 내집단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중심으로 삼게 된다.

상기에 논의된 세 가지의 윤리는 고유의 덕목들을 갖고 있다(안전윤리: 충성과 용기, 관여윤리: 헌신과 자기희생, 상상윤리: 열린 마음가짐과 절차적 정의). 안전윤리가 행위자의 지각적이고 반응적인 시스템을 조절하게 될 경우, 행동유도성은 자기 이익 추구적이며 내집단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에 집중하게 된다. TET는 관여와 상상윤리 양자 모두가 최적화된 기능을 발휘하고 안전 윤리가 잠잠할 때 인류가 가장 윤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동시에, 어린 시절과 삶의 경험들로부터의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추구하는 기질적인 경향은 개인적 행동에 있어서 상황의 압력과 함께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Narvaez는 분위기(climate)와 관계성(relationship)은 어떤 윤리를 활성화시킬지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Narvaez, 2008b). 따라서 교육자는 교실의 정서적인 분위기를 모니터링 하고, 교사-학생간의 배려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배려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학생들과의 안전한 애착관계의 형성과 변연계 공명(limbic resonance<sup>253</sup>)을 위해 어른들의 관심과 정서적 주의가 요구된다. Narvaez는 이것이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노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sup>254</sup>

## 2) TET와 다양한 이론들의 연관성

여기서는 TET와 다른 이론들 간의 관계에 대한 Narvaez의 해설에 대해 살펴본다.<sup>255</sup> 이러한 연관성을 상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앞서 연구자 나름대로 설정한 학제적 이론의 비판 기준에 따라 Narvaez 도덕교육 이론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TET이론이 배경으로 삼은 학제적 이론들의 종류와 구체적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고, 또한 기존의 도덕심리학 이론들과의 비교를 통해 TET만의 특색을 파악하고, 도덕성에 관한 심리학적 설명력이 탁월한 지 등에 대한 강점 및 약점을 비교적인 시각에서 고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1) TET와 다른 이론들의 관계

---

253) 변연계 공명은 뇌의 변연계로부터 일어나는 깊은 정서적 상태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Scioli, Anthony; Biller, Henry (2009), Hope in the Age of Anxiety, Oxford University Press, p. 154). 이러한 상태는 도파민 순환(공감적 조화의 감정을 증진함)과 노르에피네프린 순환(공포와 불안 및 분노의 정서 상태에서부터 유래하는)을 포함한다.(Lakoff, George (2008), The Political Mind : Why You Can't Understand 21st-Century American Politics with an 18th-Century Brain)

254) D. Narvaez & L. J. Vaydich(2008), op. cit., p.306

255) D. Narvaez(2007), op. cit., pp.109~112 참고

TET는 사회 과학과 신경생물학적 하위 영역을 관통한 현재의 발견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Moll 등(2005)의 도덕인지 신경과학 연구에서 정의된 ‘중심적 동기와 정서 상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TET는 신경생물학 및 인지과학과 결합되어 있다. 진화와 신경회로체계는 이 이론의 골간을 이룬다. 인간 마인드의 이중적 사고방식(숙고적 마인드와 직관적 마인드)이라는 인지과학으로부터의 통찰은 인간의 도덕적 경향성과 오류를 범하기 쉬운 특성에 대한 더 넓은 이해에 기여한다. TET 윤리는 도덕적 반응에서 무의식적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뇌의 배선과 반응도 그리고 시연된 반응 등은 행동을 추동하는 윤리에 기여한다. 정서 조절 및 사회적 즐거움의 두뇌 배선이 흐트러지게 될 경우, 도덕적 직관이 부족하거나 왜곡될 것이며, 더 외부 주도적인 규칙-기반의 도덕적 나침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20세기의 지배적 도덕 발달 이론은 대체로 무의식과 정서를 무시하고 대신에 숙고적인 추론과 외부적인 규칙-기반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ET는 이러한 이론(숙고적 추론을 중시하는 이론)에도 역시 연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외부적인 방향지도(guidance)에 의존하고 내재적 정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Piaget의 타율적인 도덕성은 안전윤리에 비견될 수 있다. 반대로, 관여윤리를 뒷받침하는 체화된 애착의 느낌과 관계적인 도덕성은 Piaget의 자율적 도덕성(규칙은 계약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감각, 합의된 대상은 집단 구성원의 현재의 필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함축적으로 상정된 측면이며 또한 대략적으로 이해는 상상 윤리를 필요로 한다.

III장의 도덕심리학적 배경에서 설명했듯이 Kohlberg는 정의의 의무론적 판단에 따르는 인지 발달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비인신적 딜레마를 이용하여 도덕 발달 연구에 접근했다. Kohlberg의 이론은 그가 고수했던 위계 서열적 단계 순서에 있어 초기 단계로의 발달적 회귀의 문제와 그의 인터뷰 연구에서 후 인습적 추론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추론과 행동 간의 적은 상관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받아왔다. Neo-Kohlberg 이론들은 이것을 포함한 다른 이슈들에 관하여 언급해 왔다. 예를 들어 Rest는 발달은 선호된 추론의 분포도 이동과 관련이 있다는 발달의 연성 단계 모델을 제안했다. DIT(Defining Issues Test)와 같은 암묵적 지식의 시험이 사용되었고, 응답자들 중에 상당한 후 인습적 사고가 발견되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에 관한 암묵적 검증이 명시적 인터뷰에 비해 더 많은 양의 결과물을 산출해 낸 것은 놀랍지 않다. Kohlberg의 도덕 추론 단계는 상이한 TET 윤리와 발달적으로 매치될 수 있는데, Krebs(2005)는 Kohlberg의 단계 1~4를 계통발생적인 단계에 따라 배열했다. 단계 1과 2는 안전윤리에 부합된다. Kohlberg 단계 1의 사고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에 강조점을 두는 것을 반영한다. 단계 2의 사고는 타인에 의해 부과되는

한계에 대한 경계와 함께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Kohlberg의 전 인습 단계와 같이, 안전 윤리는 자기 보존과 개인적 이득에 매우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개인이나 집단이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은 쉽게 사고와 행동을 지배할 수 있고 다른 시스템이나 정보처리 및 행동 통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MacLean, 1990). 암묵적으로, 자기 보존과 내집단 생존은 단계 4의 법과 질서 유지적 사고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단계 4)는 혼란과 무질서를 가라앉히기 위한 경직된 규칙에의 타율적 지향을 반영하지만, 단계 1과 2가 명시적으로 놓치고 있는 더 많은 인지적 정교화와 사회에 대한 의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관여윤리가 Kohlberg의 3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착한 소년 소녀를 지향하고 친구를 만드는 것 등), 이것은 공감 발달(Hoffman, 2000)에 더 잘 부합된다. Warneke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2006)은 18개월 또는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목표가 분명할 때 이타적 도움을 보여주었음을 입증했다. Gilligan(1982)이 제안한 대안적인 배려 윤리는 마찬가지로 관여윤리와 결부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Gilligan의 3 단계(3-phases)는 TET와 연결될 수 있는데, 그녀의 첫 단계는 안전윤리 지향을 반영하지만, TET는 자기 주장을 포함한 자기 보호에 더 많은 의미를 확장시킨다. Gilligan의 두 번째 단계는 관여 윤리 지향을 반영하는데, 그러나 더 극단적이고 거의 병적인 상태를 반영한다. Gilligan의 세 번째 국면은 상상 윤리가 구성하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균형을 제공한다. TET 윤리는 그 최상의 위치에 현존하지 않거나 친숙하지 않은 타인을 향한 공감을 포함하고 있지만 Gilligan 이론은 이러한 측면을 등한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illigan의 이론은 맥락 속에서 정서의 역할과 자아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Kohlberg의 후 인습적인 혹은 원리화 된 추론을 반영하는 단계 5와 6은 가장 정교화 된 형태의 정의 추론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상윤리에 부합된다. 이 단계의 작업은 전두엽 활동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고 따라서 적절한 어린 시절의 기초교육과 발달적 성숙을 필요로 한다. 정당화된 판단의 이면에 매치되는 원리에 있어서, 도덕 판단은 때로는 추론에 접근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연구자들은 발견해 냈다. 그러나 친숙도(familiarity)는 추론적 선택을 설명하는 능력에 있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도덕적 말 막힘 현상(dumbfoundedness)의 원인을 지나치게 성급하게 도덕적 이해 부족에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암묵적 시스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Keil & Wilson, 1999).

비록 정교화 된 추론은 정서적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Kohlberg가 정서를 경시해 온 측면은 지속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아동들의 도덕발달에 대한 취약한 발견을 보여주었던 측면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Greene의 이중과정 모형(dual process model)은 정서 주도(affect driven)와 인지 주도적(cognitive driven) 반응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들은 인신적이고 비인신적 딜레마에 대한 두뇌의 상이한 반응에 대해 설명한다. 전자(인신적 딜레마)는 정서적 부위가 먼저 반응을 일으켰고 다음에 인지적 부위가 반응했다. Small과 Loewenstein(2003)은 희생자가 특정 개인에 관련될 때(personalized), 실험 대상자들은 더 많은 돈을 기부했고 모르는 희생자와 비교하여 알고 있는 희생자에 대해 더 많은 동정심을 나타내었다. Haidt(2001)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감정과 이성, 환경 그리고 다른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매일의 도덕적 의사결정 보다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주어진 경우 도덕성에 있어 정서의 지배를 주장했다.

Hauser(2006)은 자동적이고 접근이 어려운 판단들을 양산하는 내면의 원리로 구성된 보편적인 도덕 문법(universal moral grammar)을 제안했다. TET는 만약 보편적 도덕 문법이 있다면, 그것은 포유류의 정서적 강점과 인류의 인지적 강점, 특히 관여와 상상의 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것이라고 반대로 제안한다. 언어가 그러하듯, 그러한 보편적 도덕 문법은 발달을 위한 전도성의(conductive) 환경을 필요로 할 것이고, 언어발달과 달리 몇몇의 결정적 시기와 함께 연장된 학습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보편적 도덕 문법에 대한 준비는 선천적일 것이지만 사회적 환경은 그것이 발달해 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편 도덕성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는 도덕심리학 이론 전반에 걸쳐 도전을 해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Shweder(1993)가 Kohlberg의 이론이 하지 못한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윤리를 제안한 것이다. 공동체, 신성성 그리고 자율성이 바로 그것이다. TET이론은 Shweder의 세 윤리를 재편성한다. 안전윤리는 자율적 윤리(Kohlberg의 1,2 단계)와 Shweder의 신성성 윤리 양자의 기본적인 관념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종교적 판단의 단계 1은 ‘신은 당신이 복종하지 않을 경우 벌을 줄 것이다.’는 사고와 연결된다. Shweder의 자율적 윤리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파악할 때, 해방의 모색에 초점을 둔다. 신성성 윤리는 단일형으로 볼 때, 외부적 규칙과 법에 따르는 안전에 무게 중심을 둔다. Shweder의 공동체 윤리는 주로 관여윤리와 연계되는데, 비록 원시적인 단계에서 그것은 안전 윤리로 전략할 수도 있다(가족이나 공동체에 반대할 때 너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TET는 다양한 응답이 가능하며, 초기 삶의 10년을 통해 두뇌가 발달되어 감에 따라 한 가지 형식의 추론의 사용으로부터 다른 것의 사용으로 발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측면에서 신경생물학적으로 더 뿌리 깊은 패러다임이 된다. 그것은 또한 추론과 정서 사이의 분리를 두뇌의 발달 불량, 전문성의 부족 또는 안전 지향으로 인한 관여 윤리의 폐쇄 등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 TET는 문화적 윤리의 차이를 상이한 신경생물학적 가치 체계에 기

반 한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관여와 상상을 지향하는 경험은 복잡적이며 광범위하다. 관여의 도덕성은 규칙을 배우는 것으로만 시작되지 않는데, 그것은 “사회적 공간의 구조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지(Churchland, 1998)”, 무엇이 좋고 썩 좋지 않은 행동인지에 관한 무의식적 “신체적 표지(Damasio, 1994)”를 발달시킴으로써 그리고 만족하는 사회적 삶을 위한 타인들과 변연계 공명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과 같은(Lewis et al., 2000) 생리적인 활성화 패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체화된(감각동작적인) 구조는 경험으로 인한 실체이며, “경험상의 구조가 개념적 이해와 이성적 사고를 동기화한다(Varela, 1992;1999)”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인지적 구조에서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인지 구조 역시 “감각 동작적 활동의 반복되는 패턴(Varela, 1992;1999)”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은 아동과 관계된 역동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어나며 상호적으로 변형된다.

## (2) TET와 후성유전학

이제 화제를 전환하여 신경생물학에서 ‘후성유전학(epigenome)’적 관점이 TET 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 연관성에 대한 Narvaez의 설명을 제시해본다.<sup>256)</sup> 인간을 예측하고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에 있어 수십 년간 유전자가 가장 많이 주목받아왔지만, 특이한 질병의 근원을 규정하는 것 외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최근에, 관심은 “후성 유전학(epigenome)”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는 유전자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힘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인격과 기능에 있어 유전자를 중심적인 인자로 가정하는 대신 후성 유전이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느냐는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진화 과정에 우연히 결합되어 왔다. 후성유전은 유기체의 물리적이고 심리학적 기능이 수태이후로부터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해 내고 있다.

그렇다면 도덕적 기능에서 후성유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후성유전과 발달적 가소성은 도덕 발달과도 잘 결합된다. TET는 초기 삶에 있어서의 도덕적 성향에 있어 신경생물학적으로 관련된 영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TET는 초기 발달과 후성 유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MacLean의 삼층 두뇌이론 및 Panksepp의 정서 신경과학이론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최적의 인간 발달에 관한 신경생물학적 연구와 진화론적 과학을 서로 접목시켜 얻어낸 증거들을 결합해 내고 있다.

안전윤리는 추체외로의 신경시스템 및 포유류의 생존과 관련된 하부 변연계와 연계되어 있다. 이것은 자신 혹은 개체에 대한 지각된 위협에 의해 촉발되며 스트레

---

256) D. Narvaez(2012), op. cit., p.146

스 반응 시스템과 ‘공격 또는 회피(fight or flight)반응’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안전 윤리는 개인이 이러한 본능들(자기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거나 강화하려는, “병커(공격적인)” 지향 또는 “윌 플라워(수동적인)”지향에 해당)로부터 도덕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도덕적 행동을 선택할 때 활성화된다. 초기의 적박한 양육과 같이, 환경이 만성적으로 위협적이라면, 개인들은 빈곤한 애착 또는 빈곤한 친 사회적 감정 회로를 형성하게 되고 자기 보호가 인격의 지배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공격성의 사용 가능성 및 도덕적 상호작용을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상적인 방식을 중단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관여의 윤리는 주로 사회적 정서가 탑재된 포유류의 상부 변연계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것은 초기 삶에 있어 간 주관적이고 상호적인 조절과 “변연계 공명”을 통한 양육자와의 공동 구성을 필요로 하며, 마음에서 마음으로의 조화는 포유류의 두뇌 기능에 필수적이다. 상호적인 공동 조절의 패턴은 정서적인 유대와 친사회적인 감정 회로를 촉진시키며, 이는 옥시토신과 같은 유대 호르몬의 내분비계 활성화를 촉진한다. 관여의 윤리는 특히 배려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을 통한 타인들과의 면대면 정서 접촉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지지적인 양육과 트라우마의 부재를 통해 관여윤리에 내재된 시스템은 충분히 발달하고 공감과 개방성 그리고 관용의 가치를 촉진시킨다.

상상의 윤리는 두뇌 부위 중 가장 최근에 진화된 부분인 전두엽과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순간에서 한 발 물러나 대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초기 양육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여타의 민감기 동안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PFC는 20대 중반 정도까지 완전하게 발달되지 않는다. 초기 양육이 최적화되지 못했을 때, PFC의 한 부분인 궤도 전두 피질(orbital frontal cortex)은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개인은 미발달된 친사회적 정서를 갖게 될 것이다. 상상 윤리는 현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숨겨 있게 적응할 수 있는 전전두엽 역량을 활용하며 즉각적인(immediate) 것을 넘어선 관심을 표명한다. 친사회적 정향 및 인간의 최적의 추론 역량의 활용이 함께 할 때, 공동체적 상상을 나타내게 된다.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때, 유리된 상상이 된다. 안전윤리의 자기중심적인 감정과 결합할 때, 사악한 상상이 결과한다.

또한 후성유전학적 관점의 강조와 관련하여 Narvaez가 TET의 안전윤리, 관여윤리, 상상윤리를 바탕으로 최고의 규범적 정향으로서의 마음챙김 도덕성을 제안함에 있어 마음챙김 도덕성을 기르기 위해 도덕적 변화를 야기할 조건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 볼 만 하다. Narvaez는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조건이 인류의 진화 적응성 환경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하기를 호소하고 있다. 홍적세의 EEA에 있어서 인간은 작고, 밀착된 집단에서 살았으며, 당시 좋은 삶과 생존·재생산·번성하는 삶들은 동일한 것이었다. 반대로 문명화된 세계에 있어서 개

인들은 비록 그들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변형되고 나쁜 삶을 산다할지라도 신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지만, 상호 반응적인 배려 제공자들의 부유한 토양이 없이 시작하는 삶은 아동에게 사회-도덕적 작용에 있어 알파한 뿌리, 빈약한 자기 규제, 자기 정향의 신경생물학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특징을 가진 아동은 성인과 규칙에 대해 덜 순응적이며, 본인들과 그들이 사는 공동체에 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되며,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자기 규제에 보다 제한된 에너지를, 보다 많은 양을 소비해야만 한다. 따라서 최적의 도덕적 형성을 증진하고 방해받은 도덕적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모성 및 가정적 스트레스 제공자를 경감시키는 유형의 생물학적으로 지지적인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한다.<sup>257)</sup>

### 3) 규범적 지향으로서 ‘마음챙김 도덕’

3항에서는 Narvaez가 TET를 발표하고 난 뒤, 도덕의 최고단계로서 하위 도덕들을 통합할 수 있는 도덕체계를 구안하는 데 공을 들이면서 그 결과물로 제시한 ‘마음챙김 도덕성(mindful morality)’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sup>258)</sup>

Narvaez는 TET를 도덕 동기화 정신구조(moral motivational mindsets)라고 규정하면서, 각각 윤리에 대해서 「(1) 본래적으로 형성된 본능, (2) 후생적인 본능, (3) 계발된 숙의와 서사」<sup>259)</sup>로 설명한다.<sup>260)</sup> 그런가 하면 그녀는 TET의 형성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생물-사회적 문법’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안전윤리를 일인칭 도덕, 연관윤리를 이인칭 도덕, 상상윤리를 삼인칭 도덕으로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특히 상상윤리 부분을 보다 정교화 하는데<sup>261)</sup>, 이를 유리된 상상 혹은 악덕한 상상, 공동체적 상상 그리고 마음챙김 도덕으로 구분한다. 유리된 상상은 마음이 ‘현재 여기에서의 정서’와 존재함으로부터 해리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데 그것은 기능이 좌뇌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McGilchrist, 2009). 그러한 지식화된 도덕은 추상화를 도덕 문제의 해결, 풍부한 맥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삶의 단면들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도덕은 일종의 절차와 같은 것으로 저급화된다. 또 좌뇌가 지배적이면서 분노에 의해서 가열되는 경우, 그 결과는 악덕한 상상을 초래하는 바, 그것은 권력에 대한 영리한 추구에 의해서 유도된 것이다. 이 자기중심적 도덕은 병커 안전보다 더 정교하고 반사적인 공격성을 띤다. 마지막

257) 박장호(2012), op. cit., p.224 참고

258)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정창우(2012)와 박장호(2012)의 논문이 있다.

259) (1)은 안전의 윤리에, (2)는 관여의 윤리에, (3)은 상상의 윤리에 각각 해당된다.

260) 박장호(2012), op. cit., pp.217~221 참고

261) 상상윤리의 하위 유형(유리된 상상, 악덕한 상상, 공동체적 상상)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pp.157~158에서 다룬 바 있다.



으로 공동체적 상상은 현재하지 않는 타자들과의 연관의식 능력을 가리킨다. 그것은 기초에 자리한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깊은 친화성을 지닌 잠재적 행동의 현실주의적 결과를 그려볼 수 있는 능력과 통합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Narvaez는 ‘마음챙김 도덕(mindful morality)’을 설명하면서 도덕 발달에 대한 규범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가장 모범적인 도덕적 정향을 나는 마음챙김 도덕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상호주관성과 타자에 대한 관계 지움(관여 윤리)을 경험에 근거한 추상 능력들(공동체적 상상)과 묶는다. 마음챙김 도덕은 두뇌의 우뇌와 좌뇌를, 직관과 의식적 이성, 정서와 추상을 조화시킨다. 이것은 ‘도덕적 지혜(moral wisdom)’이다. 마음챙김 도덕은 다른 윤리들의 직관과 본능들을 인도하며, 직관에 대해 ‘자유가 원치 않는다.’는 것, 즉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경솔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에게 이야기하거나 충동을 멈추는 능력으로 맞서게 한다.<sup>262)</sup>

요컨대 TET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덕적 정향은 ‘공동체적 상상’과 ‘관여윤리’가 결합된 상태인 ‘마음챙김 도덕’이다.<sup>263)</sup>

< 표-\* > 삼층 윤리의 도덕적 정향<sup>264)</sup>

■ 삼층 윤리: 주요 유형 및 하위 유형
<b>■ 관여 평온과 공동체적 상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챙김 도덕(도덕 지대)</li> </ul>
<b>■ 상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된 상상(지성적 도덕)</li> <li>▪ 악덕한 상상(독선적 도덕)</li> <li>▪ 공동체적 상상(아가페 도덕)</li> </ul>
<b>■ 관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여 불안(상호의존적 도덕)</li> <li>▪ 관여 평온(조화의 도덕)</li> </ul>
<b>■ 안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플라워 안전(수동적 도덕)</li> </ul>

262) D. Narvaez(in-press-b), 『Moral Formation: Neurobiology and Virtue Cultivation』, In M. Jones, P. Lewis, and K. Reffitt(Eds), Character, Practical Wisdom and Professional Formation Across the Disciplines Macon, GA:Mercer University Press., p.89, 위 논문에서 재인용

263) 정창우(2012), op. cit., p.343

이 도덕은 TET 전 수준들의 통합으로부터 형성된다. 이 도덕은 상황에 대한 정향과 타자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한다. 이 도덕은 특히 자아 내에서 경쟁하는 윤리적 정향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자세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감정의 역할에 대한 지식, 공감, 타자의 전망에 대한 판단 중지 및 채택 능력을 포함하는 친 사회적 감정들에 대한 경향성,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지, 순간에 대한 주의 집중과 사회적 편견 통제들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4-구성요소 모형에 속하는 처리 기술들에 기초한다.<sup>265)</sup> 또한 Narvaez의 마음챙김 도덕은 시젤(Siegel, 2009)의 마음챙김 자각 연구를 원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Siegel에 의하면 마음챙김 자각은 인간 복지를 지향하게끔 두뇌 기능, 정신 활동, 그리고 대인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통합의 토대적 과정들을 촉진하는 ‘내적 조율’을 통해서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야기한다. 체계의 분화된 요소들을 연결시키는 통합은 두뇌, 정신, 대인 관계 등에서 에너지와 정보의 유연하고, 적응적이며, 정합된 몰입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개인을 기억의 하향적 연합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마음챙김은 활력적이며 탄력 회복성을 갖는 자아의 새로운 감각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챙김 도덕은 인간주의 발달 심리학이나 최근 긍정심리학의 주요 내용들과도 일치한다(Siegel, 2009. 5~6).<sup>266)</sup>

그렇다면 마음챙김 도덕 정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Narvaez는 마음챙김 도덕의 육성을 성숙한 도덕기능 개발과 관련하여 정리한다. 성숙한 도덕 기능은 여러 기술들과 능력들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바, 그런 것들에는 첫째, 기본적인 사회화(특히 정서적 자기-규제 능력), 둘째, 자기 발달에 유익한 기본 습관화 경향성, 셋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할 때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직관과 이성의 오류가능성을 의식하면서 필요할 때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넷째, 공동체 조직과 같은 일부 영역에서 윤리적 전문성을 실천하는 바,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판단과 윤리적 초점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sup>267)</sup> 그리고 다섯째, 동시대가 요구하는 높은 도덕적 지성으로서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긍정적 결과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포함된다.<sup>268)</sup> 다음 표는 마음챙김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나타내고 있다.

264) Ibid. p.340

265) 박장호(2012), op. cit., p.218

266) Ibid. p.221

267) IV장 2편에서 다루게 될 통합적 도덕 교육 모형에서 제안하는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의미한다.

268) Ibid. p.223

**<표-5> 마음챙김을 위한 기술과 지식<sup>269)</sup>**

<p align="center"><b>■ 지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T 윤리 유형 및 하위 유형 (자아 내에서 다양한 도덕적 마음 자세들(mindset) 간에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지식)</li> <li>▪ 어떻게 정서와 습관이 마음자세를 촉진시키는가에 대한 지식</li> </ul>
<p align="center"><b>■ 성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인 정서를 촉진하는 것</li> <li>▪ 다른 사람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단내리지 않는 것</li> <li>▪ 타인에 대한 동정심</li> <li>▪ 타인의 관점 채택</li> </ul>
<p align="center"><b>■ 마음챙김을 위한 기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에 대한 자기 인식</li> <li>▪ 매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li> <li>▪ 습관 형성에 대한 자기 모니터링(예: 사회적 편견 통제)</li> </ul>
<p align="center"><b>■ 윤리적 과정 기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판단, 윤리적 초점, 윤리적 행동</li> </ul>

<sup>269)</sup> 정창우(2012), op. cit., p.344

## 2.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IEE)

Narvaez는 최근의 인지적이고 신경 과학적 이론의 발견들 덕분에 인간 정신 생물학적 본성의 비밀을 밝히는 데 상당한 진보를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270)</sup> 그녀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학제적으로 활용하여 도덕적 인격과 도덕적으로 능숙한 시민을 형성시키기 위한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이론은 ‘적응형 윤리적 전문성(Adaptive Ethical Expertise)’이다. 이것은 윤리적 전문성의 발달을 위해 숙고적인 마인드(deliberated mind)와 직관적인 마인드(intuitive mind)를 통합하고 있다. 두 번째 이론은 ‘통합적 도덕 교육 모형(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model, 약칭 IEE)’이다. 이것은 모든 단계의 학습적 교수(academic instruction)의 통합을 지향하는 점진적 모형(step by step model)이다. 세 번째로, ‘다윤리 이론(Multi-Ethics Theory, 약칭 MET)’은 신경생물학적 과정에 기초한 도덕 발달을 설명하는 보다 포괄적인 이론이다. 이것은 도덕 교육에도 많은 함의점을 던져준다. 상기에 제시한 세 가지 이론은 도덕적 인격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장에서는 Narvaez가 도덕 발달을 설명하고 도덕 교육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 제안하는 위의 세 가지 이론 중 적응형 윤리적 전문성과 통합적 도덕 교육 모형(IEE)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볼 것이다.<sup>271)</sup>

### 1) 적응형 윤리적 전문성(Adaptive Ethical Expertise)

이 절에서는 Narvaez가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학제적 접근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도덕 교육에 관해 어떤 관점을 토대로 자신만의 이론적 입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덕 교육에 접근하는 그녀만의 핵심적이고 고유한 키워드는 바로 성숙한 도덕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윤리적 전문성’이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전문성 논의를 토대로 여타의 학문적 결과물들을 소화 및 흡수하여 ‘윤리적 전문성’의 이론적 토대를 세워 도덕 교육에 접근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sup>272)</sup> 이러한 작업은 다음 절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Narvaez의 도덕 교육 모델인, 통합적 도덕 교육 모형(IEE)의 이론적 원형이자 골간(framework)을 파악하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

270) D. Narvaez & Bock. T (2014), op. cit., p.2

271) MET은 기본적으로 앞서 상세하게 다루었던 TET와 이론적 요지와 제시된 지지근거 및 도덕 발달과 도덕 교육에 주는 함의점이 거의 유사하기에 여기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을 주지해둔다.

272) D. Narvaez(2010b), op. cit., pp.171~174

### (1) 적응형 윤리적 전문성(adaptive ethical expertise)

Narvaez는 기존의 도덕심리학이 특별한 종류의 의사결정에 대한 검증(하인즈 딜레마, 트롤리 문제, 개를 식용으로 먹는 문제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왔다고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윤리적 전문성에 관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일 매일의 윤리적 대처(coping)”에 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다(Dreyfus & Dreyfus, 1990). 두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 대한 연구로부터, Goldberg(2002)는 의사결정에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직적이고 종적인(verdical) 의사결정과 적응적(adaptive) 의사결정이 그것이다. 수직적인 의사결정에서, 매개변수는 미리 선택된다(일반적으로 심리학 실험에서 사용되는 접근법, 예를 들어 하인즈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반대로 ‘적응적인(adaptive)’ 의사결정은 실시간 상황 속에서 복잡한 자극의 배열 속에서 의미를 만드는(making sense) 것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과정에 있어 입력에 관한 분류와 우선시 및 가능한 행동과 효과의 평가, 직관과 추론 및 성공적인 행위 실천으로 이끌 다른 기능 다수에 대한 점검 등이 요구된다. 한 영역에서 적응적인 전문성은 혁신을 이끌게 된다(Hatano & Inagaki, 1986).

매일의 윤리적 대체는 윤리적 전문성의 상위 기술에서 볼 수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4 구성요소의 하나 혹은 이상의 영역에서 상세하게 기술된다. 윤리적 민감성에서의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빠르고 정확하게 도덕적 상황을 독해하는 데 있어 뛰어나며, 타인의 관점을 채택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추론을 활용하여 복잡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는 예를 들어 규칙, 의무 그리고 특정 상황의 결과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윤리적 동기화의 전문가들은 삶을 존중하며 헌신을 깊이 있게 한다. 윤리적 행동에 있어 전문가들은 어떻게 목표를 향해 갈지의 방법을 알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윤리적 행동이 완수될 수 있도록 과정에 머무르며 필요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한다. 특수한 분야에서 탁월성을 지닌 전문가들은 그에 대한 더 많은 양질의 조직화된 지식을 갖고 있고, 고도로 조절된 지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깊은 열망을 안고, 최소한의 고도로 자동화된 힘이 덜 드는 반응을 활용한다.

한편 사회적·도덕적 전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발달한다. 초기의 경험은 직관 및 이후의 사회적, 인지적, 도덕적 영역의 추론을 위한 궤적을 확립하게 된다. 반복된 경험은 만성적으로 접근되는 구성물이 될 지각과 개념의 발달을 촉진한다(Narvaez, Lapsley, Hagele & Lasky, 2006). 윤리적 전문성을 위한 교육은 지지적인 풍토, 사례와 기회에의 몰입, 사실과 기술에 집중하기, 절차의 실행 연습 그리고 맥락을 넘나드는 통합 등을 포함한 자연적인 학습을 모방하는 교수법의 몇 단계를 거친, ‘초보자에서 전문가로의 접근법’을 통하여 가장 잘 획득될 수 있다.

전문가를 위한 훈련은 전문 영역에 대해 암묵적이며 명시적인 이해를 구축하며,

숙고적이고 직관적인 마인드 모두에 관여한다. 해당 영역에 대한 몰입은 설명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숙고적인 이해가 동시에 길러질 수 있다. 그들의 실행은 집중적이고, 광범위하며 맥락화 된 상황 기반의 경험을 통해 지도된다. 학습 환경은 잘 구조화되어있고, 적절하고 정확한 피드백이 제공된다. 전문성 훈련의 과정을 통해 지각은 미세 조정되며, 만성적으로 접근된 구인(construct)으로 발달해 가게 된다. 해석적인 프레임워크가 학습되며 이것은 실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행동 스키마는 고 차원적인 자동성 수준으로 연마된다. 273)

## (2) 성숙한 도덕 기능(mature moral functioning)

한편 Narvaez는 이러한 윤리적 전문성의 논의가 결국은 ‘통합적 도덕 발달이론 (comprehensive moral development theory)’의 거시적 맥락 하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논의의 흐름을 이어간다. 즉, 그녀는 도덕 발달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위한 설명적이고 규범적인 목표로서 ‘성숙한 도덕기능(mature moral functioning)’을 상정하고, 윤리적 전문성 획득이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성숙한 도덕적 기능의 함양에 있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274) 이에 관한 Narvaez의 견해를 살펴본다.

우리는 이제 도덕적 추론이나 도덕적 직관이 발달하는 유기체와 환경, 타이밍, 지속 그리고 상호작용의 강도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길러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만약 도덕적 추론과 직관이 내면의 청사진이 아니라 문화와 경험에 의해 조형될 수 있는 인공물이라면, 규범적인 질문들은 극도로 중요한 것이 된다. 어떤 직관과 숙고적인 기술들을 길러줄 것인가? 사회, 기관들 그리고 가족은 그것들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할 것인가?

발달적인 이론은 반드시 설명적이고 규범적인 측면 모두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며, 최적 기능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간 본성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사실, Piaget의 연구 이후로, 적절성에 함축된 표준이 발달 관념 속에 들어가 있음이 인정되어져 왔다. “누군가 발달의 목표가 특정한 목표지점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그는 단순히 발달의 자연적 경로에 관한 경험적인 요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적이고 규범적인 요구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Lapsley, 1996). 발달 이론은 기술적으로 ‘더 잘, 더 적절한, 더 안정적인, 더 적응적인, 더 바람직한’ 성장의 방향을 함축한다. 발달이론에는 사실적이고 규범적인 이슈가 상호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Narvaez는 포괄적인 도덕 발달이론은 개인과 집단을 위한 반드시 최적의

273) Ibid. pp.171~172

274) Ibid. pp.172~174

또는 성숙한 도덕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을 역설하는데, 여기에는 성숙함을 지향하는 발달 및 발달적인 기제에 관한 설명, 성숙함에 도달하기 위한 처방, 공동의 도덕적 실패에 관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275)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 덕목은 이를테면 협력의 다양한 형태들과 같이, 생존, 재생산, 번영을 증진하는 행동들에 부합된다. 인간이 보다 복잡한 사회를 형성하게 되면서 덕목의 개념은 변화하고 매일의 일상적인 학습 현실에 기반을 두기보다 문화적으로 전도되게 된다. 지금 우리는 한 그룹의 행동이 지구 다른 곳에 있는 상이한 집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계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덕목의 정의는 달라져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세계에서 성숙한 도덕 기능을 정의하는 것은 고대의 도덕적 덕에 대한 관념, 진화된 경향(예를 들어 다윈의 ‘도덕 감각(moral sense)’- 공동체적 삶을 위한 사회적 본능), 전 세계 전통주의자 사회의 대다수의 효과적인 도덕적인 실행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성 및 인간성의 지속가능한 번영에 요구되는 기술(skills) 역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성숙한 도덕 기능은 다층적인 기술과 역량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시간을 통한 검증과 경험적으로 적합성을 지닌 몇 개의 기본적 기능을 언급한다. 첫째, 성숙한 도덕 기능에는 보통 성인의 기대가 반영된 기본적 사회화가 요구되는데, 이를테면 감정 조절을 위한 능력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감정조절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하며(self-focused), 이는 성숙한 기능 발휘를 방해한다. 둘째, 여기에는 자기 발달에 생산적인 기본적 습관과 성향을 포함한다. Aristoteles에 의하면 덕스러운 삶은 자기 발달의 한 측면이다. 세 번째, 성숙한 도덕성의 핵심적 특성은 도덕적 상상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직관과 추론 양자에 대해 오류 가능성에 주의하면서 적절성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넷째, 도덕적 성숙함은 특정 영역에서의 윤리적 전문성으로 나타난다. 결국 오늘날의 윤리적 전문가는 반드시 지속가능한 관계의 네트워크 안에서 유연한 적응을 보여줌으로써 공동체와 자연 세계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이것이 바로 당대의 높은 도덕 지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두 개의 개인 역량과 두 개의 집단 역량이 포함되는데, 개인적 역량에는 습관화된 공감적 관심과 도덕적 메타인지가 있고, 집단적 역량에는 도덕적 대화와 도덕적 직관이 포함된다.

성숙한 도덕적 기능을 구성하는 개인적 역량 중,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은 ‘습관화된 공감적 관심(habituated empathic concern)’이다. 이것은 책임감에 수반되는 타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과 그들의 존엄성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혼합된 것이다(Aron & Aron, 1996, Brown & Brown, 2006). 듀이는 이것을 “도덕 판단에 생기를 주는 틀(mold)”이라고 했다. Boydston은 이것이 필요하지만 도덕 판단을 위해 충분치는 않다고 말한다. 이 주도적이고 협력적인 열린 마음가짐은 도덕적 귀감들이 보

---

275) Ibid. p.172

여주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타주의의 상위 단계의 도덕적 감정으로 묘사된다. 분위기나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타인을 돕는 습관적인 방식은 가난한 자와 불운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훈련된 행동의 유형을 제공한다(Trout, 2009). 그들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바란다. 한편 습관화된 공감은 정상적인 어린이 양육 상황에서 귀납적인 훈육에 의해 조장되는 등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또한 공감은 교육을 통해서도 강화될 수 있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는 학급에서 공감과 친 사회적인 행동은 증가한다.

두 번째로 제시된 개인적 역량은 ‘도덕적 메타 인지’이다. 성숙한 도덕 행위자에게 있어 도덕적 책임감은 그들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데(Blasi, 1984), 여기에는 도덕적 메타인지 기술이 수반된다. 보통, 메타인지 기술은 개인으로 하여금 목표를 향한 과정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필요할 때는 경로를 전환하거나 전략을 수정하고 영역 특수적인 행동을 실행함에 있어 효능감을 갖고 과업을 적절히 수행해나가도록 한다(Zimmerman, 2000). 이와 유사하게 성숙한 도덕 기능은 ‘도덕적 통제’의 소재(moral locus of control), 도덕적 자기 모니터링(moral self-monitoring) 그리고 도덕적 자기 반성(moral self-reflection)을 포함한 도덕적 메타인지 기술에 의존한다. 도덕적 통제 소재는 도덕성에 대한 내재화된 감각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즉 도덕적 자기 헌신을 의미한다. 도덕적 자기 모니터링은 한발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과정(직관과 추론) 및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관점과 조화시키며 편견을 조절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도덕적 자기반성은 도덕적 상상(moral imagination)과 유사하지만, 내심(inward)을 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것은 개인적 동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며, 판단과 신념에 있어서 자민족 중심 혹은 자기중심주의 등 기타 편견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자기기만 및 사실과 경험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Blasi, 2009).

성숙한 도덕 기능을 위한 집단적 역량의 첫 번째는 ‘공동체의 도덕적 대화(community moral dialogue)’이다. 이것은 추론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과 사회 변화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집단 역량은 ‘잘 조직된 도덕적 직관’이다. 이와 관련하여 Trout는 양질의 사회가 지향하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제공과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빈곤한 직관과 추론은 사회적 선을 약화시키며 시민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실수의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경험하도록 한다. 잘 조직된 사회적 직관은 시민사회에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 정의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때문이다.



## 2)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

2항에서는 통합적 도덕교육모형(IEE)의 세 가지 토대 관념에 대하여 살펴본다.<sup>276)</sup> 첫 번째 관념은, 도덕적 전문성의 관념으로 이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해 준다. 두 번째 관념은, 변형(transformation)으로서의 도덕 교육인데, 이는 아동(학생)의 변화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교수(instruction) 및 환경의 불가피한 변화에 중점을 둔다. 세 번째 관념은 협력적이고 자기-실현적인 인간 본성으로 도덕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 맥락을 다룬다는 점이다.

### (1) 도덕 발달은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것<sup>277)</sup>

IEE는 전문성 발달의 관념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성은 실행과 행동에 있어 명확하게 드러나는 정련되고 깊은 이해와 관련된다. 이것은 기술상의 수완(technical competence) 혹은 단순한 지적인 능력(intellectual ability)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문성은 개인의 전(全)능력(full capacities)을 동력원으로 활용하여, 행동으로 덕을 표현하기 위해 목표지향적인 방식으로 동시에 모든 시스템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는 유창함(flowing)이다.

도덕적 전문가 4 구성요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 대해 전체론적 접근을 나타낸다. 윤리적 민감성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도덕적 상황의 독해와 그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한다. 도덕적 판단의 전문가는 복잡한 도덕적 문제를 풀 많은 도구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의무와 결과, 책임감 그리고 종교적 율법에 관한 추론을 사용한다. 도덕적 동기화의 전문가는 그들로 하여금 윤리적 목적을 최우선시 하도록 이끄는 윤리적 자기 통제를 구축한다. 윤리적 행동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목표를 고수하고 윤리적 과업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이행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윤리적 전문가 갖는 특성을 설명한 Narvaez는 이와 같은 IEE의 첫 번째 토대관념이 갖는 도덕 교육적 함의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함의점은 교육자들이 도덕적 행동의 과정과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도덕적 행동은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4가지 과정을 모두 필요로 한다. 도덕적 행동을 완성한 사람은 각 영역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적용한 것이다. 그들은 도덕적 필요를 지각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지에 대해 상상하고 추론했으며, 그들 스스로를 행동 이행에 동기화시켰고, 이것의 완성을 위한 절차를 따랐다. 마치 배지(badge)나 점(birth

276) 본 연구자는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에 대하여 그녀의 논문 그녀의 논문,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2005)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77) D. Narvaez (2005), op. cit., pp.716~719 참고

mark)처럼 특성(trait)은 특정인이 어디에 가든지 드러나는 것과 달리, 상기에 제시된 ‘기술(skill)’은 일상적인 감각에서의 특성(trait)과 동등하지 않다. 이러한 관념(trait)은 경험적으로 지지되지 못한다(Mischel, 1990). 대신에, 기술(skills)은 행동이 ‘개인-환경 특성(person-environment features-사회-맥락적인 기대를 포함한)’이 일치하는 세트에 부합되는 환경 속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경험적 발견에 의해 지지된다(Cervone & Shoda, 1999). 쉽게 말해, 개인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기술은 전체의 두뇌-마음-신체 시스템을 관여시키는 전체론적이고 맥락화 된 이해로서 체화된 인지(Varela, Thomson & Roach, 1991)를 형성하게 된다.

<표-6> 네 가지 과정, 기술, 하위 기술<sup>278)</sup>

감수성(sensitivity)	판단(judgement)	중점(focus)	행동(action)
<b>ES-1:</b> <b>감정 표현의 이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의 확인과 표현</li> <li>▪ 자신의 감정 조정하기</li> <li>▪ 노여움과 공격성 다스리기</li> </ul>	<b>EJ-1:</b> <b>윤리적 문제의 이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수집하기</li> <li>▪ 문제 분류하기</li> <li>▪ 윤리적 문제 분석하기</li> </ul>	<b>EF-1:</b> <b>타인 존중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손하고 예의 갖추기</li> <li>▪ 공격적이지 않기</li> <li>▪ 존경 나타내기</li> </ul>	<b>EA-1:</b> <b>갈등과 문제해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관계의 문제 해결하기</li> <li>▪ 협상하기</li> <li>▪ 개선하기</li> </ul>
<b>ES-2:</b> <b>다른 사람의 관점 채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적 관점 채택하기</li> <li>▪ 문화적 관점 채택하기</li> <li>▪ 정의(justice)관점 채택하기</li> </ul>	<b>EJ-2:</b> <b>준칙(codes)의 사용과 도덕적 기준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칙 특징화하기</li> <li>▪ 준칙을 분별하여 적용하기</li> <li>▪ 준칙의 다양성 판단하기</li> </ul>	<b>EF-2:</b> <b>양심의 함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제(극기)하기</li> <li>▪ 영향력 관리하기</li> <li>▪ 명예롭게 되기</li> </ul>	<b>EA-2:</b> <b>공손하게 주장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욕구에 주목하기</li> <li>▪ 주장기술 형성하기</li> <li>▪ 공손한 수사법 사용하기</li> </ul>
<b>ES-3:</b> <b>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li> <li>▪ 배려 나타내기</li> <li>▪ 친구 되기</li> </ul>	<b>EJ-3:</b> <b>일반적으로 추론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으로 추론하기</li> <li>▪ 건전한 추론 사용하기</li> <li>▪ 추론의 함정 피하기</li> </ul>	<b>EF-3:</b> <b>책임감 있게 행동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 이행하기</li> <li>▪ 훌륭한 담당자 되기</li> <li>▪ 훌륭한 세계시민 되기</li> </ul>	<b>EA-3:</b> <b>지도자로서 술선수범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되기</li> <li>▪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술선수범하기</li> <li>▪ 다른 사람의 조언</li> </ul>

278) D. K. Lapsley & F. C. Power, op. cit., pp.277~278

	기		자 되기
<b>ES-4:</b> <b>다양성에 반응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과 개인차 속에서 일하기</li> <li>▪ 다양성 인식하기</li> <li>▪ 다문화적으로 되기</li> </ul>	<b>EJ-4:</b> <b>윤리적으로 추론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점들 판단하기</li> <li>▪ 표준과 이상에 대해 추론하기</li> <li>▪ 행동과 결과에 대해 추론하기</li> </ul>	<b>EF-4:</b> <b>공동체의 일원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하기</li> <li>▪ 자원 공유하기</li> <li>▪ 이해 함양하기</li> </ul>	<b>EA-4:</b> <b>결정의 실행 계획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으로 사고하기</li> <li>▪ 성공적으로 수행하기</li> <li>▪ 자원의 사용 결정하기</li> </ul>
<b>ES-5:</b> <b>사회적 편견 통제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견 진단하기</li> <li>▪ 편견 극복하기</li> <li>▪ 관용 가르치기</li> </ul>	<b>EJ-5:</b> <b>결과 이해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환경 선택하기</li> <li>▪ 결과 예측하기</li> <li>▪ 결과에 대응하기</li> </ul>	<b>EF-5:</b> <b>삶의 의미찾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에게 집중하기</li> <li>▪ 헌신적 태도 기르기</li> <li>▪ 경이로움 함양하기</li> </ul>	<b>EA-5:</b> <b>용기 함양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려움 다스리기</li> <li>▪ 압력 견뎌내기</li> <li>▪ 변화와 불확실성 다스리기</li> </ul>
<b>ES-6:</b> <b>상황을 해석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규정하기</li> <li>▪ 도덕적으로 인식하기</li> <li>▪ 창의적으로 대응하기</li> </ul>	<b>EJ-6:</b> <b>과정과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와 수단에 대해 추론하기</li> <li>▪ 올바르게 선택하기</li> <li>▪ 과정을 재구성하기</li> </ul>	<b>EF-6:</b> <b>전통과 제도에 가치 부여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을 명확히 알고 가치있게 여기기</li> <li>▪ 사회 구조를 이해하기</li> <li>▪ 민주주의를 실천하기</li> </ul>	<b>EA-6:</b> <b>참을성 기르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고부동</li> <li>▪ 장애를 극복하기</li> <li>▪ 능력을 형성하기</li> </ul>
<b>ES-7:</b> <b>의사소통 잘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하고 듣기</li> <li>▪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사 소통하기</li> <li>▪ 의사소통을 모니터링하기</li> </ul>	<b>EJ-7:</b> <b>맞서서 극복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인 추론을 적용하기</li> <li>▪ 실망과 실패를 다루기</li> <li>▪ 회복방법을 개발하기</li> </ul>	<b>EF-7:</b> <b>윤리적 정체성과 자기 통합성 개발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가치를 선택하기</li> <li>▪ 자신의 정체성 형성하기</li> <li>▪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기</li> </ul>	<b>EA-7:</b> <b>열심히 일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성가능한 목표를 세우기</li> <li>▪ 시간을 관리하기</li> <li>▪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li> </ul>

위에 제시된 기술들은 각 과정에 따르는 전문성의 유형을 나타낸다. 28개의 기술은 도덕성, 발달, 시민성, 긍정심리학의 학문적 연구 결과물에 대한 검토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귀감들(예를 들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전통적인 덕목들(예를 들어 검약, 용기), 현대적 덕목들(예를 들어 자기주장, 회복탄력성)로부터 추출해 낸

것이다. 기술들은 정의(justice) 및 자신과 타인,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을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들의 역량 중 최소 레벨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성인 시민을 전제로 한다.

두 번째 도덕 교육적 함의점은 교사들은 도덕적 덕목과 도덕적 추론 모두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전문성은 추론, 덕, 자율성 그리고 탁월성을 포함한다. 추론은 두 극단 사이에서 중용에 따르는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을 안내해 주는 데, 중용은 해당 상황과 개인에게 적절한 것을 의미한다. 비록 추론과 덕의 공통의 이해가 생리적 과학을 감안할 때 불충분하다. 하지만 추론과 덕은 각각 차례차례 설명되고 재형성될 수 있다. 숙고적인 도덕 추론과 의사결정은 성숙한 도덕 판단에 있어 필수적이다. 숙고적인 추론은 도전받을 수 있고, 변경가능하며,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합리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의식적 숙고적 추론이 우선하며 무의식적 사고가 후속된다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과학의 관점은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가 반전되고 있다(Laykoff & Johnson, 1999; Varela, 1999). 의식적인 마인드는 다양한 무의식의에 대해 부차적인 절차로서의 의사결정 체계이다(Damasio, 1996,1999; Hogarth, 2001; Rever,1993; Varela et al., 1991). 인간을 합리적 행위자로서 보는 공동적 시각은 도전받고 있다. 최근의 심리학적 연구는 인간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합리적 행위자가 아님을 입증한다.(Bargh & Ferguson, 2000). 의식적인 합리적 마인드의 원칙에 의해 추동되는 존재로 인간을 상정하는 대신에 인간은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즉 의사결정을 위해 잠재의식, “이만하면 충분한” 어림짐작(heuristics)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각과 행동은 밀접하게 얽혀져 있고, 대단히 그러해서 생화학적-생리적 변화와 지각적 경험으로부터 구축된 “신체적 표지(somatic marker)”는 자주 의사결정과 후속되는 행동을 추동해 낸다(Damasio, 1999).

대부분의 인간 행동이 의식적으로 조절되지 않고 자동적인 것이라면, 인간의 도덕성에 관한 설명과 연구를 위한 함의점이 여기에 존재한다. 도덕적 의사결정은 의식적 숙고와 함께 의식적 주의 바깥에 놓여있는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각각의 시스템은 도덕적 의사결정과 행동에 기여한다. Varela(1999)는 전문가적 도덕 행위자에게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상호 연결에 대해 설명했다.

현자는 무엇이 선인지 알고 동시에 그것을 행한다는, 지각과 행위의 직접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Varela의 덕(virtues)에 대한 정의는 라이언과 Lickona가 미네소타의 겨울, 중년의 여인이 버스에 탔을 때 14세 소년의 반응을 인용한 실제 사례를 연상시킨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신발을 신지도 않고 양말만 신고 있었다. 소년은 여성이 기계 안에 동전을 넣자 버스 앞으로 걸어가서 그의 신발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그녀가 자신보다 그것을 더 필요로 한다고 말해 주었다. 도덕적 지각과 행동의 통합, 의식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이 그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타인의

필요에 번개처럼 빠르게 반응하는 이러한 사례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무엇이 덕인가? 덕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해석은 덕을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습득되는 행위의 습관 혹은 패턴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Aristoteles가 덕의 본성과 그것이 어떻게 획득되는지를 이해한 바의 한 측면만을 나타내고 있다. Aristoteles의 관점에 대한 다른 해석은 덕/탁월성이 실행, 노력 그리고 외부적 지도가 필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의 부모, 교사, 멘토로부터의 안내된 지도와 함께 발달해가는 행위의 패턴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덕의 발달에는 타인으로부터의 안내된 지도하에서 도제식 교육(apprenticeship)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덕은 홀로 고립된 채 함양될 수 없고 공동체의 도움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 게다가 덕은 맹목적 복종이나 암기된 기억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없고 안내된 반성을 통해서 육성될 수 있다.

덕목 함양의 결과 혹은 목표는 가장 넓은 의미로 Plato의 테크네(techne)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성공적인 장인(artisan), 정치인 또는 정의로운 사람에 의해 입증되는 노하우의 유형이다(Plato, in the Republic). 이러한 노하우 혹은 전문성은 절차적 지식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한 존재의 전체를 포괄한다(Hursthouse, 2003). 유덕자는 덕에 있어서 탁월성을 소망하며, 간절한 소망은 그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선호와 선택에도 역시 반영되며, 이것은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Urmson, 1988). 따라서 덕목의 함양은 행동뿐만 아니라 지각과 욕망을 발달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형성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초기의 지도는 반응과 호응적 행동(습관적 반응)뿐만 아니라 욕망과 동기를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지각과 감성)을 포함한다. 단계적으로 개인은 그 스스로 이러한 반응들의 형성을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격 발달은 자기-생성적(autopoietic)이거나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될 것이다(Maturana & Varela, 1980).

## (2) 교육은 변형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것<sup>279)</sup>

Narvaez가 제시하는 IEE의 두 번째 토대관념은 교육이 변형적(transformative)이고 상호작용적(interactive)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견해를 지지할 근거를 두 가지 방식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아동들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in response to and by acting) 자기 스스로를 변형시킨다(Varela et al., 1991). 인간이 활동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다(Piaget 1952; Aderson, 1989). 경험을 통해 인간은 스키마를 구성하고(정서-인지-행동 관념으로 구성된 일반화된 지

279) D. Narvaez(2005), op. cit., pp.719~722 참고

식의 구조), 스키마들은 더 확장된 경험과 함께 형성되고 변화한다. 이러한 스키마들은 정보처리, 관심 유도, 예상되는 기대의 추동, 사건과 목표에 대한 이해의 조화 등의 과정을 촉진시킨다(Higgins, 1996; Kirsch, 1999). 스키마들은 안내된 경험(숙고적 마인드에도 영향을 주는) 뿐만 아니라 우연적인 경험(직관적인 마인드에도 영향을 미치는)으로부터도 구축된다. 예를 들어 관심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접근해 있는 아동의 경우, 관심이 매력적인 것을 찾는 데에만 주어진 아이들의 스키마와 달리 형성될 것이다.

구성주의의 관념은 인지가 어떻게 “상황 지워지고(situated)” 맥락화 되는지(Derry & Lesgold, 1996), 인지가 행위자와 환경 사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의 역동적 시스템을 형성하는 지(Thelen & Smith, 1994), 인지가 결국 어떻게 다양한 생화학적 시스템 속에서 결국 체화되는지(Damasio, 1999), 마음(mind)이 어떻게 몸과 환경과 불가분하게 연결되는지(Laykoff & Johnson, 1999) 등에 관한 확대된 이해에 의해 보다 정교화 되고 있다. 지능은 행동 속에서 체화되는데, 여기에는 도덕적 지능 또한 포함되며(Varela, 1999), 이것은 교실 공동체 속에서 길러질 수 있다.

교육은 변형적이고 상호작용적이다. 아동의 변형은 사회적 환경이 소속(belonging), 역량(competence), 자율성(autonomy)등을 향한 아동의 욕구와 맞닿을 때 고도로 동기화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 대해 성인들이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며,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그들의 필요에 기반 한 교수법을 활용해야 한다.

한편 Narvaez는 두 번째 토대관념의 교육적 함의점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교육자는 적절한 윤리적 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잘 구조화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간의 이해(understanding)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별다른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는 적응 무의식(adaptive unconscious)의 측면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을 통해 배우는 숙고적인 마인드의 측면이 있다. Narvaez는 여기서 전자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인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적응 무의식 속에 놓여 있는데, 이는 말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의 마인드가 아니다.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 지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우리의 직관을 교육한다(Hogarth, 2001). 이러한 마인드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대상들 사이의 구조적 패턴으로부터 학습된다. 반복되는 패턴은 두뇌의 더 원초적인 영역으로부터 별다른 노력 없이도 지각되고 기록된다.<sup>280)</sup> 지각은 환경과의 반복된 주의 집중적 상호작용을 통해 미세하게 조정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직관을 포함한 무의식적 지식에 놓

280) 앞서 본 논문에서 Hogarth의 이론을 다룰 때 소개했던 바와 같이 최소한 3가지의 자동적인 정보 처리의 형태가 존재한다. 기본적인(basic) 무의식, 원초적(primitive) 무의식, 정교화 된(sophisticated) 무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여 있다(Sternberg & Torff, 2001). 따라서 예를 들어 그들의 지역 집단 구성원과의 반복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아동들은 누군가와 가깝게 지내는 방법, 누군가와 시선을 나누는 방법, 신체의 다른 부위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Hall, 1981). 이러한 문화적 행동의 상당수는 언어적인 교수 없이 학습되며 별도의 노력 없이 자동화된다.

우리 행동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암묵적 지식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동들이 올바른 직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은 풍조(climate)와 분위기(atmosphere)를 포함하는데, 두 가지 모두 넓고 좁은 의미에서 사회적 환경의 문화(culture)와 관련되어 있다. 넓은 의미에서, 풍조(climate)는 환경의 구조적 측면을 포함하는데, 보상과 처벌의 명시적이고 잠재적 시스템, 환경(공동체)의 목표와 열망, 목표를 향한 일반적인 담론 등과 관련된다. 특수한 의미에서, 풍조(climate)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함께 일하며, 어떻게 함께 의사결정을 하며, 어떠한 감정이 고무되며, 어떤 기대가 권장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긍정적인 풍조는 아동의 필요와 만나서 보다 큰 집단을 향한 소속감을 증진시키게 된다(Baumeister & Leary, 1995).

친사회적 행동은 번영(flourishing)과 회복탄력성을 지지하는 “발달적인 자산(developmental assets)”을 지지하는 풍조 속에서 길러지게 된다. 사실, 배려하는 학교와 학급은 학생을 위한 다양한 긍정적 결과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Solomo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2002) 배려하는 학교와 학급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a) 학생 자율성, 자기 지시 그리고 영향력, (b) 학생간 상호작용, 협력, 그리고 열린 토론에의 참여, (c) 교사의 온화함, 수용, 지지 그리고 모범, (d) 사회적 기술의 훈련 그리고 (e) 타인을 도울 기회의 부여」 등이다. 인격교육을 위한 잘 구조화된 환경은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한편 IEE의 토대관념인 변형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교육을 위한 두 번째 교육적 시사점은 윤리적 전문성 교육에 관한 것이다. Narvaez는 교육자가 학생들을 초보자로부터 윤리적 노하우에 있어서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교육시키기 위한 교수법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윤리적 전문성은 숙고적인 마인드와 직관적인 마인드 모두를 포함한 전체적(holistic) 몰입(immersion) 접근법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 IEE는 충분히 발달된 개념적인 네트워크 혹은 스키마 속에서 4 단계의 지식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 영역 또는 기술에 있어 명시적인 가르침(숙고적 마인드의 발달을 위한)과 몰입(직관적 마인드의 계발을 위한)을 통해서 학생들은 해당 영역 문제의 해결을 배우게 된다. 우선 그들은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사례에 노출되는 경험을 통해 해당 영역의 큰 그림을 보는 법을 배우는 ‘동일시 지식(identification knowledge)’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약자에 대한 괴롭힘 행동을 중단하는 법을 배울 때, 학생들의 주의를 다양한 약자 괴롭힘의 사례에 집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이한 사람과 사건과 함께 서로 다른 문맥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일단 학생들이 큰 그림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면, 그들은 ‘정교화 지식(elaboration knowledge)’을 구성하는 데 착수한다. 그들의 관심은 해당 영역에 관한 그들의 초기 직관을 정교화하기 위한 핵심적 사실과 구체적 세부 사항에 기울여지게 된다. 예를 들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따돌림 가해 집단을 설득할 기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받는다. 셋째, 학생들은 해당 영역에서의 적용과 실행을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절차를 배움으로써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을 구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의 시초(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들은 공손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문맥 속에서 상이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선언적, 절차적, 조건적 지식의 미세 조정을 통해 ‘실행지식(execution knowledge)’을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교실 외의 환경에서 적절한 반응을 실행하고 서로를 안내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스키마 구성의 단계를 통해 순환하게 됨에 따라 이론은 잘 구조화된 풍조와 환경에의 몰입으로부터 형성된 직관과 협력하여 통합된다. 학생들은 도덕적 덕목을 위한 견습생이 되고, 명시적 안내와 이론을 통해 여과된 상황 경험으로부터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무언가에 대한 정교화 된 지식을 발달시키려는 사람은 안내를 받아야 하고 집중적인 방식으로 엄청난 연습을 해야 한다. 좋은 코치는 Vygotsky(1935)의 “근접 발달 지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내에서 Bruner(1983)의 “비계설정(scaffolding)”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의 안내를 제공하며 학생의 기술이 발달되면 안내를 점점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안내와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맥락을 넘나들며 도덕적 반응을 구성하며, 적용할 스키마와 반응의 레퍼토리들을 평생 동안 축적해 나간다. 학생들은 그들의 맥락화 된 인지 혹은 체화된 인지를 배양하는데, 이는 그것이 적용되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로서 안내된, 집중된 연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한다.

윤리 교육은 학교에서의 모든 경험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환경의 고무와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숙고적인 가르침이 없이는 많은 학생들이 그것들(윤리적 기술들) 발달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 (3) 인간 본성은 협력적이고 자기-실현적인 것<sup>281)</sup>

Narvaez가 제시하는 IEE의 마지막 토대관념은 인간 본성이 협력적(cooperative)

281) Ibid. pp.722~724 참고



이고 자기-실현적(self-actualizing)이라는 점이다. 협력적 행동을 향한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은 공동체적인 환경 하에서 길러질 수 있다. 이러한 천성 때문에 도덕적 전문성은 관계적이다. 진화론적 심리학은 공동의 가치가 우리의 유전적 코드와 종(species)의 기억 속에 박혀다는 인간본성에 관한 사실들을 밝혀냈다(de Wall, 1996). 인간은 본능적으로 협력적이고 사회적인 생물이다. Darwin은 인간의 이기성에 대해서 보다 인간성의 도덕적 감각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한 교육적 시사점 중 첫 번째는 교육자들이 학교 안팎으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이다. 성공적인 학교와 학급은 배려하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사실, 학문적 성취를 위한 본질적인 동기화는 소속감, 유능함, 자율성의 감각을 키워주는 환경 안에서 극대화된다. 교사들이 이러한 세 가지의 분위기를 증진하는 교육적 전략을 구사할 경우 그들은 학문적 성취와 도덕 발달 양 측면을 모두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Tuener, Narvaez & Mullen, 2004).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도 간과될 수 없다. 인격발달은 두 가지 이유에서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첫째, 아동의 공동체는 인격을 배우기 위한 적소(niche, 적합한 환경)가 된다. 공동체는 환경을 구성하며 역할 모델을 제공하며 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공동체는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도화지가 된다. 인격의 기술들이 실행되고 체화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역공동체이다. 학생들은 TV시청이나 독서를 통해서만은 덕스럽게 될 수 없다.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반응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적용하는 양 측면 모두에 대하여 그러하다. 지역 공동체의 요구에 대한 상향식(bottom-up) 적응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IEE는 하향식 원리(top-down principle)를 제공한다. 하향식 원리 부분은 최적의 기능을 위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앞서 제시한 28개의 기술들)과 초보자에서 전문가로의 교수법을 의미한다. IEE의 상향식 측면은 공동체의 맥락에 맞도록 기술들의 프레임워크를 지역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각 공동체는 구체적인 공동체의 관점, 필요, 다양성의 차원에서 IEE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하며, 그들만의 도덕적 존재에 대한 공통의 이해에 기반하여 그것들을 적용한다. 사례로, CVCE 프로젝트(Community Voices and Character Education project)에서, 교육자들로 구성된 작은 집단은 윤리적 발달을 위한 지역적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만나서 논의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접근법(community-embedding approach)을 활용할 경우, 학생들은 (기술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기술들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여) 공동체로부터 교실로, 대화를 위한 배경을 제공해 주는 정보들을 더 가져왔다. IEE를 통해서, 보편적인 원리와 기술들은 지역적 특수성과 만나고 공동체 자

체에 의해서 양자가 함께 융합된다. 따라서 최적의 기능은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현실화 된다.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조합은 각 공동체가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는데 있어 모종의 한도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안에서의 최적화된 기능을 의미하게 된다.

협력적이고 자기실현적인 인간 본성이라는 IEE의 토대관념이 제시하는 두 번째 교육적 시사점은 교육자들이 학생들 및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 조절(self regulation)을 고무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인격 발달의 최종적 책임은 개인에게 주어져 있다. IEE 환경 내에서 학생들은 인격 형성에 있어 자기 조절을 위한 수단들을 제공받게 된다. 개인들은 기술과 전문성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역 특수적인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에 대해서도 안내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자기 조절에 대한 지도는 직관적 마인드를 보조하기 위한 숙고적 마인드의 요청을 필요로 한다. 이론적 지식을 포함한 숙고적 마인드는 직관적인 마인드가 (효과적인 행동을 배워) 암묵적 학습을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게다가 숙고적인 마인드는 해롭고 잘못된 쪽으로 방향을 잡은 충동(impulse)의 요구를 기각시키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두뇌의 오작동을 수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적 작인(作因, agency) 혹은 인간 주체성(personal agency, 행위 주체로서의 의식)의 인식은 우리의 자기-규제적(self-regulatory)인 기술로부터 형성되며, 자아감(sense of self)의 중심적인 측면에 놓여 있다. Zimmerman(2000)에 따르면, 자기 조절은 단계적으로 획득되는데, 근접발달지역에서 일어나는 비계설정 학습의 과정과 유사하다. 우선, 관찰을 통해 아동은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대리적으로 기술로 유도된다. 두 번째로, 아동은 도움과 함께 모델에 친숙해 지게 된다. 세 번째, 아동은 구조화된 상황 속에서 독립적으로 기술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아동은 변화된 상황과 요구를 넘나들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기실현을 향한 경로를 발견함에 있어 어른의 도움 제공과 함께, 각 학생들은 윤리적 기술 발달을 모니터하고 특정한 전문적 기술을 연마하게 된다. 덕스러운 사람은 그들의 행동과 선택을 모니터할 정도로 충분히 자율적이어야 한다. 일단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덕목들(virtues)은 적절한 친구와 환경의 선택을 통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정말로 민주적인 윤리 교육은 학습하는 공동체를 함께 형성시키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실현(actualization)을 위한 윤리적 기술과 자기 조절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모든 포함된 사람들(교육자, 공동체 구성원들,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윤리적 행위의 목적은 공동체에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따라서 Narvaez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로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번영을 도울 수 있을까?”

### 3) IEE 실천적 적용 5단계

3항에서는 Narvaez가 IEE에 입각한 인격 교육의 실천을 고민하는 교사들을 향해 실질적인 교수 학습의 팁을 제공하는 측면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Narvaez에 의하면 IEE는 도덕 인격 발달을 위해 의도적이고, 전체론적(holistic)이며, 포괄적이고, 경험으로부터 유래한 접근법을 제공한다.<sup>282)</sup> 이것은 인간 번영(human flourishing)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과 현재의 과학에 모두 깊이 정통해 있다. Aristoteles가 갈파했듯이, 인간 번영은 반드시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생물학적이고 사회 과학적인 관점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누구도 한자 생존하거나 번성할 수 없다. 사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사회성과 사랑을 위하도록 배선되어(wired) 있다(Maturana & Verden-Zoller, 1996). 적절한 보살핌을 통해 인간은 높은 관여와 상상의 윤리와 함께 깊게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IEE모델은 단계적(step-by-step)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단계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 모형이 낯선 교사들을 위해서, 한 번에 한 단계의 배치와 추가가 추천된다. 한편 Narvaez는 IEE의 “best practice”를 위한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데, 이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7> “best practice”를 위한 가르침 283)

<p>■ <b>왜 학생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려 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소속감 부재 때문에(배려관계로 대항)</li> <li>▪ 상황 속에서 또는 과업에 대해 무능함을 느끼므로(기술의 발달로 대항)</li> <li>▪ 선택권이 없이 제한된 느낌(선택을 통해 대항)</li> <li>▪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명시적 교육을 통해 대항)</li> <li>▪ 과제가 요구하는 자기 조절의 부족(자기 조절을 위한 안내된 지도로 대항)</li> </ul>
<p>■ <b>학생들은 어떻게 배우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찰과 모방</li> <li>▪ 몰입과 실행- 직관발달과 이해의 구성을 위해</li> <li>▪ 몰입하는 동안의 명시적 교수- 숙고적인 이해를 위해</li> </ul>
<p>■ <b>변형적(transformative)학습을 위해 어떤 지도는 효과적이지 않은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명령(telling)”</li> <li>▪ 끝까지 반복연습(drill and kill)<sup>284)</sup></li> <li>▪ 비활성화 지식(inert knowledge)의 암기</li> </ul>

282) D. Narvaez & T. Bock(2014), op. cit., p.12

283) D. Narvaez (2008),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A Developmental Model”, Moral Psychology Laboratory Guidebook Version 2.1,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2

■ **어떤 학급 & 학교 분위기가 학습과 변형을 유도하는가?**

- 숙달의 강조(동료와의 비교를 통한 실적, 성적의 강조보다)
- 배려 공동체의 강조(친절하고 예의바른 행동에 대한 높은 기대)
- 집단 공감의 배양(우리가 함께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정서적·신체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타인에의 배려를 이끈다

■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

- 학생들은 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가정
- 학생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지원함(목적, 자기실현, 이해, 믿음, 소속, 유능함, 자율성)
-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줌(수치심 자극이나 비하의 금지)
- 개별 학생들에게 학급에서의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기
- 각 개인은 전 생애에 걸쳐 바람직한 지지를 통해 배우고, 발달하고 변화할 수 있음
- 교사-학생 파트너십: 스스로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학생을 안내함
- 공동체 파트너십- 학생들이 서로를 도움

이어 Narvaez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학생들의 윤리적 인격 함양을 위해 상기에 제시된 ‘best practice reaching’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도덕 발달에 강조점을 두는 사회에서의 활동에 몰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고 따라서 도덕성 함양에 필요한 친밀한 안내와 감독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함께하므로, 학교에서의 보다 숙고적인 접근이 촉구된다. IEE모델은 연구에 기반 한 접근법으로 학생들의 인격 형성을 위해 교사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에 따르는 교육을 제안한다.

**(1) 1단계: 개별 학생과 배려 관계(caring relationship) 확립<sup>28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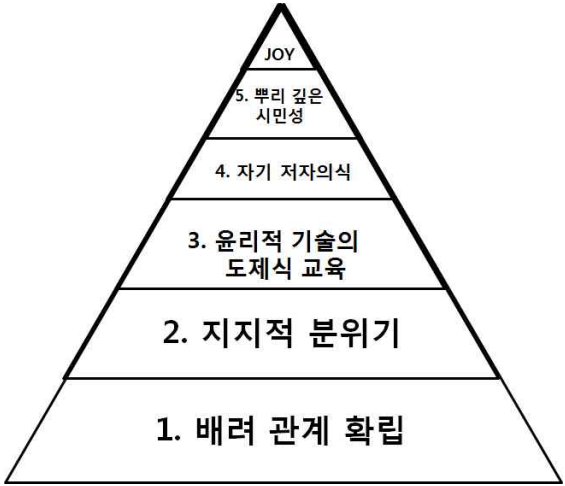
멘토링 관계의 기본은 상호적인 영향과 상호적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배려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Greenspan과 Shanker(2002)는 부모와 젓먹이와의 상호작용이 학습과 사회적 존재에 있어 어떻게 인지적 경향성을 확립하게 되는지 설명했다. 이상적으로, 가정이 즐겁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열린 대화와 성장을 위한 역량을 증진시키기에 깊은 정서적 영양 공급의 자원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 부모의 맞벌이와 분산된 활동의 다양성으로 인해 점차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 아이들의 (학습과 사회성 등에 대한)빈곤한 결과에 대항할 가장 중요한 보호적인 요소는 배려 관계들인데, 가정에서의 어른들이 최우선이며 다음으로 가족 바깥에서 만나게 되는 어른들과의 배려관계이다. 배려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포유류로

284) 학업 성취를 강조하여 단순한 소수의 기술을 잘 할 때까지 반복학습을 시키는 교수학습의 형태를 의미함

285) D. Narvaez & Bock. T (2014), op. cit., pp.12~13 참고

서 인류는 주로 사회 정서적인 존재이며, 진화론적으로 배려와 정서적으로 연계된 관계로부터의 보상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교사들이 동기화와 관여 윤리를 강화하는 것은 배려 관계와 지지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림-2> IEE 실천적 적용의 5단계 286)



학생들이 교사와 좋은 관계를 갖게 될 때, 그들은 교실에서 환영받는 느낌을 갖게 되며 더 많은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보다 높은 동기화 및 성취와 연결된다. 배려와 지지를 주는 교사는 학습에서 학생의 관여(engagement)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특히 고위험군의 학생들에게 더 그러하다. 교사는 마치 좋은 부모처럼 학생들을 위한 그들의 배려를 개별화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아동을 더 잘 알고 가능한 많이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성 있는 배경을 가진 몇몇의 학생들은 그들이 교사를 신뢰하게 되기까지 더 긴 워업(warm-up)기간이 필요로 하며, 이것은 교사들로 하여금 인내심과 참을성을 요구한다. 교사들이 인간적인 교실을 만들고자 한다면, 학생들은 보다 더 안전하게 느끼고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교육자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잘못 처리될 경우 안전 윤리가 지배하게 될지 모른다. 학생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학습으로 열려진 에너지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 교사들이 개별 학생들과 건강한 정서적 대화를 확립할 경우, 그는 대화와 영향력 발휘를 위한 다리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다음 표는 교사와 개별학생과의 배려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Narvaez가 제안하는 교육적 처방이다.

<표-8> 개별 학생과의 배려관계 확립, ‘배려는 어떤 모습인가?’287)

286) Ibid. p.3

<p>■ <u>‘함께 함(BEING WITH)’이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으로 관여된(engag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이 순간에 전념</li> <li>▪ 무조건적인 개인적 관심과 배려</li> <li>▪ 깊은 존중</li> </ul> </li> <li>■ 공감(empathy)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에 대한 동정심</li> <li>▪ 이해심의 계발</li> <li>▪ 연민어린, 적극적 경청</li> </ul> </li> <li>■ 지속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남</li> <li>▪ “우리”에 집중하기</li> <li>▪ 믿을 수 있음</li> </ul> </li> </ul>	<p>■ <u>소중히 여김, 큰 기쁨을 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nurtu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배려</li> <li>▪ 긍정적인 양육</li> <li>▪ 용서</li> </ul> </li> <li>■ 환기시키는(evoc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God)의 형상에 대한 감흥</li> <li>▪ 고유성에 대한 감흥</li> <li>▪ 번영</li> </ul> </li> <li>■ 재미있는(playf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인</li> <li>▪ 긍정적인 유머</li> <li>▪ 어린이 같은</li> </ul> </li> </ul>
<p>■ <u>반응적인</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을 아낌없이 바침</li> <li>▪ 수용성(receptivity)</li> </ul> </li> <li>■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기대</li> <li>▪ 책무성</li> </ul> </li> <li>■ 공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투명성</li> <li>▪ 스스로 인격의 모델이 됨</li> </ul> </li> </ul>	<p>■ <u>학생의 기본적 요구를 돌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감 (배려 관계)</li> <li>■ 이해 (의미)</li> <li>■ 조절 (선택, 자율성)</li> <li>■ 자기 향상 (자기 실현)</li> <li>■ 신뢰 (지지적인 공동체)</li> <li>■ 자율성</li> </ul>

## (2) 2단계: 성취와 윤리적 인격을 지지하는 교실 분위기의 확립<sup>288)</sup>

단순히 이야기하면, 어린이들은 가정생활 및 지역 공동체 삶 속에서 기초적인 일과 활동을 하는 동안에 어른들과 직접 경험을 통해 도덕성을 배우게 된다. 오늘날, 어린이들의 삶은 보통 대부분의 어른들과의 매일의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학급과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인공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배우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동료들과 어떻게 잘 지낼지, 어떻게 하면 협업과 의사결정을 잘 수행할지, 어떻게 시민

287) D. Narvaez (2008), op. cit., p.5

288) D. Narvaez & T. Bock(2014), op. cit., pp.13~15 참고

이 될지 그리고 다양한 많은 기술들을 성인시기로 유보해 두는 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Narvaez는 사회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명제의 교훈을 겸허히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는 듀이가 말한 활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을 통해 지성적이고 도덕적인 발달을 통합하는 사회적 직관을 구축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직적인 환경과 문화는 직관과 행동을 형성시킨다(Power, Higgins & Kohlberg, 1989). 넓은 의미에서 분위기(climate)에는 사회적 환경의 구조, 보상과 처벌의 명시적이고 잠재적인 시스템, 사회 집단의 목표와 열망 그리고 일반적인 목표에 관한 담론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위기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함께 일하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어떤 느낌과 기대가 조장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주목할 만한 연구는 최적의 교육 결과 산출을 위해, 배려하는 교실과 학교 분위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교실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를 나타낼 경우(교사가 자신과 학생들에게 관여의 윤리를 함양할 경우)모든 구성원은 더 많은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게 되며, 이는 더 깊은 소속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학교에 대한 유대감은 학생들 사이의 학습에 관한 학교 참여와 헌신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성취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성취와 행동에 관한 높은 기대를 갖는 배려하는 교실과 학교는 높은 성취 및 도덕적 행동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Battistich, 2008; Zins, Weissberg, Wang & Walberg, 2004). Solomon의 연구(2002)에 따르면 배려하는 학교와 교실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학생들은 자율성, 자기스스로에 의한 방향설정(self direction) 그리고 교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수업 내용과 학급 정책에 대해 협력하고 협의한다.
- 학생들은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따뜻한 수용을 나타나고 지지와 긍정적인 모델을 제공함에 따라 사회적 기술들을 지도 받는다.
- 교사는 학생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 배려하는 교실에서, 훈육은 처벌이 아니라 안내된 인격 발달의 의미를 지닌다.

교사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교실에서 서로에게 배려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관여와 상상 윤리 모두에 강조점을 둘 수 있다.

학교는 가족들이 다루기 어려운 공감 발달과 동정심 함양에 대해 일부부담을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비록 학생들이 대중문화를 통해 수많은 부정적 역할 모델에 노출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러한 상기에 제시된 IEE의 두 단계만으로는 학생들의 도덕적 인격을 발달시키기에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1단계와 2단계 교수법은 다음의 모범적 실행(best practice)교육에 통합된다. 다음 표는 성취와 윤리적 인격을 지지하는 분위기의 확립을 위해 Narvaez가 제안하는 교육적 처방이다.

<표-9> 학급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주의할 점<sup>289)</sup>

<p><b>1. 학생 동기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자율성 (스스로에 의한 방향 결정, 자기 효능감의 고양, 자기 조절)</li> <li>▪ 학생 상호작용 (공동작업의 증진, 타인원조의 기회 부여, 학급 주인의식 고취)</li> <li>▪ 지도자 관계 (책임감 있는 리더, 온정성, 안내의 제공)</li> <li>▪ 학생의 요구 충족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지적 호기심)</li> </ul>
<p><b>2. 공동체 유대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대의식, 다양성, 관용 (연합, 공동선, 연결성에 대한 강조)</li> <li>▪ 학생 상호작용 (사회적 기술 훈련, 공동작업, 도움 제공)</li> <li>▪ 신뢰 (동등한 존중과 기대로 학생을 대우함, 학급 내러티브의 구축-“우리 이야기”)</li> <li>▪ 리더십 함양 (학생 리더십의 격려와 지도, 학생 사이의 전문성 분배, 다양성의 인식과 수용)</li> </ul>
<p><b>3. 인간의 잠재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력 육성(학생으로 하여금 다양한 영역의 창의적 수행을 위한 전략과 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li> <li>▪ 발달적 훈육(책무성의 인식을 통한 절제력 증진, 조직에의 소속, 자기 절제와 사회적 관계를 위한 기술의 발달)</li> <li>▪ 지지적인 물리적 구조(작업환경에서 학생에게 선택권 부여, 심미적인 환경의 제공, 편안한 환경의 제공)</li> </ul>
<p><b>4. 민주적인 조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린 거버넌스(학급 회의의 주최, 공유된 의사 결정과 공유된 리더십의 허용)</li> <li>▪ 열린 대화 채널(불만 처리 절차의 마련, 정당한 법절차, 열린 토론)</li> <li>▪ 도움이 되는 인프라 구조(자율성을 증진하는 규제 제도 고안, 장기간 지속</li> </ul>



되는 소그룹 활동, 안내된 지도) ▪ 공동체 건설(공유된 규범의 고취, 공유된 가치, 진정성)
---

한편 다음에 제시될 3단계는 보다 의도적인 도덕적 인격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 (3) 3단계: 초보자에서 전문가로의 교육을 활용한 윤리적 기술의 교수<sup>290)</sup>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윤리적 전문성 훈련은 최소한 4개의 영역(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및 도덕적 행동)에 있어 적절한 직관과 정교화 된 숙고를 발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어떤 역량이 학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가? IEE 모델은 4구성 요소 각각에 속하는 기술과 하위 기술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지성과 좋은 삶 일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들은 또한 활동적인 글로벌 시민성의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다극화된 세계 속에서 교육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안전윤리 지향을 최소화시키며 관여와 상상윤리를 발달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Narvaez가 제시하는 윤리적 기술과 제안된 하위 기술은 앞서 <표-6>에 제시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를 보다 핵심적으로 요약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10> 윤리적 행동에 요구되는 4 구성요소에서의 기술들 <sup>291)</sup>

<b>윤리적 감수성</b> <b>☞인식하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에 관한 단서를 포착하기</li> <li>• 관련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지, 가능한 반응과 뒤따를 결과를 고려한 상황 해석</li> <li>• 도덕적 귀감: 마더 테레사</li> </ul>
<b>윤리적 판단</b> <b>☞생각하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상황 속에서 가능한 행동에 관한 추론</li> <li>• 어떤 행동이 가장 윤리적인지에 대한 판단</li> <li>• 도덕적 귀감: 솔로몬 왕</li> </ul>
<b>윤리적 동기화</b> <b>☞목표하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목표와 필요보다 윤리적 행동을 가장 우선시하기</li> <li>• 도덕적 귀감: 마틴 루터 킹 목사</li> </ul>
<b>윤리적 행동</b> <b>☞행하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달성을 위한 노하우의 활용</li> <li>• 난관을 극복하고 윤리적 행위를 완성해 내기</li> <li>• 도덕적 귀감: 사도 바울</li> </ul>

그렇다면 어떻게 도덕 인격 교육이 구조화될 수 있을까? 전문성을 위한 훈련과 같이, 교육자들은 숙고적인 마인드와 직관적인 마인드 모두를 가르쳐야 한다. 직관

289) D. Narvaez (2008), op. cit., p.6

290) D. Narvaez & T. Bock(2014), op. cit., pp.15~17 참고

291) D. Narvaez (2008), op. cit., p.7

적인 마인드는 기술이 실행되고 발달되는 활동적인 환경에의 몰입을 통해 길러진다. 이것은 역할 모델에의 모방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적절한 피드백을 포함한다. 사회-인지적인 도덕적 인격 이론은 도덕적 인격이 자동화된 도덕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사회적이고 실행적인 경험으로부터 확립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Lapsely & Narvaez, 2004a; Narvaez & Lapsely, 2005; Narvaez, Lapsely, Hagele & Lasky, 2006).

숙고적인 마인드는 미세 조절된(fine-tuned) 행동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직관 발달을 위해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을지와 같은 메타인지적인 기술들을 통해 가르쳐질 수 있다. 발달적으로 민감한 이론적 설명과 대화를 제공함으로써, 숙고적인 마인드는 암묵적 지식과 조화를 이루게 될 이해를 구축하게 된다. 교사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역할 모델이 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도덕적 결정을 말로 표현하고, 도덕적 목표를 위한 고군분투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도덕적 상상을 발달시킬 이야기들을 읽어줌으로써 삶에 있어 도덕적 방향설정의 모범이 될 수 있다. 학습은 선택적 집중을 통해 개념적인 지식 구조를 변환시키는 것과 선행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연관시키는 등 활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모범 실행 교수(best practice instruction)는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잘 조직화된 표상과 그것의 활용에 요구되는 절차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그들이 배우는 개별 기술에 관하여 전문가와 함께하는 훈련 교육(expert-in training pedagogy)을 경험해야 한다.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의 네 가지 수준(level)에 따라 수업을 계획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절한 지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표-11> 전문가와 함께하는 훈련 교육의 4 단계<sup>29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vel 1 동일시 지식, (identification knowledg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와 기술에 몰입하기→ 교사는 모범(model)과 목표의 모형(model of goal)을 제공하고, 주제 영역에 대한 “큰 그림(big picture)”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하며, 학생들이 기본적인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vel 2 정교화 지식, elaboration knowledge의 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들(facts)와 기술들(skills)에 집중하기 → 학생들이 하위 기술을 연습해 감에 따라, 교사는 학생들을 그 영역의 기본적인 개념(elemental concepts)에 집중시킴으로써 보다 정교한 개념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li> </ul>

292) Marshall의 스키마 이론인 ‘4단계의 지식수준(동일시 지식→정교화 지식→계획 지식→실행 지식)’은 앞서 본 논문의 III장 1절 3항의 전문성 연구 부분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Narvaez는 이에 착안하여 IEE의 실천적 적용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의 윤리적 기술의 발달을 위한 전문가 훈련 교수법을 제안하고 있다. (D. Narvaez & T. Bock(2014). op. cit., p.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vel 3 계획 지식, plan knowledg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 절차(practice procedures) → 교사는 학생들이 도덕성의 4 구성요소(도덕적 민감성, 판단, 동기화, 실행) 전반에 걸쳐 많은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와 어떻게 하면 해당 영역의 문제 해결을 가장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vel 4 실행지식, execution knowledg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과 절차의 통합 → 학생들은 개념과 기술의 발달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멘토들과 정보들을 찾는다.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과 기술과 지식의 적용이 일어난다.</li> </ul>

윤리적 전문성 접근은 처음에 ‘미네소타 공동체의 목소리와 인격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발달된 것이다. 마지막 평가의 해에, 기술 훈련의 프레임 워크 및 교육 접근법에 익숙해진 후에 교사 팀은 어떤 기술이 그들의 학생들에게 필요하며 어떤 학습적 과정이 기술에 통합되어야 할지에 대해 결정했다. 프로젝트 기획자들과 교사가 기획한 수업에 의해 제공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기술 접근(skills approach)에 높은 참여를 보인 학교군은 대략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비교군 및 저(低) 참여군에 속하는 학교에 비해 학생들에게 두드러진 효과를 보여주었다(Narvaez at el, 2004; Narvaez & Bock, 2009; Narvaez & Endicott, 2009, Narvaez & Lies, 2009).

#### (4) 4단계: 학생의 자기-저자의식과 자기 조절의 고취<sup>293)</sup>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유기체 내의 진화와 발달의 힘을 추동하는 중심이 되어왔다(Darwin, 1871). 자기 저자의식(self-authorship) 및 자기 생성(autopoiesis)은 살아있는 조직이 하는 일이다(Varela, Maturana & Uribe, 1974). 자기 저자의식은 반성적 추상화(reflective abstraction)의 형태로 상이한 마인드(직관과 숙고) 및 친 사회적 윤리(관여와 상상)사이에 조화된 파트너 십을 필요로 한다. Aristoteles가 지적했듯이, 개인들은 덕스러운 친구와 행위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안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자기 조절과 자기 발달(자기 저자)을 위해 멘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Plato은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 즉 “무엇이 될 지와 그것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문제”라고 이해했다(Urmson, 1988). 다시 말해, 인격 발달의 최종적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 놓여 있다. 그들의 선택과 실행에서 방향설정과 시간 안배를 위해 개인들은 질문을 하게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의 롤 모델은 누구이며 어떻게 거기까지 갈 것인가? 풍부한 도덕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인격 형성을 위한 자기 조절과 자기 저자의식의 도구들을 제공받게 된다.

293) D. Narvaez & T. Bock(2014), op. cit, pp.17~18 참고

개인들은 기술과 전문성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조절 영역에 있어서도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성공적인 학생은 문제 해결전략의 효과성을 모니터하는 법을 배우며 필요하다면 성공을 위한 그들의 전략을 바꾼다(Anderson, 1989). 자기 조절을 위한 지도는 숙고적인 마인드를 통해 직관적인 마인드가 효과적인 행동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도록 하며, 그로 인해 암묵적 학습을 가속화시키게 된다(Hogarth, 2001). 예를 들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할 때와 좋은 책을 읽을 때 서로 상이한 직관이 형성된다. 교사는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며, 이러한 그들(교사)의 의사결정 과정은 학생들에게 목표 실행을 하는 동안 어떻게 과정을 모니터하는 지의 사례를 제시하게 된다. 학생들은 도덕적 문제의 인식, 유혹으로부터 관심을 멀리두기, 기력이 소진될 때 자기 스스로를 독려하기 그리고 목표 성취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거나 다시 디자인하기 등의 도덕적 전문가가 갖고 있는 메타인지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다(Zimmerman, 1998). Narvaez는 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Zimmerman(2000)이 제시하는 자기 조절을 위한 4개의 국면을 제시하고 있다.

#### <표-12> 자기 조절의 4 국면 (4 phases of self regulation)<sup>294)</sup>

<p><b>1. 사전 숙고의 활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야 할 일의 과제 분석(task analysis)을 수행하라.</li> <li>•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과제를 충분히 작은 부분으로 분해함으로써 자기 동기부여의 신념을 채택하고, 자기 효능감을 함양하라.</li> </ul>
<p><b>2. 수행의 모니터 혹은 결단력 있는 조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를 해결할 단계를 말로 표현하는 등) 자기-교수(self-instruction)</li> <li>• (과제 완수를 시각화하는 등) 형상화(imagery)의 활용</li> <li>• 환경을 구조화함(TV를 끄는 등)으로써 주의를 집중하기</li> <li>• 필수적인 요소로 단계를 재조직하는 과제 조직화(task organizing) 전략의 활용</li> </ul>
<p><b>3. 자기 반성(self reflec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판단(self-judgement): 자기-모니터를 실시한 정보를 표준과 목표에 비교함</li> <li>• 자기 평가(self-evaluation): 완속도, 이전의 수행, 협력적인 역할 수행, 규범적인 차원에서 자기 평가</li> <li>• 결과의 귀인(歸因): 학습 전략을 향상을 위한 실패의 귀인은 동기화에 도움이 됨</li> </ul>
<p><b>4. 사회 &amp; 환경적 영향력의 활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자기 조절력을 지닌 사람은 목표달성을 위해 타인에게 의지할 줄 알</li> </ul>

#### (5) 5단계: 공동체의 자산 구축과 조화된 발달 시스템<sup>295)</sup>

Narvaez는 좋은 삶은 고립된 삶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혼자서는 결코 번영(flourish)할 수 없다. IEE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실행된다. 미덕이 함양되도록 관계를 수립하고, 개인의 도덕적 목소리에 자양분을 공급하며, 도덕적 정신적 지주를 제공하고,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이다. 정말로, Plato과 Aristoteles는 모두 좋은 사람이 무엇보다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공동체적 삶, 복잡한 사회적 관계에 얽혀 들 그리고 그들의 공유된 이야기 등과 괴리된 인격은 성립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윤리적 역량을 적용하고 연마하는 곳은 바로 공동체이다.

민주적 윤리 교육은 모든 관련된 사람들(교사, 공동체 구성원, 학생 등)이 학습 공동체를 함께 형성하게 됨에 따라, 자신과 공동체의 이상 실현을 위한 윤리적 기술과 자기 조절을 발달시키게 되면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윤리적 행동의 목적은 공동체 속에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번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각 개인은 활동적인 생태학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데(Bronfenbrenner, 1979), 이상적으로는 전체 공동체가 윤리적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학생의 삶의 공간 사이(가정, 학교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 공동체)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조화된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은 적응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학생이 될 인간의 유형은 대부분 공동체와 가족 그리고 문화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높은 기대 수준과 참여적인 어른들을 확보한 배려하는 공동체는 도덕적으로-관여된 시민을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Narvaez는 교사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표-13> 공동체의 자산 구축을 위한 교사의 도움<sup>296)</sup>

##### 1. 학급의 일을 공동체와 연결하기

- 학생들이 그들의 과제를 지역 공동체의 필요에 연결 지을 수 있도록
- 학생들이 시민적 리더십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비전계발, 정치적 목소리 강화)
-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 학급 활동에 학부모를 참여시킴

294) D. Narvaez(2008), op. cit., pp.11~12 참고하여 재구성

295) D. Narvaez & T. Bock(2014), op. cit., p.18 참고

<p>2. 글로벌 의식을 증진시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그들의 과제를 세계 다른 학생들에게 연결 지을 수 있도록</li> <li>• 학생들이 인권증진, 다양성 존중,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시민 불복종을 학습할 수 있도록</li> <li>• 학생들이 협력적인 방향으로 배울 수 있도록(비폭력적인 갈등 해결)</li> <li>• 학생들이 외집단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li> </ul>
<p>3. 글로벌 시민성 기술의 계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전 세계의 사회정치적인 의식을 계발시킬 수 있도록</li> <li>• 학생들이 생태적 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li> </ul>
<p>4. 번영을 증진시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서로 관여되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li> <li>• 학생들이 자기 실현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li> <li>• 학생들이 자신의 공동체의 번영을 도울 수 있도록</li> </ul>

---

296) D. Narvaez(2008), op. cit., p.13 참고하여 재구성

## V. 학제적 관점에서 TET 및 IEE 비판적 고찰

본 연구자는 II장에서 학제적 접근의 비판 준거를 설정하는 작업을 통해 본 논문의 대전제를 마련하였다. 이어 소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III장과 IV장의 논의를 통해 학제적 이론으로써 Narvaez의 IEE와 TET의 구성과정 및 구체적 내용을 정밀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본 논문의 핵심적 결론에 해당하는 V장에서, 앞서 마련한 학제적 접근의 비판 준거를 바탕으로 IEE와 TET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Narvaez의 IEE 및 TET가 환원주의적 접근을 취하지 않았는지 검토해 본다. 둘째, 배경학문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 측면을 검토해 본다. 셋째, IEE와 TET가 다양한 학문적·이론적 연구결과물들의 물리적·병렬적·기계적 결합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승법적 통합 여부를 검토해 본다. 넷째, 논리학적 타당성과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질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섯째, IEE가 도덕교육의 근본적 문제이자 난제인 지행합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도덕교육적 효과성의 측면을 검토해 본다.

### 1. 환원주의적 접근 지양

본 논문의 II장 1절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식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Wilson과 Kohlberg는 학문적 교류를 통한 연구과정에서 특정 학문, 하나의 관점, 혹은 일 방향적 연구방법론을 우위에 둔 나머지 진정한 학문적 소통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놓치거나 참된 진리를 편향되게 왜곡하는 우를 범했다. 즉 두 사람 모두 각각의 학문이 갖는 연구 영역과 연구 방법론상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침범하는 환원주의적 특성을 노정했다. 학제적 연구에서 이러한 환원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할 경우 첫째, 학문간 교류의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할 수 없고 둘째, 지식의 다양성과 깊이도 보장할 수 없다. 셋째, 현실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커다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넷째, 학문간 진정한 소통과 교류는 불가능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학문의 고유성 및 독자성 유지를 포함한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 과학적 이론들과 윤리학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통해 보다 타당하고 의미 있는 도덕성과 도덕교육관련 학제적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 학문적 방법론의 배타적 우위의 입장에서 다른 학문을 흡수 혹은 종속시키려하는 환원주의적 입장은 지양되어야 한다. 결국 기존 학문들의 고유한 연구 영역과 연구 방법의 특색과 독립성을 지켜낸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해당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학문적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는가하는

기준은 학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통합적 도덕교육모델을 정립하고자 할 때 가장 필수적인 타당성 검토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신익은 일찍이 Wilson이 갈망했던 ‘진정한 지식의 대통합’은 Wilson식의 환원주의를 향한 집착이 아닌, ‘삶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의 양 방향적 소통과 교류 과정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서로 모순 없이 만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자 역시 이러한 방식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서만이 특정학문 위주의 패권주의로 변질되기 쉬운 환원주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Narvaez는 기본적으로 도덕심리학자로서 도덕심리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과의 학제적 소통과 교류를 지향하여 다방면에서의 자신의 이론을 지지할 근거들을 확보하는 방식(귀추법적 논증<sup>297)</sup>)으로 그녀의 도덕심리학 이론을 보다 양적·질적으로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내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Narvaez의 IEE와 TET가 Wilson식의 환원주의적 접근방식(통섭)과 달리, ‘인문학적 반성을 거친 과학’, ‘과학적 사실을 녹여낸 인문학’의 양 방향적이고 자유로운 소통과정을 거친 통합모델이라고 판단하며, 이것이 바로 그녀의 도덕교육이론이 가진 최대의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자는 Narvaez가 Lapsely와 함께 쓴 논문에서, 차세대 연구가 인지 발달론적 전통에서 옹호되고 있는 ‘도덕 심리에 대한 도덕철학적 설명’보다는 오히려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의 동향이 인간 본성을 옹호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윤리학을 확립하려 시도했던 ‘자연화 된 윤리학의 입장’과 일치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부분<sup>298)</sup>에 주목해 보았다. 연구자는 이러한 차세대 연구방향 제안에 걸맞게 실제로 Narvaez가 TET와 IEE에서 환원주의적 입장을 피하여 윤리학과 심리학의 학문적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넓게는 경험과학적) 고찰’과 ‘자연화 된 윤리학’의 양방향에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측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sup>299)</sup>.

## 1) 도덕성에 대한 경험과학적 고찰: IEE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주지하다시피 현상주의 가정에 입각하여 도덕 심

297) 귀추법적 논증에 대해서는 본 장의 4절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298) D. K. Lapsley & F. C. Power, op. cit., p.52 참고

299) Narvaez 도덕교육 이론에 있어, 앞서 말했던 ‘과학적 사실을 녹여낸 인문학’의 측면은 ‘자연화 된 윤리학’의 연구방향에 상응하며, ‘인문학적 반성을 거친 과학’의 측면은 ‘도덕성에 관한 심리학적(더 넓게는 경험 과학적) 고찰’의 연구방향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리에 대해 도덕철학적으로 설명한다. 현상주의 가정에서 특정 행동의 도덕적 질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관점, 판단 그리고 의도를 바탕으로 판단되며, 명백한 추론, 의식적 숙고를 통한 판단, 적극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인지적 작용과 유사한 활동의 결과만이 진정한 도덕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현상주의는 도덕 판단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추론의 구조와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주의’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Kohlberg는 ‘좋은’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최소도덕 지향의 철학적 관점에 서서, 합리적 사고(숙고)에 입각한 정의 추론의 사용이 도덕발달의 최상위 단계임을 입증한다는 엄격한 가정 하에 도덕성 발달이론을 구성해 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주의와 형식주의에 매몰된 그의 도덕심리학 이론은 도덕성의 특정한 측면에만 편향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을 쏟게 한 반면, 일상의 도덕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이슈들을 심리학적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게 했다. 도덕심리학의 연구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었고 도덕심리학은 심리학 연구의 일반적 흐름으로부터 점차로 고립되어 갔다. Kohlberg의 이론과 같이, 도덕심리학과 도덕철학(윤리학)의 만남에 있어 특정 윤리학의 관점을 배타적 우위에 둔 결과, 도덕심리학 고유의 접근 방법과 연구 범위가 왜곡되고 침해받은 것은 환원주의적 접근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 반성으로 Narvaez는 이성, 합리성, 추론(의식적 숙고), 정의(justice), 권리·의무, 개인을 강조하는 ‘최소도덕’의 협소한 가정에서 벗어나 전인적(全人的) 차원의 인격, 덕, 행복, 번영 등을 핵심 개념으로 삼는 ‘최대도덕’을 지향하는 덕윤리를 그녀의 심리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것이 그녀가 제안하는 이른바 ‘도덕성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의 연구 방향이다. 그녀는 전통적 덕윤리의 핵심 개념어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냄에 있어 심리학 차원의 ‘도덕적 기능(moral functioning)’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기능을 심리학적 탐구에 적합한 도구, 이론, 방법, 그리고 연구논문들과 함께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대 그리스 덕윤리의 중심 개념인 번영, 행복, 덕, 인격, 유덕자와 실천적 지식의 두 유형인 테크네, 프로네시스를 심리학의 사회인지적 관점<sup>300)</sup>에서 접근하고 재해석해내고 있으며, 그러한 학제적 연구의 결과물이 바로 IEE이다. 이때 사회인지적 관점을 통한 덕윤리에의 접근이란, 일차적으로 일상의 도덕성의 암묵적·함축적·자동적 특징에 주목하고, 도덕적 지식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으로서 도덕 스키마(moral schema)의 접근 가능성, 장기간에 걸친 ‘도덕적 범주(moral category)’ 활용을 도덕 교육의 방법

300) Narvaez와 Lapsely는 도덕심리학에 사회인지적 이론을 적용할 경우, (1)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실질적 정의 제공, (2) 성향적 특징을 지닌 도덕적 인격에 대해 사회 인지적 설명 제공, (3) 다양한 도덕적 목소리와 태도에 대한 설명 제공, (4) 도덕적 귀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기능의 자동성에 대한 설명 제공 등의 4가지 새로운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Ibid. p.69 참고)

론적 대안으로 삼는 것이다.

Narvaez는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성에 접근하는 학문적 고찰의 범위를 인지과학, 신경 생물학, 뇌 과학 등으로 전 방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연구자는 이를 도덕성에 대한 ‘경험과학적’ 고찰로 명명하고, 본항의 제목으로 제시해 보았다. 그녀는 인지과학의 체화론, 동기화된 인지 및 윤리적 행위 산출을 위한 정서의 중요성, 동기화된 인지와 행위자와 맥락(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다양한 신경과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명제적·방법적·조건적 지식으로 구성되는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의 형성이라는 IEE의 핵심적 골간을 형성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과 ‘실천적 적용을 위한 5단계’를 구안(具案)하는 과정에 ‘도덕성에 대한 경험과학적 고찰’의 측면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sup>301)</sup>

상기의 논의를 통해 살펴볼 때, Narvaez는 윤리학과 심리학, 혹은 윤리학과 다양한 경험과학의 학제적 교류에 있어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경험과학적) 고찰’을 학문간 소통의 방향으로 선택함으로써, 윤리학을 심리학 우위에 두었던 Kohlberg적 환원주의의 한계를 적절히 극복해내고 있다. 그녀는 도덕심리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윤리적 관심사를 최소도덕 지향의 ‘의무윤리’로부터 최대도덕 지향의 ‘덕윤리’로 확장하여 인격, 덕, 번영, 행복, 테크네, 프로네시스 등의 덕윤리의 핵심 개념어들을 도덕적 기능, 도덕 스키마, 윤리적 기술, 체화, 윤리적 전문성 등의 경험 과학적 개념어로 재해석하고 교육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윤리적 관점에 억눌렸던 도덕심리학의 숨통을 트이게 함으로써 환원주의적 접근을 지양하는 형태의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 2) 자연화 된 윤리학: 마음챙김 도덕

Narvaez 도덕교육 이론에 있어 ‘과학적 사실을 녹여낸 인문학’의 측면은 ‘자연화 된 윤리학’의 연구방향에 상응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그녀가 규범적·윤리학적 지향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마음챙김 도덕’이 ‘과학적 사실을 녹여낸 윤리 이론’이자 ‘자연화 된 윤리학 이론’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한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론내릴 수 있는가? 한편 이러한 학제적 소통 과정에서 Narvaez가 환원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두 가지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우선 ‘자연화 된 윤리학’의 입장을 대표하는 McKinnon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윤리학 흐름의 개념과 핵심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특히 McKinnon이 존재(인간 본성에 관한 사

---

301)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과 실천적 적용의 5단계에 활용된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이론들은 2절의 논의(학문적 배경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를 통해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실)에서 당위(규범윤리 이론)를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것의 환원론적 오류(자연주의 오류) 위험성을 간파하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존재에서 당위로의 논리적 매개물을 설정하는 논증 과정을 중점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Narvaez의 ‘마음챙김 도덕’이 ‘자연화 된 윤리학’ 이론의 성격을 지니며, 이 과정에서 그녀가 존재에서 당위를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환원주의적 접근법을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것이다.

McKinnon(1999)은 윤리이론의 출발점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실’에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자연화 된 윤리학(naturalized ethics)’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인 전략에 대해 확신을 갖고 경험적 사실, 실제적 삶,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양식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방법론적 전략(자연화 된 윤리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형이상학이나 본질주의적 규명보다 ‘기능적 선(functional goodness)’과 ‘윤리학적 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더욱 풍부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형이상학적·본질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강조하고 인간 본성이 지닌 사회적·정서적 측면을 포함하여 동물적인 면을 최소화시키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에 필연적으로 선한 인간의 삶에 대한 이론은 매우 허약한 토대 위에서 구성되게 되었다.<sup>302)</sup>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인격을 소유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전형적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하며, 자신만의 주관적인 견해를 벗어나 더욱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중략) 선한 인간의 삶을 다루는 나의 글은 신학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니며 목적론을 지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환원론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나의 입장은 인간에 관한 사실과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 윤리적 선택을 필요하고도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는 신념에 기초한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살아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자각할 수 있으며, 감정적·합리적·사회적·자기 구성적인 본성을 포함한 인간에 관한 사실들은 선한 인간의 삶에 관한 규범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한 윤리적 갈등과 그 해결을 위해 문제의 핵심을 깨닫도록 하는 맥락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를 위해 인문과학과 생물학, 심리학, 동물행동학, 사회학, 역사학, 신경생리학, 인지과학을 포함한 자연과학이 서로 협조할 것을 권장한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인간 본성과 실제 삶의 모습에 대해 더욱 많이 알수록 어떤 삶이 선하고 인간의 번영을 이끌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가정한다.<sup>303)</sup>

302) Ibid. p.64 참고

303) Ibid. pp.79~80 참고

상기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자연화 된 윤리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특징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자연화 된 윤리학은 첫째, 최소한의 심리학적 실재로서 ‘인간 본성에 대한 사실들’을 윤리이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둘째, 인간의 본성에 대해 형이상학적이고 본질주의적 접근 및 신학적 접근과 목적론적 접근 대신 심리학적(더 넓게는 경험과학적 관점)에서 ‘기능적 선’과 ‘윤리학적 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sup>304)</sup> 셋째, 인간 본성에 관한 경험과학적 사실로부터 규범적 윤리이론을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일종의 환원주의적 접근을 지양한다. 넷째, 인간에 대한 핵심적 사실(fact)이자 고유 기능으로서 ‘자기-반성적 인식능력’에 주목하며, 이러한 고유한 능력을 활용하여 자아와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본다. 다섯째, 인간 ‘고유’의 본성으로서 인격형성은 인간 번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척도<sup>305)</sup>가 된다. 여섯째, 인격 형성의 본성으로부터 인간은 다양한 필요와 욕구(동기화)를 갖게 되고 이는 객관적 차원의 번영을 주관적 차원의 행복과 연계시키는 동력원이 된다. 일곱째, 인간 본성에 관한 사실들의 이해를 정교화하기 위해 학제적 접근을 요청하며 권장한다.

본 연구자는 학제적 접근에 있어 환원주의적 접근 지양이라는 현 단계의 핵심 논점과 관련한 McKinnon의 입장(위 세 번째 특징)에 대해 먼저 논하고자 한다. 언뜻 보았을 때, 인간 본성에 관한 사실로부터 규범 윤리적 이론을 도출하는 것은 존재(사실)로부터 당위(가치)를 도출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동시에 학문간 교류에 있어 생물학적(경험과학적) 환원론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McKinnon은 모든 기술적 주장은 그것이 좋음에 대한 평가적 주장을 지지할지라도 도덕적 처방을 하지는 않는다<sup>306)</sup>고 말하며, 자신이 표방하는 자연화 된 윤리학의 흐름이 결코 환원론을 추구하지 않음을 명백히 한다. 그는 이러한 환원주의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존재(기술적 주장)로부터 당위(규범적 주장)를 ‘지향’하는 우회 전략으로서의 논리적 매개물의 역할을 할 일련의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동물과 식물에 있어 좋은 삶의 기준(원형적인 삶)이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진술이 될 수 없기에 생물학적 환원론(자연주의 오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

304) 이를 통해 자연화 된 윤리학은 ‘옳음’보다 ‘좋은(선)’에 우선적 관심이 있으며, 따라서 의무론적 윤리보다 덕윤리와 친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05) McKinnon은 인격 형성이 순전히 주관적 관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인격 형성과정에서의 제약 조건을 제시한다. 인간은 자기 반성적 인식능력을 갖고 있어 현재의 자아와 이상적 자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이상적 자아상의 정립은 공동체의 승인과 가치를 반영한다. 이러한 ‘내적 일관성 및 불변성’의 요구에 더해 인격 형성에 있어 ‘시간에 따른 일관성’도 인격 형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인격형성은 개인의 기호나 취향의 주관의 반영을 넘어, 인간의 번영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306) Ibid. p.120 참고

술적 주장이 ‘좋은 인간적 삶’에서 비롯되었고, 좋은 인간적 삶이 인간에게 ‘고유’한 ‘자아형성’에 전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적어도 인간 삶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여기서 기술적 주장은 사실상의 규범력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좋은 식물과 동물에 대한 주장이 식물과 동물에게는 동기 부여나 특정 존재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인간은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본성을 지니고, 자신이 인정한 욕구나 이유에 근거하여 행동하고자 원하기 때문에 선한 인간 삶에 대한 주장은 특징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존재(사실)와 당위(가치)의 논리적 단절성을 인정하면서도 심리학적(생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양자 간의 실제적 연관성을 확보하는 일종의 귀추법적 논증<sup>307)</sup>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Narvaez의 마음챙김 도덕이 ‘자연화 된 윤리학 이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이 과정에서 그녀가 존재에서 당위를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생물학적 환원주의를 추구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자.

<표-14> ‘자연화 된 윤리학’과 ‘마음챙김 도덕’

‘자연화 된 윤리학’의 특성 (C. McKinnon)	‘마음챙김 도덕’의 성격 (D. Narvaez)	
1. ‘인간 본성에 대한 사실들’을 윤리이론의 출발점으로 삼음	<div>☞ TET: 인간의 도덕적 동기화 정신구조(moral motivational mindsets)로써 진화로부터 유래한 세 가지 윤리적 정향을 제안</div> <div>☞ IEE: 인간 본성은 ‘협력적’이고 ‘자기-실현적’임을 토대관념으로 제시</div>	
2. 경험과학적 관점의 기능적 선과 윤리학적 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함	<div>기능적 선</div> <div>☞ 성숙한 도덕적 기능(4 구성 요소별 윤리적 기술 및 마음챙김의 하위기술) 발휘 →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 선(good)의 실현</div>	<div>윤리학적 선</div>
		<div>☞ ‘인간 고유기능(ergon)-이성’ 발휘→ 좋음(good), 공동체 내에서의 잘 사는 삶, 번영(flourishing), 행복(eudaimonia)등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 실현</div>
3. 경험과학적 사실(존재)로부터 윤리이론(당위)을 직접 도출하는 생물학적 환원주의 지양	<div>☞ 귀추법적 논증: TET 및 IEE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및 인간의 도덕적 기능에 대한 학제적 근거를 제시(과학적 지지 근거)→ 기존의 도덕 원리(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유교 윤리, 고대 그리스 덕윤리 이론)와 결합하여 새로운 규범적 지향인 ‘마음챙김 도덕’을 제안(규범적 주장 제안)</div>	
4. 인간 고유 기능(자기 반성적	<div>☞ 인간 고유 기능(자아 내에서 경쟁하는 윤리적 정향</div>	

307) 마음챙김 도덕에 나타난 귀추법적 논증에 관하여는 후속되는 4절의 논의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인식 능력, 마음 읽기 및 사회적 협력 능력)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사회성, 자아와 인격 형성)을 규정함	들의 조화, mindset 조성을 위한 감정의 역할관련 지식, 공감, 타자전망에 대한 판단중지 및 역할채택능력을 포함하는 친사회적 감정들에 대한 경향성, 자기감정 인지, 순간적 주의집중과 사회적 편견 통제 기술들, 4-구성요소 모형에 속하는 윤리적 기술들)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협력적이고 자기-실현적인 존재’로 규정함
5. 인간에게만 고유한 인격 형성을 인간 번영의 객관적 평가 척도로 간주함	☞ IEE 세 번째 토대관념에서 인격 형성의 최종적 책임은 개인에게 주어져 있음을 강조함 → 도덕적 인격의 자기 저작(self-authorship), 자기조절(self-regulation), 자기 생성(auto-poiesis) <sup>308)</sup> 을 강조
6. ‘인격 형성’의 본성→ 다양한 필요와 욕구 발생→ 주관적 동기화→ 객관적 차원의 번영과 주관적 차원의 행복이 연계됨(기술적 주장이 윤리적 규범력을 지니게 됨)	☞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적 삶 속에서의 인격형성의 본성에 내재된 자기 조절은 인간 진화와 발달을 추동해옴, 인간만이 가진 ‘반성적 추상화 능력’은 추론과 직관, TET 안전, 관여, 상상윤리의 조화를 가능케 함, 이 때 적절한 초기 양육 및 교육, 환경 형성을 통해 직관과 추론을 향상시킬 수 있음(기술적 주장이 윤리적 규범력을 지니게 됨)
7. 인간 본성의 사실들에 대한 이해의 정교화를 위해 학제적 접근을 요청함	☞ 마음챙김 도덕의 과학적 지지근거가 된 TET는 ‘도덕성에 대한 자연과학적 고찰’의 성격을 지님. 심리학, 인지과학, 신경생물학, 심리학 등의 경험 과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학제적 이론으로 도덕 현상과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제공해 줌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음챙김 도덕’은 TET의 공동체적 상상과 관여 평온이 결합된 형태로 성숙한 도덕적 기능을 완전히 발휘한 상태를 나타내는 최고의 규범 윤리적 지향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는 인지과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성립된 TET 및 긍정심리학, 마음챙김 자각 연구 등을 경험과학적 지지근거로 삼고 있다. Narvaez는 이를 과학적 근거로 확보한 후, 기독교 윤리(사랑), 불교 윤리(자비), 덕윤리 등 기존의 도덕원리와 결합하여 새로운 규범적 지향으로서 마음챙김 도덕을 제안한다. 위 <표-14>를 통해, 마음챙김 도덕은 자연화 된 윤리이론의 성격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존재에서 당위를 논리적으로 직접 도출하는 연역적 논증 아닌, 귀추법적 논증을 통하여 기술적 주장(인간 본성에 관한 사실)을 규범적 주장으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함정을 피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8) 인지과학의 체화론을 대표하는 Varela와 그의 스승 마투라나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

## 2. 학문적 배경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

도덕교육 관련 학제적 연구에 있어 ‘통합의 폭’과 관련한 기준이 바로 ‘학문적 배경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윤리학과 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규범과학과 경험 과학적 접근이 상호 대화하고 소통할 경우, 학문적 성숙과 발전에 있어 서로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며 이를 토대로 탄생한 도덕교육모형의 경우 도덕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도덕교육을 위한 학제적 연구에 있어 특정 학문적 방법론에 편중되기보다는 인문학, 경험과학 등 상이한 학문적 대상과 연구 방법을 가진 하위 학문들 간 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제 간 교류가 이루어질 때 보다 설명력, 예측력, 효과성이 높은 도덕교육 모델 마련이 가능해 질 것이다. 즉 다양한 학문 및 이론간 접촉과 교류를 교차적으로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학제적 연구의 질적 정교함 또한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2절에서는 Narvaez가 TET와 IEE 이론의 구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학문 및 이론들과 접촉하고 소통하였는지 살펴본다. 단, 해당 논의가 1절의 ‘도덕성에 관한 경험과학적 고찰로서의 IEE’과 ‘자연화 된 윤리학으로서의 TET-마음챙김 도덕’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미 충분히 언급된 점을 감안하여, 학제적 연구의 폭이 얼마나 넓고 배경 이론이 얼마나 다양한 지, 그 양적 측면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정짓고자 한다.

### 1) IEE 토대 이론의 다양성

1항에서는 IEE 이론의 학제적 구성과정에서 활용된 학문적 배경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그 통합의 폭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Narvaez는 전통적 덕윤리를 도덕 스키마(moral schema)와 도덕적 범주(moral category)에의 접근을 통한 ‘도덕 기능(moral functioning)’의 발휘라는 심리학적 독법으로 풀어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대 그리스 덕윤리의 중심 개념인 번영, 행복, 덕, 인격, 유덕자와 실천적 지식의 두 유형인 테크네, 프로네시스를 심리학의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재해석해내고 있으며, 그러한 학제적 연구의 결과물이 바로 IEE이다.

한편 그녀는 이와 같은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성에 접근하는 학문적 고찰의 범위를 인지과학, 신경 생물학, 뇌 과학 등 경험과학의 제 분야로 확대시켰다.<sup>309)</sup> 그녀는 인지과학의 체화론, 동기화된 인지 및 윤리적 행위 산출을 위한 정서의 중요성, ‘동기화된 인지’와 행위자와 맥락(환경)의 상호작용

309) 연구자는 앞서 1절의 논의를 통해 이를 도덕성에 대한 ‘경험과학적’ 고찰로 명명한 바 있다.

용을 강조하는 다양한 신경과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명제적·방법적·조건적 지식으로 구성되는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의 형성이라는 IEE의 핵심적 골간을 형성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과 ‘실천적 적용을 위한 5단계’를 구안(具案)하는 과정에 ‘도덕성에 대한 경험과학적 고찰’의 제 측면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들이 IEE의 구성을 위해 활용되었는지 살펴보자.

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 중 첫 번째는 ‘도덕발달은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함의점은 교육자들이 도덕적 행동의 과정과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Narvaez는 자신이 이러한 교육적 처방을 내리는 경험과학적 근거로, 심리학 연구 중, 인격에 대한 전통적 특질(trait) 접근은 경험적으로 지지되지 못한다는 Mischel(1990)의 연구와 반대로 기술(skills) 접근은 행동이 ‘개인-환경 특성(person-environment features-사회-맥락적인 기대를 포함한)’이 일치하는 세트에 부합되는 환경 속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연구(Cervone & Shoda, 1999)를 제시한다. 아울러 전체의 두뇌-마음-신체 시스템을 관여시키는 전체론적이고 맥락화 된 이해로서 체화된 인지를 형성하게 된다는(Varela, Thomson & Roach, 1991) 인지과학의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인격에 대한 기술 접근의 핵심적 지지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두 번째 도덕 교육적 함의점은 교사들은 도덕적 덕목과 도덕적 추론 모두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지하기 위한 근거로 의식적 추론이 우선하며 무의식적 사고가 후속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반전을 입증한 인지과학의 연구(Laykoff & Johnson, 1999; Varela, 1999), 의식적인 마인드는 다양한 무의식의에 대해 부차적인 절차로서의 의사결정 체계임을 주장한 뇌 과학, 심리학, 인지과학의 다양한 연구들(Damasio, 1996, 1999; Hogarth, 2001; Rever, 1993; Varela et al., 1991)을 제시하고 있다.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 중 두 번째는 ‘교육은 변형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Narvaez는 아동들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변형시킨다는 Varela의 연구를 제시하며(Varela et al., 1991), 덧붙여 인간이 활동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 이해한다는 인지적 구성주의의 관점(Piaget 1952; Aderson, 1989)을 근거로 내세운다. 덧붙여 구성주의의 관념이 인지가 어떻게 “상황 지워지고(situated)” 맥락화 되는지(Derry & Lesgold, 1996), 인지가 행위자와 환경 사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의 역동적 시스템을 형성하는 지(Thelen & Smith, 1994), 인지가 결국 어떻게 다양한 생화학적 시스템 속에서 결국 체화되는지(Damasio, 1999), 마음(mind)이 어떻게 몸과 환경과 불가분하게 연결되는지(Laykoff & Johnson, 1999) 등 다양한 심리학, 인지과학의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화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Narvaez는 이러한 토대관념에 대한 첫 번째 함의점으로 교육자는 적절한 윤리적 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잘 구조화된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말한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환경이 직관을 교육한다고 본 Hogarth(2001)와 Sternberg 및 Torff(2001)의 사회 인지적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두 번째 시사점은 윤리적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숙고적인 마인드와 직관적인 마인드 모두를 포함한 전체적 몰입 접근법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Narvaez는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지역, 브루너의 비계 설정, Varela의 체화된 인지론 등의 연구 결과를 경험과학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IEE의 마지막 토대관념은 ‘인간 본성이 협력적이고 자기실현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arvaez는 진화심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이 협력적이고 사회적임을 강조하고, 다윈이 인간의 이기성보다 도덕적 감각을 훨씬 더 많이 언급한 점을 진화 생물학적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그녀는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으로 인간이 자기-실현적인 존재라는 점을 들며, 여기서 자기실현의 궁극적 의미는 결국 인격발달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인격 형성의 최종적 책임은 각 개인이 지게 되며, 인격형성을 심리학적 견지에서 처방할 때 자기-조절 기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연구 사례로 자기 조절의 단계적 획득을 다룬 Zimmerman(2000)의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IEE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5단계’에 ‘도덕성에 대한 경험과학적 고찰’이 실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IEE 적용의 1단계는 ‘개별 학생과 배려 관계 확립’이다. 이러한 단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Narvaez는 초기 양육과 인지적 경향성의 확립에 관한 Greenspan과 Shanker(2002)의 연구, 포유류로서 인류가 주로 사회 정서적인 존재이며, 배려와 정서적으로 연계된 관계로부터의 보상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진화생물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실천적 적용의 2단계는 ‘성취와 윤리적 인격을 지지하는 교실 분위기의 확립’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녀는 조직적인 환경과 문화는 직관과 행동을 형성시킨다(Power, Higgins & Kohlberg, 1989)는 연구, 배려하는 교실과 학교는 높은 성취 및 도덕적 행동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일련의 연구(Battistich, 2008; Zins, Weissberg, Wang & Walberg, 2004) 및 배려하는 학교와 교실 공동체의 특징에 관한 연구(Solomon, 2002) 등 일련의 도덕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실천적 적용의 3단계는 ‘초보자에서 전문가로의 교육을 활용한 윤리적 기술의 교수’이다. 이는 IEE의 핵심적 요체를 담은 과정이기도 하다. 이 단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Narvaez는 Varela의 윤리적-노하우(Varela, 1999)의 체화된 인지 및 사회-인지적인 도덕적 인격 이론을 핵심적 근거로 제시한다. 사회인지적인 인격 심리학에서 도덕적 인격이 자동화된 도덕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사회적이고 실행적인 경험으로부터 확립되는 것이라고 제안한 일련의 연구 결과(Lapsely & Narvaez, 2004a; Narvaez & Lapsely, 2005; Narvaez, Lapsely, Hagele & Lasky, 2006)를 제

시하고 있다. 4단계는 ‘학생의 자기-저자의식과 자기 조절의 고취’이다<sup>310)</sup>. 이 단계의 필요성을 확증하기 위해 Narvaez는 자기-조절이 유기체 내의 진화와 발달의 힘을 추동하는 중심이 되어왔다는 진화론의 주장(Darwin, 1871) 및 자기 저자의식(self-authorship) 및 자기 생성(autopoiesis)-은 살아있는 조직이 하는 일이라고 본 인지과학의 체화론(Varela, Maturana & Uribe, 1974)을 과학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마지막 5단계는 ‘공동체의 자산 및 조화된 발달 시스템 구축’이다. Narvaez는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를 경험과학적 측면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덕윤리학에서 찾고 있다. 부수적으로 개인이 활동적인 생태학적 맥락 속에서 살아간다고 본 인간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Bronfenbrenner, 1979)을 경험과학적 차원에서의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차용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학제적 연구 모형인 IEE의 구성을 위해 규범과학·경험과학적 배경을 가진 다종다기(多種多岐)한 토대 이론들이 상호 소통하고 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II장의 ‘<표-2> 도덕과 학제적 접근을 위한 배경 학문의 분류’의 틀을 활용하여 IEE 학문적 배경 및 토대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15> IEE 학문적 배경 및 토대 이론의 다양성

		동(東)	서(西)
고(古)		㉠ 동양 윤리 (유·불·도) ㉠-① 체화론: 유·불·도 사상	㉡ 서양 윤리 ㉡-① 덕윤리(Aristoteles): 좋음, 번영, 행복, 덕, 인격, 유덕자, 테크네(Platon & Aristoteles), 프로네시스(Aristoteles) ㉡-② 칸트 윤리: 추론과 숙고의 중요성, 옳음의 우선성
	금(今) 현대(20C 이후)	㉢ 불교 명상 (마음챙김 명상 등)	㉣ 현대 정치 철학 ㉣-① 자유주의(Rawls): 자유주의적 정의론, 옳음, 절차적 정의 ㉣-② 공동체주의 이론: 공동체주의적 정의론, 좋음, 실질적 정의 ㉤ 현대 철학 ㉤-① 체화론(Merleau Ponty): 몸의 현상학 ㉥ (도덕) 심리학, 교육학 ㉥-① 인지적 구성주의(Piaget, Aderson, Vygotsky, Bruner) ㉥-② 도덕성 발달 단계이론(Kohlberg): 추론과 숙고, 정의, 옳음의 중요성

310) 실천적 적용의 4단계는 앞서 언급한 IEE의 세 번째 토대관념의 내용 중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기-실현적이다.’라는 부분에 상응하는 도덕 교육 과정이다.

311) Rest 4구성요소 모형 안에 도덕적 공감과 배려(Hoffman, Gilligan, Noddings), 도덕적

		㉠-③ 분위기와 풍토의 중요성 연구(Power, Higgins & Kohlberg, Battistich, Zins, Weissberg, Wang & Walberg, Solomon) ㉠-③ 4구성요소 모형 <sup>311)</sup> (Rest & Narvaez) ㉠-④ 긍정심리학(Seligman 등)
	최근 이론	㉡ 심리학, 인지과학, 뇌 과학, 신경생물학, 사회생물학, 신경윤리학, 진화론 등 경험과학 이론 ㉡-① 사회 인지이론 · 전문성 연구(Sternberg & Torff, Hogarth, Rever, Mischel, Cervone & Shoda, Derry & Lesgold, Thelen & Smith) ㉡-② 인격 심리학(Lapsely & Narvaez, Narvaez & Lapsely, Hagele & Lasky) ㉡-③ 인지과학: 체화된 인지(Varela, Thomson & Roach, Laykoff & Johnson), 윤리적 노하우(Varela), 자기 생성(Varela, Maturana & Uribe) ㉡-④ 신경과학: 도덕인지 신경과학(Moll et al), 도덕적 정서와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경과학이론(Haidt, Greene 등), 체화론(Damasio) ㉡-⑤ 진화생물학: Darwin, Wilson, MacLean, Pankcepp

## 2) TET 토대이론의 다양성

2항에서는 TET 및 ‘마음챙김 도덕’의 이론 구성을 위한 학제적 소통 과정에서 활용된 학문적 배경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그 통합의 폭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정서적 뿌리를 가진 도덕적 동기를 제안하는 TET는 인지과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또한 TET의 관여윤리와 공동체적 상상이 결합된 규범적 지향을 나타내는 마음챙김 도덕은 학제적 이론인 TET와 긍정심리학, 마음챙김 자각 연구 등을 경험 과학적 지지근거로 삼고 있다. 여기에 기독교 윤리(사랑), 불교 윤리(자비), 덕윤리 등 기존의 도덕원리를 결합하여 새로운 규범적 지향으로서 제안된 것이 마음챙김 도덕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1절의 논의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기로 하고, TET-마음챙김 도덕의 학문적 배경 및 토대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표-16> ‘TET-마음챙김 도덕’의 학문적 배경 및 토대 이론의 다양성

정체성(Blasi, Damon), 자아강도 연구(Mischel) 등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도덕심리학 이론들이 매우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에 이들에 대해서는 표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동(東)	서(西)
고(古)		㉠ 동양 윤리 (유 · 불 · 도) ㉠-① 체화론: 유 · 불 · 도 사상 ㉠-② 불교윤리: 자비	㉡ 서양 윤리 ㉡-① 덕윤리(Aristoteles): 좋음, 번영, 행복, 덕, 인격 ㉡-② 기독교 윤리: 사랑
금(今)	현대 (20C 이후)		㉢ (도덕) 심리학, 교육학 ㉢-① 도덕성 발달 단계이론(Kohlberg): 숙고적 마인드 강조 ㉢-② 긍정심리학 (Seligman 등)
	최근 이론	㉣ 불교: 마음챙김 명상 (J. Kabat-Zinn)	㉤ 심리학, 인지과학, 뇌 과학, 신경생물학, 사회생물학, 신경윤리학, 진화론 등 경험과학 이론 ㉤-① 사회 인지이론, 전문성 연구 (Bargh & Chartrand, Sternberg & Torff, Hogarth, Rever, Mischel, Cervone & Shoda, Derry & Lesgold, Thelen & Smith, Doris, Zimbardo) ㉤-② 인격 심리학(Lapsely & Narvaez, Narvaez & Lapsely, Hagele & Lasky) ㉤-③ 인지과학: 체화된 인지(Varela, Thomson & Roach, Laykoff & Johnson), 윤리적 노하우(Varela), 자기 생성(Varela, Maturana & Uribe) ㉤-④ 신경과학: 도덕인지 신경과학(Moll et al), 도덕적 정서와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경과학이론(Haidt, Greene, Damasio, Konner 등), 체화론(Damasio), 도덕적 기능 발휘를 위한 두뇌 기능에 관한 각종 뇌과학 연구(Lewis et al, Nelson & Panksepp, de Waal, Oliner, Goldberg, Cotterill, Mathews et al, Churchland) ㉤-⑤ 진화생물학: 인간의 사회성, 도덕 감정, 삼층 두뇌 이론, 정서신경과학, 애착이론 등 (Darwin, Wilson, MacLean, Panksepp, Bowlby) ㉤-⑥ 마음챙김 자각 연구(Siegel)

위 <표-16>를 통해 동서고금의 규범과학 · 경험과학적 배경을 가진 폭넓은 토대 이론들이 상호 대화하는 가운데 학제적 이론으로서 TET와 ‘마음챙김 도덕’이 탄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승법적 접근을 통한 통합이론 구축

도덕 교육관련 학제적 연구 모델의 완성도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설정한 세 번째 비판기준은 ‘승법적 접근을 통한 통합이론 구축’이다. 여기서 통합이론의 구축에 있어 요소 간 물리적·기계적·병렬적 결합을 추구하는 가법적(加法的) 접근과 달리, 승법적(乘法的) 접근은 개념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는 다른 구성 요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는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이들 구성요소들의 관계가 “곱셈” 관계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구성 요소는 동일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다른 상이한 차원 또는 관점으로, 이들 구성요소들은 단지 개념적으로만 분리될 뿐 모두 한 가지 현상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 번째 기준을 바탕으로 IEE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을 말한다. 첫째, 상이하고 다양한 배경 학문 및 이론 간에 소통·교류 가능한 이론적·실천적 지혜와 통찰 등 교집합들을 적절히 짚어내 해석하고 추출해 내었는가? 둘째, 추출해 낸 교집합들을 핵심 개념어, 원리를 포함한 이론의 정합적 구조들로 포착하여 학제적 연구 모델에 통합적으로 반영해 내고 있는가? 셋째, 연구에 이를 반영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넷째, 학제 간 핵심개념 도출 및 통합이론 구축과정에서 이른바 ‘승법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가?

도덕성에 대한 다층적(multi-layered)·포괄적(comprehensive)·복합적(complex)·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진리들의 일면을 담지하고 있는 개별이론들을 연구자가 고유의 관점을 토대로 한 축으로 잘 꿰어낼 때, 대립 향이 가진 진리성들은 비로소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을 이루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Narvaez가 다양한 배경이론간 승법적 접근을 통해 도덕적 삶에 있어 핵심적 통찰을 제공하는 교집합들을 적절히 추출해 IEE를 구성해냈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첫째, Narvaez가 덕윤리에 대한 현대적(심리학적) 해석과 적용을 감행한 부분에 주목해 보았다. IEE는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을 제시하며 테크네, 프로네시스, 덕, 인격 등 덕윤리의 핵심적 개념을 도덕 스키마의 발달, 도덕적 범주에의 지속적 접근 혹은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 획득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풀어내고 있다. 둘째, IEE와 TET가 주류적 서양 철학과 Kohlberg 인지발달이론이 강조하는 ‘추론’과 최근의 사회 인지 이론, 전문성 연구, 뇌 과학 연구가 강조하는 ‘직관’의 조화로운 파트너 십을 설정함으로써 전뇌(全腦)의 조화로운 활용을 강조하는 부분에 직관과 추론 각각의 진리성들이 반성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제 위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 1) 덕윤리와 IEE

1항에서는 Narvaez가 고대 덕윤리의 주요 개념들을 사회인지이론 및 인지과학과의 학제적 소통 및 재해석을 통해 IEE에 반영해 내는 부분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승법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물리적·기계적·병렬적 통합에 그치고 있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sup>312)</sup>

첫째, Aristoteles 덕윤리와 사회인지이론 및 전문성 연구 등 심리학 이론간에 소통·교류 가능한 이론적·실천적 지혜와 통찰 등 교집합들을 적절히 짚어내 해석하고 추출해 내었는가? 둘째, 추출해 낸 교집합들을 핵심 개념어, 원리를 포함한 이론의 정합적 구조들로 포착하여 학제적 연구 모델에 통합적으로 반영해 내고 있는가? 연구자는 우선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보고자 한다. Aristoteles의 덕윤리는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공동체에서의 번영(flourishing)과 행복(eudaimonia)을 제시한다. 공동체에서 유덕자의 모범적 인격과 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인간 고유의 기능(이성)을 발휘하는 삶이다. 이성의 탁월한 기능에 의해 감정과 욕망이 적절한 중용의 상태로 조율될 때, 번영(flourishing)과 행복(eudaimonia)이 실현되며, 이러한 삶이 곧 ‘좋은 삶’이며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한 삶이 된다. 그렇다면 IEE의 경우는 어떠한가? Narvaez는 덕윤리의 형이상학적 본질주의에 입각한 이른바 논증 형태를 취하지는 않지만, 그녀 역시 ‘공동의 도덕성(communal morality)’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격(character)을 도덕적 이상으로 설정하며 이를 통해 번영과 행복을 실현하는 삶을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자기실현적이고 자기 구성적인 삶이라고 본다. 대신 그녀는 형이상학적 차원의 인간 고유 기능 대신에 사회인지이론의 스키마(schema), 기술(skills), 전문성(expertise)을 덕윤리의 덕(arete)과 연동되는 심리학적 구인으로 설정한 후, 도덕 스키마에 만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곧 윤리적 기술의 체화이며 이를 통해 윤리적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심리학적 용어인 윤리적 전문가는 덕윤리의 유덕자에 다름 아니다.

한편 Narvaez는 IEE에 이러한 유비적 통찰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옳은 행위를 실제로 해봄으로써 옳게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해봄으로써 절제하게 된다.”는 품성적 덕의 습득 과정에서 ‘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Aristoteles의 강조는 Narvaez가 윤리적 기술을 도제식 교육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윤리적 노하우를 체화하게 된다는 논의 구조와 내용 및 형식상의 유사성을 지닌다. 실제로 Narvaez는 덕목과 IEE 윤리적 기술(ethical skills)의 연동가능성을 주장한

---

312) 후속되는 V장 4절의 논의에서 Plato 및 Aristoteles의 덕윤리와 IEE 주요 개념 간 유비 논증(analogy)의 오류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살필 것이므로 여기서는 양자 간의 학제적 소통과 통합이 ‘승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만 논의를 한정지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 따라서 Aristoteles 윤리학에서 도덕적 덕의 습득 근거와 과정을 윤리적 전문성 교육 과정과 비교해 보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작업은 전문성 교육의 특징을 파악함에 있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Aristoteles는 가능태로서의 인간의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본성(physis)이 실천적 지혜의 지시 하에 습관화(ethos)된 중용(마땅한 때, 일,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동기와 태도로 느끼거나 행하는 것)으로 인격 속에 불박한 결과 도덕적 덕의 담지자이자 현실태로서 유덕자로 결과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Narvaez는 생애 초기 뇌의 결정적 시기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도 뇌의 가소성에 대한 강조 및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서 환경과 후천적 도덕교육의 중요성 역시 강조한다. 도덕·윤리교육의 측면에서 인간의 두뇌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행위를 적절한 대상에 대해 적절한 만큼 행동하는’ 윤리적 전문가가 되기까지 평생을 거쳐 완성해 가야하는 mind-set의 확립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곧 지속적 반복 훈련 및 실행(practice)을 통한 윤리적 기술과 노하우의 체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습관화된 중용에 의한 품성적 덕의 확립과정이 단순한 기계적 암기와 반복의 결과가 아닌, 지적인 덕의 일종인 실천적 지혜를 통해 ‘時中’을 획득한 정교한 반성적 균형 상태라는 점은 Narvaez의 윤리적 전문성 역시 윤리적 삶에 대한 이론적 앎과 선언적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실제 삶의 맥락 속 사회적 경험 가운데 정교한 조건적, 절차적 지식을 적재적소에 맞게 적용하면서 체화한 ‘도덕적 지혜’와 매우 흡사하다.

본 연구자는 Narvaez 이러한 학제 간 핵심개념 도출 및 통합이론 구축과정에서 이른바 ‘승법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덕윤리에서는 좋은 인간 삶, 번영, 행복을 위해 형이상학적 차원의 인간 고유 기능(특히 실천적 지혜)과 덕, 인격 개념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Narvaez는 이러한 형이상학적·본질주의적·목적론적 인간 기능을 ‘심리학적 도덕 기능(psychological moral functioning)’으로 대체함으로써 도덕적 인격, 정체성, 성격 형성에 대해 실질적 교육 처방을 내릴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낼 수 있었다. 사회인지이론에서 인격(personality)은 형이상학적 구성물이 아닌, 조직화되고 통합적이며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인지-정서적인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감정적 상태는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규제력을 지닌 요소이다. 이로써 정서와 인지는 서로 얽여진 과정들로 적절히 개념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심리학적 차원의 인격 개념을 통한 도덕성에의 접근은 기존의 도덕심리학 연구가 ‘일상의 도덕성’의 대부분의 영역 및 정서와 직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협소한 의식적 추론에만 집중했던 한계를 극복해냈다. 도덕적 스키마에의 만성적 접근은 곧 윤리적 기술의 체화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도덕적 정체성, 인격이 형성된다. 최종적으로 인간은 도덕적 인격의 형성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좋은 삶(번영, 행복)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덕윤리의 핵심 개념들을 심리학적으로 재해석한 IEE의 핵심개념들은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는 다른 구성요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구성요소들의 관계가 “곱셈” 관계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구성 요소는 동일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다른 상이한 차원 또는 관점으로, 이들 구성요소들은 단지 개념적으로만 분리될 뿐 모두 한 가지 현상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Narvaez는 이러한 학제적 소통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승법적 통합을 이루어 내고 있다.

## 2) 추론과 직관 및 전뇌(全腦)의 조화

2항에서는 Narvaez가 기존 심리학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추론과 직관이라는 두 영역을 통합하고자 도덕 스키마,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전문성 형성이라는 IEE와 TET의 핵심적 통찰에 도달하게 되는 학제적 소통과 통합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기계적 결합이 아닌, 승법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집중하여 IEE와 TET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표-17> 승법적 통합: 추론과 직관 및 전뇌의 조화

㉠ 추론중시 -->		㉡ 추론+직관의 조화: 전뇌활용	<-- ㉢ 직관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이원론적 가정에 입각한 이성주의 서양철학: Plato, 칸트, 롤즈</li> <li>▶ 현상주의 가정에 입각한 합리주의 도덕심리학(추론, 의식적 숙고 포함 도덕적 판단 중시): Kohlber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 일원론적 인지과학 (체화론), 신경과학: Varela, Damasio 등</li> <li>▶ 도덕적 기능의 자동성 · 암묵적 과정, 동기화된 인지 지(인지-정서적 시스템) 강조, 도덕 스키마와 윤리적 기술 강조→사회인지이론과 전문성 연구 및 도덕인지신경과학: 바흐, 호거스, 스텐버그, 무스첸가, 몰 등</li> <li>▶ 인간두뇌의 진화론적 발달 과정을 다룬 신경생물학 이론: MacLean, Panksepp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 판단에 있어 정서와 직관의 우위를 강조하는 직관주의 뇌 과학 이론: Haidt 등 일군의 뇌과학 이론<sup>313)</sup></li> </ul>	
한계(-)	기여(+)	↓ 학제적 통합: IEE, TET	한계(-)	기여(+)
(1) 교육방법론적 한계: 명시적 언어표현과 협소한 가설적 딜레마에 집착	(1)추론이 나이와 경험에 의해 변해감 (2)추론은 특별한 실행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EE: 「추론+직관」 조화로운 통합</li> <li>(1) ‘도덕적 숙고’→ 추론은 직관의 합리성 · 타당성 조</li> </ul>	(1)직관 개념 정의의 모호성 (2)일반적 도덕 기능에 대해 지나치게 간단	(1)도덕판단 형성과정의 직관-정서 체계의 중요성 입증→ 이성 우위 점



<p>(2)지행불일치의 문제</p> <p>(3)이원론가정: 공동체속 체화된 경험에 바탕한 도덕 기능 간과</p> <p>(4) 도덕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추론의 위험성 (유리된 상상, 사악한 상상)</p>	<p>습·활동에 의해 증진가능</p> <p>(3)추론은 행동과 (약하게나)마) 연계됨</p> <p>(4)도덕적 상대주의의 한계 극복가능</p> <p>(5)비도덕적 직관의 오류 교정가능</p>	<p>사 + 직관은 추론에 평가적 신호 제공 → 숙고 과정에서 초기 직관 / 초기 추론은 변환가능</p> <p>(2) ‘윤리적 전문성’→ 도덕적 환경, 윤리적 기술 교육을 통해 직관·추론 모두 체화가능→좋은 직관과 추론은 성숙한 도덕 기능에 영향→ 인격 형성→인간 번영 증진</p> <p>▶ TET: ㉠기질적 경향성+ ㉡상황적 점화→특정 윤리적 정향 촉발, ㉠는 초기 애착 형성을 통한 체화된, 감각-운동적 경험 및 이후 ㉡적절한 환경(직관형성)과 전문성 교육(추론·직관 형성)으로 세 가지 윤리적 정향이 조화를 이루게 됨→ 안전윤리 충족+ 관여평온(우뇌) + 공동체적 상상(좌뇌)→도덕지대/ 전뇌기능(피질-변연계 네트워크) 충분히 발휘</p>	<p>한 설명</p> <p>(3)추론과 숙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 간과</p> <p>(4)도덕성을 문화화와 동일시 (도덕적 상대주의 우려)</p>	<p>근 교정</p> <p>(2) 일상적 도덕 기능의 암묵적 과정 및 자동성 우위 입증</p> <p>(3)정서적 접근/회피에 입각한 즉각적 타인판단을 입증하는 자료 및 해석 제공</p>
--	--	--	--	---

위 <표-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Narvaez가 도덕적 직관과 도덕적 추론의 조화로운 형성을 돕기 위한 도덕교육적 처방으로 IEE를 제시하고 이를 신경생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TET를 제안했음을 알 수 있다. IEE를 구성하는 윤리적 기술과 하위 기술에는 명제적 지식을 다루는 윤리 이론과 추론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이는 성숙한 도덕적 추론 기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한편 이러한 도덕적 추론능력은 도덕적 직관 형성에 유리한 환경 제공 노력 속에서, 성인(교사)의 도움을 통해 실제 삶의 맥락 속에서 훈련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온전히 인격 속으로 체화된다. 도덕적 추론과 직관은 상호 보완적으로 성숙한 도덕적 기능 발휘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게 되며, 이런 조화로운 시너지가 발생할 때 비로소 도덕적 행동이 맥락에 맞게 자유자재로 현출되는 최고의 단계인 윤리적 전문가 될 수 있다. 두뇌 기능

313) 도덕적 직관주의자 이론에는 앞서 다루었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social intuitionist model, SIM: Haidt), 휴리스틱스(heuristics, Cosmides & Tooby, 2004, Gigerenzer, 2008),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적 문법(moral grammar, Hauser, 2006, Young & Cushman, 2008, Mikhail, 2007)등이 포함된다.

적으로 설명하자면, 배려적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안전 윤리는 평온한 상태가 된다. 또한 적절한 환경 속에서 윤리적 전문성 교육을 통해 도덕적 직관과 추론능력이 발달되며, 이는 곧 좌-우뇌기능의 조화로운 연합을 의미하는 ‘피질-변연계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가져온다. 이를 통해 관여 평온과 공동체적 상상이 조화를 이루는 도덕 지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상기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성숙한 도덕 기능 발휘를 위한 두뇌 기능의 전체적·조화적 활용과 추론과 직관의 조화를 통한 성숙한 도덕기능 발휘를 목적함수로 하는 IEE와 TET의 핵심 개념들은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는 다른 구성 요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구성요소들의 관계가 “곱셈” 관계로 이루어지며, 이들 구성요소들은 단지 개념적으로만 분리될 뿐 모두 한 가지 현상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Narvaez는 이러한 학제적 소통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승법적 통합을 이루어 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 4. 논리학적 타당성과 오류여부 검토

논리학적 타당성 및 오류여부 검토라는 네 번째 기준에 입각한 Narvaez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이다. 첫째, TET와 IEE를 구성해내기 위해 수혈 받은 학제적 교류 대상이 된 각 하위 학문 및 개별 이론들의 타당성은 확보되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 과학적 이론의 경우 규범의 정립과 정당화의 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논리적 오류여부 검토) 경험 과학적 이론의 경우 과학적 타당성을 갖추고 반증가능성이 열려있는가?(논리적 오류 및 실질적 오류 여부 검토) 둘째, TET와 IEE 이론 마련을 위해 학제적 접근의 다양한 학문들을 소통하고 접속, 접목해내는 학제 간 담론 형성 과정에서 어떤 논리학적 추론 및 논증법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가? 해당 논증법의 논리학적 타당성이 적절히 확보되는가? 한편 이러한 새로운 이론의 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논리적 오류들(자연주의 오류, 잘못된 유비의 오류, 합성의 오류, 분할의 오류 등)을 범하지 않았는가? 셋째, 토대 이론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구성 혹은 통합된 학제적 연구모델의 주요 이론과 핵심적 아이디어들이 논리적으로 정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있는가? 이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학제적 접근으로서 Narvaez 도덕교육 이론의 논리학적 타당성 및 오류여부 검토라는 네 번째 기준에 따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자.

### 1) 하위이론의 타당성 검토

우선 위에서 제시했던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IEE와 TET의 학제적 교류의 대상이 된 하위 학문으로 우선 심리학에서 Kohlberg류의 도덕성 발달이론, Rest의 4구성요소모형, 사회인지이론 및 그 심화된 연구로 전문성연구 등이 있다. 또한 인지과학의 체화된 인지 이론 및 이와 연계된 불교 심리학 및 불교 윤리와 유교 윤리가 있으며, 신경과학과 관련하여 Damasio의 신체표지가설, Greene의 이중과정이론,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등과 Moll 등의 도덕인지 신경과학 및 기타 도덕성에 관한 다양한 두뇌 기능에 대한 연구 성과가 포함된다. 그리고 신경생물학 이론 중 MacLean의 삼층 두뇌이론과 Panksepp의 정서신경과학이론도 중요한 토대이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덧붙여 Plato, Aristoteles 철학사상을 포함하는 고대 그리스 덕윤리와 그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인격교육이론(인격 윤리) 및 Plato에서 유래하여 Kant, Rawls 등으로 이어진 의무론(규칙 윤리)등이 주요한 학제적 접근의 배경이론이 되어주고 있다.

Narvaez는 최근의 ‘자연화 된 윤리학’의 흐름 혹은 ‘최소한의 심리적 사실에 근거한 윤리학’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인격 소유의 심리학적 접근(인격 심리학)을 자

신의 도덕교육 및 도덕성 발달 이론 구성을 위한 좌표의 출발점으로 설정하여 위의 술한 배경 이론들을 학제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통합해 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Narvaez가 변증법적 통합의 대상으로 삼는 하위이론은 첫 번째 질문이 의도하는 ‘하위학문 및 이론’ 타당성 검토 대상 학문 및 이론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아래 2항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변증법적 통합의 논리 하에서는 쟁점이 되는 하위 이론의 주요 논거들이 어차피 논파(論破)의 대상이 되므로, 여기서 하위 이론의 타당성 확보문제를 다루면서 재론할 실익(實益)이 없기 때문이다. Narvaez가 변증법적 통합의 대상으로 삼는 하위이론에는 Haidt의 SIM 등 도덕적 행위에 있어 직관과 정서의 우선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일군의 신경과학이론 및 반대로 현상주의 가정에 확고한 토대를 두고 추론의 우선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있다. 윤리학 분야에서는 규칙윤리(Plato, 칸트, 롤즈 등)와 인격윤리가 변증법적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Narvaez가 IEE와 TET의 구성을 위해 변증법적 통합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학제적 소통을 통해 전적으로 흡수하고 차용한 이론들, 이를테면 「㉠ Rest의 4구성요소 모형, ㉡ Varela의 체화된 인지이론, ㉢ Moll 등의 도덕인지신경과학이론, ㉣ MacLean의 삼층두뇌이론, ㉤ Panksepp의 정서신경과학이론」 등은 그 이론의 핵심적 통찰들이 고스란히 IEE와 TET에 배어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타당성이 우선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의 교훈처럼 문제성 있는 원(原) 이론을 흡수·재구성 혹은 활용한 학제적 이론은 결국 원 이론의 치명적 오류와 결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규범 과학적 이론의 경우 규범의 정립과 정당화의 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경험 과학적 이론의 경우 과학적 타당성을 갖추고 반증가능성이 열려있는지 논리적 오류 및 실질적 오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의 경우, 최근의 다양한 뇌 과학적 연구 성과에서도 명확히 입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지와 정서가 분리불가의 형태로 얽혀져있다는, 이른바 ‘동기화된 인지’를 토대로 도덕적 행동의 산출을 위해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심리적 과정들을 기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높이 인정받고 있다. 또한 도덕 행동이 단일한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부분과 도덕 기본 요소들을 심리학적 실제 과정이나 기능과 무관한 인지·정의·행동의 견지에서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차원에서 기술하고 그에 의거하여 도덕 교육적 처방을 제시했던 기존의 도덕교육 모형을 반박하고 보다 적실한 교육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 등에서 타당성 높은 통합적 도덕교육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을 도덕교육 모형 구상을 위한 기본적 프레임워크로 차용하는 Narvaez의 IEE는 Rest 모형이 갖고 있는 도덕교육적 효과성 등 일련의 장점들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Varela 등의) ‘㉠ 체화된 인지이론’은 어떠한가? 인지과학은 최근에 급부상한 학제적 학문으로서 특히 체화된 인지 혹은 체화된 마음 이론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이고 최신의 인지과학 이론을 대표하고 있다. 인지과학이 최근의 인공지능 개발 등의 실용적 목적과 맞물려 획기적인 발전가도를 달리고 있음에 비추어 연구자는 체화론의 이론적 장점과 단점에 대한 비판적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갱신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이론이 아직 발전 도상에 있는 학문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반증 가능성 역시 열려진 상태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윤리적 기술의 ‘체화’라는 체화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IEE 역시 체화된 인지이론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토대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강화되거나 약화되느냐에 따라 그 이론 혹은 가설의 힘(검정력)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의 계산주의, 연결주의 등을 비판하는 체화론 측 논거의 과학적 타당성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고, 또한 체화론을 뒷받침하는 경험과학적·규범과학적 논거들의 적실성이 해당이론의 타당성을 상당부분 확보해 주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신경생물학 연구와 사회인지이론이 학제적으로 접목된 ‘㉡ Moll 등의 도덕인지신경과학이론’의 경우, Narvaez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격심리학을 구축함에 있어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신경생물학 연구를 지지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녀의 연구방향 및 목적성에 가장 부합되는 토대 이론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덕성에 관한 신경 과학적 연구는, Greene과 Haidt의 연구를 포함하여 몰 등의 도덕인지신경과학이론 역시, 과학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갖는 문제이외에도 그 자체의 한계를 갖고 있다. 도덕성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제시되는 연구 성과들이 확고하고 일관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뇌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적 연구들은 뇌의 작동을 국지화시키고 만다는 점, 두뇌작용과 도덕적 인지 간의 인과성이 아닌 상관성 정도를 밝혀주고 있을 뿐이라는 점 등이 신경과학적 방법의 미숙이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sup>314)</sup> 따라서 Moll 등의 도덕인지신경과학이론 역시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반증가능성에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도덕적 행동에 있어 직관과 정서의 중요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Haidt의 이론과 달리, 몰 등의 도덕인지신경과학 이론은 뇌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인격과 성격 형성에 대해 비교적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기존의 도덕인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교화한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정교하고 편향성이 적은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이런 이론적 장점 때문에 Narvaez는 도덕인지신경과학의 관점을 대폭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TET의 직접적 토대이론이 되었던 「㉢ MacLean의 삼층 두뇌이론」 및 삼층 두뇌이론을 지지하며, 초기 양육의 중요성과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

314) 노영란(2015), op. cit., p.95

Panksepp의 정서신경과학이론」은 어떠한가? 현재 TET의 경험과학적 지지근거이자 이론적 틀 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차용된 삼층 두뇌이론은 과학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sup>315)</sup> 후속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MacLean이 그의 가설의 토대로 삼은 전통적인 신경해부학적 사고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심지어 현재 이에 대한 과학적 지지자들은 극소수라고 한다. 즉 삼층두뇌이론에 대한 다양한 반증 사례들이 삼층 두뇌이론의 과학적 타당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비록 삼층 모형이 ‘대부분’의 파충류, 초기 포유류, 후기 포유류 간의 인식가능한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반 여론이나 일부 심리학자들 사이에 관심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성공의 이유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순성’ 때문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세 뚜렷한 진화적으로 분명한 두뇌 체계 이외의 어느 수준에서 모형의 응용가능성에 대한 그 어떠한 과학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그 광범위한 설명적 가치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모형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 모형의 인기는 삼층 모형의 세 요소가 추상적 기본 관점을 편안하게 지형화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음을 박장호는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층두뇌이론을 진화생물학·신경생물학적 토대근거로 하여 성립된 Narvaez의 삼층 윤리이론 역시 그 타당성과 설명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함이 옳다. 최대한 긍정적인 시각에서 TET의 타당성에 대한 평점을 매긴다 하더라도, 삼층 두뇌이론이 광범위한 진화론적 증거들에 의해 확고하게 입증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정교한 이론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토대로 성립된 메타이론인 TET 역시 두뇌 기능에 대한 비유적 관점에서의 거칠고 개략적인 차원의 설명에 기반한 실용적 가설 혹은 제안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Narvaez가 앞으로 메타이론으로서 TET의 이론적 설명력과 타당성을 계속 인정받고, 그 도덕교육적 함의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자 한다면 토대이론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교하고 타당성 있는 이론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진화론적·신경생물학적 보충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론의 토대를 강화하고 정교화 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2) 변증법적 통합의 논리학적 타당성 검토

앞서 본 논문의 II장 3절에서 언급했듯이 추론(논증)의 종류에는 연역추론, 귀납추론, 귀추법적 추론, 변증법적 추론 등이 있다. 한편 특정이론 혹은 연구모형의 논리학적 타당성을 따진다는 의미는 해당 이론 혹은 연구 모형이 취하고 있는 논리적 추론(연역법, 귀납법, 귀추법, 변증법 등)의 절차가 올바른지 따져 ‘보편적 시인가치’를 갖는 지를 확인하고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Narvaez가

315) 박장호(2012), op. cit., pp.228~229 참고

자신의 학제적 접근 및 이론적 입장 개진에 있어 주로 ‘변증법적 통합’의 논리에 기초해 있는 바, 변증법적 논증의 의미 및 타당성 성립 조건을 소략하게 살펴본 후, 변증법적 논리학의 체계 내에서의 통합적 도덕교육모형(IEE) 및 삼층윤리이론(TET)의 통합모델로서의 타당성 및 자기완결성 측면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변증법적 논증의 의미와 변증법적 추론의 타당성 성립조건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이어 직관과 추론, 규칙윤리와 인격윤리, 인격발달을 위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 등 Narvaez가 변증법적 통합의 대상으로 삼은 대표적인 쟁점들의 변증법적 지양(止揚)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Narvaez가 앞서 살펴보았던 변증법적 추론의 타당성 성립조건에 맞게 변증법적 논증을 전개하는 지, 다시 말해 논증의 타당성이 적절히 확보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변증법적 쟁점 명제를 진리명제로 전형(轉形)시킬 ‘진리능력 있는 작동구조’로서 Narvaez가 어떤 목적론적 함수를 제시하며 또한 어떤 논리구조 틀 속에서 각 대립 항들을 하나로 관통해내고 있는 지 살펴볼 것이다.

### (1) 변증법적 추론의 타당성 확보 조건

현대적 의미의 변증법(dialectic, 辯證法)<sup>316)</sup>의 의미는 동일률(同一律)을 근본원리

316) 이 말은 그리스어의 ‘dialektike’에서 유래하고, 원래는 대화술·문답법이라는 뜻이었다.

변증법의 창시자라고 하는 제논은 상대방의 입장에 어떤 자기모순이 있는가를 논증함으로써 자기 입장의 올바름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문답법은 소크라테스에 의해 전개되고, Plato에 의해 변증법은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시되었다. 근세에 와서 변증법이란 말에 다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칸트이다. 칸트는 변증법을 우리의 이성(理性)이 빠지기 쉬운, 일견 옳은 듯 하지만 실은 잘못된 추론(推論), 즉 ‘선험적 가상(假象)’의 잘못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가상의 논리학’이라는 뜻으로 썼다. 이와 같이 칸트에 이르기까지의 변증법이란 말은 어느 경우에서나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효한 기술 및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모순율(矛盾律)을 부정하는 특별한 논리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변증법이란 것을 인식뿐만 아니라 존재에 관한 논리로 생각한 것은 헤겔이었다. 헤겔은 인식이나 사물은 정(正)·반(反)·합(合)(정립·반정립·종합, 또는 卽自·對自·즉자 겸 대자라고도 한다)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3단계적 전개를 변증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정(正)의 단계란 그 자신 속에 실은 암암리에 모순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며, 반(反)의 단계란 그 모순이 자각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순에 부딪침으로써 제3의 합(合)의 단계로 전개해 나간다. 이 합의 단계는 정과 반이 종합 통일된 단계이며, 여기서는 정과 반에서 볼 수 있었던 두 개의 규정이 함께 부정되면서 또한 함께 살아나서 통일된다. 즉, 아우프헤벤(aufheben:止揚 또는 揚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에 관해서도 변증법적 전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존재 그 자체에 모순이 실재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변증법은 모순율을 부정하는 특별한 논리라고 생각된다.

로 하는 형식논리에 대하여, 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원리로 하여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논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형식논리에서 기본으로 삼는 자동률(自同律), 모순율(矛盾律), 배중률(排中律)을 부정하는 변증법적 추론은 어떻게 그 논증으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모순율을 부정하는 논리가 어떻게 진리성을 내포하며 보편적 인식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변증법적 논증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또한 역으로 타당한 변증법적 논증이 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Narvaez 도덕교육 이론의 논리학적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해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학제적 접근을 통해 자신의 도덕교육 이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변증법적 통합의 논리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화용론을 통한 진리 이론적 변증법 파악을 통해 변증법의 타당성 근거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홍윤기의<sup>317)</sup> 변증법적 추론의 타당성 확보 근거를 참고해 보자. 변증법적 추론과 연역추론, 귀납추론 등 다른 추론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진 변증법의 통상적 관행에 대해 Plato보다 훨씬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Aristoteles는 “진리이면서도 근원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필증적 추론’과 “엔독사”, 즉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견들’에서 출발하는 변증법적 추론을 구분했다. 그러나 변증법적 논증(추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Aristoteles가 이른바 쟁점입지(το ποι)라고 규정한 그 출발조건에서 문제성을 제거함으로써, 최소한 그 문제성이 나타났던 쟁점 발생 수준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을뿐더러, 다시는 똑같은 쟁점이 쟁점으로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홍윤기는 지적한다. 그는 덧붙여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변증법의 작동에 의거하는 논증 내지 추론은, 전제의 진리값을 손실시키지 않고 그대로 결론의 정당화에 전이시켜 그 타당성을 확보하는 연역적 추론과 그 성격이 결정적으로 달라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변증법적 추론은 (연역논증의 용어를 빌려 설명하자면) 전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결론의 도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추론의 전제는 연역적이거나 귀납적인 논증과는 달리 결론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변증법의 결론은 그 출발조건이 되는 쟁점과 대립관계에 서서 쟁점 명제들을 도리어 부정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때문에 변증법적 추론 또는 논증의 결론은 참이 된다. 그러면서 변증법적 논증은 연역논증에서와는 달리 전제가 결론의 진리 값을 담보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과의 연관성에 따라 전제의 진리 값이 사후에 규제되거나 규정된다. 이것은 곧 전제 명제들을 접합하는 논리적 연결사의 진리 함수적 연산에 의거해서는 결론명제의 참과 전체논증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뜻한다.

317) 홍윤기(2002), 「변증법의 타당성 근거의 재정립-사회화용론을 통한 진리이론적 변증법 파악」, 『철학』, 제 70호, pp.244~246 참고



이렇게 되면 문제의 관건은 출발조건과 대립되는 결론을 도출해내면서도 그 결론의 참과 아울러 논증 전체의 타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진리함수적일 수는 없는, 그런 논증 내지 추론의 작동구조를 구성해낼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있다. 결국 변증법의 도입 조건이 되는 쟁점입지론의 특성은 결국 변증법적 작동의 구조가 그 출발조건이 되는 쟁점 명제들을 어떻게 변형시켜 이 선행하는 명제들의 진리값까지 역으로 규정하는 진리명제들을 결론으로서, ‘도출(導出)’이 아닌, ‘산출(產出)’ 혹은 생산해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다시 말해서 변증법의 본질 조건이자 타당성 있는 변증법적 추론의 구성요건은 출발조건이 되는 변증법적 쟁점 명제를 진리명제로 전형(轉形)시킬 ‘진리능력 있는 작동구조’를 창출하는 데 있는 것이다.<sup>318)</sup>

## (2) IEE 변증법적 통합의 논리학적 타당성

「직관과 추론, 규칙윤리와 인격윤리, 인지와 정서, 정의와 배려, 정의와 공감, 발달(자율성)과 사회화(내면화), 추론과 공감, 정의와 공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은 도덕교육에 있어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상이한 목표, 내용, 방법, 평가와 연계되는 대표적인 쟁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교육에 있어서의 대표적 쟁점에 대하여 Narvaez는 하나를 취하고 대립되는 하나를 버리는 취사선택 식 접근이 아닌, 변증법적 논증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을 구성함으로써 상기의 대립 항들을 융합해 내고 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도덕적 행동 현출에 필요한 인간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도덕심리학적 전거(典據)들을 바탕으로, 실제 인간 삶 속에서 성숙한 도덕적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이론들의 진리 값들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포괄적 도덕교육 이론을 구성해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은 모두 ‘윤리적 전문성의 획득’, ‘윤리적 기술의 체화’, ‘도덕 스키마의 발달’, ‘성숙한 도덕 기능의 발달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이라는 일련의 정합적인 논리 구조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관지(一以貫之)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변증법의 본질 조건이자 타당성 있는 변증법적 추론의 구성요건으로 출발조건이 되는 변증법적 쟁점 명제를 진리명제로 전형(轉形)시킬 ‘진리능력 있는 작동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Narvaez는 도덕 스키마로의 지속적 접근,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성숙한 도덕적 기능의 발휘, 이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의 획득 혹은 인격형성이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을 가능케 한다는 ‘진리능력 있는 작동구조’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제 이러한 변증법적 작동구조를 바탕으로 Narvaez가 직관과 추론, 규칙윤리와 인격윤리 등 대표적인 쟁점 명제들을 변증법적으로 지양(止揚)해내는 과정을 살펴

318) Ibid. pp.245~246 참고

보자. 다만 각 논증의 상세한 과정은 앞서 IV장의 내용을 통해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Narvaez가 앞서 살펴보았던 변증법적 추론의 타당성 성립조건에 맞게 논증을 전개하는 지, 다시 말해 논증의 타당성이 적절히 확보되는 지의 여부를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추론과 직관의 변증법적 지양과 통합의 과정은 어떻게 도식화 될 수 있는가?<sup>319)</sup> 「(1) 정(正)-추론 중시 이성주의 입론: 합리적 사고에 입각한 정의 추론의 사용이 도덕발달의 최상위 단계이다. 전 인습 수준, 인습 수준의 도덕성은 칸트적 의미의 보편화가능성 정식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를 나타낸다. (2) 반(反)-이성주의에 대한 반론: 이성주의 모형이 강조하는 도덕 판단은 도덕적 행동을 담보하지 못한다(지행불일치 문제). 의식적 숙고와 추론만이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면, 일상의 도덕적 행위의 대부분이 그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도덕적 고찰의 대상이 협소한 범위에 제한됨). (3) 합(合)→정(正)-정서 중시 직관주의 입론: 도덕 판단(인신적 딜레마의 의무론적 판단 상황 포함)을 하는 인간 두뇌의 fMRI촬영 결과 정서와 관련된 뇌 부위가 두드러지게 활성화되었다. 대부분의 도덕 판단은 감정적으로 활성화된 직관에 의한 것이며, 도덕 추론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직관적 판단을 사후에 합리화하는 것이다. (4) 반(反)-직관주의에 대한 반론: 직관 개념이 모호하다(직관과 정서는 동의어가 아니다). 직관의 오류가능성을 간과하였다. 추론과 숙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축소하였다. (5) 합(合)- Narvaez의 변증법적 통합: 추론과 직관은 인간의 성숙한 도덕적 기능에 모두 필요하다. 추론과 직관을 모두 포함하는 도덕 스키마에 만성적으로 접근하고, 윤리적 기술을 체화함으로써 윤리적 전문성이 형성된다. 윤리적 전문성의 형성은 곧 인격의 소유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 규칙윤리와 인격윤리<sup>320)</sup>의 변증법적 지양과 통합의 과정은 어떻게 도식화 될 수 있는가? 이 쟁점은 앞서 논한 도덕적 직관과 도덕적 추론의 변증법적 통합의 변용(變容)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sup>321)</sup> 「(1) 정(正)-규칙윤리 입론: 규칙윤리에서는 구

319) 이 과정은 앞서 3절에서 다룬 ‘승법적 접근을 통한 통합이론 구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Narvaez가 추론과 직관을 변증법적 논증을 통해 배경 이론간 승법적 통합을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320) III장 4절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Narvaez는 Plato의 이성 중심 윤리에서 비롯되어 칸트, 롤즈에게 이어지고 Kohlberg의 인지 발달적 접근으로 이어진 서구적 전통을 ‘규칙 윤리(rule ethics)’로, Aristoteles를 위시한 고대 그리스의 전통적 덕윤리적 접근에서 비롯된 현대의 인격 교육에서의 덕교육 및 인격교육적 접근을 ‘인격 윤리(character ethics)’로 구분한 후, 양자가 조화된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321) Narvaez와 복(2014)은 “Developing ethical expertise and moral personalities”에서 이성적 도덕교육이 강조하는 ‘숙고적 마인드’와 전통적 인격 교육적 접근이 강조하는 ‘직관적 마인드’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성주의와 어른들에 의한 교육적 지도를 활용하고 있고, 시민적 참여를 위한 추론을 장려하며, 상대주의를 불식하고 있다. (2) 반(反)-규칙윤리에 대한 반론: 도덕적 행동을 위해 불충분한 도덕적 추론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강조하고 있고,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중심성을 간과하고 있다. (3) 합(合)→정(正)-인격윤리 입론: 인격윤리는 (규칙윤리의 형식주의와 달리) ‘내용’의 중요성 및 심리학에서 입증된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통찰을 강조하고 있다. (4) 반(反)-인격윤리에 대한 반론: 상대주의의 부담에 열려있는 핵심적 덕목들(core virtues)의 조합의 변화, 자율성의 중요성에 대한 경시, 그리고 문제가 많은 교육 방법론 등에 있어서 결점이 있다. (5) 합(合)- Narvaez의 변증법적 통합: 인격윤리와 규칙윤리의 양 측면은 통합적 도덕 교육에 모두 필요하다. IEE는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도덕 스키마와 윤리적 기술을 체화함으로써 윤리적 전문성이 형성된다고 보며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규칙윤리와 인격윤리적 교육 양 측면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양자 모두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윤리적 전문성의 형성은 곧 반성적 이성(규칙윤리)과 유덕한 품성의 소유(인격 윤리)의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인격의 소유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

### 3) 형식논리학적 오류여부 검토

여기서는 학제적 이론의 비판 준거로서 IEE와 TET 이론 구성 과정에서 형식논리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오류(fallacy)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물론 이러한 형식 논리학적 오류의 검토 대상에는 2항에서 언급한 변증법적 통합에 의한 이론 구성 측면이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마음챙김 도덕성’의 제안에서 Narvaez가 자연주의 오류를 범했는가의 여부와, 덕윤리와 IEE 핵심 개념 간 연동을 주장함에 있어 유비추리 오류 여부 및 개념 간 호환의 적실성을 살펴본다.

#### (1) ‘마음챙김 도덕’의 자연주의 오류여부 검토

여기서는 Narvaez가 TET를 발표하고 난 뒤, 도덕의 최고단계로서 하위 도덕들을 통합할 수 있는 도덕체계를 구안하는 데 공을 들이면서 그 결과물로 제시한 ‘마음챙김 도덕성(mindful morality)’이 존재(사실), 다시 말해 자연과학적 사실로부터 당위(가치)를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자연주의 오류(the naturalistic fallacy)’를 범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sup>322)</sup>

---

322) 자연주의 오류는 앞서 학제적 접근의 비판적 고찰의 첫 번째 기준인 환원주의적 접근 지양과 논리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생물학적 환원주의와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

인간의 다층적인 도덕적 동기를 제안하는 도덕심리학 이론인 TET(기술적 주장)로부터 도덕 발달의 궁극적 목표로서 마음챙김 도덕성(규범적 주장)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자연주의 오류를 범했는가의 문제는 결국, ‘윤리학의 자연화(생물학화)’라는 학제적 이론 정립의 허용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쟁점으로 환연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이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토대로 제시하는 도덕 현상 및 인간 본성에 관한 ‘기술적 주장’과, 인간 본성에 관한 사실로부터 윤리학 이론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자연화 된 윤리학’의 ‘규범적 주장’의 접이지대에서 두 주장을 어떻게 연결하여 접점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꾸어 말해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리의 생물학화(자연화)’가 가능하고도 필요한 역할<sup>323)</sup>로 첫째, 기술윤리학(Descriptive ethics)적 측면에서 자연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도덕의 기원과 도덕 현상에 대한 과학적, 진화 생물학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메타 윤리학(Meta ethics)적 측면에서 자연과학적-생물학적 설명과 정합적인 메타 윤리학을 정립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규범 윤리학(Normative ethics)적 측면에서 도덕 현상과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지지(support) 근거이자 증거(evidence)로 삼아 셋째,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지식에 기초한 윤리적 신념의 오류를 폭로하며 넷째, 기존의 도덕 원리와 결합하여 새로운 도덕규범을 제시하고 다섯째, 특정한 도덕 규범을 지지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의 생물학화(자연화)가 규범윤리학적 측면에서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되는 침범 불가 혹은 금기의 영역으로 연역 논증에 의존하여 ‘자연과학적-생물학적 사실로부터 도덕규범을 직접적으로 도출하고 정당화하는 차원’이 엄존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이른바 ‘흙의 법칙’을 위반하는 명백한 자연주의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Narvaez가 TET로부터 마음챙김 도덕을 제안하는 ‘윤리의 생물학화(자연화)’ 과정에서 위의 첫째~넷째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금기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자연주의 오류를 범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런데 생산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위에서 말하는 ‘자연주의 오류’의 의미와 오류가 성립되는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sup>324)</sup> 이와 관련하여 무어(G. E. Moore)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일차적으로 ‘정의가 불가능한 선을 정의하는 오류’로 정의한 다음에 선을 정의하는 구체적 방식을 기준으로 ‘자연주의 윤리이론의 자

---

한다. 이미 본 연구자는 Narvaez가 학제적 접근을 취함에 있어 생물학적 환원주의 접근을 지양하고 각 학문의 고유한 방법론의 경계를 지키는 가운데 소통하고 교류하였음을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는 마음챙김 도덕성이 ‘자연주의 오류’라는 형식논리학적 오류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보다 세분화되고 확장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23) 류지한(2015), 「윤리의 생물학화: 자연주의적 오류와 반자연주의적 오류를 넘어서」, 『윤리연구』 제103호, p.26 참고

324) Ibid., p.6 각주 참고

자연주의적 오류’와 ‘형이상학적 윤리 이론’의 자연주의적 오류를 구분하여 다룬다. 전자는 ‘비자연적인 선을 자연적인 것(속성이나 특징)으로 환원하여 정의하는 오류’를, 후자는 ‘초자연적인 형이상학적 존재를 최고선으로 정의하는 오류(존재와 선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 오류는 각각 ‘선의 정의 불가능성 논제’, ‘선의 비자연성 논제’, ‘흄의 법칙 논제’에 기초하고 있다.<sup>325)</sup>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우선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자연주의 오류의 타당성에 대한 독자적 검토는 본 연구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에 별론(別論)으로 해두고자 한다. 다만 무어가 말하는 ‘자연주의적 오류’ 용어의 애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마음챙김 도덕성’이 ‘자연주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현재 논의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용어 사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연주의 오류’의 유형 중, ‘연역적 오류(deductive fallacy)’로 비판적 고찰의 범위를 한정짓고자 한다.

그렇다면 ‘연역적 오류’ 혹은 ‘흄의 법칙 논제’가 의미하는 자연주의 오류의 의미와 구성요건은 정확히 무엇인가? 흄의 법칙(Hume’s Law)에 의하면 존재(사실) 명제와 윤리적 당위 명제를 구분하면서 윤리적 명제를 사실 명제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존재와 선을 동일시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는 ‘적자가 생존하고 약자가 제거되는 것은 자연적인 진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진화생물학의 사실적 전제로부터 곧바로 ‘적자가 생존하고 약자가 제거되는 것은 선이다.’라는 윤리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론적 자연주의의 추리는 전제 안에 없는 ‘선’이라는 용어를 결론 안에 끌어 들이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처럼 진화생물학적 사실로부터 윤리적 규범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일찍이 흄이 강조한 바 있는 존재(is)/사실에서 당위(ought)/가치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흄의 법칙’을 위반하는 오류이다.<sup>326)</sup>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역적 논증 전개에 있어 존재(사실)로부터 당위

325) 첫째, ‘선의 정의 불가능성 논제’는 의미론의 맥락에서의 자연주의적 오류로써 ‘정의가 불가능한 것을 정의하려는 오류’라는 점에서 ‘정의론적 오류(definistic fallacy)’로 부를 수 있다. 둘째, ‘선의 비자연성 논제’는 존재론적 맥락의 자연주의적 오류를 의미하며 비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환원하여 정의하는 오류라는 점에서 ‘환원론적 오류(reductionist fallacy)’로 명명할 수 있다. 셋째, ‘흄의 법칙 논제’는 논리적 맥락의 자연주의 오류를 주장하는 근거로 볼 수 있으며 ‘존재에서 당위를 연역하는 오류’라는 점에서 ‘연역적 오류(deductive fallacy)’로 부를 수 있다.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말의 어의적 의미에 가장 적합한 오류는 존재론적 맥락의 자연주의적 오류(환원론적 오류)이지만, 무어는 오히려 의미론적 맥락의 자연주의적 오류(정의론적 오류)를 핵심으로 보고, 환원론적 오류와 연역적 오류를 정의론적 오류의 구체적 사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오류 사이에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칭해서 불러도 될 만큼의 논리적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세 오류의 타당성은 각각 독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류지한 교수는 이러한 자연주의적 오류의 용어의 애매성은 이후 자연주의적 오류 관련 논쟁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가치)를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논리적 오류(흠의 법칙 위반)로서 자연주의 오류의 의미를 한정지어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Narvaez는 TET로부터 마음챙김 도덕성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사실(존재)에서 가치(당위)를 직접 도출함으로써 흠의 법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그녀가 TET(진화로부터 유래한 정서적 뿌리를 가진 인간의 세 가지 윤리적 동기적 정향을 설명하는 신경생물학적 토대에 기반한 도덕심리학이론)으로부터 규범적 지향으로 ‘마음챙김 도덕성(안전의 윤리 충족, 관여평온과 공동체적 상상의 결합과 조화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을 제안한 것은 ‘사실/존재’로부터 ‘가치/당위’를 직접적으로 도출한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가? 그녀는 진화생물학적 사실로부터 도덕규범을 직접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연역적 논증 과정에서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 것인가?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본 연구자는 Narvaez가 기술적 주장(사실)으로부터 규범적 주장(당위)를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그녀가 규범 윤리학이 최소한의 심리학적 실재에 의해 근거 지워질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모든 도덕적 개념은 개인을 도덕적으로 성숙시키는 성격, 동기화 구조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제약조건을 제시한 부분을 살펴보자. Narvaez는 ‘최소한의’ 심리학적 실재(fact)에 근거 지워진 윤리학, 자연과학적 지지 근거에 정합적인 윤리학을 옹호할 뿐 심리학적 사실로부터 당위적 규범을 도출하려는 환원주의적 시도를 감행하지 않는다. 이제 이를 보다 상세하고 정교화 된 논의의 형태로 풀어내보자.

본 연구자는 Narvaez가 TET로부터 마음챙김 도덕성을 규범적 지향으로 설정하는 ‘윤리의 생물학화(자연화)’과정에서 일련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논증이 아닌 ‘귀추법적 논증’을 차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흠의 법칙은 존재(사실)에서 당위(가치)의 직접적 도출을 금지하는 논리적 추론 규칙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적 추론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재와 당위, 사실과 가치를 연결하는 우회로를 탐색하는 것은 결코 오류가 아니다.<sup>327)</sup> 다시 말해 자연주의적 오류와 반자연주의적 오류<sup>328)</sup>를 넘어서 존재(사실)과 가치(당위) 사이의 ‘논리적 단절성’을 인정하면서도 둘 사이의 ‘실제적 연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논리적 매개물을 설정하고 우회로를 탐색하는 것은 생물학(자연과학) 정합적인 윤리학의 정립을 위해 필요하고 또한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

---

326) Ibid. p.9 참고

327) Ibid. p.22 참고

328) 반자연주의적 오류는 자연주의 오류와 반대로 가치/당위가 자연적 사실과 전혀 무관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한 반자연주의적 윤리는 자연적 사실과 무관한 가치나 당위의 존재를 가정하며, 이는 매키(J. L. Mackie)가 제기한 ‘오류이론’이라는 비판을 뛰어넘을 수 없다. (Ibid. pp.22~23 참고)

적 매개는 어떤 방식의 추론(논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레이첼즈(J.Rachels)는 흄의 법칙에 대한 보다 온건한 접근 방법으로 퍼스(C.S.Peirce)가 제안한 귀추법(가설법, abduction)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귀추법적 논증은 어떤 추론 과정을 포함하게 되는가?<sup>329)</sup> 귀추법(abduction) 혹은 가설법은 퍼스(C. S. Pierce)가 제안한 것으로서 어떤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가설을 추론하는 과정을 말한다.<sup>330)</sup> 레이첼즈에 의하면 존재/사실로부터 당위/가치를 연역할 수는 없다. 양자 사이에는 연역적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화에 연역적 추론에 의한 논리적 함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증거(evidence)를 제시하거나 지지(support)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일종의 정당화일 수 있다. 비록 하나의 믿음이 다른 믿음을 ‘함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거나 다른 믿음을 지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다른 믿음의 토대를 훼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믿음을 지지하는 증거가 많아지고 누적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해 질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증거가 누적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훼손되고 의문시될 것이다. 이 때 두 믿음 간의 관계는 연역적 추리에 의한 논리적 함의 관계가 아니라, 귀추적 추리(abductive reasoning)에 의해 지지되는 관계이다.

그렇다면 Narvaez가 마음챙김 도덕의 제안이라는 ‘윤리의 자연화(생물학화)’를 과정에서 위의 귀추적 추리 혹은 귀추법적 논증을 적용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가? 다음 표를 바탕으로 살펴보자.

<표-18> ‘TET-마음챙김 도덕’에 나타난 ‘윤리의 자연화(생물학화)’

<b>■기술 윤리학 (Descriptive ethics) 측면</b>	<p>① <u>자연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u> 도덕의 기원과 도덕 현상에 대한 과학적, 진화 생물학적 설명을 제시 (☞<b>귀추법적 논증 적용</b>)</p> <p>☞ Narvaez ①: TET를 통해 ㉠ 신경생물학, 정서 신경과학, 인지과학의 주요 발견들을 학제적으로 ‘도덕심리학’에 통합해 냄→ 개개인의 도덕적 삶(도덕의 기원과 도덕 동기화 등 도덕 현상)에 대한 정보 제공, ㉡ 맥락적 상호작용에 의한 개인의 도덕 기능 차이점을 설명함</p>
<b>■메타 윤리학 (Meta ethics)</b>	<p>② <u>자연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u> 자연과학적-생물학적 설명과 정합적인 메타 윤리학을 정립 (☞<b>귀추법적 논증 적용</b>)</p>

329) Ibid. pp. 22~23 참고

330) 귀추법은 과학적 발견에 이르게 되는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을 뜻한다. 귀추적 추론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현상 P가 관찰된다. (2) 만일 가설 H가 참이라면 P는 당연히 설명될 것이다. (3) 따라서 가설 H가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 이러한 추론 과정에서 가설의 추론은 사실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상 P는 가설 H를 통제한다.

측면	<p>☞ Narvaez ②: 좋음(good), 잘 사는 삶, 번영(flourishing)하는 삶, 행복(eudaimonia) 등 주로 덕윤리에서 사용되는 윤리적 언어를 자연 과학적 사실(도덕심리학으로 통합)을 바탕으로 인간의 성숙한 ‘도덕적 기능’에 근거하여 의미를 설명하고 분석함</p>								
<p>■ 규범 윤리학 (Normative ethics) 측면</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67 461 675 1592" rowspan="5"> <p>도덕현상 · 인간본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fact)을 지지근거 · 증거로 삼아 규범적 주장 제시 (☞사실과 가치 연계시, 귀추법적 논증 적용)</p> </td><td data-bbox="675 461 1361 551"> <p>③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지식에 기초한 윤리적 신념의 오류를 폭로</p> </td></tr> <tr> <td data-bbox="675 551 1361 775"> <p>☞ Narvaez ③: 인지과학 및 뇌 과학의 체화론 등을 토대로 이성의 절대적 우위의 관점에서 감정과 욕구 등을 제어해야 한다고 본 서구 윤리의 이원론적 윤리의 오류를 폭로함, ‘동기화된 인지’의 형태로 TET의 세 가지 하위 도덕적 정향을 제시함</p> </td></tr> <tr> <td data-bbox="675 775 1361 864"> <p>④ 기존의 도덕 원리와 결합하여 새로운 도덕규범을 제시</p> </td></tr> <tr> <td data-bbox="675 864 1361 1122"> <p>☞ Narvaez ④: TET 및 긍정심리학, 마음챙김 자각(시젤) 등을 과학적 지지 근거이자 증거로 삼아, 기존의 도덕 원리(불교의 자비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 Aristoteles 덕윤리(번영, 행복, 인격 형성) 등에 나타난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마음챙김 도덕성’이라는 새로운 도덕 규범을 제안함</p> </td></tr> <tr> <td data-bbox="675 1122 1361 1592"> <p>⑤ 특정한 도덕규범을 지지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p> <p>☞ Narvaez ⑤: TET로부터 성숙한 두뇌 기능 형성을 위한 초기 삶의 배려적 양육의 중요성을 발견하고(지지근거), 최적의 인간 도덕 발달을 위한 초기 상태를 제안함(규범적 처방 제시) / TET 및 도덕성에 관한 각종 자연과학적 학제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지지근거)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기능주의적 자연주의에 입각한 ‘자연화 된 윤리이론’ 등이 왜 현실적인 설득력과 타당성을 갖게 되는지 지지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됨→ 자연과학과 정합적인 규범 윤리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함</p> </td></tr> <tr> <td colspan="2" data-bbox="467 1592 1361 1724"> <p>⑥ 자연과학적-생물학적 사실로부터 도덕규범을 직접 도출하고 정당화하는 차원 ☞ <u>연역적 논증 적용, 자연주의 오류에 해당</u></p> </td></tr> </table>	<p>도덕현상 · 인간본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fact)을 지지근거 · 증거로 삼아 규범적 주장 제시 (☞사실과 가치 연계시, 귀추법적 논증 적용)</p>	<p>③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지식에 기초한 윤리적 신념의 오류를 폭로</p>	<p>☞ Narvaez ③: 인지과학 및 뇌 과학의 체화론 등을 토대로 이성의 절대적 우위의 관점에서 감정과 욕구 등을 제어해야 한다고 본 서구 윤리의 이원론적 윤리의 오류를 폭로함, ‘동기화된 인지’의 형태로 TET의 세 가지 하위 도덕적 정향을 제시함</p>	<p>④ 기존의 도덕 원리와 결합하여 새로운 도덕규범을 제시</p>	<p>☞ Narvaez ④: TET 및 긍정심리학, 마음챙김 자각(시젤) 등을 과학적 지지 근거이자 증거로 삼아, 기존의 도덕 원리(불교의 자비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 Aristoteles 덕윤리(번영, 행복, 인격 형성) 등에 나타난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마음챙김 도덕성’이라는 새로운 도덕 규범을 제안함</p>	<p>⑤ 특정한 도덕규범을 지지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p> <p>☞ Narvaez ⑤: TET로부터 성숙한 두뇌 기능 형성을 위한 초기 삶의 배려적 양육의 중요성을 발견하고(지지근거), 최적의 인간 도덕 발달을 위한 초기 상태를 제안함(규범적 처방 제시) / TET 및 도덕성에 관한 각종 자연과학적 학제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지지근거)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기능주의적 자연주의에 입각한 ‘자연화 된 윤리이론’ 등이 왜 현실적인 설득력과 타당성을 갖게 되는지 지지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됨→ 자연과학과 정합적인 규범 윤리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함</p>	<p>⑥ 자연과학적-생물학적 사실로부터 도덕규범을 직접 도출하고 정당화하는 차원 ☞ <u>연역적 논증 적용, 자연주의 오류에 해당</u></p>	
<p>도덕현상 · 인간본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fact)을 지지근거 · 증거로 삼아 규범적 주장 제시 (☞사실과 가치 연계시, 귀추법적 논증 적용)</p>	<p>③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지식에 기초한 윤리적 신념의 오류를 폭로</p>								
	<p>☞ Narvaez ③: 인지과학 및 뇌 과학의 체화론 등을 토대로 이성의 절대적 우위의 관점에서 감정과 욕구 등을 제어해야 한다고 본 서구 윤리의 이원론적 윤리의 오류를 폭로함, ‘동기화된 인지’의 형태로 TET의 세 가지 하위 도덕적 정향을 제시함</p>								
	<p>④ 기존의 도덕 원리와 결합하여 새로운 도덕규범을 제시</p>								
	<p>☞ Narvaez ④: TET 및 긍정심리학, 마음챙김 자각(시젤) 등을 과학적 지지 근거이자 증거로 삼아, 기존의 도덕 원리(불교의 자비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 Aristoteles 덕윤리(번영, 행복, 인격 형성) 등에 나타난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마음챙김 도덕성’이라는 새로운 도덕 규범을 제안함</p>								
	<p>⑤ 특정한 도덕규범을 지지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p> <p>☞ Narvaez ⑤: TET로부터 성숙한 두뇌 기능 형성을 위한 초기 삶의 배려적 양육의 중요성을 발견하고(지지근거), 최적의 인간 도덕 발달을 위한 초기 상태를 제안함(규범적 처방 제시) / TET 및 도덕성에 관한 각종 자연과학적 학제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지지근거)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기능주의적 자연주의에 입각한 ‘자연화 된 윤리이론’ 등이 왜 현실적인 설득력과 타당성을 갖게 되는지 지지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됨→ 자연과학과 정합적인 규범 윤리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함</p>								
<p>⑥ 자연과학적-생물학적 사실로부터 도덕규범을 직접 도출하고 정당화하는 차원 ☞ <u>연역적 논증 적용, 자연주의 오류에 해당</u></p>									

TET는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의 성격을 지니며, 더 넓게는 인지과학, 신경생물학, 심리학 등의 경험 과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학제적 이론으로 도덕현상과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제공해주고 있다. 상기 <표-18>에 제시된 ‘윤리의 자연화(생물학화)’의 주요 역할을 토대로 살펴볼 때, TET는 첫째, 도덕의



기원과 도덕 현상에 대한 과학적, 진화 생물학적 설명을 제시하고 둘째, 자연과학적-생물학적 설명과 정합적인 메타 윤리학을 정립하며 셋째,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지식에 기초한 윤리적 신념의 오류를 폭로하며 넷째, 기존의 도덕 원리와 결합하여 새로운 도덕규범을 제시하고 다섯째, 특정한 도덕규범을 지지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자연과학적·생물학적 지지근거이자 증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존재에서 당위로의 직접적 도출을 의미하는 ‘연역적 논증’이 아닌, 합당한 지지근거와 규범적 주장의 관계를 갖는 ‘귀추법적 논증’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Narvaez의 ‘마음챙김 도덕성’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 (2) 덕윤리와 IEE 핵심개념 간 호환가능성 검토

주지하다시피 Narvaez는 고대 덕윤리학자들의 덕 혹은 인격을 스키마와 전문성이라는 현대 심리학의 사회인지적 관점을 분석수준으로 설정하여 접근함으로써 재해석하고 ‘부활’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 획득이라는 자신의 도덕교육적 구상이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말하며, 고대 덕윤리 전통에서 Plato이 정의로운 사람을 정치적 테크네의 숙련자로 나타내고 있는 장면에 주목하고 있다. 『The Republic』에서 Plato은 정의로운 사람을 전문가와 천직(전문성을 숙달시켜가는 일련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 Narvaez는 덕과 인격에 대한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 행위에 대해 우리가 보는 가변성은 맥락에 따른 스키마의 발달과 기술 적용의 다양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를 반드시 덕의 부족이나 나쁜 기질의 문제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도덕적 귀감(유덕자)을 묘사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접근은 그들의 인격을 ‘특질의 보따리(bag of traits)’가 아닌 고도로 개발된 기술들 혹은 ‘테크네(techne, 위에서 Plato에 의해 제안된 개념)’로 보는 것이라고 Narvaez는 주장한다. 또한 어른들(교사 및 부모)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러한 자세(수학과 독해 영역에서 학생들의 skill들을 학습시키는 접근법)를 수용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여겼던 기존의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제 대부분의 도덕적 행동을 일종의 기술(skills)로 간주할 때가 되었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sup>331)</sup>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1) ‘덕’을 일종의 ‘전문기술(테크네)’로 간주했다고 보고, (2) 유덕한 사람(유덕자)은 고도로 계발된 기술들, 지각적 감수성, 도덕적 해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한 스키마, 그리고 훈련된 도덕적 행동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현대적 용어인 「(3) 윤리적 전문가는 ‘올바른 시점에서, 올바르게 적용하는 일단의 절차적, 명제적 그리고 조건적 지식을 가지고

331) D. Narvaez(2003), op. cit., pp.24~41 참고

있는 사람'이며, (4) 전문성은 도덕적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의 지식을 규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332)

위와 같은 Narvaez의 언술을 바탕으로 그녀가 고대 덕윤리의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차용한다고 했을 때, 그녀가 의도하는 재해석과 유비 논증(類比 論證, analogy)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분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을 통해 그녀가 '덕= 테크네'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Narvaez에게 윤리적 기술의 체화(과정)는 곧 덕목의 획득(결과)을 의미한다. 덧붙여 Narvaez는 기술의 체화가 인지심리학적 용어로 '스키마'에 만성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Narvaez는 「'도덕 스키마에의 만성적 접근'='윤리적 기술의 체화'='덕목의 획득'」이라는 세 개념간의 연동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sup>333)</sup> 한편 (1)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로, (2)를 통해 유덕자(도덕적 귀감)를 도덕성의 4구성요소별 윤리적 기술(테크네)의 담지자, 즉 윤리적 전문가와 등가적 의미를 갖는 인간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을 통해서 윤리적 전문가가 보유한 윤리적 노하우, 즉 윤리적 전문성이 일종의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본 장의 2편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로네시스는 보편자에 관한 지식을 자신의 특수한 삶에 적용해보며 반성하는 삶의 경험을 통해 '적절한 시기, 적절한 정도, 적절한 상황'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지적인 덕 혹은 실천적 지혜를 의미하는데, 위 (3)에서 Narvaez가 기술의 체화를 통해 도달한 전문성이 바로 이러한 속성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4)를 통해

332) 박장호(2016), op. cit., p.16~17 참고

333) 본 논문의 III장 4절 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학에서 윤리학적 주제인 '덕'과 '인격'을 특질(trait)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skill)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이한 입장이 있다. 전통적인 '특질' 중심 접근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황과 맥락 및 구체적 환경 측면을 변인으로(變因, variable) 고려하지 않고, 맥락 독립적이고 항상적인 개인적 성격 특질(trait) 혹은 성향(disposition)의 정태적(stable)인 측면에 집중한다. 하지만 덕목의 습득과 인격의 형성을 이러한 '특질'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다양한 심리학적 근거에 토대를 둔 지지를 얻기 어렵고, 따라서 도덕교육적 함의점도 도출해 내기 어렵다. 반면 '기술'을 가지고 덕과 인격의 소유에 접근할 경우는 어떠한가? '윤리적 기술'의 체화가 사회인지적 스키마의 일종인 '도덕 스키마(moral schema)'에 만성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적응적인 도덕 스키마를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구체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E: environment) 한 개인(P: person) 및 행동(B: behavior)의 삼원적 상호작용을 통한 동태적(dynamic)인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스키마 이론, 정보처리이론 등 성격과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들의 지지를 토대로 인격의 소유와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도덕교육에 관하여서도 보다 많은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방법론적으로 도덕스키마에의 만성적 접근 혹은 윤리적 기술의 체화가 덕목의 획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Narvaez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Narvaez는 다른 전문분야(의술, 건축술 등)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삶에 필요한 지식 역시 기술적 지식(노하우와 노왓을 모두 포함한)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직업 영역에서의 전문성 형성 과정이 윤리적 삶의 영역에서의 전문성 형성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4)에 나타난 윤리적 기술 및 전문성을 테크네와 프로네시스에 비유하는 Narvaez의 유비 논증(analogy) 혹은 유비 추리에 논리적인 비약이나 오류의 존재 여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유비 논증이 얼마나 강한 귀납 논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관건은 비교되고 있는 두 집단(여기서는 덕윤리와 IEE)이 얼마나 비슷하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어떤 두 대상을 고르더라도 거기서 비슷한 점을 한 가지는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교되는 두 집단이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한 성질이 ‘지금 논증의 이슈와 관련 있는 점에서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유비 논증은 바로 그 관련 있는 유사상이 많은 만큼 강하다. 만약 유사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관련이 있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때는 잘못된 유비논증이 되는 것이다.<sup>334)</sup> 다시 말해 유비 대상이 된 개념 간 ‘본질적’ 속성이 유사할 때만 개연성이 높은 유비 논증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고대 그리스의 덕윤리와 IEE의 주요 개념 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과정을 통해 유비 논증 오류 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첫째, 고대 덕윤리학자 중 ‘Plato’이 말하는 테크네(techne) 개념을 IEE에서 활용하고 있는 윤리적 기술(ethical skills)과 동질적인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는 Plato 철학 내에서의 테크네 개념이 갖는 특수성 및 본질적 속성과 관련하여 이것이 IEE가 핵심 가정 중 하나인 체화론에 입각한 윤리적 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둘째, 고대 덕윤리학자 중 Aristoteles의 테크네 및 프로네시스 개념을 IEE의 윤리적 기술 및 도덕적 지혜에 빗대어 논증하는 것은 유비적 개연성(analogical plausibility)이 높다고 할 수 있는가? 고대 그리스의 덕윤리학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같지만 Plato와 Aristoteles의 철학은 존재론적 가정에 있어 본질적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점<sup>335)</sup>이 연구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분리하여

334) 박정하 외(2002), 『대학인을 위한 논술 이론편』, 서울: 세종서적, p.164

335) 아래의 <표-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lato이 이원론적 실체론을 전제하고 있다면 Aristoteles는 현실주의적 일원론의 입장에 서 있다. 물론 감정, 욕망에 상대되는 이성을 인간이 가진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음(곧 이성 우위의 본질주의적 입장)은 두 사람의 공통분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Plato은 관념(이데아)만을 실체(substance)로 본 반면 Aristoteles는 이데아를 현실세계로 끌어내려 일원화시켰다. 즉 Aristoteles는 실체는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것으로 보는 일원론적 입장을 취했다.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이유이다.

우선 첫 번째 검증과 관련한 연구자의 결론은 Narvaez가 Plato 철학의 테크네 개념을 자신의 윤리적 기술 개념에 끌어다가 연동시키고 동일한 개념으로 차용하고 있는 점은 유비추리의 오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내릴 수 있는 합당한 근거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Plato 철학은 확고한 이원론적 실체관(實體觀)을 전제로 성립된 것이다. 그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하며, 오직 이데아(영혼, 정신, 이데아)만이 실체(substance)이자 진실로 실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관념과 진리(episteme, 眞知)를 인식하는 인간 영혼의 항구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인 이성이 감정, 욕망 등 신체적 영역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는 선험적 가정에 기반 해 있다. 서양 철학의 역사에 있어 선험적 이성의 절대 우위적 관점을 표방하는 주류적 철학사의 포문을 열었던 이가 다름 아닌 Plato이었다. 그는 지식의 세 단계를 구분하여 생멸 변화하는 세계에 관한 감각적 지식을 가장 저급한 것으로, 사물에 대하여 약간의 고찰을 가한 것이기는 하나 아직도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지식인 역견(doxa), 사물의 불변하는 본질로서 초감각적 진리인 이데아에 대한 인식으로 ‘眞知(episteme)’를 제시하고 마지막 단계인 ‘episteme’만이 진정한 참된 지식임을 가정하였다. Plato 철학의 인식론적 체계 내에서 episteme의 인식을 위해서 실제 삶(현상계)에서의 현실적 감각과 운동, 인지는 엄격하게 분리되며 분리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육체와 감각은 하등한 것으로 치부되며, 이성(영혼)의 활동은 우월한 것으로 격상되어 후자가 전자를 확고히 조절할 수 있을 때 유덕한 성품을 지녔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론적·인식론적 가정에 입각할 때 Plato에게서 ‘테크네’를 소유하고 사물을 제작하는 활동은 어떤 위상과 의미를 갖게 되는가? Plato에게 테크네는 궁극적 실체인 이데아를 흉내 내는 일종의 ‘모방 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방’일 뿐 그 자체로 참된 진리를 현실에 확장적으로 체현(體現)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무리 정교한 테크네를 발휘하여 완성한 제작물이라고 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닌, 소위 ‘가짜’일 뿐이다. 이는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Plato이 장인(데미우르고스)가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은 심신이원론에 입각한 모방술로서의 테크네의 위상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게 해 준다. 데미우르고스는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조건아래서 우주 창조 작업을 수행한다. 이에 대한 모델로 “언제나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본보기(本, paradeigma, 이데아)로 삼고, 자신의 작품에 그 본의 ‘형상’(idea)과 ‘능력’(dynamis, capacity, 能力)을 갖추게 하는 식으로 작업에 임한다. 여기서 본보기(paradeigma)는 패러다임의 어원으로 이데아를 뜻한다.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데아를 본떴거나, 이데아를 본보기삼아 이루어진 것들이다. 패러다임은 이데아를 모방했기 때문에 그림자이며 그림자는 ‘불완전’하다.

Narvaez가 예로 들었던 정의로운 사람의 통치술의 경우, 그러한 정의로운 통치술은 존재론적 우월성을 갖는 정의로움의 이데아를 현실 세계에서 흉내 내는 모방작업의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체화론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삶에 대해 알고(선언적 지식) 그것을 삶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실천하는(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 윤리적 전문가 혹은 현자의 행위와 동일한 위상 혹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체화론에서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지이며 삶은 곧 의미 만들기’이다. 이처럼 체화론에서 진리에 대한 인식 및 지각과 행위는 즉각성을 띄면서 혼연 일체화 되어있고, 존재론·인식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심신-일원론적 체화론에 기반 하여 Narvaez가 추구하는 진정한 윤리적 삶은 선한 것에 대한 앎과 행함(삶)의 일치로 지향하며, 심신-이원론적 이데아(추상적이고 선형적인 도덕원리)를 따라 흉내 내는 모방 작업을 통해 현출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다.<sup>336)</sup> 따라서 Plato가 말하는 ‘테크네’와 Narvaez가 강조하는 ‘윤리적 기술’은 그 작동기제와 추구점이 본질적으로 상이하며, 단순히 행위 실천을 통해 점점 숙련된 제작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본 표면적 유사성만을 갖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유비 대상이 된 개념 간 본질적 속성이 유사할 때만 개연성이 높은 유비 논증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Plato의 심신이원론적 가정에 입각한 테크네의 활용 행위와 심신일원론적 가정을 전제하는 윤리적 기술의 체화된 인지 행위는 본질적 속성이 전혀 상이한 것이다. 따라서 Narvaez가 IEE를 소개하면서 윤리적 기술을 Plato의 ‘테크네’개념에 비유한 것은 유비 추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화제를 전환하여 Aristoteles 철학에서의 테크네 및 프로네시스 개념을 IEE의 윤리적 기술 및 도덕적 지혜에 빗대어 논증하는 것은 유비적 개연성(analogical plausibility)이 높다고 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우선 Plato 철학이 존재론적 측면에서 이상주의적 이원론(二元論)을 가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자연스런 귀결로 인식론적으로 엄격한 심신이원론을 전제할 수 밖에 없었기에 Plato의 테크네 개념은 Narvaez가 강조하는 윤리적 기술과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여 들어갈 수 없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지층에 속해있는 개념임을 입증한 바 있다. 하지만 Aristoteles의 경우 이러한 철학적 관점을 전제하지 않고, 현실주의적 일원론(一元論)을 존재론, 인식론적으로 가정하고 있기에 적어도 Plato

336) III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Varela는 Plato, 데카르트, 칸트와 같이 ‘합리주의적’이고 ‘추상적’이고 선형적인 시각에서 지식을 바라보는 서구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등장한 인지과학에 의해 전환되고 있음을 말한다. 인지과학에서 보는 지식의 기본적인 단위는 구체적이고, 체화되고, 통합적이고, 살아있으며, 상황적이고 독특한 역사성과 맥락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지식들은 추상적인 것을 향해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닌,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존재할 곳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테크네-IEE 윤리적 기술과의 유비에서 드러난 심각한 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Aristoteles는 소크라테스가 Plato주의자들과 달리 보편적 정의의 대상과 감각적 특수자들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분리시키지 않은 것이 옳았다고 말한다(Aristotle, 1990:618). Aristoteles에게 참된 도덕적 진리는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하는 현실 세계(공동체 생활)에 존재하며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통해 도덕적 인격을 현실의 자아 속에서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다. 유덕자의 인격을 갖추는 이러한 삶은 인간 고유의 본성을 발휘함으로써 번영(flourishing)과 행복(eudaimonia)을 가져오며 따라서 ‘좋은 삶’이며 궁극적 삶의 목적을 달성한 삶이 된다.

물론 이러한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달성(공동체 내에서 인격의 소유를 통한 인간 번영과 행복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차원에서 Aristoteles와 Narvaez는 상이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Aristoteles가 기본적으로 도덕철학자로서 규범적 차원의 입론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Narvaez가 (학제적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도덕심리학자로서 과학적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려는 데서 비롯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Narvaez는 Aristoteles의 형이상학적 차원에서의 기능주의(이른바 *ergon* 논증)에 입각한 전통적 덕윤리의 접근법 대신, ‘새로운 관점’ 다시 말해 심리학의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덕과 인격 소유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 함을 명백히 밝힌바 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도덕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심리학적 관점의 ‘도덕적 기능(moral functioning)’에 주목하고, 사회 인지이론의 구인(스키마)을 활용하여 인격과 덕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 접근방법론상의 차이는 상이한 학문적 방법론(규범과학적 방법과 경험과학적 방법)을 채택한 데서 기인한 것일 뿐, 공동체 내에서의 덕과 인격의 소유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현실주의적 심신 일원론적 차원에서 다가가려한다는 측면에서 양자 간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여지는 적다. 따라서 Aristoteles가 강조하는 실천적 지식의 두 종류인 테크네와 프로네시스,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 관점(심리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했다고 하는 Narvaez의 윤리적 기술과 도덕적 지혜는 일견 개연성 높은 유비 논증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개념들은 상호간 밀접하게 연동되고 비유될 수 있는가? 어떤 속성이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고대 그리스의 덕윤리 중 특히 Aristoteles 윤리학에 IEE를 비유하는 Narvaez의 언술을 바탕으로 해당 유비 논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 <표-19> Aristoteles 덕윤리와 IEE의 주요 개념 간 유비논증 분석

	덕윤리 (Aristoteles)		IEE (Narvaez)
◆ 핵심 개념 ①	테크네	◆ 실천적 지식의 <u>융합모형:</u> 프로네시스 - 테크네	윤리적 기술 → 덕
◆ 핵심 개념 ②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		도덕적 지혜 → 윤리적 전문성, 윤리적 노하우
◆ 핵심 개념 ③	유태자(현자)		윤리적 전문가
◆ 도덕 교육	- 유태자의 모범(modeling) - 학습(지적인 덕, 프로네시스 포함)+ 행위 실천을 통한 습관화 된 중용(도덕적인 덕)		- 도제식 교육(장인-도제, 전문가-초보자, 멘토-멘티, 선지식-수행자)을 통한 윤리적 기술의 체화 - 이론적 학습(추론) + 실제 삶(공동체)의 맥락에서 실천적 적용(직관)→ 체화된 인지
◆ 철학적 전제	- 본질주의 - 존재론적으로 <b>Aristoteles는 현실주의적 일원론</b> 의 입장에 섬 - <b>Plato은 이상주의적 이원론</b> (이데아계와 현상계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함		- 존재론적 가정(실체론) 先 전제하지 않음 - 가치론적으로 ‘규칙윤리’+ ‘인격윤리’의 변증법적 통합 - 인식론적으로 윤리적 기술의 체화에서 ‘체화론’의 기본 전제는 <b>심신일원론</b> 임
◆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	- 인간 고유 기능(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아 실현적 삶: 인격 소유를 통해 번영(flourishing)하는 삶, 행복(eudaimonia) → 형이상학적 차원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목적론적 윤리설		- ‘성숙한 도덕적 기능(mature moral functioning)’의 발휘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 →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격 소유에 접근하고자 함(인격 심리학)

여기서 위 유비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해서 Aristoteles가 말하는 실천적 지식의 두 종류인 테크네와 프로네시스의 관계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Narvaez는 IEE를 통해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해 일종의 ‘도덕적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며, 양자를 일종의 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Aristoteles도 역시 이처럼 융합적 관점에서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앞서 본 논문의 III장 4절 2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Aristoteles는 ‘프로네시스’의 의미를 「(1) 테크네의 영역에 있지 않은 어떤 신실한 목적에 관련해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잘 숙고하는 것이라는 점이며, (2) 어떤 특수한 목적과 관련해서 라기 보다 일반적인 잘 삶, 좋은 삶을 삶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예(테크네)의 영역에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한 숙고이면서 일반적인 잘 삶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숙고하는 사유의 덕, 이것이 통상적 의견으로부터 시도된 정의에 따른 실

천적 지혜이다. 우리는 여기서 프로네시스의 숙고의 대상이 학문적 인식의 대상이나 테크네의 대상과 구별되는 독자적 영역(인간이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이성의 기능을 발휘하는 측면)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Aristoteles는 인간의 실천을 생성, 즉 ‘포이에시스(poiesis)’와 훌륭한 행위로서의 ‘프락시스(praxis)’로 구분하고, 이어 실천적 지식을 ‘테크네(techne)’와 ‘프로네시스(prhonesis)’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다. 포이에시스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목적을 가진 활동이며, 이것은 이 활동에 목적을 제공하는 하나의 산출물에서 종료된다. 즉 포이에시스는 특정한 산출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제작활동으로의 실천이다. 이와 구분되는 다른 종류의 실천은 ‘프락시스’인데, 이는 삶의 행위, 시민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활동의 목적은 활동 자체를 하는 바로 그것에서 실현된다. 제작은 제작 이외의 목적을 갖는 활동인데 반해, 프락시스는 그 자체 이외의 목적을 갖지 않는다. 산출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말은 그 행위가 훌륭하고 선한 것임을 시사한다.<sup>337)</sup> 이처럼 테크네는 1차적으로 산출물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적 지식의 성격을 지니며, 훌륭함과 선함을 이외의 부차적 목표를 갖지 않는 자체 목적적 지식인 프로네시스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테크네 역시 도덕(선함, 훌륭함)과 전혀 무관한 개념은 아니며, 오히려 단어의 어원학적·역사적 개념 형성 과정을 살펴볼 때 윤리적 가치 지향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ristoteles뿐만 아니라 보다 앞서서 테크네 개념을 언급했던 Plato 역시 테크네에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 1권에서 그는 대화자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의술이 ‘몸에 대해 약과 음식을 주는 기술’이며 훌륭한 통치자는 실수 없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며 항상 시민들 및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이다(42c-d)라고 말한다. 이처럼 Plato에게서 테크네는 전문가다운 생산 능력과 윤리적인 정의로움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데미우르고스는 Plato이 지향하는 장인의 이상형이며 데미우르고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지성(nous)을 토대로 하는 올바름, 즉 훌륭함의 구현에 있다. 결론적으로 Plato의 데미우르고스(장인, 테크네의 담지자로서의 기술적 전문가)는 그 자체가 인간의 완전성을 지향하는 가장 선한 존재라는 차원에서 윤리적인 전범이 된다. 동시에 그는 생산을 담당하는 장인의 본보기, 즉 좋음의 이데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다. 테크네를 사용하는 장인에게는 기술적 훌륭함뿐만 아니라 윤리적 덕목도 필요하다. 훌륭한 장인은 자신의 테크네를 정확히 전수하며 환자를 병들게 한다거나 신발이 금방 닳게 하거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인의 테크네가 가장 이상적으로 발현된 상태는 장인의 자질과 장인이 사용하는 테크네가 완벽하게 부합하고, 그 장인의 테크네를 통해 그 개인과 공

337) 홍윤경, op. cit., pp.196~197 참고



동체가 자족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sup>338)</sup> 이처럼 교환경제를 배경으로 성립된 고대 그리스 polis내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을 목표로 하는 장인(데미우르고스)과 그의 테크네에는 필요불가결하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윤리적 덕목이 지향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테크네의 관념에 프로네시스를 부가하는 Aristoteles에게 있어 양자 간의 관계 구도는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 것인가? 앞서 본 논문의 III장에서 언급했듯이 양자 간의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홍윤경은 병렬모형<sup>339)</sup>과 융합모형<sup>340)</sup>을 제시하는데, 융합모형은 프로네시스는 테크네를 발휘하는 사람과 분리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테크네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융합모형에서 진리와 선에 대한 관심은 특정 개인이나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선을 위한 것이고, 당사자의 사람됨으로 불박혀 있으므로, 그가 소유한 테크네를 선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만든다. 홍윤경은 이렇게 될 때만이 비로소 완성된 의미의 실천적 지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융합모형의 강점을 강조했다. Aristoteles는 행위에 관심을 갖는 사고, 즉 프로네시스가 제작적 사고(테크네)의 근원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말은 프로네시스가 테크네의 상위의 지식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테크네를 가진 사람은 일단 조건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이상의 목적 즉 훌륭한 행위라는 무조건적 목표를 추구한다. 즉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는 한 사람 안에서 융합될 수 있다. 각 종 테크네의 가치는 그 산출물이 공동체 전체의 삶에 비추어 알맞게 적재적소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완성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sup>341)</sup>

또한 융합모형은 교육내용으로서의 프로네시스의 성격을 ‘공동체의 선’에 관한 지식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획득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로네시스의 조율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배워야 할 ‘교육 내용’으로 Aristoteles는 ‘공동체의 선에 관한 지식’을 제시한다. 삶의 매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와 목표, 방식,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유익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선에 대한 관심이다. Aristoteles에 의하면 좋은 삶은 개인을 넘어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좋은 삶에 초점이 맞추

338) 강선보 & 장지원, op. cit., p.8

339) 재론하거니와 병렬모형은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를 분리하여 두 가지 지식의 교수와 학습이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병렬관계 하에서 진행된다고 보는 입장을 의미한다. 두 가지 지식은 상이한 분야에 관여하는 상이한 유형의 실천가에게서 표현되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학습한 상태도 전혀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이다.

340) 융합모형은 프로테네스가 테크네 그 자체의 활용의 내적 요소가 될 경우 가능한 것으로 테크네와 프로네시스의 개념적 연계를 융합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341) 의술의 테크네가 병을 고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배려할 줄 아는 프로네시스와 융합된다면, 이러한 융합된 지식은 온전한 의미의 실천적 지식이 될 수 있다.

어져 있다(Aristotle, 2009:60). ‘공동체의 선에 관한 지식’은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인데 최선의 삶의 목적에 대한 앎과 이를 위해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행위의 내용(know-what)과 방법(know-how)에 관련한 것이다. 이러한 Aristoteles의 논의는 Narvaez가 윤리적 삶과 관련한 명제적 지식(know-what), 방법적 지식(know-how) 및 조건적 지식 등으로 구성된 윤리적 기술을 체화함으로써, ‘올바른 시점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도덕적 지혜를 가진 윤리적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IEE의 기본적 구상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 Aristoteles가 프로네시스의 중용적 조율능력을 얻기 위해 배워야 할 교육내용으로 제시한 ‘공동체의 선’에 관한 ‘행위의 내용(know-what)과 방법(know-how)’을 Narvaez는 ‘윤리적 기술’로 환치(換置)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융합모형을 바탕으로 테크네와 프로네시스의 관계를 독해할 경우, 우리는 Narvaez가 테크네의 일종인 ‘윤리적 기술(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 조건적 지식을 모두 포함함)’을 체화함으로써 실천적 지혜에 해당하는 ‘도덕적 지혜’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결국 유덕자에 해당하는 윤리적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유비 논증의 전체적 윤곽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비 대상이 되고 있는 IEE와 Aristoteles의 덕윤리 양자 간에 비록 부수적인 차이점(윤리학과 심리학의 학문적 접근 방법론상의 차이)이 엄존하지만, 이론적 전제 및 핵심 개념 간 본질적 속성이 유사하며 따라서 개연성 높은 유비 논증이 성립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5. 도덕 교육적 효과

도덕 교육에 있어 학제적 연구 모델의 완성도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마지막 비판의 기준이자 연구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학제적 연구 모델의 도덕교육적 효과성과 관련된 측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제적 연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껏 존재했던 개별학문분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도덕교육과 관련해서는 결국 실용주의(pragmatism)적 견지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타자 지향적인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지행합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제적 연구가 수행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가장 중요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과 관련된 비판 증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한다. 첫째, Narvaez의 학제적 연구 모델이 기존의 통합적 도덕교육모형에 비해 어떤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가? 둘째, 기존 도덕교육 모델의 효과성과 차별화되는 부분, 비교 우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차별성을 통해 기존 이론의 단점 및 도덕교육적 효과상의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극복해 냈는가? 즉 IEE의 도덕교육적 효과성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학교 및 교실현장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검증된 바 있는가?

도덕교육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앞서 II장 3절에서 논한바 있듯, 인간을 이성, 감정, 욕구 혹은 인지, 정서, 행동 등 형이상학적인 기준에 의해 분할하고 그 중 어느 한 가지 측면에 편향적으로 의존하여 도덕성을 설명하고 도덕적 처방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지행불일치를 야기하기 쉽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도덕 심리적 기능은 이성과 감정, 인지와 정서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함께 동반하여 나타나며 신체, 감정과 정서, 두뇌 역시 분리되기보다 한데 얽혀져 나타난다는 경험 과학적 근거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한 도덕교육적 처방을 제시한 기존의 도덕교육모델은 도덕교육적 효과성에 있어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편향적 접근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현한 기존의 다양한 통합적 도덕교육모델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통합적 도덕교육모델들에 대해 규범 과학적이고 경험 과학적 지지 근거를 한층 더 보완한 Narvaez의 학제적 도덕교육모형이 갖는 차별성과 도덕교육적 효과성을 비교하고 점검해 보는 것이 마지막 비판적 고찰을 구성하는 핵심적 과정이다.

### 1) 윤리적 기술의 체화와 지행합일

IEE의 핵심 토대 개념 중 하나인 ‘체화된 인지’의 경우 인지주의와 연결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지과학의 최신 이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분야의 획기적 발달을 선도하고 있는 분야이다.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과 같은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인간경험의 변화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도덕교육모형을 구상하고 적용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러한 접근은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토대를 둔 정교한 도덕적 사고와 실행의 체계를 교육 실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학자의 통찰이나 사회과학자의 반성적 사고 혹은 심리 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한 층 강화시키고 실효성을 강화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상의 도덕성과 일상의 전문성의 교집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보다 도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Narvaez는 도덕 교육 영역에 있어 다종 다기한 경험 과학적 지지근거를 바탕으로 ‘도덕성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과 더 나아가 ‘도덕성에 관한 경험 과학적 고찰’ 및 ‘자연화 된 윤리학’ 등 학제적 접근을 도덕발달연구의 주된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 경우의 장점은 이와 유사한 실용적 측면에서 도덕 교육의 효과성 강화(지행합일의 문제 해결)와 관련하여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Narvaez가 Kohlberg 이론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이성 우위적 도덕교육의 편협성과 편향성의 한계를 자각하고 보다 통합적·포괄적·다층적·전체론적 도덕 교육모형을 구성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의 핵심은 결국, ‘일상의 도덕성’과 ‘일상의 전문성’의 접이지대를 최대화하여, 도덕 판단과 도덕 행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향해 적절한 도덕적 행동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윤리적 전문가, 혹은 인격자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처방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도덕적 삶과 도덕적 삶의 불일치 문제 해결이 결국 Narvaez가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적 문제이며, 그 고민과 노력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IEE, TET-마음챙김 도덕성에 배어들어가 있다.

Narvaez의 핵심적 문제의식으로부터 한국의 도덕교육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확고한 형이상학적 이원론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비롯된 전통적 이성우위 관점의 도덕교육모형이 가진 본질적 한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인지·정서·행동, 이성·감정·욕구, 추론과 직관, 정신(영혼)과 신체 등으로 인위적으로 나누고 그중 가장 궁극적이고 본원적인 것을 찾아 한 일면에 깊이 천착하는 이원론적(dualism) 시각이 지닌 근본적 한계를 통찰할 필요가 있다. 이원론적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는 정신(이성)과 신체(정서와 욕구), 영혼과 물질 중 전자를 우월한 것으로, 후자를 하등한 것으로 치부하고 전자에 의한 후자의 지배 논리로 이어지게 만든다. 이러한 하지만 이러한 본질주의나 항존주의적 철학에 기반하여 정신, 영혼, 이성, 인지, 추론만을 배타적인 도덕적인 진리로 인식하고 이에 편향된 도덕교육모형을 적용할 경우 지행괴리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도덕

심리학적 실험 결과를 경유하지 않고도 경험적으로 이미 깨달아 알고 있다. 형이상학적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형이상학적 가정은 다소 비현실적이며 따라서 그에 기반 한 윤리이론이 제시하는 도덕원리 및 행위 원칙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동기화와 인격 형성에 큰 힘을 발휘하기에 역부족이다. Greene의 뇌 과학 연구에서 인도교 딜레마(인신적 딜레마)의 사례에서 사람들이 칸트적 숙고와 추론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정서 부위의 강력한 활성화를 동반한 직관적 판단을 했다는 점은 추론 위주 도덕 교육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주는가? 이 실험 결과는 칸트윤리학의 규범윤리학 이론으로서의 고유한 위상(도덕규범 확립과 정당화 영역)을 결코 폄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칸트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의식적 숙고가 실제 삶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 유형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술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말해주듯 명시적이고 언어적인 추론에 입각한 명시적 도덕 판단(추론)이 도덕적 행위를 충분히 예견하거나 설명해주지 못하며 둘 사이에는 오직 낮은 상관관계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 이성과 정서, 직관과 추론, 주체와 객체 등을 엄격히 나누는 서구 이원론의 제한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론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모색할 당위성이 요청되고 있다. 여기에 도덕교육에 있어 체화적 접근법(embodied mind approach)의 차별성과 탁월성이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Varela 등에 의해 강조된 ‘체화된 인지’이론은 심신일원론의 견지에서 진정한 윤리의 본질은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터득하여 자연스럽게 발출되는 경향을 가진 행위와 확장성이다.<sup>342)</sup> 인간 신체의 특정 감각·운동 체계는 인간의 사고·정서·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한 개념이 바로 ‘체화된 인지’이다. 이는 도덕성에 있어서의 지행괴리의 문제를 가장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을 담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Narvaez 역시 진정한 윤리적 삶과 윤리적 행위의 실천이 심신일원론적인 체화적 접근을 통해서만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고, IEE의 핵심적 토대관념으로 도덕발달을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전문성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Narvaez는 경험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기존 심리학 연구에서의 ‘특질(trait)’ 개념을 가지고 인격교육에 접근하는 것은 이론적·실천적인 양 측면 모두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Narvaez가 집중적으로 천착한 개념이 바로 ‘기술(skill)’인 것이다. 그녀는 특질과 달리 기술은 행동이 ‘개인-환경 특성’이 일치하는 세트에 부합되는 환경 속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사회 인지 이론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인격발달을 기술과 전문성으로 설명할 때의 특징점을 확인한다. 그런 후 이를 체화된 인지이론으로 보다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격 혹은 인격 소유를 설

342) 정창우(2016), op. cit., p.202 참고

명할 때 우리는 실증적 연구 결과에 부합되는 감정력 강한 도덕교육 모형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윤리적 기술’의 ‘체화된 인지’인 것이다. ‘기술’은 전체의 두뇌-마음-신체 시스템을 관여시키는 전체론적이고 맥락화된 이해로서 체화된 인지(Varela, Thomson & Roach, 1991)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Narvaez는 IEE를 통해 현자(혹은 유덕자)가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은, 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여 자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지각과 감성과 행동의 ‘자연스러운’ 조화에서 비로소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격발달을 Varela와 그의 스승(Maturana가 정식화했던 ‘자기-생성적(autopoietic)’이고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의 과정(Maturana & Varela, 1980)으로 간주하고 이를 IEE의 핵심적 토대관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IEE가 도덕적 행위의 자발적 표출을 위한 구체적인 도덕 교육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만약 특정 국가와 지역의 공동체의 맥락에 맞게 잘 해석되고 구체적 교육 현장에서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면, 도덕성의 지행불일치의 문제를 해소할 탁월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덕교육 모형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 2) 기존 통합적 도덕교육 모형과의 비교

앞서 살펴본 도덕교육의 다양한 편향적 접근법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현한 것이 다양한 통합적 도덕교육모델이다. 이러한 통합적 도덕교육모델들에 대해 규범과학적·경험과학적 지지 근거를 한층 더 보완하여 승법적 통합을 이뤄낸 Narvaez의 학제적 도덕교육모형이 갖는 차별성과 도덕교육적 효과성을 비교해 보는 것이 IEE에 대한 마지막 비판적 고찰의 내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기존의 통합적 도덕교육을 모색하는 관점들은 대체로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위해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특성들을 제시하거나 도덕적 인격을 구성하는 심리학적 요소들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Rest는 도덕적 민감성, 판단, 동기화, 품성을 도덕적 행동으로의 표출을 위한 심리학적 요소로 고려하였고, Damon과 Blasi는 도덕적 정체성을 제시하였으며, 후자의 관점에서 Berkowitz는 도덕적 행동, 도덕적 가치, 도덕적 인성, 도덕적 정서, 도덕 추론,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기능화를 돕는 기초적인 심리적 특성들을 제시하였고, Lickona는 도덕적 사고,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의 통합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하위 영역에 여러 심리학적 요소를 포함하였다.<sup>343)</sup>

이 중 Lickona의 통합적 인격교육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덕 추론 및 인지 발달, 사회 및 감정 학습, 덕 교육, 배려의 공동체, 폭력 예방 등 거의 모든 도덕발

343) 정창우(2009),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p. 267 참고

달 및 교육 이론들을 한 우산 속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로 인해 통합적 인격교육은 개념 정의가 쉽지 않고, 범위를 설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무엇이 보다 중요하고 무엇이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감정의 관계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사고와 행동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제시된 양심, 자기 존중, 감정이입, 선을 사랑하는 것, 자아 통제, 겸양 등과 같은 여섯 가지 정의적 요소들이 도덕적 행동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Berkowitz의 경우, 도덕적 행동, 도덕적 가치, 도덕적 인성, 도덕적 정서, 도덕 추론, 도덕적 정체성, 그리고 도덕적 기능화를 돕는 기초적인 심리적 특성들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Damon과 Blasi의 도덕발달 및 통합에 관한 이론은 왜 사람들이 그들의 도덕적 신념에 따라서 혹은 그들이 실제로 옳다고 판단한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실패하는지를 ‘도덕 정체성’이라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시해 주었지만, 도덕적 자아 또는 정체성이 도덕적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은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도덕성 연구 이론들을 종합하여 도덕적 사고와 정서의 영역을 도덕적 행동 영역과 통합·연결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 2요소인 도덕적 판단력이 주로 연구되어 왔고, 최근 들어 제 1요소인 도덕적 민감성이 다소 연구되고 있을 뿐 4개 요소 전체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기에, 통합적 관점에서 도덕교육을 실행할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sup>344)</sup>

Narvaez가 위의 통합적 도덕교육 이론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IEE가 어떤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서 있는 지 자평한 내용을 본고에서 제시한바 있다.<sup>345)</sup> 그렇다면 객관적 시각에서, 위의 다양한 통합적 도덕교육 이론의 장점은 얼마나 살려내고 단점은 얼마나 극복해 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 연구자는 위에서 정창우 교수가 제시한 각 통합이론의 장, 단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기준으로 하여 IEE의 도덕교육적 효과성을 검토할 것이다.

344) Ibid. p.268 참고

345) Narvaez는 Lickona와 Berkowitz의 통합적 접근이 다차원적이고 중요한 연구들의 최고의 통찰들과 잘 조화되며, 흥미로운 방법을 통해 전통적 인격 교육과 이성적 도덕 교육 사이의 틈을 메울 가교가 되어준다고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한편 그녀의 통합적 도덕 교육 모형(Integrative Ethics Education model)은 이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법에 비해 인격과 교육 양 측면 모두에 있어 보다 체계적 시각을 제공한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그녀는 IEE가 고대의 그리스적 관념인 ‘테크네(techne)’와 ‘전문성(expertise)’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의 번영을 의미하는 ‘행복(eudaimonia)’ 및 최근의 긍정 심리학 운동의 강조점들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표-20> 기존 통합적 도덕교육 이론의 기여와 한계<sup>346)</sup>

	장점(기여)	단점(한계)
Lickona의 ‘통합적 인격교육’	◀ 포괄적: 거의 모든 도덕발달·교육이론 포함 가능	◀ 병렬적·기계적 통합: 승법적 통합을 이루지 못함, 핵심적 프레임 워크의 결여 ◀ 경험과학적 지지근거 미약
Berkowitz의 ‘도덕해부학’	◀ 다차원적, 포괄적: 중요 연구의 최고 통찰들을 잘 포함, 조화	◀ 심리학적 지지 근거 미약: 7개의 도덕 해부학 구성 요소 간 심리학적 관계가 불분명
Damon의 ‘도덕적 자아’ 이론, Blasi의 ‘도덕적 정체성’이론	◀ 승법적 통합: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불일치 문제의 원인과 처방 제시 ◀ 교육 효과성: 도덕적 행위 산출을 위한 자아(정체성)의 중요성에 관한 심리학적 지지근거 확보	◀ 심리학적 근거 관련, 정교화 된 연구 요청: 도덕적 자아(정체성)이 도덕적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 요청됨 ◀ 구체적인 교육적 처방이 요청됨
Rest의 ‘4-구성요소 모형’	◀ 포괄적·다차원적·승법적 통합 ◀ 심리학적 타당성 높음 ◀ 교육 효과성: 도덕적 행위 산출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심리적 과정 제시	◀ 1,3,4요소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미약 ◀ 구체적 교육적 처방 요청됨: 4개 요소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 미 개발

첫째, IEE는 Lickona의 ‘통합적 인격교육’의 장점을 얼마나 살려내고 한계점을 얼마나 극복해 내었나? IEE는 추론(인지발달), 직관(사회 및 감정학습), 덕교육, 배려공동체 등 Lickona의 통합적 인격 교육의 주요 내용요소들을 거의 모두 포괄하면서도,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의 발달이라는 승법적 통합을 통해 교육적 처방의 핵심적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Lickona의 모델이 결여하고 있는 경험 과학적 지지근거를 매우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인지과학, 사회인지이론, 뇌 과학, 진화생물학 등의 경험적 연구결과가 탄탄히 뒷받침되고 있는 IEE의 경우 그 이론적·실제적 완결성과 타당성이 높고, 이에 Lickona의 통합적 인격교육에 비해 자연스럽게 월등히 높은 도덕교육적 효과성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Berkowitz의 ‘도덕 해부학’에 비해 IEE는 어떤 비교 우위 혹은 비교 열위를 갖고 있는가? Berkowitz의 통합모델은 도덕적 인격의 다차원적 통합모델과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로부터 뒷받침되고 있다. 하지만 7개 하위 요소의 관계에 대한 해명 및 요소 간 연결과 전체적 통합을 가능케 할 과학적 지지근거를 결여하고 있어 승

346) Ibid. p.268 참고



법적 접근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IEE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도덕성의 4구성 요소별 윤리적 기술의 체화(혹은 도덕 스키마 접근)를 통한 인격(윤리적 전문성)형성이라는 명확한 심리학적 기제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IEE는 Damon의 ‘도덕적 자아’이론과 Blasi의 ‘도덕적 정체성’이론의 장점을 얼마나 갖고 있으며,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 내었나? 주지하다시피 IEE는 Kohlberg의 현상주의 가정에서 벗어나 도덕 연구 영역을 덕, 인격, 정체성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이론이다. 이른바 인격 심리학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IEE는 도덕적 자아나 정체성 형성에 관한 명확한 주제의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덕윤리의 핵심적 통찰 및 사회인지이론, 인지과학, 뇌 과학 등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덕교육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을 토대이론으로 삼아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IEE는 Rest의 기존 모형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내고 단점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는가? Narvaez는 총 28개의 윤리적 기술들을 도덕성의 4 구성요소 모형의 프레임에 토대로 배치하고 구성해냈다. 이처럼 도덕적 행동 산출에 필요한 심리적 과정인 제1~제 4요소를 활용함으로써,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인지(앎)와 행동(삶)의 일치라는 궁극적 목표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론적 장치를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을 활용한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아래와 같이 그 실효성을 검증해 내기에 이르렀다.

Narvaez는 2004년 발표한 미네소타 공동체 목소리와 인격교육 프로젝트(Community Voice and Character Education Project)에서 추진되고 적용된 IEE모형의 교육 적용 결과, 교육 대상 학생의 도덕성 향상(도덕 교육적 효과성)에 실증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의 교육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높은 수준의 참여(교실, 학급회의, 범학교 프로젝트, 교육과정 영역)를 보인 학교 151개와 낮은 수준의 참여를 보인 학교 183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이 학생의 인격적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 높은 수준의 참여를 보인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에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대부분의 교사들의 참여)를 보인 세 학교 중 도덕적 민감성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두 학교는 민감성의 척도 중 타인에 대한 관심에 매우 높은 효과를 보였다. 도덕적 전문성 모형을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실행한 학교들은 학생들의 도덕적 기능 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반면, 낮은 수준의 참여를 보인 학교는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sup>347)</sup>

위의 논의를 근거로 살펴볼 때, IEE는 기존의 통합적 도덕교육이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충분히 살리면서 단점을 상당부분 극복해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논

---

347) 김하연(2013), 「Narvaez의 도덕적 전문성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48

문이 지적인 바와 같이, Plato의 테크네 개념을 윤리적 기술에 대응시키고 있는 부분과 TET의 토대이론인 MacLean의 삼층두뇌이론의 과학적 타당성이 의심받는 문제, 다양한 과학적 지지근거를 수혈 받고 있는 도덕성에 관한 신경과학연구가 아직 초보 단계라는 점, 인지과학의 체화론이 비교적 신생이론이라는 점 등이 아직 그녀의 도덕교육 모형을 보다 정교화하고 체계화할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통합적 도덕교육이론에 대해 ‘절대적 우위’가 아닌 ‘비교 우위’에 서 있는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상향식 이론(bottom-up)의 특징을 갖는 IEE가 실제 한국 학생들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성공적 처방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한국의 연구자와 교육자들이 IEE의 본의를 잘 이해하여 우리 공동체의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본의에 부합되게 적용하려는 교육적 열정과 노력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또한 IEE의 도덕 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이를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해보는 활발한 교육 실험 연구가 요청된다.

## VI. 결론

본 연구는 학제적 접근의 맥락에서 Narvaez ‘통합적 도덕교육모형(IEE)’과 ‘삼층 윤리이론(TET)’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학제적 모델로서의 완성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차후에 도덕과 학문공동체가 보다 완성도 높은 학제적 도덕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벤치마킹의 모델로서 참고토록 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이를 통해 IEE를 실제 한국 도덕과 교육에 적용하고자 할 때의 효용과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며,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 한 형태로 수정·적용하기 위한 학문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II장에서 학제적 접근의 다섯 가지 비판준거를 설정하는 작업을 통해 본 논문의 대전제를 마련하였다. 이어 소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III장과 IV장의 논의를 통해 학제적 이론으로써 IEE와 TET의 구성과정 및 구체적 내용을 정밀하게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핵심적 결론에 해당하는 V장에서 앞서 마련한 학제적 접근의 비판 준거를 바탕으로 IEE와 TET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비판적 고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Narvaez의 IEE 및 TET가 환원주의적 접근을 취하지 않았는지 검토해 보았다. Narvaez는 기본적으로 도덕심리학자로서 도덕심리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과의 학제적 소통과 교류를 지향하여 다방면에서의 자신의 이론을 지지할 근거들을 확보하는 방식(귀추법적 논증)으로 그녀의 도덕심리학 이론을 보다 양적·질적으로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내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Narvaez의 IEE와 TET가 Wilson식의 환원주의적 접근방식(통섭)과 달리, ‘인문학적 반성을 거친 과학’, ‘과학적 사실을 녹여낸 인문학’의 양 방향적이고 자유로운 소통과정을 거친 통합모델이라고 판단하며, 이것이 바로 그녀의 도덕교육이론이 가진 최대의 강점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Narvaez가 TET와 IEE에서 환원주의적 입장을 피하여 윤리학과 심리학의 학문적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넓게는 경험과학적) 고찰’과 ‘자연화 된 윤리학’의 양방향에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측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Narvaez는 Kohlberg식 환원주의(도덕 심리에 대한 도덕철학적 고찰)대한 적극적인 반성으로 이성, 합리성, 추론(의식적 숙고), 정의(justice), 권리·의무, 개인을 강조하는 ‘최소도덕’의 협소한 가정에서 벗어나 전인적(全人的) 차원의 인격, 덕, 행복, 번영 등을 핵심 개념으로 삼는 ‘최대도덕’을 지향하는 덕윤리를 그녀의 심리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이 그녀가 제안하는 이른바 ‘도덕성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의 연구 방향이다. 그녀는 전통적 덕윤리의 핵심 개념어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냄에 있어 심리학 차원의 ‘도덕적 기능(moral functioning)’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로 고대 그리스 덕윤리의 중심 개념인 번영, 행복, 덕, 인격, 유덕자와 실천적 지식의 두 유형인 테크네, 프로네시스를 심리학의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재해석해내고 있으며, 그러한 학제적 연구의 결과물이 바로 IEE이다. 이때 사회인지적 관점을 통한 덕윤리에의 접근이란, 일차적으로 일상의 도덕성의 암묵적·함축적·자동적 특징에 주목하고, 도덕적 지식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으로서 도덕 스키마(moral schema)의 접근 가능성, 장기간에 걸친 ‘도덕적 범주(moral category)’ 활용을 도덕 교육의 방법론적 대안으로 삼는 것이다. Narvaez는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성에 접근하는 학문적 고찰의 범위를 인지과학, 신경 생물학, 뇌 과학 등으로 전 방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녀는 인지과학의 체화론, 동기화된 인지 및 윤리적 행위 산출을 위한 정서의 중요성, 동기화된 인지와 행위자와 맥락(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다양한 신경과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명제적·방법적·조건적 지식으로 구성되는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의 형성이라는 IEE의 핵심적 골간을 형성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과 ‘실천적 적용을 위한 5단계’를 구안(具案)하는 과정에 ‘도덕성에 대한 경험과학적 고찰’의 제 측면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한편 ‘자연화 된 윤리학’의 흐름에 부합하는 ‘마음챙김 도덕’은 TET의 공동체적 상상과 관여 평온이 결합된 형태로 성숙한 도덕적 기능을 완전히 발휘한 상태를 나타내는 최고의 규범 윤리적 지향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는 인지과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성립된 TET 및 긍정심리학, 마음챙김 자각 연구 등을 경험과학적 지지근거로 삼고 있다. Narvaez는 이를 과학적 근거로 확보한 후, 기독교 윤리(사랑), 불교 윤리(자비), 덕윤리 등 기존의 도덕원리와 결합하여 새로운 규범적 지향으로서 마음챙김 도덕을 제안한다. 마음챙김 도덕은 자연화 된 윤리이론의 성격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존재에서 당위를 논리적으로 직접 도출하는 연역적 논증 아닌, 귀추법적 논증을 통한 논리적 매개물 설정을 통해 기술적 주장(인간 본성에 관한 사실)과 규범적 주장을 연결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환원주의의 함정을 피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자는 학제적 이론으로서 IEE와 TET의 배경학문 및 토대이론의 다양성 측면을 검토해 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윤리학과 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규범과학과 경험 과학적 접근이 상호 대화하고 소통할 경우, 학문적 성숙과 발전에 있어 서로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며 이를 토대로 탄생한 도덕교육모형의 경우 도덕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 예상된다. Narvaez는 전통적 덕윤리를 도덕 스키마(moral schema)와 도덕적 범주(moral category)에의 접근을 통한 ‘성숙한 도덕 기능(mature moral functioning)’의 발휘라는 심리학적 독법(讀法)으로 풀어내고 있다. 한편 그녀는 이와 같은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성에 접근하는 학문적 고찰의 범위를 인지과학, 신경 생물학, 뇌 과학 등 경험과학의 제 분야로 확대시켰다. 그녀는 인지과학의 체화론, 동기화된 인지

및 윤리적 행위 산출을 위한 정서의 중요성, ‘동기화된 인지’와 행위자와 맥락(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다양한 신경과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명제적·방법적·조건적 지식으로 구성되는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의 형성이라는 IEE의 핵심적 골간을 형성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 IEE의 ‘세 가지 토대관념’과 ‘실천적 적용을 위한 5단계’를 구안(具案)하는 과정에 ‘도덕성에 대한 경험과학적 고찰’의 제 측면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학제적 연구모형인 IEE의 구성을 위해 규범과학·경험과학적 배경을 가진 다종다기(多種多岐)한 토대이론들이 상호 소통하고 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서적 뿌리를 가진 도덕적 동기를 제안하는 TET는 인지과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심리학 등의 학제적 교류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또한 마음챙김 도덕은 학제적 이론인 TET와 긍정심리학, 마음챙김 자각 연구 등을 경험 과학적 지지근거로 삼고 있다. 여기에 기독교 윤리(사랑), 불교 윤리(자비), 덕윤리 등 기존의 도덕원리를 결합하여 새로운 규범적 지향으로서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동서고금의 규범과학·경험과학적 배경을 가진 폭넓은 토대 이론들이 상호 대화하는 가운데 학제적 이론으로서 TET와 ‘마음챙김 도덕’이 탄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자는 IEE와 TET가 다양한 학문적·이론적 연구결과물들의 승법적 통합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자는 Narvaez 이러한 학제 간 핵심개념 도출 및 통합이론 구축과정에서 이른바 ‘승법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첫째, 덕윤리와 IEE의 승법적 통합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덕윤리에서는 좋은 인간 삶, 번영, 행복을 위해 형이상학적 차원의 인간 고유 기능(특히 실천적 지혜)과 덕, 인격 개념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Narvaez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인간 기능을 심리학적 도덕 기능으로 대체함으로써 도덕적 인격, 정체성, 성격 형성에 대해 실질적 교육 처방을 내릴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낼 수 있었다. 사회 인지이론에서 인격(personality)은 형이상학적 구성물이 아닌, 조직화되고 통합적이며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인지-정서적인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심리학적 차원의 인격 개념을 통한 도덕성에의 접근은 기존의 도덕심리학 연구가 ‘일상의 도덕성’의 대부분의 영역 및 정서와 직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협소한 의식적 추론에만 집중했던 한계를 극복해냈다. 도덕적 스키마에의 만성적 접근은 곧 윤리적 기술의 체화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도덕적 정체성, 인격이 형성된다. 최종적으로 인간은 도덕적 인격의 형성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좋은 삶(번영, 행복)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덕윤리의 핵심 개념들을 심리학적으로 재해석한 IEE의 핵심 개념들은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는 다른 구성 요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Narvaez는 이러한 학제적 소통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승법적 통합을 이루어 내고 있다. 둘째, 추론과 직관 및 전뇌의 조화와 관련한 승법적 통합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Narvaez는 도덕적 직관과 도

덕적 추론의 조화로운 형성을 돕기 위한 도덕교육적 처방으로 IEE를 제시하고 이를 신경생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TET를 제안했다. IEE를 구성하는 윤리적 기술과 하위 기술에는 명제적 지식을 다루는 윤리 이론과 추론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이는 성숙한 도덕적 추론 기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한편 이러한 도덕적 추론능력은 도덕적 직관 형성에 유리한 환경 제공 노력 속에서, 성인(교사)의 도움을 통해 실제 삶의 맥락 속에서 훈련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온전히 인격 속으로 체화된다. 도덕적 추론과 직관은 상호 보완적으로 성숙한 도덕적 기능 발휘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게 되며, 이런 조화로운 시너지가 발생할 때 비로소 도덕적 행동이 맥락에 맞게 자유자재로 현출되는 최고의 단계인 윤리적 전문가 될 수 있다. 두뇌 기능적으로 설명하자면, 배려적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안전 윤리는 평온한 상태가 된다. 또한 적절한 환경 속에서 윤리적 전문성 교육을 통해 도덕적 직관과 추론능력이 발달되며, 이는 곧 좌-우뇌기능의 조화로운 연합을 의미하는 ‘피질-변연계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가져온다. 이를 통해 관여 평온과 공동체적 상상이 조화를 이루는 도덕 지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상기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성숙한 도덕 기능 발휘를 위한 두뇌 기능의 전체적·조화적 활용과 추론과 직관의 조화를 통한 성숙한 도덕기능 발휘를 목적함수로 하는 IEE와 TET의 핵심 개념들은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는 다른 구성 요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Narvaez는 이러한 학제적 소통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승법적 통합을 이루어 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넷째, 논리학적 타당성과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TET 및 IEE가 질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Narvaez가 IEE와 TET의 구성을 위해 변증법적 통합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학제적 소통을 통해 전적으로 흡수하고 차용한 하위 이론들의 타당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 중 TET의 경험과학적 지지 근거이자 이론적 틀 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차용된 삼층두뇌이론은 과학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선행 논문의 지적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삼층두뇌이론을 진화생물학·신경생물학적 토대근거로 하여 성립된 Narvaez의 삼층 윤리이론 역시 그 타당성과 설명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최대한 긍정적인 시각에서 TET의 타당성에 대한 평점을 매긴다 하더라도, 삼층두뇌이론이 광범위한 진화론적 증거들에 의해 확고하게 입증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정교한 이론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토대로 성립된 메타이론인 TET 역시 두뇌 기능에 대한 비유적 관점에서의 거칠고 개략적인 차원의 설명에 기반한 실용적 가설 혹은 제안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언급하였다. 따라서 Narvaez가 앞으로 메타이론으로서 TET의 이론적 설명력과 타당성을 계속 인정받고, 그 도덕교육적 함의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자 한다면 토대이론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교하고 타당성 있는 이론으로 전환하거나 혹

은 추가적인 진화론적·신경생물학적 보충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론의 토대를 강화하고 정교화 할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Narvaez가 도덕 교육 관련 대표적 쟁점을 변증법적 통합의 논리에 의해 융합해 내고 있다는 점과 관련, 해당 논증과정의 논리학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변증법의 본질 조건이자 타당성 있는 변증법적 추론의 구성요건은 출발조건이 되는 변증법적 쟁점 명제를 진리명제로 전형(轉形)시킬 ‘진리능력 있는 작동구조’를 창출하는 데 있다. 직관과 추론, 인격윤리와 규칙윤리 등 도덕교육에 관한 대표적 쟁점에 관하여 Narvaez는 하나를 취하고 대립되는 하나를 버리는 취사선택식 접근이 아닌, 변증법적 논증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을 구성함으로써 상기의 대립 항들을 융합해 내고 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도덕적 행동 현출에 필요한 인간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도덕심리학적 전거(典據)들을 바탕으로, 실제 인간 삶 속에서 성숙한 도덕적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이론들의 진리 값들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포괄적 도덕교육 이론을 구성해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은 모두 ‘윤리적 전문성의 획득’, ‘윤리적 기술의 체화’, ‘도덕 스키마의 발달’, ‘성숙한 도덕 기능의 발달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변영’이라는 일련의 정합적인 논리 구조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변증법의 본질 조건이자 타당성 있는 변증법적 추론의 구성요건으로 출발조건이 되는 변증법적 쟁점 명제를 진리명제로 전형(轉形)시킬 ‘진리능력 있는 작동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Narvaez는 도덕 스키마로의 지속적 접근,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성숙한 도덕적 기능의 발휘, 이를 통한 윤리적 전문성의 획득 혹은 인격형성이 개인과 공동체의 변영과 행복을 가능케 한다는 ‘진리능력 있는 작동구조’를 창출해 내고 있다.

논리학적 타당성과 오류여부검토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형식논리학적 오류여부 검토를 위해 ‘마음챙김 도덕’의 자연주의 오류 여부와, 덕윤리와 IEE 핵심개념 간 호환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전자와 관련하여 TET는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의 성격을 지니며, 더 넓게는 인지과학, 신경생물학, 심리학 등의 경험 과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학제적 이론으로 도덕 현상과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자는 ‘윤리의 자연화(생물학화)’의 주요 역할을 토대로 살펴볼 때, TET는 첫째, 도덕의 기원과 도덕 현상에 대한 과학적, 진화 생물학적 설명을 제시하고 둘째, 자연과학적-생물학적 설명과 정합적인 메타 윤리학을 정립하며 셋째,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지식에 기초한 윤리적 신념의 오류를 폭로하며 넷째, 기존의 도덕 원리와 결합하여 새로운 도덕규범을 제시하고 다섯째, 특정한 도덕규범을 지지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자연과학적·생물학적 지지근거이자 증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존재에서 당위로의 직접적 도출을 의미하는 ‘연역적 논증’이 아닌, 합당한 지지근거와 규범적 주장의 관계를

찾는 ‘귀추법적 논증’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Narvaez의 ‘마음챙김 도덕성’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으로 덕윤리와 IEE 핵심개념 간 호환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와 관련한 연구자의 첫 번째 결론은 Narvaez가 Plato 철학의 테크네 개념을 자신의 윤리적 기술 개념에 끌어다가 연동시키고 동일한 개념으로 차용하고 있는 점은 유비추리의 오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Plato이 말하는 테크네와 Narvaez가 강조하는 윤리적 기술은 그 작동기제와 추구점이 본질적으로 상이하며, 단순히 행위 실천을 통해 점점 숙련된 제작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본 표면적 유사성만을 갖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유비 대상이 된 개념 간 본질적 속성이 유사할 때만 개연성이 높은 유비 논증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Plato의 심신일원론적 가정에 입각한 테크네의 활용 행위와 심신일원론적 가정을 전제하는 윤리적 기술의 체화된 인지 행위는 본질적 속성이 전혀 상이한 것이다. 따라서 Narvaez가 IEE를 소개하면서 윤리적 기술을 Plato의 ‘테크네’개념에 비유한 것은 유비 추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Aristoteles의 테크네 및 프로네시스 개념을 IEE의 윤리적 기술 및 도덕적 지혜에 빗대어 논증하는 것은 유비적 개연성(analogical plausibility)이 높다고 판단했다. 물론 Aristoteles가 기본적으로 도덕철학자로서 규범적 차원의 입론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Narvaez가 (학제적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도덕심리학자로서 과학적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는 데서 양자는 서로 상이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 접근방법론상의 차이는 상이한 학문적 방법론을 채택한 데서 기인한 것일 뿐, 공동체 내에서의 덕과 인격의 소유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현실주의적 심신 일원론적 차원에서 다가가려한다는 측면에서 양자 간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여지는 적다. 따라서 Aristoteles가 강조하는 실천적 지식의 두 종류인 테크네와 프로네시스,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 관점(심리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했다고 하는 Narvaez의 윤리적 기술과 도덕적 지혜는 일견 개연성 높은 유비 논증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융합모형’을 바탕으로 테크네와 프로네시스의 관계를 독해할 경우, 우리는 Narvaez가 테크네의 일종인 ‘윤리적 기술(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 조건적 지식을 모두 포함함)’을 체화함으로써 실천적 지혜에 해당하는 ‘도덕적 지혜’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결국 유덕자에 해당하는 윤리적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유비 논증의 전체적 윤곽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IEE의 도덕교육적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Narvaez가 체화론을 IEE 이론 구성에 핵심적으로 녹여낸 점이 도덕교육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매우 큰 함의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주지하다시피 Varela 등에 의해 강조된 ‘체화된 인지’이론은 심신일원론의 견지에서 진정한 윤리의 본질은 몸과 마



음이 모두 함께 터득하여 자연스럽게 발출되는 경향을 가진 행위와 확장성이다. 이는 도덕성에 있어서의 지행괴리의 문제를 가장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을 담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Narvaez 역시 진정한 윤리적 삶과 윤리적 행위의 실천이 심신일원론적인 체화적 접근을 통해서만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고, IEE의 핵심적 토대관념으로 도덕발달을 윤리적 기술의 체화를 통한 전문성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Narvaez는 경험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기존 심리학 연구에서의 ‘특질(trait)’ 개념을 가지고 인격교육에 접근하는 것은 이론적·실천적인 양 측면 모두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Narvaez가 집중적으로 천착한 개념이 바로 ‘기술(skill)’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격 혹은 인격 소유를 설명할 때 우리는 실증적 연구 결과에 부합되는 검정력 강한 도덕교육 모형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윤리적 기술’의 ‘체화된 인지’이며, 여기서 ‘기술’은 전체의 두뇌-마음-신체 시스템을 관여시키는 전체론적이고 맥락화 된 이해로서 체화된 인지를 형성하게 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는 도덕 교육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IEE를 기존 통합적 도덕 교육 모형과 비교해 보았다. Lickona의 통합적 인격교육, Berkowitz의 도덕해부학, Damon의 도덕적 자아이론, Blasi의 도덕적 정체성 이론, Rest의 4-구성요소 모형 등 기존의 대표적 통합적 도덕교육과 IEE의 이론적 핵심을 비교 고찰한 결과, 본 연구자는 IEE가 기존의 통합적 도덕교육이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충분히 살리면서 단점을 상당부분 극복해 낸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Plato의 테크네 개념을 윤리적 기술에 대응시키고 있는 부분(유비추리의 오류)과 TET의 토대이론인 MacLean의 ‘삼층두뇌이론’의 과학적 타당성이 의심받는 문제 그리고 다양한 과학적 지지근거를 수혈 받고 있는 도덕성에 관한 신경과학연구가 아직 초보 단계라는 점, 인지과학의 체화론이 비교적 신생이론이라는 점 등이 아직 그녀의 도덕교육 모형을 보다 정교화하고 체계화할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통합적 도덕교육이론에 대해 ‘절대적 우위’가 아닌 ‘비교 우위’에 서 있는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상향식 이론(bottom-up)의 특징을 갖는 IEE가 실제 한국 학생들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성공적 처방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한국의 연구자와 교육자들이 IEE의 본의를 잘 이해하여 우리 공동체의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본의에 부합되게 적용하려는 교육적 열정과 노력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또한 IEE의 도덕 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이를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해보는 활발한 교육 실험 연구가 요청된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1) 단행본

- 강영희(2008), 『생명과학대사전』, 서울: 아카데미 서적
- 곽호완 외(2008), 『실험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시그마프레스
- 교육부(1992), 『도덕과 교육과정』, 고시 제1992-11호
- 교육부(1992), 『제 6차 도덕과 교육과정』, 고시 제1992-11호
- 교육부(1997), 『도덕과 교육과정』, 고시 제1997-15호
- 권석만(2009),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진(2003), 『퀴즈스와 존재사유-자연철학과 존재론의 문제들』, 서울: 문예출판사
- 김병환(2017),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서울: 새문사
- 남궁달화(1995), 『Kohlberg의 도덕교육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류명걸(2003), 『일반 논리학』, 『서양철학일반』 파주: 형설출판사
- 박정하 외(2002), 『대학인을 위한 논술 이론편』, 서울: 세종서적
- 박찬구(2006),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서울: 서광사
- 박찬욱 외(2009),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서울: 운주사
- 박찬욱 외(2012),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서울: 운주사
- 신현기 외(2012), 『경찰학 사전』, 파주: 법문사
- 유권종 외(2009), 『유교적 마음모델과 예 교육』,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남인(2015), 『통섭을 넘어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동귀(2016), 『너 이런 심리법칙 알아?』, 서울: 21세기 북스
- 이우주(2012), 『이우주 의학사전』, 파주: 군자출판사
- 이철수 외(2009), 『사회복지학 사전』, 서울 : Blue Fish
- 정창우(2009),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 정창우(2013),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서울: 울력
- 정창우(2015),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차우규 외(2005), 『새로운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정립, 연구자료 ORM 2005-28』, 서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추병완(2004), 『도덕 교육의 이해』, 서울: 백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연구보고』, CRC2005-8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2013), 『도덕윤리과교육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2) 논 문

- 강두호(2012), 「도덕 교과서의 성격과 목표에 대한 논고」, 『윤리연구』, 86권 0호
- 강선보, 장지원(2009), 「Plato 후기철학에 대한 성인 교육적 고찰-테크네와 장인 개념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제35집
- 김민지(2014), 「마음챙김의 도덕교육적 함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창, 이정렬(2016), 「도덕에 관한 신경과학 연구와 도덕교육」, 『윤리교육연구』, 제42집
- 김석완(2010), 「소크라테스의 논박술과 Plato의 방법론」, 『교육철학』, 제48집
- 김성진(1995), 「Plato의 기술철학과 국가론」, 『철학과 현실』, 제24호
- 김철호(2012), 「마음챙김 명상의 도덕·인성 교육적 의미와 적용방안」, 『윤리연구』, 제100호
- 김하연(2013), 「Narvaez의 도덕적 전문성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영란(2015a), 「도덕적 정서의 근원과 발달에 대한 신경과학적 이해와 덕윤리」, 『철학논총』, 제79집, 제1권
- 노영란(2015b), 「Greene의 이중과정이론의 규범적 함의에 대한 고찰」, 『범한철학』, 제79집
- 류지한(2008), 「사회생물학과 윤리학의 통섭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리연구』, 제85호
- 류지한(2015), 「윤리의 생물학화: 자연주의적 오류와 반자연주의적 오류를 넘어서」, 『윤리연구』, 제103호
- 문경호, 김국현(2015),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개정의 변화와 쟁점」, 『윤리교육연구』, 제37집
- 문미희(2006),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의식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Rest의 도덕성의 4구성요소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20권 제2호
- 박병기 외(201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연구 I: 도덕적 동기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성현(2007), 「위빠사나 명상, 마음챙김, 그리고 마음챙김을 근거로 한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제7권 제2호
- 박장호(2012a), 「Neo-Kohlberg학파의 새로운 지평: D-나르바에즈의 신경생물학(I)」, 『인문학논총』, 제 28집
- 박장호(2012b), 「Neo-Kohlberg 학파의 새로운 지평: D. 나르바이즈의 신경생물학 II」, 『인문학 논총』, 제29집
- 박장호(2012c), 「신경과학의 도덕적 직관이해와 도덕교육」, 『윤리교육연구』, 제29집
- 박장호(2016), 「D.나르바이즈의 초기 도덕교육 모형」, 『윤리교육연구』
- 서미옥(2005), 「4구성요소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도덕발달 연구의 지향점」, 『중등교

- 육연구』, 제53집 제2권
- 서미옥(2007), 「대학생의 도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4구성요소의 경로분석」, 『교육학연구』, 제45집 제3권
- 신동의(2011), 「구성주의 생물학에서 바라본 “사랑의 윤리”」, 『윤리연구』, 제82호
- 심광현(2014), 「오토포이시스, 어포던스, 미메시스-환경과 인간의 인지적 상호작용의 복잡성 해명을 위한 밑그림」, 『인지과학』, 제25권 제4호
- 오재호(2015), 「신경과학과 규범윤리학의 관련성 연구」, 『철학논총』, 제79집 제1권
- 유권중(2010), 「노하우로서의 윤리: 프란시스코 Varela의 인지과학과 동양철학 연구」, 『동양철학』, 제34호
- 유권중(2011), 「Varela의 『윤리적 노하우』와 유교 연구」, 『한국학논집』, 제42집
- 이기홍(2015), 「체화인지 기반 통합형 인지계 모델에 관한 예비적 고찰-인지계의 구조에 관한 한 연구」, 『대동철학』, 제70집
- 이인재 외(201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연구 I: 도덕적 품성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영식 외(2012),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및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종희, 홍성훈(2014), 「청소년의 도덕성 측정 연구-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33집
- 석자춘, 정창우(2017), 「Narvaez 통합적 윤리교육모형을 활용한 도덕교육 개선방향」, 『도덕윤리과 교육』, 제54호
- 정창우(2008), 「도덕과 교육에서 시민교육 영역의 교육내용과 지도 방법」, 『도덕윤리과 교육』, 제26호
- 정창우(2011a), 「도덕과의 정당성 및 정체성 연구」, 『윤리연구』 제82호
- 정창우(2011b), 「도덕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도덕교육적 함의」, 『초등도덕교육』 제37호
- 정창우(2011c), 「도덕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도덕교육적 함의-헤이트의 뇌과학 연구를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제37집
- 정창우(2012), 「Narvaez(D.Narvaez) 도덕발달 이론의 특성과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제37호.
- 정창우(2016), 「인성교육의 체화적 접근과 실천 방안」,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제25권 제1호
- 조흥만(2011), 「Plato 『향연』의 에뤼시마코스의 연설에서 에로스와 테크네」, 『동서철학연구』, 제62권 0호
- 안수현(2008), 「이성, 정서, 느낌의 관계-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신체화된 마음”이론을 중심으로」, 『동서사상』, 제5집

- 윤병오(2011),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과 덕목의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 교육』, 제33호
- 이정렬(2013), 「체화된 마음의 가능성과 도덕교육적 의의-A.Damasio의 ‘체화된 마음’ 개념을 중심으로-」, 『윤리 연구』, 제88호
- 최창욱 외(201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추병완(2013), 「도덕 교과에서의 행복교육: 긍정심리학과 긍정교육의 시사점」, 『도덕윤리과 교육』, 제40호
- 추병완(2016), 「나바에즈의 신경도덕교육 이론에 대한 평가」, 『초등도덕교육』, 제51집
- 홍은숙(2008),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 논의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찰」, 『윤리교육연구』, 제16집 16
- 홍윤경(2012), 「실천적 지식의 두 가지 유형에 관한 고찰: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47집
- 홍윤기(2002), 「변증법의 타당성 근거의 재정립-사회화용론을 통한 진리이론적 변증법 파악」, 『철학』, 제70호
- 황인표(2015), 「2015년 도덕과 교육과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성찰」, 『도덕윤리과 교육』, 제 48호

## 2. 국외문헌

### (1) 단행본 및 번역서

- Aristotle, 강상진 외 역(2004), 『Aristotle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F. J. Varela & E. Thomson & E. Rosch, 석봉래 역(1997), 『인지과학의 철학적 이해』, 서울: 옥토
- F. J. Varela, 유권중, 박충식 역(2009), 『윤리적 노하우』, 서울: 갈무리
- D. K. Lapsley & F. C. Power, 정창우 역(2008),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서울: 인간사랑
- H. R. Maturana & F. J. Varela, 최호영 역(2007), 『삶의 나무』, 서울: 갈무리
- L. Kohlberg, 김민남, 김봉소, 진미숙 역(2000), 『도덕발달의 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 L. Kohlberg, 김민남, 김봉소, 진미숙 역(2000), 『도덕발달의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Plato, 박종현 역주(2003), 『Plato의 네 대화편: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파주: 서광사
- Plato, 박종현 역주(2006), 『국가』, 파주: 서광사

- Plato, 박종현 역주(2009), 『법률』, 과주: 서광사
- R. Barrow, 정창우 역(2013), 『도덕철학과 도덕교육』, 서울: 울력
- W. M. Kurtines & J. L. Gewirtz, 문용린 역(2004),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 다치바나 다키시, 이규원 역(2004), 『뇌를 단련하다』, 서울: 청어람미디어

## (2) 논 문

- Bargh, J. A. & Chartrand, T. L.(1999), “The unbearable Automaticity of Being”, *American Psychologist*, V. 54, No.7
- Dreyfus, H. L. & Dreyfus, S. E.(1991), “Toward a phenomenology of ethical expertise”, *Human studies*, V.14, No.4
- Moll, G. et al.(2005), The neural basis of human moral cognition, *Nature reviews-Neuroscience*, V.6
- Narvaez, D.(1998), “The influence of moral schemas on reconstruction of moral narrative in English graders an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90, No.1
- Narvaez, D.(2000), “A Neo-Kohlbergian Approach to Morality Research”, *Journal of moral education*, V.29, No.4
- Narvaez, D.(2001). “Moral text comprehension: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Journal of Moral Education*, V.30, No.1
- Narvaez, D.(2002). “Moral Schemas and Tacit Judgement or How the Defining Issues Test is supported by cognitive science” *Journal of Moral Education*, V.31, No.3
- Narvaez, D.(2003), “The Neo-Kohlbergian Tradition and Beyond: Shamas, Expertise and Character”,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51, No.43
- Lapsley, D. & Narvaez D.(2004),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the Moral Personality”, in D. K. Lapsley & D. Narvaez (Eds.), *Moral development, self and identity*, Mahwah, NJ: Erlbaum
- Narvaez, D.(2005),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hapter 26
- Narvaez, D. & Lapsley, D.(2005),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everyday morality and moral expertise”, In D. Lapsley & C. Power (eds.),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pp. 140 - 165).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Narvaez, D.(2007), “Triune ethics: The Neurobiological roots of our multiple moralities”, *New ideas in psychology*, V.26
- Narvaez, D. & Vaydich, L. J.(2008),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ur under the spotlight of the neurobiological scienc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V.37, No.3
- Narvaez, D.(2008),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A Developmental Model”, Moral Psychology Laboratory Guidebook Version 2.1,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Narvaez, D. & Lapsely, D. K.(2009), “Moral identity, moral functioning,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V.50
- Narvaez, D.(2010b), “Moral complexity: The fatal attraction of truthiness and the importance of mature functioning”,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5, No.2
- Narvaez, D.(2012), “Moral Neuroeducation from Early Life Through the Lifespan”, *Neuroethics*, V.5, No.2
- Narvaez, D. & Bock, T.(2014), “Developing ethical expertise and moral personalities”, For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edited by Larry Nucci, Darcia Narvaez & Tobias Krettenauer (New York, Routledge)
- Narvaez, D.(2014), “Neurobiology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morality: evolution, culture, and wisdom”, New York: W.W.Norton & Company.
- Varela, F.(1999), “ Ethical know-how: Action, wisdom, and cogn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ABSTRACT

# A Critical Review on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Model(IEE)’

– focusing on the Narvaez’s  
interdisciplinary approach

Oh, Youji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views the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Model(IEE)’ and ‘Triune Ethics Theory(TET)’ critically in terms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is allows us to recognize utility and limitations of IEE, and benchmark the IEE for designing Korean interdisciplinary ethics education model. This study can also provide instructions as well as necessity of IEE when we adapt this model to ethics education in the Korean school settings. To achieve these goals, I establish the major premise by setting up five criteria to criticize interdisciplinary moral education model. Next, I reconstruct the process of formulating IEE and TET through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among various normative-sciences and empirical-sciences. Finally, I review the IEE and TET critically based on the five criteria. The summary of the critical review is as follows.

First, I examine whether Narvaez rejects reductionism. As a moral psychologist, she has attempted to make her theory well-substantiated and more profound through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She has offered various



supporting evidences by using abduction. In other words, she recognize the boundary and limitation of each study clearly while trying to communicate interdisciplinary in terms of both 'empirical-scientific review on morality' and 'naturalized ethics.' I verify that Narvaez reject the reductionism by presenting concrete reasons.

Second, I examine the diversity of the foundation theories. Through IEE, Narvaez translates traditional virtue ethics into psychological terms, such as 'chronic access to the moral schema' and 'mature moral functioning.' Furthermore, she expands the scope of academic review to all branches involving cognitive science, neurobiology, brain science and so on. Therefore, we can make a conclusion that there has been plentiful mutual communication among diverse sub theories for constructing IEE. Moreover, TET, which supposes triune moral motivation with different neurobiological roots, is constructed through interdisciplinary exchange involving cognitive science, evolutionary biology, brain science and psychology. In addition, 'mindfulness morality' has multiple supporting sub-theories including 'positive psychology,' 'mindfulness self-awareness study.' It was suggested as a normative orientation by converging existing moral principles such as Christian ethics, Buddhist ethics and virtue ethics. In brief, I confirm that there are abundant mutual exchanges among various theories in all ages and countries, to formulate IEE, TET and mindfulness morality.

Third, I check whether multiplicative approach was taken. Narvaez takes the multiplicative approach in the process of creating interdisciplinary theory. To support this, I demonstrate IEE's essential component parts, (i.e., 'making good use of whole brain for displaying ethical expertise' and 'pursuing the harmony between reasoning and intuition') are closely interrelated to each other. Thus one element entail the other necessarily.

Fourth, I review logical validity, errors and fallacy. Regarding the validity of sub theories, the existing research indicated that 'the triune brine theory' is now faced with significant scientific criticism. With regard to integrating representative issues in ethics education, for example, 'intuition or reasoning' and 'character

ethics or rule ethics,' Narvaez usually uses a dialectic. In this regard, I also consider logical validity of the dialectic. Narvaez asserts that if each individual acquires ethical expertise, both individual and community will flourish due to 'chronic access to the moral schema' and 'embodiment of ethical skills.' In the formation process of integrative theory, she creates the operating structure which has a power to discover truth values as logical configuration requirements for the valid dialectic reasoning. Subsequently, regarding formal logical fallacy, I examine whether 'mindfulness morality' committed the naturalistic fallacy. 'Mindfulness morality' never uses deduction which means direct drawing from 'is' to 'ought'. However, it basically uses abduction that secures empirical scientific foundations to support hypothetical-normative argument. In conclusion, 'mindfulness morality' never commits the naturalistic fallacy. Next, I review the possibility of analogy fallacy between core concepts of virtue ethics and IEE. It is my first conclusion that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of committing analogy fallacy being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Plato's 'techne' with IEE's 'ethical skills.' The two has an ostensible similarity in terms of acquiring professional production technique gradually by behavior practices. However, they are different essentially in the operating mechanism and the final purpose because of differences in key assumptions. To put it concretely, the former implies 'dualism' while the latter premises 'monism.' However, in all probability she is successful in drawing an analogy between Aristotle's 'techne,' 'phronesis' and IEE's 'ethical skills,' 'moral wisdom.' Surely, as a moral philosopher, Aristotle develops the normative argument while Narvaez, as a moral psychologist, develops the social-scientific diagnosis and prescription. These differences, however, just have come from choosing different academic methodologies.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because both try to possess virtue and good character in community, in terms of realistic and monistic approach.

Finally, I review moral educative effects of IEE. Above all, about moral educative effectiveness, it is most meaningful that Narvaez chose to 'embodied mind theory' as a significant sub theory. Next, about moral educative effects, I

compared IEE to a variety of existing integrative moral education models. I compare IEE to representative integrative moral education models like Lickona's 'integrative character education', Berkowitz's 'moral anatomy', Damon's 'moral self theory', Blasi's 'moral identity theory' and Rest's '4-component model'. I find that IEE overcomes the shortcomings and takes advantage of such theories.

In short, regarding IEE's theoretical weaknesses, I pointed out the following aspects. First, Narvaez analogizes ethical skills from Plato's *techne*, but it is a kind of analogy fallacy. Second, as a TET's sub theory, 'triune brain theory' lacks the scientific validity. Third, neurobiological theories about morality show a level of immaturity. Fourth, 'the embodied mind theory' in cognitive science is a relatively new born theory. Therefore, still this theory needs to be elaborated and should be modified precisely. Because IEE is not only 'top-down theory' but also 'bottom-up theory,' it depends on educators' passion and efforts to make IEE successful in the real Korean school context. Thus, continuous and active experimental studies are needed to examine moral effectiveness of IEE.

**Key words:** ethics education, IEE, TET, interdisciplinary approach, ethical skills, embodied mind, ethical expertise

**Student number:** 2013-21397